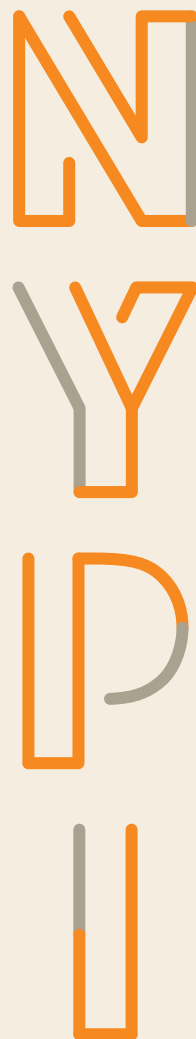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김경준 김정숙 윤철경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저 자 김경준, 김정숙, 윤철경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_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구보조원_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 또는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5년부터 연차별로 주요 대륙별·국가별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2020년에는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의 동포청소년을 위한 성장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특성과 환경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제3문화아이들(third culture kids) 혹은 교차문화아이들(cross-cultural kids) 이론을 연구의 틀로 적용하였으며, 주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질적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2020년 6~7월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별로 150명씩, 총 9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특성과 성장 환경,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한인공동체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질적조사에서는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9~18세의 재외동포청소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과거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20대 청년 집단 등 3개

집단, 총 50명을 대상으로 각각 3차례에 걸친 면담조사(서면조사 병행)를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질적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재외동포전문가 및 동남아 관련학과 교수집단, 전 동남아 한국국제학교 교장 집단, 재외공관 및 현지 한글학교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를 통하여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그리고 30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개발·제안하였다.

주제어 :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미래 인재, 인적자원, 성장, 한민족 정체성, 생태학, 생태학적 체계이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제3문화아이들(third culture kids), 교차문화아이들(cross-cultural kids), 동남아시아, 동남아 동포청소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미래 인재 또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대륙별·국가별로 연구를 수행해 왔음.
- 2015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첫해에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2차 년도부터는 동포청소년 규모와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륙별·국가별로 연구를 실시하였음. 2016년에는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그리고 2017년에는 CIS 지역 동포청소년과 남미 국가 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2018년도부터 3년 동안 추가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8년에는 유럽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2019년에는 오세아니아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그리고 금년도인 2020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금년도에 연구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들이 위치한 곳으로,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특히, 동포청소년의 규모와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6개국을 중심으로 하였음.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친화적인 성장 환경을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동포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재외동

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음.

2. 주요 연구방법

- 이 연구에서는 2019년 연구에서 분석틀로 사용했던 생태학적 접근 방법에 제3문화아이들(third culture kids) 또는 교차문화아이들(cross-cultural kids) 이론을 적용하여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였음. 따라서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제3문화아이들(third culture kids) 혹은 교차문화아이들(cross-cultural kids)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음. 또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파악과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음.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특성과 성장 환경,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한인 공동체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6~7월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동포청소년 각 국가별로 150명씩, 총 9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질적조사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9~18세의 재외동포청소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과거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20대 청년 집단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3차례에 걸친 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정책과제는 재외동포전문가 및 동남아 관련학과 교수집단, 전 동남아 한국국제학교 교장 집단, 재외공관 및 현지 한글학교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문조사를 통해 과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아울러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책 협의,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음.

3. 주요 연구결과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동남아 동포청소년 특성 :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거주국에서 오래 살수록, 그리고 한국국제학교 학생보다는 현지 또는 국제학교 학생들일수록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동남아 국가 내에서 한류 확산을 위해 거주국 시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정작 이들 동포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 정체성 : 동포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 혼란은 대부분의 대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만이 이중 정체성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음.
- 거주국 언어나 거주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 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 언어나 거주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거주국에서의 적응과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미래에 대학이나 직업 등 동포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조사 결과, 거주국 언어에 대해서 약 10명 중 3명 이상이 관심이 있었고,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해서 약 10명 중 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은 잘한다는 응답이 약 10명 중 2.5명으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나 학습 욕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또한 거주국 문화에 대한 수용 의사는 과반수 정도(53.9%)로 나타났으나, 약 10명 중 4명 정도만이 거주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동의하고(평균 4.34점), 한국과 관련한 일을 하고(평균 3.64점),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평균 3.62점)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았으나, 거주국 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평균 2.70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과반수이상(57.2%)이 동의하고 있었으나 거주국에서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23.2%만이 동의하였음.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약 10명 중 7명 정도가 한국대학을, 약 2명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약 1명은 해외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의 개설 : 동남아시아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의 개설은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한글학교에 다니는 응답자(현지 학교 또는 국제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6개국의 한국어수업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20% 정도가 한국어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77.3%, 필리핀 35.7%, 베트남 34.2%, 태국 31.2%, 말레이시아 5.2%, 인도네시아 5.2% 등으로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였음.
- 한국에 대한 인식과 교류프로그램 참여 욕구와 경험 :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한국 방문, 한국에서의 학업, 한국에서의 취업,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요구에 비해서 한국 방문 기회,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청소년캠프 및 프로그램 참여는 약 10명 중 3명만이 경험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참여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35.1%인데 비해,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29.9%, 현지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20.8%로 나타남.

- 동포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지원 욕구 : 현재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공공 / 교육시설의 부족, 한국어 / 한국 문화 / 한국사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지원, 한국 물품 지원, 한국문화 / 역사 체험 기회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 :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성별, 학교급, 학교유형, 거주이유, 나의 정체성, 한인 친구 교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한국어에 대한 관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2(약점) 변인들의 영향력이 확인됨. 따라서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인 친구들과의 교류의 활성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확장된 세계관, 다문화 수용성 등 교차문화청소년의 긍정적 특성을 확대하고, 고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깊이 있는 관계 형성 부족 등 부정적 특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국제학교 및 현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차문화청소년 특성 2(약점)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차문화청소년의 약점 요인을 줄이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영향 요인 :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성별, 나의 정체성, 한국문화 교류 경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2(약점), 거주국언어 관심 및 학습욕구, 거주국문화

이해 및 수용, 한민족정체성 변인 등이 영향을 주었음. 특히,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등은 한민족정체성 뿐만 아니라 한국 /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어 한국 관련 참여 의욕을 높이고 교차문화청소년의 긍정적 특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학교 학생과 현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교차문화청소년의 부정적 특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한국국제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현지 /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거주국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지 /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거주국언어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부모들의 한국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질적조사 분석 결과

- 동남아 6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 10대에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분석 및 성인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청소년 면담 분석 결과

- 동포청소년의 특성 : 한국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넓은 세계관과 유연한 사고, 유창한 언어능력을 갖게 되는 등 긍정적 특성을 보여준 반면 고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나태한 학습태도를 보이거나

적응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정체성 : 현재 동남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역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한국인으로 인식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일시 귀국하거나 한국인을 만났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음.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형성하지는 못했으나, 스스로 제3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 동포청소년의 가정, 학교, 주거지 등 생활환경 : 동포청소년을 둘러싼 생활 환경 중 가정은 한국어 사용을 독려하고 한글학교에 보내는 등 한국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음. 이들의 친구관계는 한국국제학교 / 한글학교 vs. 국제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한국국제 학교와 국제학교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국제학교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어 국제학교로서의 특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어, 현지어, 영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국제학교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립 국가의 문화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학교생활 초기에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모의 직장과 후원기관은 동포청소년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동포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거주국 내 형성된 한인들의 집단거주지가 일정 부분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거주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특성이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진로 환경 :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등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현실적으로 거주국에서 진로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원 등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 한국 및 거주국에 대한 인식과 교류 기회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에게는 한국문화와 한인청소년들 간 교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동포청소년들에게 거주국에서의 삶은 한국과 거주국 사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류의 확산으로 거주국인들이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중 일부는 거주국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한국의 경쟁적 입시 문화나 사회문제로 인해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함. 한편 동포 청소년들은 이주 초기 거주국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 부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거주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거주국 현지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지어를 배우는 데 소극적인 경우도 많음. 또한 동남아 국가와 동남아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일반 한국인들의 이해와 정보 부족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청소년들의 미래 진로개발과 문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한국역사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세계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거주국에서의 적응 및 거주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 지원, 한글학교 지원, 한국 대학 진학 시 적응 지원을 희망하였음.

(2) 2대 청년 대상 생애사 연구

- 이주 목적 및 적응 : 생애사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부모의 직업 또는 유학 목적으로 동남아 6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주 후 동거인이 누구인가(가족 전체 또는 형제자매, 친척, 현지 가디언)에 따라 초기 적응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었음. 이주 후 이들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자 사건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었음.
- 교류 대상 및 거주국 문화 이해 : 청년들이 거주국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교류한 사람들은 한인이었음. 일부 국가에서는 한인들만의 제한된 교류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남아에서 현지인들 또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 교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함. 그리고 이들의 현지어 구사 수준이나 거주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거주국 사회와 현지인에 대한 부모의 관점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동남아 체류 경험의 장점과 어려움 : 청년들에게 동남아 체류 경험은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고, 스스로 계획하고 생활하는 능력,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음. 반면, 이들은 오랜 시간 거주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위계적, 서열적 조직문화와 인간 관계에 낯설어 하고 정서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이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한국인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거주국 문화에도 영향을 받은 제3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 20대 청년들은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거주지 지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교육,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동남아 체류 유경험자들을 우수 인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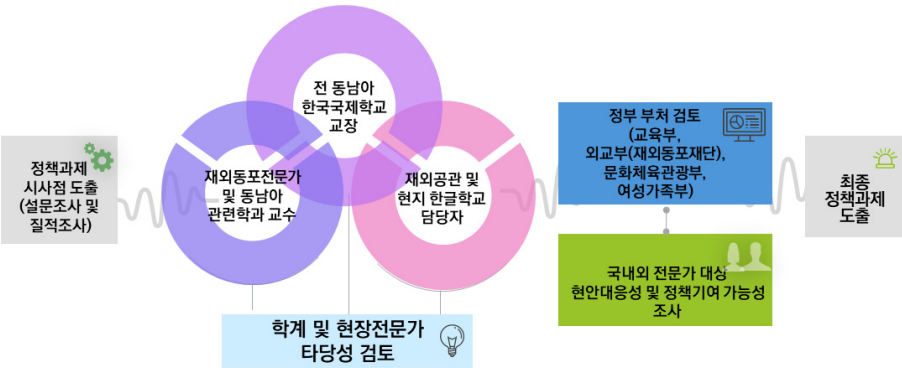
(3) 성인전문가 면담 분석 결과

- 거주국의 특성과 거주 여건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부모 직업 외에 유학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음. 고교 졸업 후 동포청소년들은 주로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만 영미권 대학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권 대학 진학자도 일부 있었음. 이들이 한국대학이나 영미권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은 현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현지에서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거나 거주국에서의 거주 여건의 열악함에 기인함.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이들 동포청소년들을 향후 거주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학 졸업 후 현지 또는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임.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생활환경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생태체계 중 가정, 학교, 또래관계는 이들의 한국과 거주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심리·정서적 상태, 교차문화 청소년(또는 제3문화 청소년)으로서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가정과 학교 간 교류, 학교와 한인사회 또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부분적으로 활발한 반면, 가정과 한인 커뮤니티 또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거주국 내 한인회의 활성화 정도, 부모의 한인사회 및 현지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성인전문가들은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한국 모국 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현지 한국관련 기관들의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자문화 중심주의 극복 및 현지인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한글 학교 지원, 한국국제학교 교육과정 개선, 한국국제학교의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한국 대학진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신남방정책에

동남아 동포청소년 출신 인재 활용 방안 마련, 다문화가정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4. 정책제언

설문 및 질적조사 결과 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안) 도출, 학계 및 현장전문가 타당성 검토, 관련 정부 부처 검토,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등 크게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목표, 정책방향,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1)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정책 목표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한국과 거주국, 그리고 제3국에서도 한인의 후예로서 자신은 물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2) 정책방향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정하였음.

정책 방향	1. 재외국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재외한국학교 재학생 이외에 국제학교 재학생과 현지학교 재학생을 포괄한다.
	2. 성장 환경 조성과 한국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과 체험활동을 포함한다.
	3. 재외동포청소년의 가정과 학교, 한글학교, 그리고 거주국 동포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및 세계 동포사회까지를 포괄한다.
	4. 교육부와 외교부(재외동포재단)를 중심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3) 정책과제

- 8개 영역별로 3~6개,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정책과제 영역 1 : 동포청소년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 | |
|--|
| 1.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
| 2. 거주국 내 한국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한국문화 지원 확대 |
| 3. 지자체 및 NGO 단체별 한국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확대 |

- 정책과제 영역 2 : 거주국 문화 이해 지원

- | |
|-------------------------------------|
| 1. 거주국사회에서의 문화 적응을 위한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운영 |
| 2. 거주국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 3. 아세안-한인동포청소년 상호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정책과제 영역 3 : 한글학교 운영 환경 개선 및 사업 확대

-
1.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2. 한국문화체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
 3. 한글학교 교사의 모국연수 기회 확대
 4. 한글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사업(캠프) 발굴·운영 지원
-

● 정책과제 영역 4 : 한국국제학교의 진로 지원 및 역할 강화

-
1.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2.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 등의 지원
 3.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기관으로서의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
 4.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

● 정책과제 영역 5 :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
1. 현지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한국어수업 확대
 2. 가정 학습용 한글교육 보조교재 정보 제공
 3.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

● 정책과제 영역 6 :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
1. 동남아 동포기관 주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지원
 2.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계 청소년캠프 개최
 3. 청소년단체를 활용한 세계 및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정책과제 영역 7 :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
1. 방학 중 한국 방문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2.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3.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주거시설
 4.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거주국 내 예비학교 운영
 5.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남아지역 진로정보 제공
 6. 동남아 인재 활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
-

● 정책과제 영역 8 :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문화 개선

-
1. 동남아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2. 한국 및 동남아국가 간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한 교류기회 제공
 3.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4.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 20-R07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8
- 3. 연구의 방법 10
- 4. 연구추진체계 13

II. 이론적 배경

- 1. 국가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의 의미 17
- 2.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 24
-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26
- 4.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접근 방법 34

Ⅲ. 한국 관련 동남아시아의 경제·사회지표와 동포청소년 및 관련 기관 현황

1. 한국 관련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55
2.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동포 현황 62
3.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동포단체 및 교육기관 현황 72

Ⅳ.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79
2. 질적조사 개요 91

Ⅴ.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103
2.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정체성 114
3. 한국과 거주국에 대한 관심과 태도 121
4.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주변 환경 131
5.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교육·문화·교류 여건 152
6.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타문화 수용 163
7. 한국 문화 경험과 욕구 및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168
8.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동포청소년의 역할 및 자원방안 174
9.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및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2
10. 소결 194

Ⅵ.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동남아시아 체류 경험 청년 및 성인전문가 질적 조사 분석

1.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분석 결과 201
2. 동남아시아 체류 경험 청년들의 생애사 분석 결과 229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성인전문가 면담조사
 분석 결과 254
4. 소결 296

Ⅶ. 정책 제언

1.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절차	303
2.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정책 목표와 방향	311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313
4.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	385

참고문헌	393
-------------------	------------

부 록	411
------------------	------------

1. 설문조사지	413
2. 면담조사지	424
3.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437

ABSTRACT	443
-----------------------	------------

표 목차

표 II-1 동남아시아 한국교육원의 동포청소년 관련 사업	28
표 II-2 ODA 대상 동남아 국가 장기 교사 파견	30
표 II-3 한국어교원의 현지 정규학교 파견	30
표 II-4 재외동포재단의 동남아 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32
표 II-5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특징 비교	38
표 II-6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장점과 어려움	40
표 III-1 한국의 주요 국가의 교역 현황	55
표 III-2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교역 현황	57
표 III-3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동향	58
표 III-4 한국의 각 지역 인프라 수주현황	58
표 III-5 한국의 대 신남방 ODA 지원 현황	60
표 III-6 한국인 대 아시안 국가별 해외여행객 현황	60
표 III-7 방한 아시안 방문자 현황	61
표 III-8 대륙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69
표 III-9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인구 현황(연도별)	70
표 III-10 동남아시아 주요국가의 재외동포 인구 현황(거주자격별)	71
표 III-11 동남아 주요 국가별 한인단체 현황	73
표 III-12 동남아시아 국가의 재외한국학교 현황	75
표 III-13 동남아시아 국가의 재외한글학교 현황	76
표 IV-1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81
표 IV-2 관련 요인의 신뢰도분석 결과	88
표 IV-3 교차문화 특성의 요인 분석 결과	89
표 IV-4 질적조사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92
표 IV-5 조사대상별 적용 질적조사 방법 및 특징	93
표 IV-6 청년 생애사 조사 참여자	94

표 IV-7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면담조사 참여자	97
표 IV-8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성인전문가 면담조사 참여자 ...	98
표 V-1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115
표 V-2 한국문화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16
표 V-3 외국어 학습능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16
표 V-4 국가 정체성(거주기간별)	118
표 V-5 한민족 정체성	120
표 V-6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거주기간별)	128
표 V-7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거주기간별)	129
표 V-8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132
표 V-9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	134
표 V-10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학교유형별)	139
표 V-11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거주기간별)	139
표 V-12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학교유형별)	141
표 V-13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거주기간별)	142
표 V-14 한국어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	144
표 V-15 고교 졸업 후 진로(학교유형별)	146
표 V-16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개설 여부	154
표 V-17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개설 여부(학교유형별) ...	155
표 V-18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수강 여부(학교유형별) ...	156
표 V-19 한인회 행사 참석(거주기간별)	158
표 V-20 한국 개최 청소년프로그램 / 캠프 참여 경험(학교유형별) ..	161
표 V-21 한국 개최 청소년프로그램 / 캠프 참여 경험(거주기간별) ..	162
표 V-22 한인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홍보 노력(거주기간별)	165
표 V-23 한국 문화 경험 (거주기간별)	169
표 V-24 한국 방문 경험 (거주기간별)	170
표 V-25 향후 한국 관련 욕구	172
표 V-26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175
표 V-27 동남아 동포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서술형 문항)	176
표 V-28 동남아 동포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술형 문항)	177
표 V-29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179
표 V-30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성별)	181
표 V-31 투입변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치	183
표 V-32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결정요인	186

표 V-33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	190
표 VI-1 동남아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진로	262
표 VI-2 재외동포청소년 국가별 거주 특성 및 교육 여건	268
표 VII-1 주요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 결과와 시사점	304
표 VII-2 정책 과제의 도출 및 수정	309
표 VII-3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유형(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54
표 VII-4 정책과제에 대한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분석 결과	385
표 VII-5 세부 정책과제별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상위 5순위	391

그림 목차

그림 I-1 질적조사 참여자별 조사내용	12
그림 I-2 전문가 검토,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13
그림 I-3 연도별 추진 계획	14
그림 II-1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18
그림 II-2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34
그림 II-3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유형	36
그림 II-4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	43
그림 II-5 문화적 미시체계 모델	44
그림 II-6 제3문화 아동·청소년의 인간발달 생태학 모델	46
그림 II-7 제3문화 아동·청소년의 문화환경	48
그림 IV-1 설문 개발 절차	80
그림 IV-2 생애사 연구 분석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개념	97
그림 V-1 성별	103
그림 V-2 학교유형	104
그림 V-3 학교급	105
그림 V-4 거주하게 된 이유	106
그림 V-5 거주 기간	107
그림 V-6 거주해 본 해외 국가 수	108
그림 V-7 아버지의 한국 국적 여부	109
그림 V-8 어머니의 한국 국적 여부	110
그림 V-9 아버지의 직업	111
그림 V-10 어머니의 직업	111
그림 V-11 아버지의 거주국 언어 수준	112

그림 V-12 어머니의 거주국 언어 수준	113
그림 V-13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114
그림 V-14 국가 정체성	118
그림 V-15 한민족 정체성	119
그림 V-16 한국어에 대한 관심	121
그림 V-17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	122
그림 V-18 한국어 능력(학교급)	123
그림 V-19 한국어 능력(학교유형)	124
그림 V-20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	125
그림 V-21 거주국 언어 학습 욕구	126
그림 V-22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	127
그림 V-23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	129
그림 V-24 거주국 문화 수용 의사	131
그림 V-25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	132
그림 V-26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	134
그림 V-27 부모님은 내가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136
그림 V-28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137
그림 V-29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	138
그림 V-30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141
그림 V-31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유무	144
그림 V-32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145
그림 V-33 학교 졸업 후 희망 거주 국가	147
그림 V-34 부모의 내 친구 인지	148
그림 V-35 친·인척 간의 모임	149
그림 V-36 부모의 타 한인 부모와의 만남	150
그림 V-37 부모님은 학교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	151
그림 V-38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개설 여부	152
그림 V-39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수강 여부	153
그림 V-40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개설 여부	155
그림 V-41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수강 여부	156
그림 V-42 한인회 행사 참석	157
그림 V-43 거주국에서의 캠프 및 연수 참여 경험	159
그림 V-44 한국 개최 청소년 프로그램 / 캠프 참여 경험	160
그림 V-45 한류의 확산(K-Pop, 한국드라마 등)	163
그림 V-46 한인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홍보 노력	164

그림 V-47 거주국가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166
그림 V-48 대한민국 사회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167
그림 V-49 한국 문화 경험	168
그림 V-50 한국 방문 경험	170
그림 V-51 향후 한국 관련 욕구	172
그림 V-52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173
그림 V-53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174
그림 V-54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180
그림 VI-1 동남아 체류 경험 청년들의 생애사 분석 결과	252
그림 VI-2 태국 지도	269
그림 VI-3 필리핀 지도	271
그림 VI-4 베트남 및 호치민 지도	273
그림 VI-5 싱가포르 지도	275
그림 VI-6 말레이시아 및 쿠알라룸푸르 지도	276
그림 VI-7 인도네시아 지도	278
그림 VII-1 동남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절차	304
그림 VII-2 한-베 청소년기자단	326
그림 VII-3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	326
그림 VII-4 스테디코리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글학교 온라인 수업자료(좌) 및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학습사이트(우)	345
그림 VII-5 꿈길 시스템의 주요 기능	357
그림 VII-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홈페이지	361
그림 VII-7 한국수출입은행 2020년 EDCF 청년인턴 공고 안내문 ...	361
그림 VII-8 한국외교협회에서 운영 중인 재외공무원 자녀기숙사	364
그림 VII-9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378
그림 VII-10 정책영역별 현안대응성 순위	389
그림 VII-11 정책영역별 정책기여 가능성 순위	390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 3. 연구의 방법
-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외동포는 사전적 의미로 “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²⁾를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두 법률 간에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⁴⁾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⁵⁾로 규정하고 있다.

1)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위키백과. 재외동포,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C%99%B8%ED%95%9C%EC%9D%B8>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3)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동포재단법,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4)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말한다.

5)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재외동포들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7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륙별로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가장 많은 약 329만 명인 43.9%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북미(37.2%), 유럽(9.2%), 남아시아태평양(7.9%), 중남미(1.4%)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외교부, 2019: 14). 한인들의 해외 이주는 1860년대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한말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중국,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으로 이주한 것이 시작이었고, 1945년부터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등의 입양, 미군과 결혼한 여성과 자녀의 재결합,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 미국 또는 캐나다로의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1962년부터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 등으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중동,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로의 기술이민이 증가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진출에 따른 이주와 어학연수, 은퇴이민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가 증가하였다⁷⁾.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 큰 기여를 해 왔고, 동포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거주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포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거주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통일 등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향후 보다 큰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김경준, 김정숙, 2019; 이진영, 박우, 2013; 이진영, 2014; 김재기, 2005). 한국 정부에서도 재외동포를 “모국과 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우수 재외동포 인재를 국내로 유입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에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임영상 외, 2012; 박재석 외, 2011).

6)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재외 한인의 시대별 변천),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transition.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7)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동남·서남아시아 한인),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southEastAsia.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최근 들어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이민 1세대에서 2세대 또는 3, 4세대로 교체됨에 따라서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세대 인재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재외한인을 주요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네트워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김경준, 김정숙, 20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 동포 연수초청 교류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각국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통한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상기업청년인턴십 등 재외동포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과 청년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⁸⁾.

한편, 최근 재외동포 사회는 국가별로 이민 1세대에서 2, 3세대 등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차세대들이 1세대와 같은 한민족 정체성을 갖거나 모국과의 연계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동포사회가 스스로 동포사회를 후계할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민족학교나 한글학교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동포청소년이 한국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하는데 미흡함이 많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동포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동포사회, 거주 국가 등의 다양한 환경을 한민족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대륙별, 국가별, 동포사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요구 수준 파악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8) 외교부. 재외동포정책 방향, http://www.mofa.go.kr/www/wpge/m_21512/contents.do에서 2020년 1월 23일 인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미래 인재 또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대륙별, 국가별로 연구를 실시해오고 있다. 처음 연구가 시작된 2015년도에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설정을 하였고,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소년의 이슈를 조사하였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향후 조사 국가의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조사 2차 년도부터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소년의 규모를 주요 기준으로 선정하되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중요도, 연구 인력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륙별, 국가별 연구를 실시하였다(김경준, 김태기, 2015).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2017년에는 CIS 지역 국가와 남미 국가의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3년 연속과제로 추가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8년에는 유럽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2019년에는 오세아니아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그리고 금년도인 2020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 수행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로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이나 투자 및 인프라 수주 등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한류의 확산과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별히, 아세안 10개국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6개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그 이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크게 차별화되어 있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회원국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협력이나 한류의 확산 등에서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즉,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는 저임금

노동력보다는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별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통해 산업집적지 형성 및 기술 이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생산활동을 세분화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곽성일, 2018: 5).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의 문화콘텐츠 시장의 높은 성장과 소비 증대 등에 의한 한류의 빠른 확산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의 국가 산업화를 통한 고성장으로 한류 확산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신운성, 2019.7.9: 13).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⁹⁾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세안 공동체의 의미와 아시안 중심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동남아시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대한민국을 연계할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6개국을 중심으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친화적인 성장 환경을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동포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요구수준 조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아세안 공동체는 각 회원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을 전제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통합을 이루는 것, 나아가 이러한 협력과 통합으로 개별 국가와 지역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이자 목표이며,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김형중, 최경희, 2017: 25).

2. 연구의 내용

1) 국가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과 재외동포의 역할 논의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추진과정,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미래 동포사회를 이어갈 차세대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다.

2) 한국 관련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사회지표와 재외동포 관련 기관 분석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연구의 당위성과 조사 국가의 타당성 확보의 근거가 되는 한국과의 교역현황, 투자 현황, 인프라 수주 현황, 인적교류 현황 등 아세안 공동체 및 각 국가의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한 지표를 분석하여 세계 속의 동남아시아의 위치와 한국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동포청소년 현황과 함께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환경의 하나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3)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의 발달 환경 분석

2019년도에 수행한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발달 환경을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1979, 1994)의 인간 발달의 생태학 이론에 근거하여 동포청소년의 발달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의 다섯 가지 환경체계로 분석함으로써 동포청소년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을 가장 인접한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부터 사회·역사적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김경준, 김정숙, 2019). 또한 동남아동포청소년의 경우에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일시거주자로서 이들의 특성과 환경 분석에 유용한 제3문화아이들(third culture kids) 혹은 교차문화아이들(cross-cultural kids)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4)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책 요구 분석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과 전문가, 그리고 과거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들의 동남아시아 청소년 발달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이 신남방정책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5)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개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발달 환경과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토대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였으며, 정책과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재단 등 관련 정책 부서의 검토와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를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자료조사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파악과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즉, 교육부, 재외동포재단, 재외공관 및 한국교육원 등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동포 인구와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학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고, 동포단체, 동포의 이민 역사, 정책자료 등 동포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 연구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사회지표와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관련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현황 및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 환경을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특성과 성장 환경,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한인 공동체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6~7월에 동남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 각 국가별로 150명씩, 총 9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 인구수를 추정할 수 없는 한계를 반영하여 2019년도와 동일하게 목적적 할당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학교급별(초·중·고), 성별(남·녀), 학교유형별(한국국제학교·국제학교)로 비슷한 규모가 되도록 할당하였다. 설문 조사문항은 2018년도부터 채택한 생태학적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제3문화아이들(third culture kids) 혹은 교차문화아이들(cross-cultural kids)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는 최초에 현지 출장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서 조사가 미뤄지다가 중간보고 이후에 온라인 웹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리서치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웹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국제학교에 공문,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접촉하여 조사 대상을 섭외한 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96부, 베트남 151부, 싱가포르 150부, 인도네시아 143부, 태국 92부, 필리핀 127부 등 총 759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질적조사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9~18세의 재외동포청소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과거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20대 청년 집단 등 3개 집단 총 5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서면조사 병행)를 실시하였다. 동포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 대상의 면담조사는 2020년 5월 26일~6월 17일 사이에 국가별로 5명 내외로 총 31명 대상으로 동포청소년의 현지 생활과 적응 과정, 동포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또한 20대 청년 대상의 면담조사는 2020년 5월 26일~6월 17일 사이에 각 국가별로 3~4명씩 총 19명을 대상으로 동남아 국가별 특성, 청소년기의 현지 생활 및 학교 적응 경험,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당면한 어려움,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회고적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현지 출장의 어려움으로 온라인 화상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현지 재외동포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섭외하여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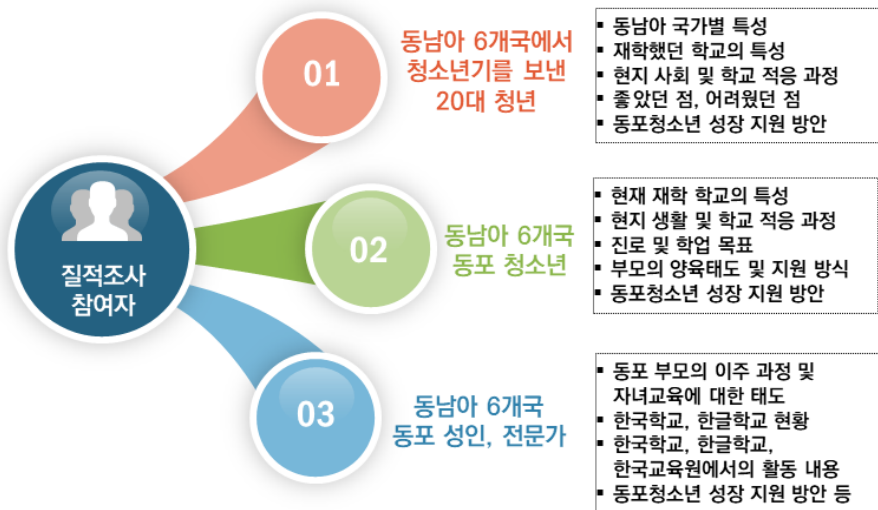


그림 1-1 질적조사 참여자별 조사내용

질적조사는 사전에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하여 개별 면담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일부는 집단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동포청소년 조사 대상에는 한국국제학교 학생, 주말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그리고 현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로는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 한국교육원 및 동포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하였다.

4) 전문가 대상의 자문과 정책 중요도 및 현안대응성 조사

본 연구의 방향과 이론적 논의, 그리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계, 현장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자문 회의와 함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과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재외동포전문가 및 동남아 관련학과 교수집단, 전 동남아 한국국제학교

교장 집단, 재외공관 및 현지 한글학교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 후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는 정책과제로 선정된 30개 과제 각각에 대해서 20명 내외의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정책의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을 측정하도록 하여 각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정도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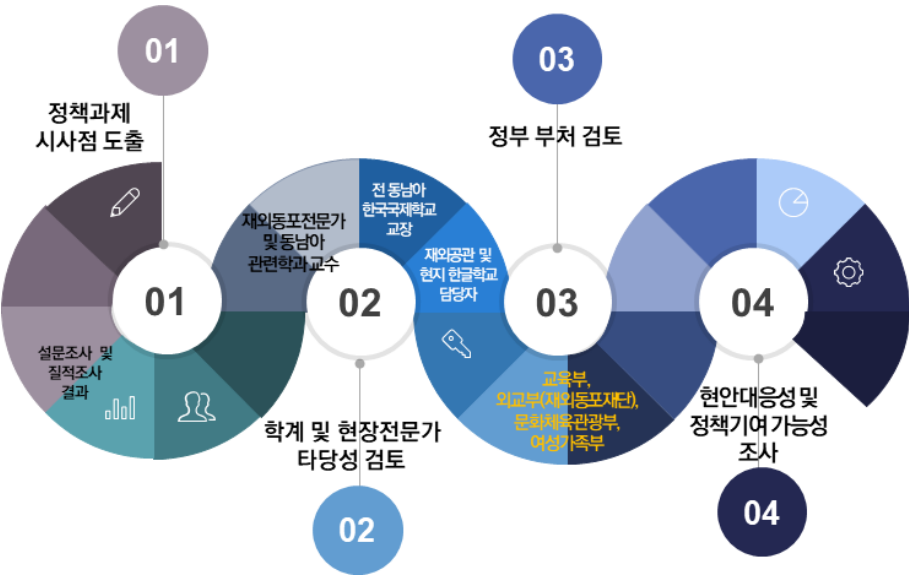


그림 1-2 전문가 검토,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4. 연구추진체계

금년도 연구는 지난 2015년부터 수행되어 온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2015년도에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16년부터는 대륙별, 국가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다음의 그림 I-3과 같다.

1차년도 (2018년)	내용	◇ 2015~2017년에 수행한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검토 및 방향 설정 · 2015년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 지역별, 국가별 우선순위 선정 · 2016년 : 중국, 미국 동포청소년 · 2017년 :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 • 설문조사, 면담조사, 해외사례 조사, 콜로키움 개최
2차년도 (2019년)	내용	◇ 연구계획 수정(대상 국가, 접근방법 등) ◇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전략 개발 · 국가별 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종합적 분석 · 미래 인적자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방법	• 문헌자료조사, 전문가자문 및 전문가포럼 • 설문조사, 면담조사
3차년도 (2020년)	내용	◇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전략 개발 · 국가별 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종합적 분석 · 미래 인적자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방법	• 문헌자료조사, 전문가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양적조사(설문조사), 질적조사 • 전문가 자문,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그림 I-3 연도별 추진 계획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국가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의 의미
- 2.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 4.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동남아시아 동포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접근 방법

1. 국가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의 의미

1) 신남방정책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는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더불어민주당, 2017: 235)한다는 공약을 담고 있다. 이에 덧붙여 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신남방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로 상품교역 중심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교류의 확대,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서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¹¹⁾¹²⁾.

10)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1) 정책위키 (2019.11.19). 신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12)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7.11.10). 문재인대통령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http://www.korea.k>

문재인 정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에 따르면, 크게 평화와 번영의 책임 공동체 형성을 구상하고 있는데,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추진하고, 번영의 축으로서 동북아를 넘어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설정하고 있다. 즉, 동북아와 주변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 내 다자 협력의 진전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번영을 위해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¹³⁾. 이 구상은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재현, 20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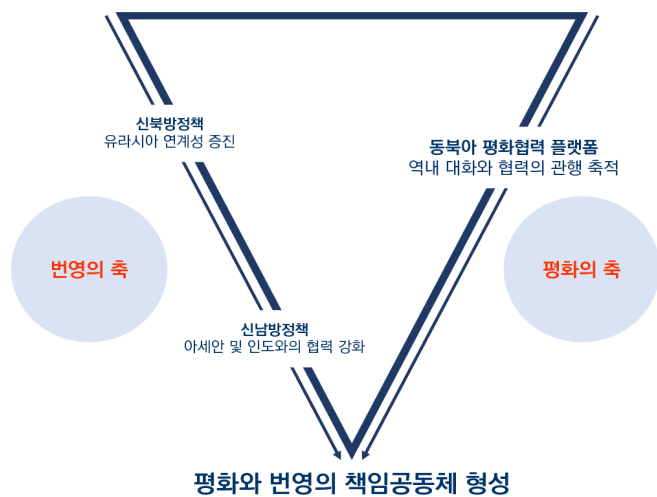


그림 II-1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 출처 :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소개,
http://www.mofa.go.kr/www/wpge/m_20373/contents.do#twitter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0292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13)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소개,
http://www.mofa.go.kr/www/wpge/m_20373/contents.do#twitter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또한 신남방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아세안, 인도의 경제성장을 도와주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신남방국가, 특히, 아세안을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의미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송요한, 2018. 4: 69). 여기에 신남방정책에서는 사람공동체(people), 상생번영공동체(prosperity), 평화공동체(peace)의 3P 공동체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아세안, 인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국가 상호간의 교류와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 삶의 질 개선 등 사람중심의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테러와 분쟁, 각종 재해 등에서의 평화적인 협력을 포괄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그리고 공동체 상생발전의 철학을 담고 있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11.8).

2) 신남방정책 수립·추진 배경과 현안과제

우리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동안 미·중·일에 대한 우리 경제의 지나친 의존도와 그로 인한 취약점 노출, 아세안 국가의 성장 가능성과 다양한 매력, 한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화와 개발 경험에 대한 요구, 한반도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대 등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첫째, 한국 경제는 전체 수출의 38.6%(2016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송요한, 2018. 4: 69). 최근 미·중 무역전쟁은 단적인 예로써 교역 상위 10개국 중 한국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 경제성장률도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⁴⁾, 정치상황과의 연계에 따라 장기화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14) 동아일보 (2019.12.14). 수출의존도 높은 한경제 숨통 트일 듯,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3/98798403/1>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을 위해서는 교역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송요한, 2018. 4: 70). 이러한 교역의 다변화의 대상이 아세안 국가라 할 수 있으며, 2018년 한-베트남 교역액은 683억 달러로 단일국가로는 전체 4위이며, 우리나라 20대 교역대상국에 아세안 6개국이 포함되어 있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둘째, 아세안지역은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7.3%의 교역량과 연평균 5%의 높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평균 연령 30세로 젊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⁵⁾.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성이 매력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즉,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노동집약적 투자가 유망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경제 트렌드에 협력하고 공동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공업과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에 포함되어(이재현, 2018: 9) 있어서 한국경제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셋째,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경험,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증가에 따라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이재현, 2018: 6-7).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유사한 조건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개발 경험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송요한, 2018. 4: 70). 결국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국제사회와 아세안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외교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넷째,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즉, 중국, 미국 등 강대국의 압력과 북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5) 정책위키 (2019.11.19). 신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되, 안보와 경제적 지원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게 함으로써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leverage) 수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이재현, 2018: 7).

하지만 이러한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과 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 및 아세안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정한 파트너십의 구축, 아세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신뢰 구축과 제도화, 정책 사업의 다양화와 질적인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나 국민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서구의 국가나 국민들에 비해서 아세안 국가나 국민들을 경시하여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기 때문에 단지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GDP나 무역규모 등에서 아세안은 과거에 비해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결속력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홍보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노력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를 위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재현, 2018: 15).

둘째, 신남방정책의 비전 제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재 신남방정책에 대한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¹⁶⁾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전략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이를 구체화

1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34&board_id=4에서 2020년 1월 29일 인출

하기 위한 세부전략과 실천과제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김영선, 2019; 우양호, 2019). 또한 “한-아세안 실행계획”¹⁷⁾에서도 정치와 안전, 경제적 협력, 사회문화적 협력, 연계성, 국제적·지역적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이 총망라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협력사업의 경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임팩트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조속히 발굴되어 충실히 실행될 필요가 있다(김영선, 2019: 3).

셋째,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신뢰 구축과 제도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의 동남아시아 대상의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듭 수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와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아세안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일관성 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최원기, 2019: 18). 특히,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적 기구를 법제화하고, 중앙부처, 지방정부, 기업과 산업계, 학계 및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제도화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우양호, 2019: 158).

넷째, 아세안 공동체와 아세안 방식(ASEAN Way)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아세안은 아세안방식에 의한 아세안 공동체를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며, 외교에 있어서도 아시안 중심성에 의한 국제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우양호, 2019; 김형중, 최경희, 2017). 즉, 아세안 방식(ASEAN Way)은 “아세안의 국내외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영향이 반영된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과 이행 방식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상대적

17) Centre for International Law(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ttps://cil.nus.edu.sg/databasecil/2016-2020-plan-of-action-to-implement-the-joint-declaration-on-asean-china-strategic-partnership-for-peace-and-prosperity/>에서 2019년 12월 31일 인출

이익을 확보하려는 협상보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김형중, 최경희, 2017: 16). 아세안 공동체는 각 회원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을 전제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통합, 나아가 이러한 협력과 통합으로 개별 국가와 지역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이자 목표이며,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김형중, 최경희, 2017: 25). 또한 아세안이 강대국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고,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아세안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¹⁸⁾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체제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을 창설하고 아·태 다자 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회의 등 국제협력 분야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우양호, 2019; 김형중, 최경희, 2017). 실제 최근 10년 동안 아세안은 중심성을 기반으로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을 이루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우양호, 2019: 164).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 중심에서 보다 사업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경제중심주의, 국익중심주의에 기반한 중상주의 국가의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박은홍, 2019: 30).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부문과 교류사업에서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제안한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4대 중점협력 분야 이외에 해양안보나 해양자원,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 청년 및 학생교류, 아세안 관련 출판물, 학술세미나 및

18) 아시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은 “아세안이 대외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리이자 운영 준칙으로 지역협력 및 공동체 건설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세안이 중심이 되고 아세안이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김형중, 최경희, 2017: 7).

강좌, 기타 문화 교류 등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우양호, 2019: 162-163). 또한 아세안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교과서 커리큘럼에 한국, 아세안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하여 교육하고, 엘리트 중심에서 일반 국민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며, 아세안이 개별이익보다 지역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센터와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서정인, 2019: 26).

2.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국제사회에서 동포네트워크의 영향력 강화와 함께 재외 한인동포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사회·문화, 남북통일,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 등의 영역에서의 역할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거주 국가 사이에서 동포들이 가교 역할을 하여 수출입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한국문화 수용 및 전파, 한반도 통일 관련 정책의사결정에서 거주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평화, 환경보호, 안전, 인권 등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진영, 박우, 2013; 백영옥, 2014; 김경준, 김태기, 2015; 김경준, 정은주, 2017).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동포들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과 청년취업, 한류의 확산, 비핵화와 평화촉진, 사람중심의 공동체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공헌을 위한 동남아 지역개발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첫째, 동남아시아에서 재외동포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의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에 있는 한인회총연합회와 한상총연합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청년 해외취업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어서¹⁹⁾ 우리 기업의 진출과 청년 취업에서의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신남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플랫폼인 한류의 확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단순히 상품 중심의 교역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투자, 기술, 문화·예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 내 한류의 확산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문화침략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신윤성, 2019: 14-15).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 내 재외동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재외동포의 비핵화와 평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아세안 헌장(제1조)에서도 아세안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강화하고 평화 지향적 가치를 강화할 것을 명시”(김형중, 최경희, 2017: 19)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아세안 국가에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가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들 간에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사람 중심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이 요청된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을 모토로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역동적인 지역협력체로 평가되고 있다(김영선, 2019: 1).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오랜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주권을 전제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통합을 이루는 것, 나아가 이러한 협력과 통합으로 개별 국가와

19) 월드코리안 (2019.3.9). 21세기는 아시아시대... 아총연 회장 이취임식 및 ‘신남방정책’ 심포지엄 성황.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75>에서 2020년 1월 3일 인출

지역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세안 공동체의 과제이자 목표이며, 또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김형중, 최경희, 2017: 25).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정책 방향 중의 하나가 사람(people)공동체로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정책이 아세안 공동체의 정책과 융합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도 아세안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서로를 진정한 이웃이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선, 2019: 3). 아세안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책임과 공헌을 위한 역할을 요청받게 된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 경제성장 및 민주화 경험, 소프트파워 증가에 따라 국제사회는 한국이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아세안 개도국들의 경우에도 한국이 자신의 발전모델로 삼기에 적절한 대상국이 되고 있다(이재현, 2018: 6-7). 아세안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과 개도국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1) 교육부의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

교육부의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은 주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는 재외국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

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과 운영, 한국교육원의 설치,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장학금의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⁰⁾.

보통 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아동·청소년이 한국 내 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과정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의 초·중등학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및 제9조). 현재 동남아시아의 한국학교는 하노이 한국학교,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방콕 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등 총 7개국 8개 학교이며²¹⁾, 한국학교 학급수는 총 5,343개로 전 세계 한국학교 학급수 14,040개의 38.0%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916개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620개), 싱가포르(453개), 필리핀(187개), 말레이시아(55개) 등이다(교육부, 2019: 1055).

한국교육원은 거주국 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해외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그밖에 해외 교육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동법 제29조). 현재 동남아 지역에는 베트남과 태국의 2개국에만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다. 호치민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강좌(한국어강좌,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토픽 중·고급 강좌), 중등 한국어 채택 지원, 한국문화체험활동 등 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

20)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lnqyDet1010.do>에서 2020년 4월 20일 인출

21) 재외교육기관포털. 한국학교 검색, <https://okep.moe.go.kr/koschl/orgInfo/info/list.do>에서 2020년 4월 20일 인출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대학 한국학과 교수요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태국 한국 교육원에서는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국제교육교류 협력, 유학생 유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동남아시아 한국교육원의 동포청소년 관련 사업

한국 교육원	주요사업	사업내용
호치민 한국 교육원	한국어강좌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한국적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초급Ⅰ(70명), 초급Ⅱ(50명), 중급Ⅰ(30명), 중급Ⅱ(30명)의 한국어 과정으로 60시간, 3개월 동안 강의 진행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한국교육원에서 직접 한국어를 수강하기 곤란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강좌 진행
	토픽 중· 고급 강좌	대학생, 직장인 등 토픽 중고급 수요자 대상으로 총 40시간 내외(2개월)의 강좌 진행
	중등 한국어 채택 지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채택, 한국어반 개설 학교에 한국어 교사 및 강사, 교재 및 보조교재 등 지원, 호치민시 제2외국어 채택학교는 중학교 2개교(229명), 고등학교 3개교(601명)이며, 방과 후 수업학교는 2개교(210명)
	한국문화체험 등	중등 한국어 채택학교에서 요청하는 한국문화체험활동 지원, 베트남 중등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한국어 익힘책 발간 및 보급, 베트남 중등 한국어 수업현황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행 및 관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게 하고 있음.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유학 준비와 체계적인 유학 지원, 정부의 유학생 취업지원 등
태국	대학 한국학과 지원 등	한국학과 교수요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제고를 위해 발음, 문법, 글쓰기 등의 연수, 한국으로의 석·박사 학위 취득 기회 제공, 한국어능력시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2018년 12월 현재 호치민 시 및 인근 지역 대학 한국학교 교수 및 강사는 125명이며, 이중 한국인은 34명임
	초·중등학교	2015년도에는 77개 초중고 통합학교에 25,021명 대상으로

한국 교육원	주요사업	사업내용
한국 교육원	한국어 보급	한국어를 보급하였으나 2016년에는 82개 고등학교에 26,365명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국제교육교류 협력	2015년에는 4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졌으나 2016년에는 8개 기관으로 확대
	유학생 유치 지원	2015년에는 22개 대학 5건의 실적이었으나 2016년에는 10개 대학 12건의 유학생 유치 실적

* 출처 : 호치민시한국교육원, <http://www.klech.org/index.php>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재외교육기관포털, 태국한국교육원, <https://okep.moe.go.kr/koacad/orgInfo/info/viewManage.do>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이밖에 교육부에서는 교원파견사업으로 교원해외파견사업과 현지 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원해외파견사업은 ODA 국가에 우수한 한국 교원을 파견하여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교원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수학, 과학, ICT 등 전공 교원을 현지 정규학교 및 교육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2015년에 8개국에 20명을 파견하였으며, 2016년에는 24개국 437명, 2017년에는 21개국 291명, 2018년에는 22개국 291명, 2019년에는 21개국 260명, 2020년에는 210개국 260명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이 포함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2015년부터 교원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2명, 2016년에는 12명,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명, 2019년에는 12명의 교원이 파견되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교원 파견이 이루어졌는데, 2016년에는 5명, 2017년에는 7명, 2018년에는 8명, 그리고 2019년에는 4명의 교원이 파견되었다. 태국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교원파견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에는 10명, 2018년에는 8명, 그리고 2019년에는 2명의 교원이 파견되었다.

표 II-2 ODA 대상 동남아 국가 장기 교사 파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전체 국가	20	130	131	131	85	538
말레이시아	2	12	11	11	12	48
베트남	-	5	7	8	4	24
태국	-	-	10	8	2	20

* 출처 : 교육부 정보공개청구자료(2020년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및 교원해외파견사업 개요)에서 부분 발췌한 것임.

또한 해외현지 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은 현지 한국어반 한국어 교육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원어민인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4개국에 56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의 경우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한국어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파견 인원이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2018년에 2명으로 처음 시작하여 2019년에도 2명을 파견하였다.

표 II-3 한국어교원의 현지 정규학교 파견

국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
태국	54	43	60	60	60	58	58	45	45
인도네시아	-	-	-	-	-	-	-	2	2
계	54	43	60	60	60	58	58	47	47

* 출처 : 교육부 정보공개청구자료(2020년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및 교원해외파견사업 개요)에서 부분 발췌한 것임.

2)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의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외동포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등이 있다²²⁾. 2018년도에 재외동포사업으로 총 53,059백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별로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재외동포교육사업은 18,984백만 원,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17,089백만 원,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739백만 원,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6,202백만 원, 한상네트워크사업 3,388백만 원, 홍보문화사업 4,528백만 원,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2,130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8).

전체 재외동포재단 사업 중에서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와 관련한 재외동포사업을 살펴보면, 한글학교 교사 육성, 한글학교 육성,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재외동포 청소년교류사업,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재외동포장학사업 등이 있다(재외동포재단, 2018). 한글학교 교사 육성은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과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및 사이버 연수 지원 사업이 있다.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는 전 세계 31개국에 371백만 원의 비용으로 48명의 강사를 파견하여 연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6개국에 60백만 원의 비용으로 5명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학교 육성사업으로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과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학교 운영비를 전 세계 112개 국가의 1,571개 학교에 15,21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20개 국가의 287개 학교에 2,91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말레이시아 8개 학교, 베트남 5개 학교, 싱가포르 1개 학교, 인도네시아 10개 학교, 태국 5개 학교, 필리핀 18개 학교 등으로

22)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동포재단법,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지원하고 있다. 동포단체활성화사업은 재외동포단체들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신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97개국에 2,54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아에는 16개국에 46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2건, 베트남 2건, 싱가포르 4건, 인도네시아 14건, 태국 4건, 필리핀 4건의 사업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 사업은 전 세계 재외동포 중·고·대학생들에게 모국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646명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한상과 국내 경제인 간에 상시적으로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하고 국내청년의 해외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34차 재외동포경제인 포럼을 개최하여 8개국 34명이 참가하였다.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육성하고 차세대동포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27개국에서 102명이 참가하였다. 동포사회숙원사업은 동포사회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다목적 회관, 학교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7개국에 57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4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재외동포장학사업은 국내에서 학사,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29개국에 80명을 지원하였는데, 아시아의 경우에는 7개국에 42명을 지원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1명, 인도네시아 1명, 태국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 재외동포재단의 동남아 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명	주요내용	아시아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육성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6개국 14건, 전문강사 5명 파견, 60백만 원 지원	31개국 48명 파견, 371백만 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	63개국 207명
	사이버 연수 지원	-	31개국 142명

사업명	주요내용	아시아	전 세계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20개국 287개교, 2,914 백만원(일본 140, 중국 73, 말레이시아 8, 베트남 5, 싱가포르 1, 인도네시아 10, 태국 5, 필리핀 18, 네팔 1, 대만 4, 라오스 1, 몽골 2, 미얀마 1, 방글라 데시 3, 브루나이 1, 스리 랑카 1, 인도 8, 캄보디아 2, 파키스탄 2, 파푸아뉴기니 1)	112개국 1,571개교, 15,210백만 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7개국 32건 61백만 원	35개국 206건 557백만 원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재외동포단체들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신장을 위해 시행하는 교류활동 지원 사업	16개국 131건 461백만 원 (말레이시아 2, 베트남 2,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14, 태국 4, 필리핀 8)	97개국 779사업 2,542백만 원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모국 체험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 형성, 국·내외 청년간의 교류 증진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	913명 (해외 646명, 국내 267명)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한상과 국내 경제인 간 상시 비즈니스 교류 지원, 한상네트워크 활용, 국내청년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4차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개최(베트남 하노이) 8개국 34명	-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발굴 및 육성, 차세대동포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27개국 102명 (해외 73명, 국내 29명)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동포사회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다목적 회관과 모국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인도네시아 45백만 원	7개국 574백만 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국내 학사,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우수 학생을 선발, 장학금 지원	7개국 42명(중국 36, 대만 1, 일본 1, 방글라데시 1, 말레이시아 1, 인도네시아 1, 태국 1)	29개국 80명

* 출처 : 재외동포재단 (2018).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2018,
http://www.okf.or.kr/homepage/intro/management_notice.do에서 2020년 4월 14일 인출

4.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접근 방법

1) 교차문화 아동·청소년(cross-cultural kids)의 개념과 유형

민족성(ethnicity), 이민(immigration), 문화접변(acculturation)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중문화(bicultural)를 가진 개개인들의 심리적인 이슈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아동기의 교차 문화적(cross-cultural)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Hoersting, 2009: 10).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중요한 발달시기에 다른 문화에서 지낸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국제 아동(international kids), 다국적 아동(transnational children), 유목 아동(nomad kids), 하이브리드 아동(hybrid kids), 제3문화아동(third culture kids), 교차문화 아동(cross-cultural kids)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 왔다²³⁾.



* 출처 : Globally Grounded. Cross-cultural kids, <https://globallygrounded.com/third-culture-kids/>에서 2020년 3월 19일 인출

그림 II-2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23) Globally Grounded. Cross-cultural kids, <https://globallygrounded.com/third-culture-kids/>에서 2020년 3월 19일 인출

이러한 용어 중에서 “교차문화 아동·청소년(cross-cultural kids, CCK)은 18세 이전에 두 개 이상의 문화적 환경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Pollock, Van Reken & Pollock, 2017: 43), 전통적인 제3문화 아동·청소년²⁴⁾(traditional third culture kids)을 비롯해서 국내 제3문화 아동·청소년²⁵⁾(domestic TCKs), 교육적 교차문화 아동·청소년(educational CCKs)²⁶⁾, 이중 / 다문화 혹은 이중 / 다인종 아동·청소년²⁷⁾(bi/multi-cultural or bi/multi-racial children), 접경지대 아동·청소년(children of borderlanders)²⁸⁾, 소수민족(인종) 아동·청소년(children of minorities), 난민 아동·청소년²⁹⁾(children of refugees), 국제 입양 아동·청소년³⁰⁾(international adoptees), 이민자 아동·청소년³¹⁾(children of immigrants), 혼합 문화유산 아동·청소년(mixed-racial heritage children)³²⁾ 등을 포함하고 있다(Pollock, D. C. et al., 2017: 44-46).

24) 전통적인 제3문화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직업적 선택에 의해서 부모와 함께 다른 나라의 문화로 이동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25) 국내 제3문화 아동·청소년은 국내의 다양한 하위문화 사이에서 이동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26) 다른 문화적 기반을 가진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27) 이중/다문화 혹은 이중/다인종 아동·청소년은 최소한 두 개의 문화 혹은 인종 출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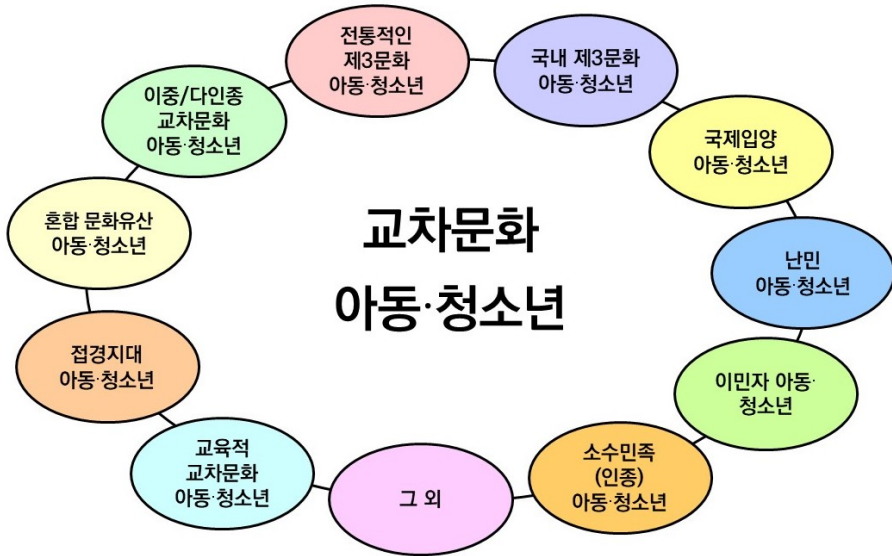
28) 국경을 넘어서 학교에 다니고, 이들의 부모들은 일하기 위해서 국경을 자주 넘는 아동·청소년들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29) 난민 아동·청소년은 전쟁, 폭력, 기근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출신국 밖에 사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30) 국제 입양 아동·청소년은 출생국 이외의 나라의 부모에 의해서 입양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31) 이민자 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새로운 나라로 영주 이주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32) 최소한 두 개의 인종적 유산을 가진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ollock, D. C. et al., 2017: 44).



* 출처 : Pollock, D. C. et al. (2017).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 (p. 44).

그림 II-3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유형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cross-cultural kids)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특징을 문화 간 상호작용, 이동주기, 모국귀환여부, 후원조직(organizational system identity), 지배문화와의 비교, 사회경제적 요인, 집단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Van Reken, 2019).

첫째,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과 국가 간의 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며, 모국귀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후원기관이나 파견 기업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문화 간 이동 여부에 따라서 주변 지배 문화와의 차이가 발생한다. 부모의 배경으로 인해서 체류국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이동성으로 인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이민자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등에서 매일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민 국가로의 커다란 이동과 이민 국가 내에서의 이동 및 출생국 방문을 위한 이동 등이 있으며, 모국귀환은 없다. 조직적 지원은 빈번하지 않은 편이며, 그들이 속한 출신국가와 이민국가에 따라서 주변 지배문화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주국 내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양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으며, 출생국의 생활양식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집단적 이슈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국제 입양 아동·청소년들은 출생국과의 연계성 여부에 따라서 문화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으며, 최초 입양을 위한 이동 이후에 입양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동성에 차이가 있고, 모국귀환은 없다. 조직적 후원은 일상적이지 않으며, 입양부모의 문화 여부에 따라서 주변 지배문화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간층에서 상류층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입양 및 문화적 이슈가 중심이다.

넷째, 난민 아동·청소년들은 난민 문화와 비난민 문화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단기 혹은 장기간의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모국귀환을 희망하고 있다.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난민으로서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거주지역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지배문화와의 관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며, 전쟁 폭력, 기아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다섯째, 비이민 소수민족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매일 같이 타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매일 빈번하게 문화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 여러 문화 사이에서 일상적인 이동성을 가지나 일부는 단일문화에서 생활하며, 부모의 직업에 따른 이동을 하게 된다.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모국귀환이 없으며, 조직적 후원보다는 부모의 직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통 주변 지배문화와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구성하고, 민족성으로 인한 편견의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여섯째, 다문화(인종) 아동·청소년들은 부모가 속한 문화와의 상호작용 빈도와 가정이나 학교 및 직장에서의 강력한 민족문화 여부에 따라 문화 간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출신지와 멀리 사는 가족에 대한 방문 횟수 등에 따라 이동성에 차이가 있다. 부모의 문화나 이중 국적자 여부에 따라서 모국귀환에 차이가 있고, 조직적 후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변문화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닮거나 닮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구성되고, 부모의 문화집단 또는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배제와 같은 집단적 이슈가 있다.

일곱째, 국내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은 국내 다른 문화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장소 간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보다는 부모의 직업에 의존하고, 주변 지배문화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구성되고, 뿌리의식의 부재와 같은 전통적인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표 II-5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특징 비교

분류	문화간 상호작용	이동 사이클	모국귀환	후원조직	주변 지배 문화와의 비교	사회경제적 요인	집단 이슈
제3문화 아동·청소년	변화하는 문화환경에서 잦은 상호작용	국가 간 잦은 반복적인 이동	있음	후원기관·파견기업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짐	각각의 이동에 따른 차이 발생	부모의 직업으로 인한 특별한 지위	존재에 대한 정체성
이민자 아동·청소년	매일 매우 다른 문화에서 상호작용	이민국가의 큰 이동, 이민국가 내의 이동 및 출생국의 방문	없음	빈번하지 않음	출신국가와 이민국에 따른 차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	출생국 생활양식의 상실
국제 입양 아동·청소년	출생국과의 연계성 여부에 달려있음	가정 상황에 따라 차이	없음	일상적이지 않음	입양부모의 문화에 따른 차이	중간층에서 상류층	입양 및 문화적 이슈

분류	문화간 상호작용	이동 사이클	모국귀환	후원조직	주변 지배 문화와의 비교	사회경제적 요인	집단 이슈
난민 아동·청소년	난민 문화와 비난민 문화와의 상호작용	단기 혹은 장시간의 높은 이동성	희망	일상적이지 않지만 주로 난민 후원	거주지역이나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	일반적으로 빈곤층	전쟁폭력, 기아 등
비이민 소수 민족 아동·청소년	매일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 하나, 일부는 문화교류를 하지 않음	문화간 일상적인 이동, 일부 단일문화 환경 및 부모 직업에 따른 이동	없음	조직적 후원 보다는 부모의 직업에 의존	보통 주변 지배문화와 다름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	민족에 대한 편견
다문화 (인종) 아동·청소년	부모가 속한 문화와의 상호작용 빈도,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민족문화 소유 정도	부모출신지와 멀리 사는 가족에 대한 방문 횟수에 따라 다름	부모의 문화, 이중 국적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주변 지배 문화와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닮거나 그렇지 않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	부모 문화 집단 등에서 배제
국내 제3 문화 아동·청소년	국내 다른 문화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존재	높은 이동성을 가짐	없음(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	부모의 직업에 의존	지배문화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다양하게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이 포함	부리의식 부재

* 출처 : Van Reken, R. E. (2019). Third culture kids: Prototypes for understanding other cross-cultural kids. <https://www.crossculturalkid.org/who-are-cross-cultural-kids/>에서 2020년 3월 25일 인출

2) 교차문화 아동·청소년(cross-cultural kids)의 장점과 어려움

자신이 태어난 고국을 떠나 여러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은 단일문화 환경에서 생활해온 아동·청소년들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 장점과

동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ollock & Van Reken(2001)과 Pollock 외(2017)는 이와 관련하여 장점과 어려움을 대비시켜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Pollock, D. C. et al., 2017). 첫째,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성장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만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정체성 등에서 어려울 수 있으며, 둘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나 문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3차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한다. 셋째, 다른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호감이 있는 반면에 고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넷째, 다양한 문화에서 생활하여 문화적응성이 개발되어서 생활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다문화 가치 중에서 자신들만의 가치체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다섯째, 자주 변하는 삶의 방식으로 현재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재를 즐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새롭고 보다 나은 가능성 있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헌신하면서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섯째,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부모들이 체류국에서 특별한 엘리트 그룹에 속하고 생활수준이 그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라이프 스타일도 특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편견이 많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일곱째, 주변사람들과 손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관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표 II-6 교차문화 아동·청소년의 장점과 어려움

장점	어려움
확장된 세계관 (expanded worldview)	혼란스러운 충성심 (confused loyalties)

장점	어려움
3차원적 세계관 (three-dimensional view of the world)	고통스러운 현실관 (painful awareness of reality)
다른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 (cross-cultural enrichment)	고국 문화의 무지 (ignorance of home culture)
높은 문화 적응력 (adaptability)	문화 균형의 결여 (lack of true cultural balance)
현재적 삶의 중요성 인식 (the importance of now)	미래 계획이나 선택에서의 어려움 (the delusion of choice)
다양성으로 인한 적은 편견 (less prejudice)	특권으로 인한 편견 (more prejudice)
많은 인간관계 형성 (large numbers of relationship)	깊고 소중한 관계 형성 부족 (lack of deep and valued relationships)

* 출처 : Pollock, D. C., & Van Reken, R. E. (2008). 제3문화 아이들; Pollock, D. C. et al. (2017). Third culture kids에서 발췌수정.

이밖에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은 단일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에 비해서 여행이나 다른 언어습득에 대한 욕구가 크며(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Gerner & Perry, 2000), 다중언어의 재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³³⁾.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은 단일문화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 외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친밀감을 보다 갖고 있다(Gerner, Perry, Moselle, & Archbold, 1992).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른 시기에 독립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인 성숙과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게 한다(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또한 이들은 지연된 청소년기를 경험하고 다양성과 모호함을 직면하고 문제해결 기술을 개발할 때 보다 허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다(Useem & Cottrell, 1996; Hoersting,

33) World Family Education, <https://worldfamilyeducation.com/cross-cultural-kids-third-culture-kids-global-nomads-what-are-they/>에서 2020년 3월 11일 인출

2009).

3) 교차문화 아동·청소년(cross-cultural kids)의 정체성과 발달 환경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원인을 개인 특성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환경적 개선을 통해서 다시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유용성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김경준, 김정숙, 2019: 26).

생태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Bro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1979, 1994)에서는 아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문화를 경험하는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한 생태 체계적 환경을 살펴보면, 미시체계(microsystem)는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환경(immediate environment)으로서 부모, 형제, 친구, 학교 등을 말하며(Brofenbrenner, 1979; 이영 역, 1995; 김경준, 김정숙, 2019), 중간체계(mesosystem)는 개인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연계 및 과정으로서(Brofenbrenner, 1979; 이영 역, 1995) 부모와 학교교사, 부모와 자녀의 친구, 부모와 동포 부모와 등의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김경준, 김정숙, 2019). 외체계(exosystem)는 둘 이상의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및 과정으로서 개인을 포함하지 않지만 개인의 즉각적인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을 포함하는 환경체계를 의미하며(Brofenbrenner, 1979; 이영 역, 1995), 부모의 직업 및 근무여건, 동포단체의 지원 여건, 교육, 취업 및 문화여건, 대중매체, 정책기구 및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김경준, 김정숙, 2019). 거시체계(macrosystem)는 기본적인

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으로서 (Brofenbrenner, 1979; 이영 역, 1995), 교포사회의 문화·관습·이념, 체류 국가의 타문화 수용, 고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및 기회구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김경준, 김정숙, 2019). 시간체계(chronosystem)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 특성이 변화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체제로서 (Brofenbrenner, 1994; 백순근, 2002) 이민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고용상황, 일상생활, 고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의 변화를 말한다(Brofenbrenner, 1994; 김경준, 김정숙,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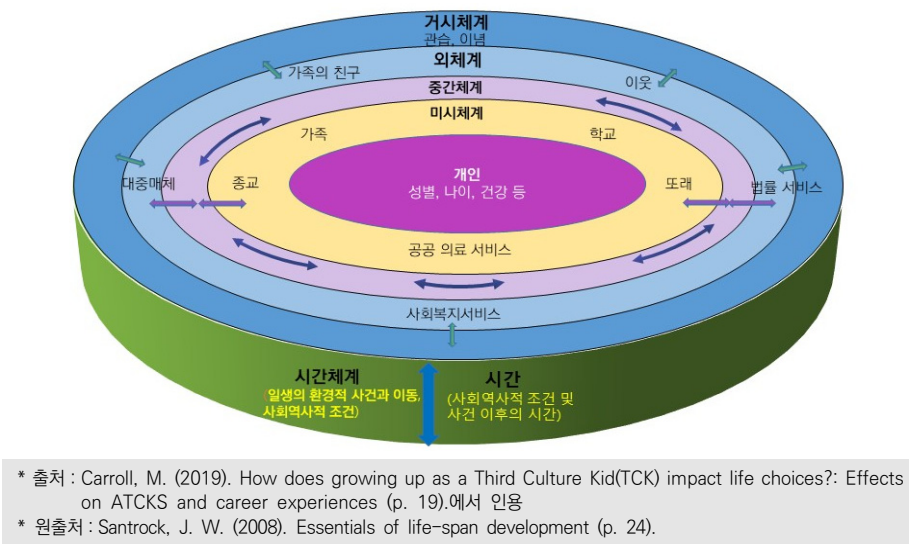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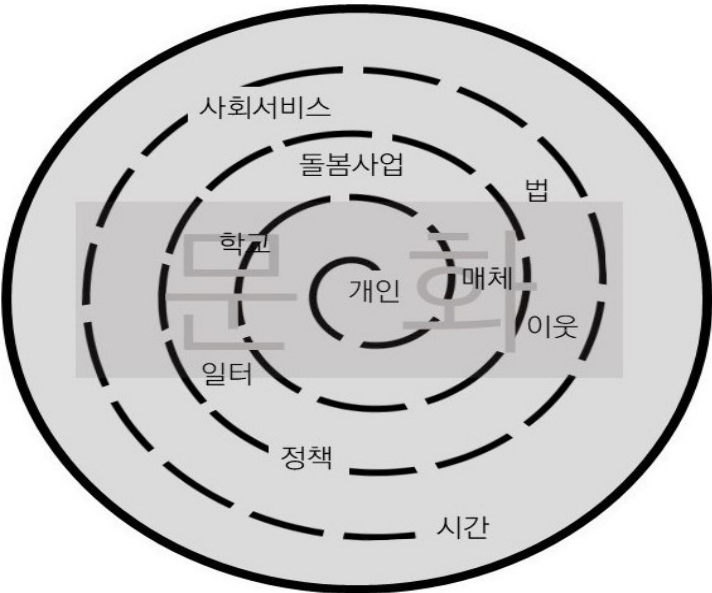


그림 II-4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

많은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은 국가 간, 문화 간 이동으로 계속적으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태체계도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Brofenbrenner의 모델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 변화로 인해서 문화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ogoff, 2003; Velez-Agosto, Soto-Crespo, Vizcarrondo-Oppeneheimer, Vega-Molina & Garcia Coll, 2017).

개인과 문화가 독립된 실체로 분리되어 있는 간혀진 원을 형성하는 브론펜 브레너의 모델과 달리 개인 발달은 사회적문화역사적 상황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개인과 문화적 행위 사이에서 형성적이고 상호 규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나선형 모델은 환경을 문화적 행위(cultural practices) 혹은 문화적 경로(cultural pathways)로 보고, 문화가 개인과 관계된 가깝거나 먼 환경 안에 존재하며, 시간적 차원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Velez-Agosto et al., 2017, 906-907).



* 출처 : Velez-Agosto et al. (2017). Bronfenbrenner's bioecological theory revision: Moving culture from the macro into the micro (p. 907)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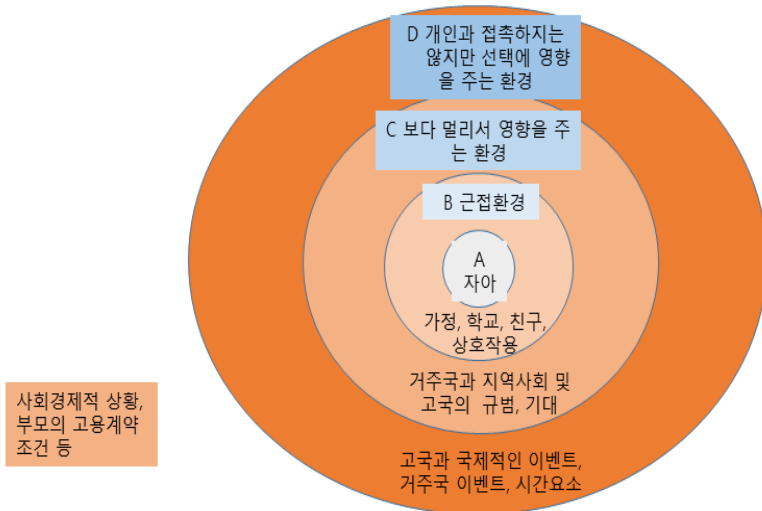
그림 II-5 문화적 미시체계 모델

특히, 이 모델에서는 문화를 일상생활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거시체계 보다는 미시체계에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문화 규범과 기대 등과 같은 거시체계 이외에 가족, 학교, 친구, 이웃 등 일상적으로 실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미시체계에서의 문화적 영향력이 보다 고려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사회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에도 문화의 일상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일상활동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Velez-Agosto et al., 2017: 909). 이 밖에 환경의 범위가 지역에서 국제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영역과 같은 비물리적 환경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는 시각이 있다(Besley, 2003; Carroll, 2019: 21 재인용).

Cameron(2003)은 Bronfenbrenner(1994)의 모델과 Elder(1998)의 생애발달모델³⁴⁾, Van Lieshout & Doise(1998)의 사회개발모델³⁵⁾들을 제3문화 아동·청소년의 발달 경험에 맞춰서 수정된 생태학적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34) 엘더(Elder)는 인간발달을 역사적 시간과 장소(historical time and place), 생애 시점(timing in lives), 연결된 삶(linked lives), 능동적 수행(human agency)의 4가지 원리로 설명한다. 인간발달은 생애 동안에 경험한 역사적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일생의 과정이고,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의 영향을 누적적으로 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 연계된 삶을 살며, 역사적·사회적 상황 내에서 적응과 선택적 삶을 살아간다. 이 모델은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에게 일생에 걸친 대안적 발달 환경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이동(transition)과 같은 특정한 사건과 주어진 기회에서의 자신과 부모 및 후원·파견기관의 선택과 행동 등이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Cameron, 2003: 128-132).

35) 반 리샤우트 앤 두아즈(Van Lieshout & Doise)는 인간발달을 상호작용, 인간관계 및 집단 내에서 규정하고, 발달을 위한 사회적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설정되는 기회와 제한으로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사회적 상황과 관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효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친구(friendship)의 질과 깊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지향(orientation)이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모델은 제3문화 아동·청소년에게 문화 간 이동에 따른 끊임없는 관계의 이동과 재설정, 사회관계의 취약성과 유연성, 가족 및 또래집단, 부모 고용 및 파견기관의 영향 등의 발달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Cameron, 2003: 13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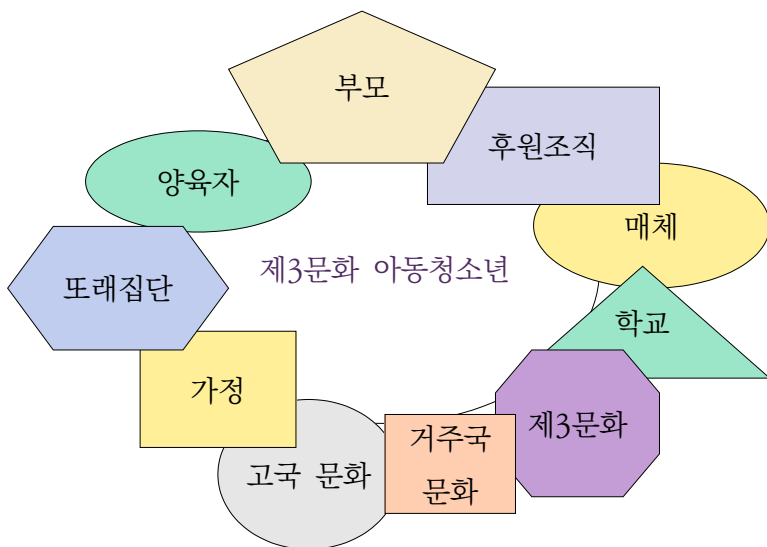
* 출처 : Cameron, R. (2003). The ecology of third culture kids: The experiences of Australasian adults (p. 142).에서 수정

그림 II-6 제3문화 아동·청소년의 인간발달 생태학 모델

이 모델에서 중심에 있는 A는 근접환경 안의 Bronfenbrenner의 자아(self)이며 Van Lieshout & Doise의 사회적 지향 또는 반사회적 지향이다. 또한 엘더(Elder)의 환경에의 성공적인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장점과 약점을 나타낸다.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적 지향과 장점 및 단점에 의존하여 성장하며, 다른 생태학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아의 잠재력이 발현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환경 B는 Bronfenbrenner의 양자관계, Elder의 생애(lives), Van Lieshout & Doise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을 말하며, 가정, 학교, 스포츠 또는 문화 클럽, 친구 가정, 확장된 가족,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특히,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의 근접환경에는 파견기관의 규범과 구조가 포함된다. 환경 C는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에게 근접환경 밖에서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거주국, 고국, 그리고 거주국 주거공동체 내의 규범과 기대가

포함된다. 환경 D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상황(context), 큰 이벤트, 시간 요소, 개인 통제 밖에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개인의 선택 또는 선택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모델 원 밖에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고용계약 조건 등이 있을 수 있다.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은 세계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러한 지각은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의 고용 계약에 의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Cameron, 2003: 141-145).

한편, 제3문화 아동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새로운 국가나 문화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아동청소년들은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치의 혼동, 고국 문화에 대한 무지, 뿌리의식의 부재, 교사와 또래친구와의 관계 구축의 어려움,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한 국가에 영속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Pollock & Van Reken. 2009; Hervey, 2009; Pollock et al., 2017; Kwon, 2018). 폴락 등(Pollock, D. C. et al., 2017: 63-72)은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의 삶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부모, 또래집단, 고국 문화, 양육자, 거주국 문화, 제3문화, 학교, 매체, 후원 조직 등의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 Pollock, D. C. et al (2017).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p. 64).

그림 II-7 제3문화 아동·청소년의 문화환경

가족들의 문화적 관행과 가치는 부모의 고국 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옷 입는 스타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규범을 전달하게 된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문화적 규칙과 관행을 학습해야 할 것이 보다 많아지고 복잡해진다(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Pollock, D. C. et al., 2017). 하지만 새로운 거주국에서 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정도는 그 가정의 거주국 현지 주민과의 경제적 연계성이나 주거생활과의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 즉, 현지인들과 별도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생활하거나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 문화 적응이 늦어지거나 거의 영향이 없게 된다(Cottrell, 2006; 김홍구, 2019). 부모들이 일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들의 자녀들은 양육자에게 맡겨지는데, 양육자들은 맡겨진 아동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 체류국 언어의 사용과 훈육방식

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그 문화적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Pollock, D. C. et al., 2017).

자녀들은 놀이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적 규칙들을 따라 하게 되는데, 여러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에 서로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나 규범, 관계 양식 등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이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Pollock, D. C. et al., 2017). 친구들과의 관계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여러 국가를 자주 이주하게 되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 친구관계의 단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학교나 공동체 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수경, 오인수, 2015; Pollock & Van Reken, 1999). 또한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의 고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 공동체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다. 한 공동체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은 가정과 공동체의 규칙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친 것을 다른 성인들이 강화하며, 문화적 균형감을 갖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은 고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문화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모로부터 고국의 언어, 가치, 전통을 배우려고 하지만 표면적인 것 이상으로 아는 것이 어렵다(Pollock, D. C. et al., 2017: 66-67).

거주국 문화(host culture)는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거주국 문화를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역 공동체 구성들과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어렵고 단지 또 다른 문화에서의 관습과 가치, 세계관을 아는 기회만을 가질 뿐이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보다 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동기에 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 지역 사람들과 언어, 음식, 놀이 등을 공유하고 그 문화의 깊은 면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오랜 동안 지역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고국 문화보다 거주국 문화에 보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Pollock, D. C., et al, 2017: 67).

제3문화(third culture)는 장소나 국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고 양쪽에 문화적 뿌리를 둔 틈새문화로서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적 규범을 공유하기 때문에 제3문화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Pollock, D. C., et al, 2017: 66-67). 일부 제3문화 아동·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를 특정 국가보다는 세계의 시민(a citizen of the world),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s)으로 보며, 디지털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연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harp, 1987; Kwon, 2018; Hannaford, 2016).

학교는 단일문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문화의 가치와 관행을 배울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옮기는 중에 학습 내용과 교수법 등의 차이로 문화적 발전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Pollock, D. C., et al, 2017).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은 새로운 학교 환경의 적응에 매우 취약하며, 조화되지 않고 고립감을 느끼며, 교사와의 관계나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Hill, 2006; Choi & Luke, 2011; Lijadi & Van Schalkwyk, 2014). 작은 학교 이동으로 스트레스와 상심을 겪게 되고,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이해나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나 상담사의 배치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Limberg & Lambie, 2011; Pollock, D. C., et al, 2017).

매체(media)는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세계적인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친구를 비롯한 고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제3문화는 뉴스에 관해서도 다문화적인 전망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매체를 통해 세계의 어떤 부분은 잘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광범위한 매체에 대한 접근은 고국을 잘 알 수 있고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Pollock, D. C. et al, 2017: 71-72).

많은 교차문화 아동·청소년들은 후원기관과 파견기업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으로 가족들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특히, 기관이 피고용인과 다른 문화권 출신일 경우에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Pollock & Van Reken, 2001: 박주영 역, 2008; Pollock, D.C. et al, 2017).

○———— 제3장 한국 관련 동남아시아의 경제·사회지표와 동포청소년 및 관련 기관 현황

- 1. 한국 관련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 2.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동포 현황
- 3.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동포단체 및 교육기관 현황

한국 관련 동남아시아의 경제·사회지표와 동포청소년 및 관련 기관 현황³⁶⁾

1. 한국 관련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한국의 주요 국가에 대한 교역 현황을 통해서 아세안의 위치를 살펴보면, 전 세계 교역액 중에서 아세안 교역액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액에서 차지 비중은 2016년에는 14.2%, 2017년에는 14.2%, 그리고 2018년에는 14.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 아세안 교역액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교역액이 1,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4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5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 한국의 주요 국가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세계	495,426 (-5.9)	406,193 (-5.9)	901,619 (-6.4)	573,694 (15.8)	478,478 (17.8)	1,052,172 (16.7)	605,169 (5.5)	535,172 (11.8)	1,140,341 (8.4)
중국	124,433 (-9.3)	86,980 (-3.6)	211,413 (-7.0)	142,120 (14.2)	98,860 (12.5)	239,980 (13.5)	162,158 (14.1)	106,479 (8.8)	268,637 (11.9)

36) 이 장의 1, 3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숙 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구분	2016			2017			2018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아세안	74,518 (-0.4)	44,319 (-1.6)	118,837 (-0.8)	95,248 (27.8)	53,822 (21.4)	149,070 (25.4)	100,240 (5.2)	59,617 (10.8)	159,857 (7.2)
미국	66,462 (-4.8)	43,216 (-1.8)	109,678 (-3.7)	68,610 (3.2)	50,749 (17.4)	119,359 (8.8)	72,736 (6.0)	58,871 (16.0)	131,607 (10.3)
EU	46,610 (-3.1)	51,902 (-9.3)	98,512 (-6.4)	54,038 (15.9)	57,279 (10.4)	111,317 (13.0)	57,681 (6.7)	62,278 (8.7)	119,959 (7.8)
일본	24,355 (-4.8)	47,467 (3.5)	71,822 (0.5)	26,816 (10.1)	55,125 (16.1)	81,941 (14.1)	30,574 (14.0)	54,605 (-0.9)	85,179 (4.0)
홍콩	32,782 (7.8)	1,615 (8.2)	34,397 (7.8)	39,112 (19.4)	1,879 (16.4)	40,991 (19.2)	45,999 (17.6)	1,997 (6.3)	47,996 (17.1)
대만	12,220 (1.8)	16,403 (-1.5)	28,623 (-0.1)	14,898 (21.9)	18,073 (10.2)	32,971 (15.2)	20,794 (39.6)	16,737 (-7.4)	37,531 (13.8)
사우디	5,644 (-40.5)	15,742 (-19.5)	21,386 (-26.4)	5,147 (-8.8)	19,590 (24.4)	24,737 (15.7)	9,626 (-51.5)	20,699 (8.0)	30,325 (-22.3)
호주	7,501 (-30.7)	15,176 (-7.7)	22,677 (-16.8)	19,862 (164.8)	19,160 (26.3)	39,022 (72.1)	3,952 (-23.2)	26,331 (34.4)	30,283 (22.4)
러시아	4,769 (1.8)	8,641 (-23.6)	13,410 (-16.2)	6,907 (44.8)	12,040 (39.3)	18,947 (41.3)	7,322 (6.0)	17,500 (45.3)	24,822 (31.0)
인도	11,596 (-3.6)	4,189 (-1.2)	15,785 (-3.0)	15,056 (29.8)	4,948 (18.1)	20,004 (26.4)	15,611 (3.7)	5,884 (18.9)	21,495 (7.5)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p. 20).의 표에서 수정

* 원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한국의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한-베트남 교역액이 683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200억 달러), 싱가포르(198억 달러), 말레이시아(192억 달러), 필리핀(156억 달러), 태국(141억 달러), 미얀마(106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은 단일국가로는 전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우리나라 20대 교역대상국에 아세안 6개국이 포함되어 있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4).

표 III-2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베트남	47,754 (46.3)	16,177 (29.5)	63,931 (41.7)	48,629 (1.8)	19,632 (21.4)	68,263 (6.8)
인도네시아	8,404 (27.2)	9,571 (15.5)	17,975 (20.7)	8,868 (5.5)	11,160 (16.6)	20,034 (11.5)
싱가포르	11,652 (-6.5)	8,905 (30.8)	20,557 (6.7)	11,850 (1.7)	7,978 (-10.4)	19,830 (-3.5)
말레이시아	8,045 (6.8)	8,715 (16.1)	16,760 (11.4)	8,983 (11.7)	10,206 (17.1)	19,201 (14.6)
필리핀	10,594 (45.5)	3,702 (14.7)	14,296 (36.1)	12,061 (13.8)	3,569 (-3.6)	15,644 (9.4)
태국	7,467 (15.2)	5,205 (14.1)	12,672 (14.7)	8,507 (13.9)	5,581 (7.2)	14,102 (11.3)
미얀마	573 (-24.7)	463 (1.0)	1,037 (-15.0)	534 (-6.8)	536 (15.8)	1,063 (2.6)
캄보디아	604 (5.4)	261 (9.0)	865 (6.5)	661 (9.4)	314 (20.3)	984 (13.8)
브루나이	64 (-4.3)	795 (11.7)	859 (10.3)	62 (-3.1)	610 (-23.3)	669 (-22.1)
라오스	92 (-27.1)	27 (20.2)	120 (-19.9)	84 (-8.7)	30 (11.1)	105 (-11.5)
아세안	95,248 (27.8)	53,822 (21.4)	149,070 (25.4)	100,240 (5.2)	59,617 (10.8)	159,857 (7.2)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p. 20)의 표에서 수정

* 원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16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157백만 달러), 인도네시아(50백만 달러), 캄보디아(28백만 달러), 미얀마(21백만 달러), 필리핀(17백만 달러), 말레이시아(11백만 달러), 태국(10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동향

(단위 : 천달러, %)

구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증감율
베트남	3,162,167	51.5	60.3
싱가포르	1,570,366	25.6	49.3
인도네시아	497,246	8.1	-26.5
캄보디아	275,885	4.5	101.4
미얀마	213,392	3.5	-23.7
필리핀	173,174	2.8	-69.3
말레이시아	109,986	1.8	-73.2
태국	95,458	1.6	-10.2
라오스	37,264	0.6	-35.9
브루나이	875	0.01	-24.9
아세안	6,135,814	100.0	16.7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p. 5)의 표에서 수정

* 원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18년 기준

한국의 인프라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한국의 전체 수주액은 32,115백만 달러이며, 이 중 신남방 11개국의 수주액은 39.9%(12,821백만 달러)이며, 아세안 10개국은 37.1%(11,926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표 Ⅲ-4 한국의 각 지역 인프라 수주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율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세계	29,006.0	100.0	32,115.7	100.0	10.7
미국	82.6	0.3	180.1	0.6	118.0
중국	244.8	0.8	1,312.6	4.1	436.9

구분	2017		2018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율
중동	14,578.1	50.3	9,204.5	28.7	36.9
신남방 11개국	9,215.1	31.8	12,821.6	39.9	39.1
아시안 10개국	6,299.2	21.7	11,926.3	37.1	89.3
베트남	1,205.3	19.1	4,403.5	36.9	265.3
태국	758.9	12.0	1,971.4	16.5	159.8
싱가포르	944.2	15.0	2,584.0	21.7	173.7
말레이시아	1,706.8	27.1	943.4	7.9	44.7
인도네시아	946.5	15.0	877.4	7.4	7.3
필리핀	357.1	5.7	771.6	6.5	116.1
캄보디아	32.7	0.5	233.2	2.0	613.1
미얀마	256.4	4.1	131.6	1.1	48.7
라오스	91.3	1.4	4.3	0.04	95.3
브루나이	-	-	5.8	0.05	
인도	2,915.9	10.1	895.3	2.8	69.3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p. 26).의 표에서 수정

* 원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s://www.icak.or.kr>)

* 연도별 금액은 공사 계약금액 기준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베트남의 수주액이 4,403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2,584백만 달러), 태국(1,971백만 달러), 말레이시아(943백만 달러), 인도네시아(877백만 달러), 필리핀(771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신남방 국가에 대한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베트남이 1,7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897억 원), 라오스(888억 원), 미얀마(838억 원), 캄보디아(734억 원), 인도네시아(73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 한국의 대 신남방 ODA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8(확정액)			2019(확정액)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라오스	285.83	350	635.83	256.93	631.6	888.53
미얀마	259.17	602.56	861.73	361.12	477.58	838.7
베트남	475.87	1,345	1,820.87	382.09	1,321.29	1,703.38
인도네시아	111.76	310	421.76	138.47	595.01	733.48
캄보디아	214.07	404	618.07	214.2	520.48	734.68
필리핀	260.05	592	852.05	195.29	702.39	897.68
인도	3.30	-	3.3	1.05	-	1.05
총계	1,610.05	3,603.56	5,213.61	1,549.15	4,248.35	5,797.5

*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p. 34)의 표에서 수정

* 원자료: 국무조정실 (2019), 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8년 한국과 아세안 간 인적교류 인원은 약 10,133천 명(한국→아세안 7,671천 명, 아세안→한국 2,462천 명)으로 최대방문국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출국한 사람은 2014년 4,979천 명에서 2018년 7,671천 명으로 50.1% 증가하였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II-6 한국인 대 아시아 국가별 해외여행객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출국자수	출국자수	비중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한국→세계	한국→아세안										
2014	16,081	4,979	31.0	833	1,175	1,116	537	386	352	58	424	96
2015	19,310	5,841	30.2	1,152	1,340	1,373	577	421	354	64	395	165

구분	출국자수	출국자수	비중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한국 →세계	한국 →아세안										
2016	22,383	6,433	28.7	1,544	1,475	1,464	567	444	344	64	357	173
2017	26,496	7,646	28.9	2,415	1,608	1,718	631	485	379	66	345	-
2018	28,696	7,671	26.7	3,435	1,296	1,612	587	463	234	43	-	-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p. 35). 표에서 수정
* 원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 통계,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2018년 12월 기준)'
* 한국 출입국자수는 법무부한국관광공사 집계, 입국자수는 아세안 각국 정부 관광국(청) 집계

지난 5년간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인의 경우에도 2014년에 1,791천 명에서 2,462천 명으로 37.5%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II-7 방한 아시안 방문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출국자수	출국자수	비중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세계 →한국	아세안 →한국										
2014	14,202	1,791	12.6	142	435	467	201	245	208	60	24	6
2015	13,232	1,608	12.5	163	404	372	160	223	194	59	26	6
2016	17,242	2,216	12.3	251	557	470	222	311	295	68	30	8
2017	13,336	2,140	12.8	325	449	499	216	308	231	70	31	9
2018	15,347	2,462	14.5	458	460	559	232	383	249	71	33	12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p. 37). 표에서 수정
* 원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 통계, '2018년 12월 한국관광통계 공표'

2.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동포 현황

1) 동남아 한인 이주와 동포청소년의 정체성

최근 동남아 한인 이주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디아스포라적인 관점보다는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 한인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한인 후손들과는 다르게 대부분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정착형 이주보다는 일시적 해외 이주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강제이주, 모국으로의 귀환, 거주국에서의 통합의 어려움, 모국에 대한 애착과 지속적인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디아스포라 관점보다는 자발적 이주, 순환적 이주, 초국가적 이동성, 초국가적 정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초국가주의적 관점을 취한다(채수홍, 2017; 김동엽, 2019; 윤인진, 2012). 동남아 한인 이주는 한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한 초기의 이주로부터 기업의 진출, 사업, 선교, 유학, 은퇴 휴양 등으로 인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동남아 국가별로 한인 이주 동향과 정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필리핀

필리핀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주 단계를 3단계로 보고 있는데, 1970년대 이전에는 일본 식민지 하에 군인 신분으로 갔다가 체류한 경우, 독립 후 유학, 상업 목적의 이주, 한국전쟁 이후 필리핀 군인이나 군속과의 결혼 이주 여성 등 열악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주였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인한 주재원, 유학생, 선교사 등의 이주가 이루어졌고,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와 해외투자자유화 정책이 실시된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관광객과 어학연수생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업종의 한인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인사회는 국제기구나

국가 혹은 기업의 주재원, 개인사업자, 선교사, 자녀교육 목적의 장기거주자, 국제 결혼 한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동엽, 2019: 83-84). 필리핀인과 국제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필리핀 국가정체성을 가지며, 한국인 부부 가정에서 태어나 필리핀에서 성장한 자녀들도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희박하고, 미국이나 필리핀에서 한국계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필리핀에 이주한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에 대한 국가정체성을 전수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영어를 기본언어로 하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갖기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김동엽, 2019: 93).

(2) 태국

태국 한인의 이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최초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또는 군속으로 징용되어 체류한 경우와 중국 등에서 거주하다 종전 후에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사이에는 전후 국가건설 과정과 태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해외이주법의 공포 등을 이유로 전쟁고아, 선교사, 연예인, 유학생, 유엔기구 직원, 건설회사 직원, 여행·호텔업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에 베트남전 군사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취업했던 기술자들이 베트남전 이후 경기 침체로 태국으로 이주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인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신발, 완구, 섬유 등 수출형 노동집약적 업종들의 진출로 인한 이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로 인한 관광산업 관련 한인의 이주,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동북아와 동남아의 인적문화교류의 확대로 인한 이주, 2000년대 초 한류로 인한 이주 등이 이루어졌다(김홍구, 2019: 213-218).

한인과 태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은 태국식 교육을 받고 태국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반면, 한인 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이 현지 국제학교 졸업 후 미국이나 유럽 유학을 통해 세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들 자녀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국제학교보다 일반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홍구, 2019: 230-232).

(3) 베트남

베트남 한인사회는 개방이전의 한인을 1세대 한인, 개방이후의 한인을 2세대 한인, 외환위기 이후의 한인을 3세대 한인으로 구분한다. 1세대 한인은 1964년~1973년 파월장병과 함께 온 사람들로 대부분 기업의 기술자나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되며, 상당수가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채수홍, 2005: 110-111). 2세대 한인은 베트남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1987년 이후 한국자본이 베트남 투자를 시작한 1992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9년까지의 시기로 투자기업체의 직원과 자영업자, 소규모 자본의 무역 등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채수홍, 2005: 110-113). 3세대 한인은 외환위기 이후에 영세한 자영업자와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2010년 전후로 한국자본의 쇄도로 다시 팽창하게 됨으로써 형성되었다(채수홍, 2019: 62).

현재 베트남 한인사회는 주재원, 공장매니저, 자영업자, 실업자나 극빈층 한인 등으로 구성된다. 베트남 한인들의 정체성은 베트남 국가의 특성상 일시체류자로서 베트남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없고 취득하려 하지도 않는 이방인으로 간주된다(채수홍, 2005: 108). 하지만 베트남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현지에 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현지인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여 현지화가 잘 되어 있고, 베트남어와 베트남문화를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채수홍, 2019: 70), 베트남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인들 일수록 베트남어 구사수준이 낮고 베트남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베트남 가정의 증가로 인한 자녀의 출생과 진학, 베트남 사회에서의 정착 등의 과정은 베트남 한인사회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제공한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주재원 중심의 사회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의 규모가 증가하는 글로벌이민 한인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이민 한인사회 유형은 싱가포르, 런던, 뉴욕과 같은 도시의 여러 민족공동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용국가에 영주하는 이민자, 주재원과 노동이주자와 같이 출신국가로 수년 내 귀환하는 순환형 이주자, 다른 국가에 이민 후 재이주한 같은 민족집단의 재이주자가 공존하는 민족공동체로 정의한다”(김지훈, 2019b: 23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여행 및 이주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일시체류자인 한국 기업체 관련 종사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9년 싱가포르의 외국인재유치정책과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영주권 부여 정책이 추진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 근무한 주재원들의 영구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는 조기유학 가족을 포함한 교육이주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한식당, 학원, 유학원 등의 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대에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위상의 격상으로 한국기업 파견 주재원 이외에 금융기업 등 다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한국 출신과 재미교포 출신 한인 2세들의 진출이 이루어졌고, 한국의 K-move를 비롯한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과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취업비자(work permit) 서비스업 종사자의 신청발급 대상자에 한국인이 포함되면서 20대 한인 청년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해외 학위 취득과 싱가포르에서의 취업가능성을 염두에 둔 학부 유학생들이 증가하게 되었다(김지훈, 2019a; 김지훈, 2019b).³⁷⁾ 또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현지 초·중·고를 다닌

37)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 방문 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취업 비자는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employment pass(EP)에는 급여 조건에 따라 P1, P2, Q1 비자가 있으며 주로 주재원 및 회사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유형이며, 이들 중 월소득 5,000SD 이상인 자에 한해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동반자 사증(dependent's pass) 발급이 가능하다. S Pass는 중간급 기술자 및 디플로마,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EP에 비해서는 급여수준이 낮다. 반면, 20~30대 청년들이 주로 발급받는 work permit은 최소 급여조건이 없고, 직종, 학력 등의 제한조건이 없는 반면, 주로 서비스업종 및 탈숙련 직종이 포함된다. 유학생의 경우 Student Pass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승은, 2014: 152~154; 육주원, 2018: 121).

조기유학생 출신의 청년층 상당수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싱가포르의 새로운 한인 이주자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싱가포르 내 한인사회 구성원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각자 자신의 커리어와 가족들의 일에 몰두하여 한인사회나 다른 구성원 집단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일 중심, 가족 중심의 선택적인 사회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김지훈, 2019b: 244-257).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³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인들이 말레이시아를 조기유학 대상지로 선호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이주가 증가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는 물가가 저렴한 반면,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조기유학 대상지로 부상하게 되었다(홍석준, 2012: 133-136). 또한 기업의 글로벌화로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증가하는 한편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주재원 및 개인사업자들의 이주가 증가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987년에 50세 이상 일본인과 서유럽 출신 은퇴자들을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해 실버헤어 프로그램(silver hair program)을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실버헤어 프로그램을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M2H: 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다(김도혜, 2019: 131-132). MM2H 도입 이후, 매해 많은 은퇴 이민자들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의 50~60대 이상 은퇴자들의 말레이시아 이주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한인 3만 명 정도가 말레이시아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인들은 주로 자영업, 주재원, 학생, 기타(종교 등) 신분으로 구성되어

3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말레이시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7815>에서 2020년 4월 2일 인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석준, 2019: 122).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을 통해 초국적 정체성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석준, 2012).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6천만 명으로 세계 4번째 인구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 한국 정부는 1973년 11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인적, 문화교류가 증가하고 있다.³⁹⁾ 19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였고 1980년대까지 자원 개발, 섬유, 신발, 봉제 등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1990년대 이후에는 철강, 전자, 건설 분야로 진출 분야가 다양해졌고, 2010년 전후에는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한 유통, 서비스산업, 회계, 법률, 금융,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진출해 있다(이장섭, 이석인, 2019: 97-98).

그런데 외교관계가 수립된 1973년 이후 약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내 한인사회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들 중 다수가 주재원, 공관원들이 주를 이루었고, 일시 체류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재외한인들은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비즈니스를 위해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재인도네시아 한인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1920년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딘 한인 장운원 선생의 후손들에 대한 연구나 한-인도네시아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오피니언뉴스, 2020.1.29).

다만 한인 여성들은 2000년 이전까지는 가족 동반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주하여

39)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관소개, http://overseas.mofa.go.kr/id-ko/wpge/m_2850/contents.do에서 2020년 4월 2일 인출

한국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직접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가 개교하기 전까지 주로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다가, 한국국제학교 개교 후부터는 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내고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영어를 수업을 진행하는 준국제학교가 증가하면서 한인자녀들이 다양한 현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성장한 한국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대학에 진학하며, 10% 내외 학생들만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데일리인도네시아, 2019.11.1).

2) 동남아 동포청소년 인구 현황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재외동포는 2019년 기준으로 7,493,587명이며,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륙별로는 동북아시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43.9%인 3,286,3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북미(37.2%), 유럽(9.2%), 남아시아태평양(7.9%), 중남미(1.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대륙별 동포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와 중남미, 중동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북미, 남아시아태평양, 유럽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2015년에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대륙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구분	2013	2015	2017	2019	백분율 (%)	2017년 대비 증감율(%)
총계	7,012,917	7,184,872	7,430,688	7,493,587	100.00	0.85
동북아시아	3,467,057	3,441,718	3,366,656	3,286,363	43.86	-3.40
북미	2,297,425	2,463,043	2,733,194	2,788,732	37.21	2.03
남아시아태평양	485,836	510,633	557,791	592,441	7.91	6.21
중남미	111,156	105,243	106,794	103,617	1.38	-2.97
유럽	615,847	627,089	630,693	687,059	9.17	8.94
아프리카	10,548	11,583	10,853	10,877	0.15	0.22
중동	25,048	25,563	24,707	24,498	0.33	-0.85

* 출처 : 외교부 (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14)의 표에서 일부 수정

동남아시아에는 2019년 현재, 36만 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6개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국가별 동포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감소하였고, 태국은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감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15년에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인구 현황(연도별)

구분	2013	2015	2017	2019
베트남	86,000	108,850	124,458	172,684
필리핀	88,102	89,037	93,093	85,125
인도네시아	40,284	40,741	31,091	22,774
싱가포르	20,330	19,450	20,346	21,406
말레이시아	14,000	12,690	13,122	20,861
태국	20,000	19,700	20,500	20,200
캄보디아	4,372	8,445	10,089	11,969
미얀마	2,083	3,106	3,456	3,860
라오스	1,133	1,890	2,980	3,050
브루나이	131	165	465	328
계	276,435	304,074	319,600	362,257

* 출처 : 외교부 (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p. 17-18)의 표에서 일부 수정

※ 베트남 : 기업수요에 따른 남성노동자 수 증가 및 거주 가구 수 증가, 재외한국학교 학생 등 실질 수 반영

※ 필리핀 : 주재국 정부의 체류 비자 요건 강화 및 사업 환경 열악화로 인한 감소

※ 인도네시아 : 외국인 근로 및 체류자격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및 현지물가 상승 등으로 한국인력 파견 감소 등(p.108)

동남아시아 국가별로 재외동포 현황을 거주자격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외국국적자가 전혀 없고 일반체류자(137,144명)와 유학생(35,540명)만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국가는 영주권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외국국적자가 각각 22명, 77명으로 적었다. 특히, 태국은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128명으로 주요 6개국 중에서 베트남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모두 2,000명이 넘고, 외국국적자도 각각 690명, 447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영주권자와 외국국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0 동남아시아 주요국가의 재외동포 인구 현황(거주자격별)

구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베트남	-	137,144	35,540	172,684	-	172,684
- 주베트남대서관	-	78,600	2,610	81,210	-	81,210
- 주호치민대서관	-	58,544	32,930	91,474	-	91,474
필리핀	1,367	76,455	7,281	85,103	22	85,125
인도네시아	2,153	19,314	617	22,084	690	22,774
싱가포르	2,646	15,615	2,698	20,059	447	21,406
말레이시아	331	15,470	4,763	20,564	297	20,861
태국	128	16,107	3,888	20,123	77	20,200
캄보디아	-	9,469	65	9,534	-	9,534
미얀마	18	3,730	112	3,860	-	3,860
라오스	8	3,022	20	3,050	-	3,050
브루나이	4	316	4	324	4	328

* 출처 : 외교부 (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p. 88-125).의 표에서 수정

3.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동포단체 및 교육기관 현황

1)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한인단체 현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에 있는 한인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인도네시아에는 총 35개의 한인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인회가 16개, 한글학교 10개, 문화예술단체 4개, 신문방송언론단체 5개이다. 필리핀에는 총 32개의 한인단체가 있으며, 한인회 10개, 한글학교 18개, 한인학생협의회 1개, 신문사 1개, 경제단체 2개가 있다. 베트남에는 총 17개의 한인단체가 있으며, 한인회 3개, 한글학교 6개, 신문방송언론단체 2개, 봉사친목단체 2개, 사회경제단체 3개, 문화예술단체 1개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총 14개의 한인단체가 있으며, 한인회가 4개, 한글학교, 9개, 한국문화동아리 1개가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총 10개의 한인단체가 있으며, 한인회 5개, 한글학교 5개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에는 총 5개의 한인단체가 있는데, 한인회, 한글학교, 한인여성회, 민화협회, 한국상공회의소가 각각 1개씩 있다. 주로 한인회와 한글학교에 대한 분포가 많으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에는 한인단체가 다양하고 많은 반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는 한인회와 한글학교 이외의 한인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주요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는 22개 아시아 국가 한인회 대표 단체로서 국내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⁴¹⁾. 아시아 국가의 한글학교 연합회인 아시아 한글학교협의회에서 교사들 간의 정보교환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 아시아

40) 코리안넷. 재외동포단체 지역으로 찾기, http://www.korean.net/portal/global/pg_group_area.do에서 2020년 3월 31일 인출

41) 연합뉴스 (2019.3.8).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국내서 사단법인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43700371?input=1195m>에서 2020년 4월 21일 인출

한글학교교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회를 개최하며, 우수 교사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하여 교사들을 격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⁴²⁾. 아세안한인상공인 연합회 (Association of ASEAN Korean Chambers, AAKC) 한인상공인 대표단체로서 2018년 2월에 출범하여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킹,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³⁾.

표 III-11 동남아 주요 국가별 한인단체 현황

국가	단체명	비고
인도네시아	재인니동부자바한인회, 재발리한인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바탐한인회, 인도네시아 중부자바한인회, 땅그랑 반튼 한인회, 저빠라한인회, 족자한인회, 재인도네시아메단한인회, 마카사르한인회, 동부자와한인회, 저파라한인회, 찌까랑한인회, 수까부미한인회, 재인도네시아반둥한인회, 재인니상사한인회	한인회
	코원재인니한글학교(구. 밀알한글학교), 열린한글학교, 바탐한인/한글학교, 반둥한글학교, 발리한국학교, 스마랑한글학교, 족자한글학교, 파푸아한글학교, 동부자바한인회부설수라바야토요한글학교, 츠빠라한글학교,	한글학교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문예총,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재인니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문화 / 예술단체
	K-TV, 한인뉴스, 한인타임즈 상공회의소, 오리엔탈엘렉트로닉	신문 / 방송 / 언론
필리핀	세부한인회, 필리핀중부루손한인회, 다바오한인회,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필리핀 일로일로 한인회, 필리핀바기오한인회, 수빅한인회, 필리핀마닐라남부한인회, 중부루손한인회, 보라카이한인회	한인회
	앙겔레스 한인학교, 일로일로 한글학교, 글로벌크리스찬아카데미 한글학교, 다바오 한글학교, 가가얀 한국학교, 로마린다한글학교, 마닐라구세군한글학교, 바기오한글학교, 보라카이한글학교, 세부한글학교, 수빅한글학교, 카비테한글학교, 팔라우한글학교, 필리핀한글학교, 한국쉐마학교, 산타로사 한글학교, 마닐라 남부 한글학교, 목양한글학교	한글학교

42) 재외동포신문 (2018.10.22). 제13회 아시아지역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01>에서 2020년 4월 21일 인출

43)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https://www.korchamsg.org/?p=8385>에서 2020년 4월 21일 인출

국가	단체명	비고
	필리핀한인학생협의회	차세대 / 학생회 / 청년회
	코리아포스트	신문 / 방송 / 언론
	필리핀한인무역협회,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협회 / 단체
베트남	호치민한인회, 재베트남바리아붕따우성한인회, 재베트남하노이한인회	한인회
	호찌민한글학교, 한베함께돌봄센터, 빈즈영한글학교, 사이공한글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주말한글학교, 호치민시토요한글학교	한글학교
	라이프플라자, 베한타임즈	신문 / 방송 / 언론
	호치민한베가족협회, 디딤돌봉사회	봉사 / 친목단체
	ACEF호치민한국문화원	문화 / 예술단체
	대한민국지킴이야,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 영비즈니스리더스 네트워크	사회경제단체 / 협회
말레이시아	재말레이시아한인회, 재마조호한인회, 재마북부한인회, 조호한인회	한인회
	페낭토요한글학교, 조호바루밀알한글학교, 말라카한인학교, 말레이시아 한국인학교, 세렘반 토요한글학교, 쿠칭 한글학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한글학교, 조호바루 한글학교, 코타키나발루 한국인학교	한글학교
	한국문화동아리	차세대 / 학생회 / 청년회
태국	재태국한인회, 재태국궂한인회, 대한노인회태국지회, 치앙마이한인회, 푸궂한인회	한인회
	방콕한인토요학교, 치앙마이한글학교, 유니온한글학교, 촌부리 에덴한글학교, 푸궂한글학교,	한글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인회	한인회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토요한글학교	한글학교
	싱가포르한인여성회	여성
	싱가포르 민화협회	문화 / 예술단체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협회 / 단체

* 출처 : 코리안넷. 재외동포단체 지역으로 찾기, http://www.korean.net/portal/global/pg_group_area.do에서 2020년 3월 31일 인출

2)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재외교육기관 현황

동남아시아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학교 학생수는 전 세계 한국학교 학생 수 14,040명의 38.1%인 5,343명이 있으며, 전임교원 수는 356명(전 세계 전임교원의 28.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의 학생 수가 3,916명으로 동남아 한국학교 학생 수의 73.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20명), 싱가포르(453명), 필리핀(187명), 태국(89명), 말레이시아(55명), 캄보디아(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동남아시아 국가의 재외한국학교 현황

구분	학생 수(학급 수)					전임교원 수					설립일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전세계 한국학교	745 (52)	6,474 (297)	3,017 (127)	3,804 (162)	14,040 (638)	96	500	289	364	1,249	
동남아 한국학교	140 (9)	2,779 (105)	1,142 (40)	1,282 (47)	5,343 (201)	12	164	80	100	356	
베트남	42 (2)	2,083 (58)	926 (26)	865 (26)	3,916 (112)	2	74	48	50	174	
- 호치민	42 (2)	932 (26)	453 (13)	466 (15)	1,893 (56)	2	33	26	27	88	'98.8.4
- 하노이	-	1,151 (32)	473 (13)	399 (11)	2,023 (56)	-	41	22	23	86	'06.3.21
필리핀 (필리핀)	20 (1)	80 (6)	40 (3)	47 (3)	187 (13)	2	14	7	6	29	'05.7.1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264 (13)	113 (5)	243 (12)	620 (30)	-	25	11	25	61	'77.4.25
싱가포르 (싱가포르)	62 (4)	248 (11)	49 (3)	94 (3)	453 (21)	6	29	11	13	59	'93.2.1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16 (2)	39 (6)	-	-	55 (8)	2	6	-	-	8	'16.4.12

구분	학생 수(학급 수)					전임교원 수					설립일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태국 (방콕)	-	42 (6)	14 (3)	33 (3)	89 (12)	-	11	3	6	20	'02.2.18
캄보디아 (프놈펜)	-	23 (5)	-	-	23 (5)	-	5	-	-	5	'18.8.27

* 출처 : 교육부 (2019). 교육통계연보 (p. 1055)의 표에서 수정

동남아시아 국가의 재외한글학교 학생(학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필리핀이 1,322명(18개교)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710명(11개교), 말레이시아 653명(8개교), 베트남 503명(5개교), 태국 478명(5개교), 싱가포르 253명(1개교), 캄보디아 206명(2개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동남아시아 국가의 재외한글학교 현황

구분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베트남	5	53	503
필리핀	18	240	1,322
인도네시아	11	113	710
싱가포르	1	17	253
말레이시아	8	74	653
태국	5	66	478
캄보디아	2	24	206
미얀마	1	11	86
라오스	1	11	61
브루나이	1	7	20
방글라데시	2	21	117
스리랑카	2	18	77

* 출처 : 교육부(2019). 교육통계연보. p. 1,056의 표에서 수정

○———— 제4장 동남아시아 동포 청소년 조사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 2. 질적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남아 6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고려하여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과 설문 개발 절차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 개발 절차⁴⁵⁾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항목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논의된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제3문화 혹은 교차문화 청소년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즉,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사용해 온 생태학적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3문화 혹은 교차문화 청소년 이론에

44) 이 장의 1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김정숙 연구원이 집필하였음.

45) 본 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음(202005-HR-고유-009).

기초한 문항을 추가보완하였다.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다른 대륙의 동포 청소년들과 다르게 외국국적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거주국에서의 영주보다는 한국으로의 귀환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3문화 혹은 교차문화 청소년 이론을 통해서 동남아 동포 청소년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개발은 생태학 이론과 제3문화 및 교차문화 이론과 관련한 문헌의 검토와 2019년도에 개발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설문지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의 청소년 및 동남아 동포 관련 학자,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경험 있는 전문가, 그리고 현재 동남아 각국의 한국국제학교 교사들의 자문을 통하여 수정하였다. 즉, 2019년도에 개발한 생태학적 조사영역을 유지하면서 관련성이 부족한 일부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제3문화 혹은 교차문화 특성과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조사영역에 포함시켜 초안을 완성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국내 청소년 및 재외동포 관련 학자들과의 자문회의, 그리고 동남아각국의 한국국제학교 교장 출신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동남아 현지에서의 설문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남아각국의 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자문을 받아서 연구자가 최종 확정하였다. 확정된 설문지는 전문 번역 업체에 의뢰하여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며, 현지 한국국제학교 교사의 검토를 거쳐서 수정하였다.



그림 IV-1 설문 개발 절차

(2)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설문조사의 주요 조사 영역은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생태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5개의 생태학적 체계의 영역,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정책의 성과로 기대하고 있는 한민족정체성과 대한민국 및 한인사회에서의 동포청소년의 역할을 포함하였다. 즉, 첫째, 응답자의 배경 변인, 둘째, 교차문화 특성과 한국어 및 거주국에 대한 관심과 태도, 셋째, 가정, 친구, 학교 등의 동포청소년 근접환경, 넷째, 부모-내 친구, 부모-교사, 부모-타 한인 부모 등의 근접환경간의 관계, 다섯째, 거주국의 교육 여건, 거주국 문화교류 여건, 한국방문 및 학업·취업·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여건 등 동포청소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프로그램, 여섯째, 거주국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교포사회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거주국의 한국문화 수용,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등 거주국 및 대한민국 사회의 관습이념·태도, 일곱째, 과거 한국문화체험 및 한국문화경험, 가정사 및 이민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시간체계, 여덟째, 한민족 정체성,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등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으로 거주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과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영역과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설문조사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IV-1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배경 변인		- 출생연도(1) - 성별(2) - 학교급(4) - 국적(9) - 해외 출국년도(8) - 보호자(10) - 부모 직업(12) - 나의 정체성(16) - 부모의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13) - 학교유형(3) - 거주기간(6) - 부모 국적(11)
교차문화 특성과	교차문화 특성	- 세계에 대한 개방성 vs 정주의 불안함(31-1,2) - 다문화 수용성 vs 한국 문화 이해의 어려움(31-3,4)

조사영역		조사항목
한국어 / 거주국에 대한 관심과 태도		• 다양한 친구관계 vs 깊은 친구 관계 형성의 어려움(31-5,6) • 외국어 학습의 수월성(31-7) • 미래보다 현재적 삶 중시(31-8)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능력	•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학습 욕구(15-1,2) •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기, 쓰기)(15-3,4,5,6)
	거주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 학습 욕구, 구사 수준(17-1,2,3) • 거주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의사(17-4,5)
근접환경 (미시체계)	가정	•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20)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드라마 시청)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21-1, 2, 5, 6) (한국인으로서의 삶, 한국에서의 공부, 국내외 한국기업 취업) • 친·인척 간의 모임(24-3)
	친구	• 한국인 친구들과의 만남(24-1) •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유무(24-2)
	학교	• 정규학교 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및 재학기간(14, 14-1) • 정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22) • 정규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 거주 국가(23)
근접 환경간 관계 (중간체계)	부모-내 친구	• 부모-내 친구 인지(24-6)
	부모-교사	• 부모-정규(한글)학교 교사와의 교류(24-5)
	부모-타 한인부모	•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교류(24-4)
정책·제도 프로그램 (외체계)	거주국 문화교류 여건	• 한인회 개최 행사 참석 경험(25-1) • 거주 국가에서의 동포캠프 / 연수 참여 경험(25-2)
	거주국 교육여건	• 학교에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수강 여부(26, 26-1) • 학교에 거주국 언어 강좌의 개설 및 수강 여부(27, 27-1)
	한국방문 및 학업· 취업·프로그램 참여건	• 한국방문,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 욕구(30-1, 3, 4) • 한국 개최 청소년프로그램 / 캠프 참여 경험(25-3) • 한국 개최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욕구(30-2)
관습·이념 ·태도 (거시체계)	한국문화의 인식	• 거주국 사회에서의 한류의 확산에 대한 인식(28-1)
	교포사회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28-2)
	거주국의 한국문화 수용	• 거주국 사회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28-3)

조사영역		조사항목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28-4)
시간체계	한국문화체험	• 과거 한국 문화 체험(29-1)
	한국방문 경험	• 과거 한국 방문 경험(29-2)
	가정사 및 이민경험	• 거주 경험 국가(7) • 거주 국가에서 살게 된 이유(5)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 해외 이주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18)
기타	개방형 문항	• 거주국에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
		• 정부의 정책 지원
종속변수		• 한민족 정체성(조상에 대한 자부심, 한민족 일원의식, 한민족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한국 관련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동일체 의식)(19)
		•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거주국 한인사회 발전, 한국문화 확산, 한국경제사회 발전, 남북평화 기여)(32)

① 응답자의 배경변인

배경변인 조사를 위해서 출생연도, 성별, 학교유형, 학교급, 국적, 거주기간, 해외 출국년도, 보호자, 부모 국적, 부모직업, 나의 정체성, 부모의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을 조사문항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문항들은 김경준, 정은주(2017), 정은주, 김정숙(2018), 김경준, 김정숙(2019)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 부모직업, 부모의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 등은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교차문화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② 교차문화 특성과 한국어 / 거주국에 대한 관심과 태도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외국 국적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직업이나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대륙과는 달리 제3문화 혹은 교차문화적 특성을 많이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교차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구성하였다. 즉, Pollock & Van Reken(2001)과 Pollock 외(2017)에서 제시된 제3문화 및 교차문화 특성 중에서 연구자가 동남아 동포청소년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8개 문항(‘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이나 거주국 어느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는 어느 나라에 가든 새로운 친구와 사귄다.’, ‘나는 친구들과 깊게 사귀는 것이 어렵다.’,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을 교차문화 특성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 한국어 능력은 정은주, 김정숙(2018)과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조사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문항들은 한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학교 및 현지학교 재학 청소년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 구사 수준, 그리고 거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와 수용 의사 정도는 연구자가 각각 1개 문항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③ 근접환경(미시체계)

미시체계는 동포청소년들에게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서 가정, 친구, 학교를 포함하였다. 가정환경에는 가정 내 한국 친화활동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 친인척 간의 모임으로 구성하였다.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은 김경준, 김정숙(2019)에서 조사한 3개 문항(‘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노래를 듣는다.’)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은 김경준, 김정숙(2019)에서 조사한 3개 문항(‘부모님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 중에서 ‘부모님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는 문항은 응답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로 수정하였고, ‘부모님은 내가 한국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문항은 질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와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의 2개 문항으로 분리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구 관련 변인은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동포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 중 ‘동포친구들’을 ‘한국인 친구’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학교 관련 변인은 정규 학교 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경험, 기간을 김경준, 김정숙(2019)에서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밖에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미래 진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와 졸업 후 거주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④ 근접환경 간의 관계(중간체계)

중간체계는 동포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간의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 친구와의 관계, 한인부모들 간의 관계, 부모와 정규(한글)학교교사와의 관계를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조사 문항은 김경준, 김정숙(2019)에서 조사한 3개 문항(‘부모님은 내 친구를 잘 안다.’, ‘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을 각각 사용하였다.

⑤ 정책·제도·프로그램(외체계)

외체계는 청소년의 즉각적인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거주국

내에서의 한국어 및 거주국 언어 교육 여건, 거주국에서의 한국문화 체험 및 캠프/연수여건,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학업·취업·청소년프로그램 참여여건을 조사하였다. 한국어 및 거주국 언어 교육 여건 중에서 정규학교 내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수업 여부는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2개 문항(‘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수업이 있나요?’, ‘한국어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을 사용하였으며, 거주국 언어 교육의 여건은 연구자가 직접 2개 문항(‘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거주국 언어 수업이 있나요’, ‘거주국 언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거주국에서의 한국문화 체험 및 캠프/연수여건은 한인회 개최 행사 참석 경험과 거주 국가에서의 동포캠프/연수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정은주, 김정숙(2018)과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한인회의 한국의 날과 같은 한인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거주국에서 열리는 한인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을 사용하였다.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학업·취업·청소년프로그램 참여여건은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⑥ 관습·이념·태도(거시체계)

거시체계는 동포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교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와 신념, 태도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류의 확산, 교포사회의 한국문화의 확산 노력, 거주국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한국동포에 대한 태도에 관한 4개 문항(‘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가 이곳에 유행되고 있다.’, ‘한인교포사회는 한국문화를 알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거주국 사회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에게 긍정적이다.’)이 포함되었다.

⑦ 시간체계

시간체계는 시간의 흐름이 개인이나 환경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체험, 한국 방문 경험, 가정사 및 이민 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과거 한국 문화체험 경험과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은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과거에 한국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사 및 이민 경험에 관한 문항은 거주 경험 국가와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거주 경험 국가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문항(‘지금까지 살아본 나라는 총 몇 개인가요?’)을 사용하였으며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는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3개 문항(‘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을 통합하여 1개의 문항(‘해외로 나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나요?’)으로 사용하였다.

⑧ 한민족정체성과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한민족정체성에 관한 문항은 정은주,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응답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4개 문항(‘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느낀다.’)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에 관한 문항은 거주국 한인사회 발전, 거주국에서의 한국문화 홍보,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 남북통일 등에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즉, 김경준, 김정숙(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4개 문항(‘거주국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거주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으로 조사하였다.

(3) 분석에 활용된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능력은 4개 문항으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930이었으며,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은 3개 문항으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43이었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은 4개 문항으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553이었으며, 한국 관련 참여 욕구는 4개 문항으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04로 나타났다. 한민족 정체성은 4개 문항으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80이었으며,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은 4개 문항으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38로 나타났다.

표 IV-2 관련 요인의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α
한국어 능력	4	.930	한국 관련 참여 욕구	4	.704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3	.643	한민족 정체성	4	.780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	4	.553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4	.838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특성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3개 요인이 전체분산의 60.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4개 문항으로 교차문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특성에 해당하고, 요인 2는 3개 문항으로 교차문화 청소년의 부정적 특성에 해당하며, 요인 3은 교차문화 청소년의 긍정적 특성이나 부정적 특성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현재적 삶을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요인 1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65였으며, 요인 2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576으로 나타났다.

표 IV-3 교차문화 특성의 요인 분석 결과

측정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세계에 대한 개방성(31-1)	.778	-.063	-.133
다문화 수용성(31-3)	.801	-.103	-.081
다양한 친구관계 형성의 용이(31-5)	.685	-.234	.238
외국어 학습의 수월성(31-7)	.510	.066	.470
정주의 불안함(31-2)	-.040	.791	-.024
한국 문화 이해의 어려움(31-4)	-.010	.706	.224
깊은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31-6)	-.296	.673	-.148
미래보다 현재적 삶 중시(31-8)	-.093	.024	.859
고유치	2.07	1.65	1.11
설명변량	25.92	20.64	13.91
누적변량	25.92	46.57	60.48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665	.576	

* 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 ()안의 번호는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번호임.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동남아 동포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는 2020년 6~7월 사이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동남아 6개국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남아 6개국의 선정은 한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경제·사회적 지표를 참고로 하였다.

동남아 동포청소년에 대한 표본 추출은 재외동포청소년 인구수를 추정할 수 없어서 2019년도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인 목적적 할당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즉, 조사대상 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각 국가별로 150명 내외로 총 900명 정도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각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각각 50명 내외로 할당하고, 성별과 한국국제학교, 국제학교 등 학교 유형별로도 가급적 비슷한 규모로 할당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서 당초에 현지 출장을 통한 조사방법에서 온라인 웹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웹조사는 리서치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웹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섭외는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2020년 5월 15일에 동남아 6개 국가의 한국국제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동남아 6개국 내 한글학교 연락처를 받아서 각 한글학교에 메일 발송과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소속 청소년들의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동남아 6개국의 한인회와 한인교회 등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하였으며, 국제학교에 재직 중에 있는 교사를 통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웹조사는 연구자가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국제학교 교사들에게 웹조사 내용이 포함된 URL을 보내면, 교사들이 다시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URL로 들어가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상황을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함으로써 응답이 부족한 국가라든가 부족한 학교 유형 등에 대해서는 재차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말레이시아 96명, 베트남 151명, 싱가포르 150명, 인도네시아 143명, 태국 92명, 필리핀 127명 등 총 759명이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ANOVA),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특히, 일원분산분석에서 등분산이 가정되는 경우에는 S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Welch-test 통계량과 Games-Howell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질적조사 개요

질적조사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9~18세의 재외동포청소년과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과거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20대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포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동포청소년의 현지 생활과 적응 과정,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또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동남아 국가별 특성, 청소년기의 현지 생활 및 학교 적응 경험,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 동포청소년 성장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성인전문가 및 동포청소년의 경우 6개 국가별로 5명 내외로 31명, 20대 청년의 경우 6개국별로 3~4명씩 19명을 포함한 총 50명이다. 동남아시아 6개국 조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의 방향 및 구체적 내용을 설계하는 데 반영하였다. 또한, 6개국 거주 동포청소년과 성인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를 위해 현지 재외동포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섭외하여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적조사는 면담조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대상에게 사전에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송부하여 이루어졌고 면담은 개별 면담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일부는 2인 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동포청소년 조사 대상에는 한국 학력이 인정되는 한국국제학교 재학 청소년, 주말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로는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 동포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되었다. 질적조사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질적조사 결과는 별도의 장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정책제언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표 IV-4 질적조사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주요 요소	내용	
질적조사 참여자 선정	-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관,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 등을 통해 동포청소년과 성인(교사, 임원 등) 섭외 - 현지 한인단체 및 한글학교협의회 간부를 통한 면담참여자 선정 - 청소년: 학교유형(한국국제학교, 국제학교, 현지학교 등), 성별, 학교급 고려 - 성인: 학교유형(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경력 고려 - 청년: 성별, 학교유형(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이주이유 고려	
질적조사 참여자 수	-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국가별 청소년 2명 내외, 전문가 3명 내외 총 30명 내외 -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20대 청년 19명	
질적조사 방식	동포청소년 및 성인	- 반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1대 1 또는 집단면담 - 청소년(1인당 30~40분), 성인(50~60분) 1회씩 실시 - 면담 내용 녹취, 면담 종료 후 전사
	청년	- 반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1대 1 또는 집단면담 (50~60분) - 회고적 서면조사 병행
조사자	- 연구자 2인	

본 연구에서는 조사참여자 집단별로 상이한 질적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동포청소년, 성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동남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동포청소년 및 성인전문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한 것은 동포청소년의 이주 경험, 그들이 거주국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정체성의 문제, 학교교육 및 진로 결정 등의 의미를 이주 역사, 거주국의

사회적 맥락과 장소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20대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생애사 연구 방법을 적용한 것은 10대 때의 동남아 거주경험이 시간이 지난 후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 중에서도 이주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등 개인 삶의 전환기에 동남아시아 거주 경험이 끼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대의 관점은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참여자 집단별로 적용한 질적조사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5 조사대상별 적용 질적조사 방법 및 특징

참여자 집단	질적조사방법	특징
20대 청년	생애사 연구 (life history) :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 구술자료 토대	•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공적 맥락을 시간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방법 • 개인의 경험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부터 과거까지 시간에 따른 사회조건의 변화, 특정 사건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관통하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춤 • 전체 생애사(complete life history)보다는 주제별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참여자의 생애사로 부터 공통의 주제 도출
동포청소년 & 성인 전문가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 내러티브 탐구는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법 • 특히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그리고 장소(place)를 고려하여 조사함. 시간성은 동포청소년, 동포 성인들의 과거 거주국 이주, 현재와 미래라는 맥락 속에서 경험을 이해하며, 또한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파악하고, 동남아 6개국 또는 동포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유형(한국국제학교, 국제학교, 한글학교 등)의 물리적 경계와 조건을 고려하여 경험을 분석함.

* 출처 : 김영천, 한광웅(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pp. 13, 18, 20); Clandinin & Huber (2010). Narrative inquiry(pp. 436-441).

우선 생애사 연구(life history)는 20대 청년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해당 시점의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경험한 특정한 삶의 이야기를 사회구조적 조건과 시간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른 사회조건의 변화, 특정 사건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관통하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체 생애사(complete life history)보다는 20대 청년이 청소년기에 동남아 6개국에서 경험했던 주제별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참여자의 생애사로부터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김영천, 한광웅, 2012: 13, 18, 20).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청년 생애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국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20대 청년들을 최초로 소개받고 이후 눈덩이표집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을 늘려나갔다.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19명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는 태국 2명, 필리핀 3명, 베트남 5명, 싱가포르 2명, 말레이시아 3명, 인도네시아 4명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 10명, 남자 9명이다. 이들의 연령은 만 20~28세에 해당하며, 현재 신분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졸업, 직장인 등 다양하다. 청년 생애사 조사 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청년 생애사 조사 참여자

구분	현재 신분	성별	연령(세)	이주국가	거주기간 (년)	비고
청년1	대학생	여	20	베트남	11	부모님 사업으로 이주,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졸업
청년2	대학생	여	21	베트남	3	부모님 사업으로 이주, 한국국제학교 졸업
청년3	대학생	여	20	베트남	3	부모님 사업으로 이주, 한국국제학교 졸업

구분	현재 신분	성별	연령(세)	이주국가	거주기간 (년)	비고
청년4	대학생	여	21	베트남	9	부모님 직업으로 이주, 국제학교 졸업
청년5	대학생	남	20	베트남	16	부모님 직업으로 이주, 국제학교 졸업, 12년 특례
청년6	대학생	여	22	말레이시아	8	유학 목적으로 이주 국제학교 졸업, 현지 대학 재학
청년7	대학졸업	여	23	말레이시아	13	유학 목적으로 이주 현지 초중고, 대학 졸업
청년8	대학생	남	25	말레이시아	11	부모님(선교사)과 이주, 국제학교 졸업
청년9	대학생	여	23	태국	3	부모님(선교사)과 이주 국제학교 졸업
청년10	대학생	남	20	태국	10	부모님(선교사)과 이주 현지학교, 국제학교 졸업
청년11	대학원생	여	28	필리핀	6	유학 목적으로 이주 현지 중고 졸업 후 한국 대학 재학 및 졸업
청년12	직장인	여	24	필리핀	12	유학 목적으로 이주 현지 초중고, 대학 졸업
청년13	대학생	남	21	필리핀	15	부모님(선교사)과 이주 국제학교 졸업, 12년 특례
청년14	대학생	여	22	인도네시아	10	한-인도네시아 가정 자녀 현지 초중고 졸업, 현재 한국대학 재학 중
청년15	대학생	남	24	인도네시아	9	부모님(선교사)과 이주 현지 국제학교 졸업 후 미국 대학 진학(휴학). 현재 군복무 종료 후 한국 체류
청년16	대학생	남	24	인도네시아	9	부모님(선교사)과 이주, 국제학교 졸업
청년17	대학생	남	24	인도네시아	13	부모님 사업으로 이주, 국제학교 졸업, 12년 특례
청년18	직장인	남	26	싱가포르	13	유학 목적으로 이주 현지 중고, 대학 졸업
청년19	대학원생	남	28	싱가포르	15	유학 목적으로 이주 현지 초중고, 대학 졸업

청년 대상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진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⁴⁶⁾ 우선 인구학적 배경과 동남아 국가로 이주했던 이유, 이주 후 동거인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거주 경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1) 거주국에서의 학업 및 학교생활, 2) 가족관계, 3) 거주국 내 교류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4) 거주국 사회에서의 체류 경험을 토대로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5) 거주국 체류 경험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회고적 글쓰기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청년들이 작성한 생애사적 글쓰기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Mandelbaum(1973: 180-182)은 생애사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개념으로, 차원(dimensions), 전환(turnings), 적응(adaptations)을 제안한 바 있다. 차원은 개인 경험에 토대가 되는 것으로 개인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여기에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심리적 차원들을 들 수 있다. 전환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주요한 이행, 변화와 관련된 사건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응은 개인의 삶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과 그에 대한 반응 과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패턴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상술한 3가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 20대 청년들이 청소년기에 이주했던 동남아 국가에서의 체류 경험은 그들의 성별, 신체적 특성, 한국 및 거주국의 문화적 성격, 그들이 관계 맺고 있던 사회적 차원, 사회·심리적 차원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들이 동남아 국가로 이주했던 시점,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했던 시기,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거주국에 남아 있기로 한 결정 등이 이들의 생애에 전환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재학했던 학교유형(한국국제학교 vs. 국제학교)은 이들에게 상이한 생애

46) 당초 20대 청년 대상 생애사 연구는 면담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사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거주국 내에서 직면했던 다양한 삶의 조건들, 예컨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 또는 부모 중 한 명이나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조건 속에서 보여준 행동 유형들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던 적응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이 3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동남아 국가 체류 경험을 분석하였다.



* 출처 :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pp. 180-182).

그림 IV-2 생애사 연구 분석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개념

다음으로, 면담조사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및 성인전문가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동포청소년들의 연령은 13~18세에 해당하며, 남자 2명, 여자 11명이 면담조사자로 참여하였다. 국가별로는 태국 3명, 필리핀 2명, 베트남 2명, 싱가포르 2명, 말레이시아 2명, 인도네시아 2명이었다.

표 IV-7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면담조사 참여자

구분	거주국가	학교유형	학교급	성별	연령 (세)	거주자격	거주 기간(년)
청소년1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고등학교	여	16	일시체류자	4
청소년2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고등학교	여	17	일시체류자	15
청소년3	베트남	국제학교	중학교	남	13	일시체류자	1.5
청소년4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남	17	일시체류자	12
청소년5	싱가포르	국제학교	중학교	여	14	일시체류자	8
청소년6	싱가포르	국제학교	중학교	여	14	미국 출생	4

구분	거주국가	학교유형	학교급	성별	연령 (세)	거주자격	거주 기간(년)
청소년7	인도네시아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여	17	일시체류자	17
청소년8	인도네시아	국제학교	중학교	여	15	일시체류자	15
청소년9	태국	국제학교	고등학교	여	16	일시체류자	16
청소년10	태국	국제학교	중학교	여	15	일시체류자	15
청소년11	태국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여	17	일시체류자	4.5
청소년12	필리핀	국제학교	고등학교	여	17	영주권자	13
청소년13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여	18	일시체류자	12

한편 면담조사에 참여한 성인전문가들은 국가별 3명씩, 총 18명으로 그 중 남자 8명, 여자 10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현지 국제학교에서 동포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한국국제학교 교사 중 일부는 거주국의 한국국제학교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의 한국국제학교에서 재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면담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대부분의 성인 조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동포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 해당한다.

표 IV-8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성인전문가 면담조사 참여자

구분	거주 국가	소속	성별	연령 (세)	거주 자격	거주기간 (년)
성인1	필리핀	한글학교 협의회	남	60	일시체류자	23
성인2	필리핀	한글학교	남	59	일시체류자	30
성인3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여	46	일시체류자	3
성인4	태국	한글학교	여	51	일시체류자	26
성인5	태국	한글학교	남	58	일시체류자	30
성인6	태국	한국국제학교	남	44	일시체류자	0.4
성인7	싱가포르	한글학교	여	38	영주권자	7
성인8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여	28	일시체류자	1.5

구분	거주 국가	소속	성별	연령 (세)	거주 자격	거주기간 (년)
성인9	싱가포르	한글학교	여	42	일시체류자	8
성인10	인도네시아	한글학교	여	55	일시체류자	25
성인11	인도네시아	한국국제학교	여	52	일시체류자	25
성인12	인도네시아	한국국제학교	여	49	일시체류자	10
성인13	말레이시아	한글학교	여	53	일시체류자	20
성인14	말레이시아	한글학교	여	51	일시체류자	21
성인15	말레이시아	한글학교	남	57	일시체류자	29
성인16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남	41	일시체류자	0.5
성인17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남	51	일시체류자	2.5
성인18	베트남	교육연구원	남	63	일시체류자	27

성인전문가와 동포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John Dewey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준거인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에 기초해 있다. 두 가지 개념을 따를 때, 경험은 특정 시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경험은 개인이 놓인 맥락 또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11: 79-83).

Chase(2005: 656-657)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자들이 내러티브에 접근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첫째,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내러티브를 담론(discourse)의 특정한 형태로 간주한다. 즉 내러티브는 자신과 타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사건과 대상을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는 방식이며, 행위와 사건의 결과를 연결하고 바라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Chase, 2005: 656).” “둘째,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내러티브를 언어적 행위로 간주하며,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일정한 사회적 자원과 환경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서 또 그 범위에 의해 한정된 내용으로 이해한다. 넷째,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내러티브를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위치된 것, 즉 특정한 여건(setting), 특정한 청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화자(narrator)로 간주한다. 화자로서 연구자들은 그들이 연구하는 내러티브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타자의 목소리와 현실을 구성하면서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Chase, 2005: 657)."

이들 내용을 토대로 동남아 동포청소년 및 성인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할 때, 연구자들은 면담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동남아 6개국이라는 맥락(context)과 환경 속에서 비릇된 것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재외국민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 청소년과 성인들은 스스로를 거주국의 구성원이자 한국인으로서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행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동남아 6개국이라는 거주국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이 거주국으로 이주할 당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동남아 6개국 동포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그들이 거주국에서 외국인이자 한국인이라는 사회적 위치(position) 속에서 거주국 시민과 또 한인들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 ————— 제5장 동포청소년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1.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 2.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정체성
- 3. 한국과 거주국에 대한 관심과 태도
- 4.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주변 환경
- 5.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교육·문화·교류 여건
- 6.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타문화 수용
- 7. 한국 문화 경험과 욕구 및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 8.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동포청소년의 역할 및 지원방안
- 9.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및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0. 소결

1.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적으로 설문 분석에 사용된 동남아 6개국의 동포청소년 응답자수는 태국 92명, 필리핀 127명, 베트남 151명, 싱가포르 150명, 말레이시아 95명, 인도네시아 143명으로 총 758명이었다. 응답자들의 배경 특성을 성별, 학교유형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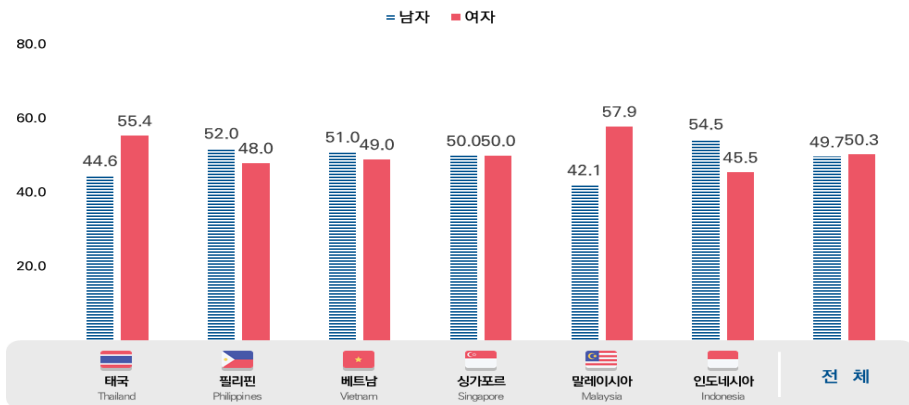


그림 V-1 성별

47) 이 장의 1~8절, 10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9절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성별로는 필리핀(남학생 52.0%, 여학생 48.0%), 베트남(남학생 51.0%, 여학생 49.0%), 인도네시아(남학생 54.5%, 여학생 45.5%)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포가 높은 반면, 태국(남학생 44.6%, 여학생 55.4%)과 말레이시아(남학생 42.1%, 여학생 57.9%)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분포가 높았고, 싱가포르(남학생 50.0%, 여학생 50.0%)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똑같은 분포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필리핀(78.0%), 베트남(80.8%), 싱가포르(75.2%), 인도네시아(92.3%)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나 태국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학교 학생(48.4%)과 국제학교 학생(48.4%)이 똑같은 분포였고,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국제학교 학생(75.8%)의 분포가 높은 편이나 현지학교 학생들의 분포도 2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학교 응답자가 거의 없었는데, 한국국제학교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구성되어서 조사가 어려웠던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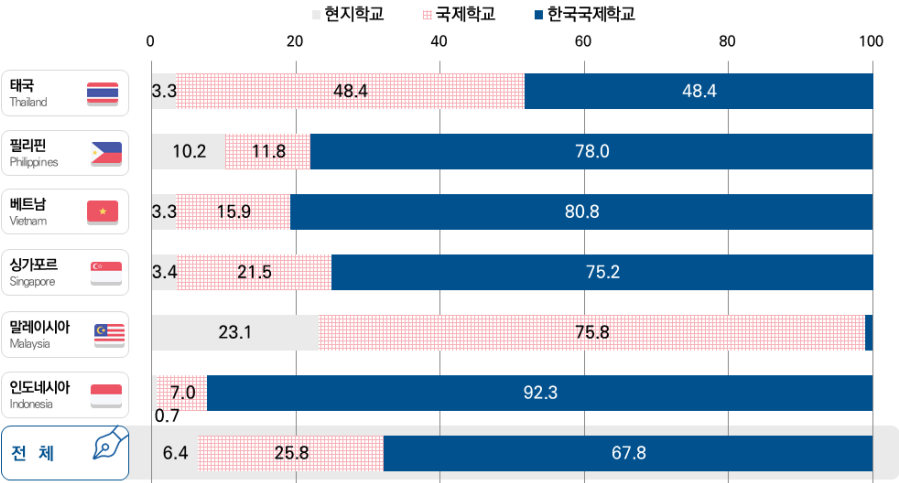


그림 V-2 학교유형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태국은 초등학생 34.1%, 중학생 42.0%, 고등학생 23.9%, 필리핀은 초등학생 20.6%, 중학생 45.2%, 고등학생 34.1%의 분포를 보였고, 베트남은 초등학생 31.8%, 중학생 34.4%, 고등학생 33.8%, 싱가포르의 초등학생 38.4%, 중학생 35.6%, 고등학생 26.0%, 말레이시아는 초등학생 27.2%, 중학생 44.6%, 고등학생 28.3%,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초등학생 16.3%, 중학생 39.0%, 고등학생 44.7%의 분포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중·고 간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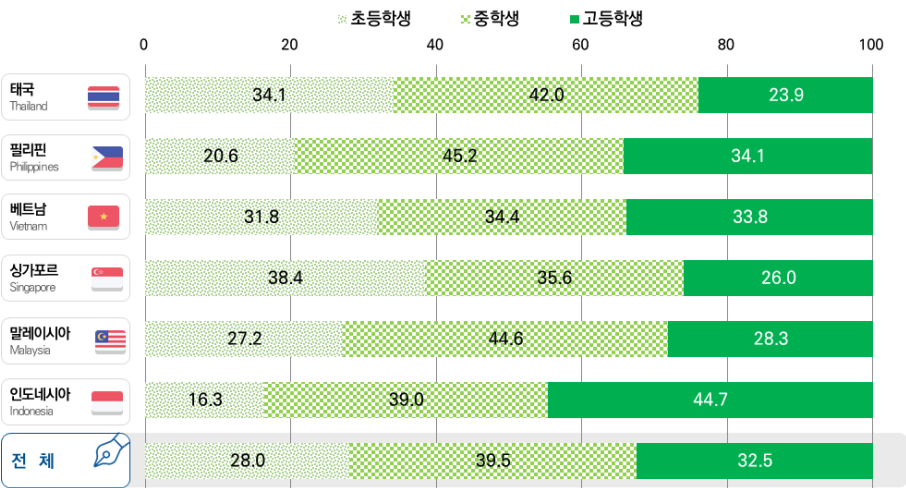


그림 V-3 학교급

2) 거주하게 된 이유

동남아 동포청소년들 현재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는 대부분 부모 직업으로 인한 이주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로 부모직업이 67.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유학(12.9%), 출생(9.9%), 유학과 부모직업(5.5%), 출생과 부모직업(3.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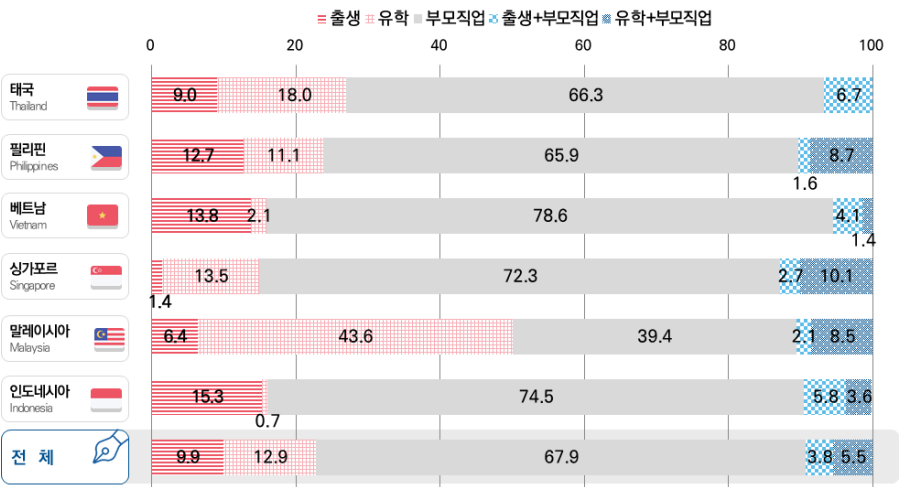


그림 V-4 거주하게 된 이유

또한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동포청소년들은 유학(43.6%)이 거주국에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였으나, 다른 국가의 동포청소년들은 부모직업(태국 66.3%, 필리핀 65.9%, 베트남 78.6%, 싱가포르 72.3%, 인도네시아 74.5%)이었다. 두 번째 이유로 태국(18.0%)과 싱가포르(13.5%)동포청소년들은 유학이었으나, 필리핀(12.7%), 베트남(13.8%), 인도네시아(15.3%) 동포청소년들은 출생이었고, 말레이시아(39.4%)동포청소년들은 부모직업이었다. 동남아 국가별로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별히 말레이시아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른 5개국 동포청소년들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기간

현재 거주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태국의 응답자들은 평균 6.75년, 필리핀의 응답자들은 평균 7.33년, 베트남의 응답자들은 평균 7.42년, 싱가포르의 응답자들은 평균 4.67년, 말레이시아의 응답자들은 평균 7.58년, 인도네시아의 응답자들은 평균 8.67년으로 인도네시아의 응답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긴 반면, 싱가포르 응답자들의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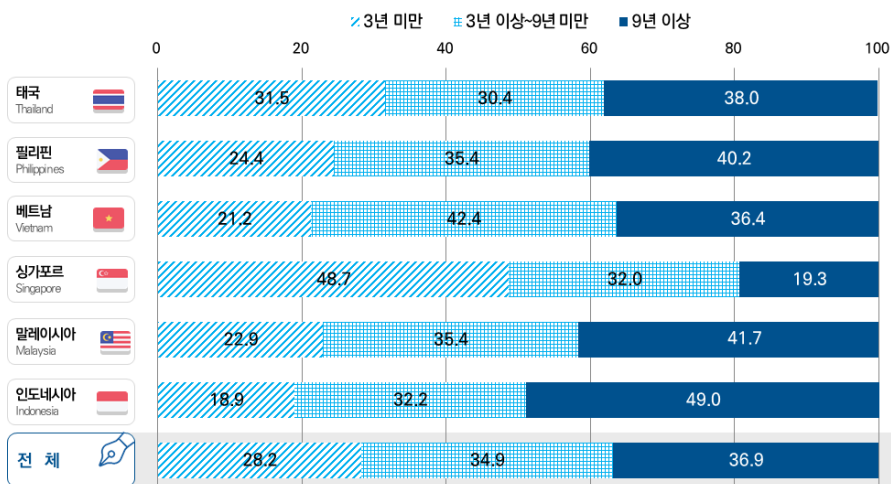


그림 V-5 거주 기간

또한 거주기간을 3년 미만, 3년~9년, 9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태국(38.0%), 필리핀(40.2%), 말레이시아(41.7%), 인도네시아(49.0%)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싱가포르(48.7%)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단기간 동안 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베트남(42.4%)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에서 9년 미만 동안 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주해 본 해외 국가 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서 외국에서 살아본 국가의 수를 살펴보면, 1개 국가가 64.0%로 가장 많았고, 2개 국가가 24.4%, 3개 국가 이상이 11.6%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1개 국가에서 살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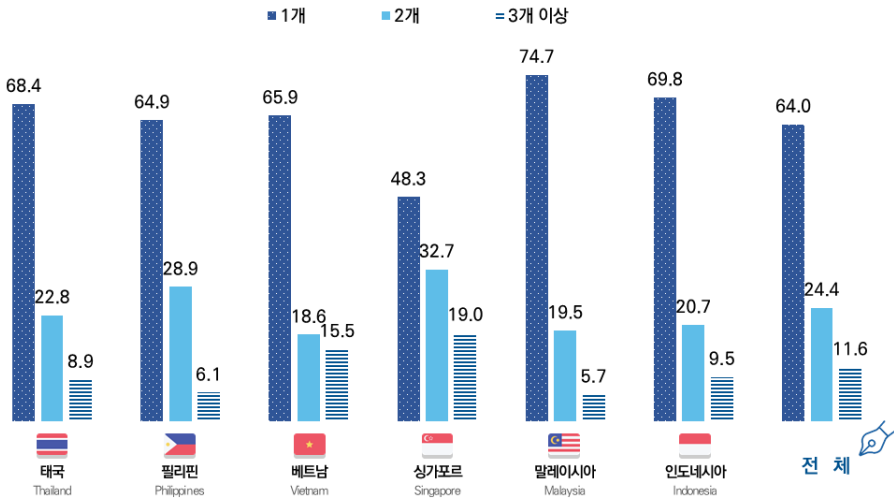


그림 V-6 거주해 본 해외 국가 수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적인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싱가포르 응답자의 경우에는 1개 국가에서 살았다는 응답이 48.3%로 과반수가 되지 않았고, 2개 국가가 32.7%, 3개 이상의 국가가 19.0%로 과반수 이상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살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베트남 응답자의 경우에 3개 국가 이상이 15.5%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5) 부모의 한국국적 여부

부모의 한국 국적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경우에 한국국적이 98.9%, 어머니의 한국국적이 94.4%로 대부분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 모든 국가에서 95% 이상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100%가 한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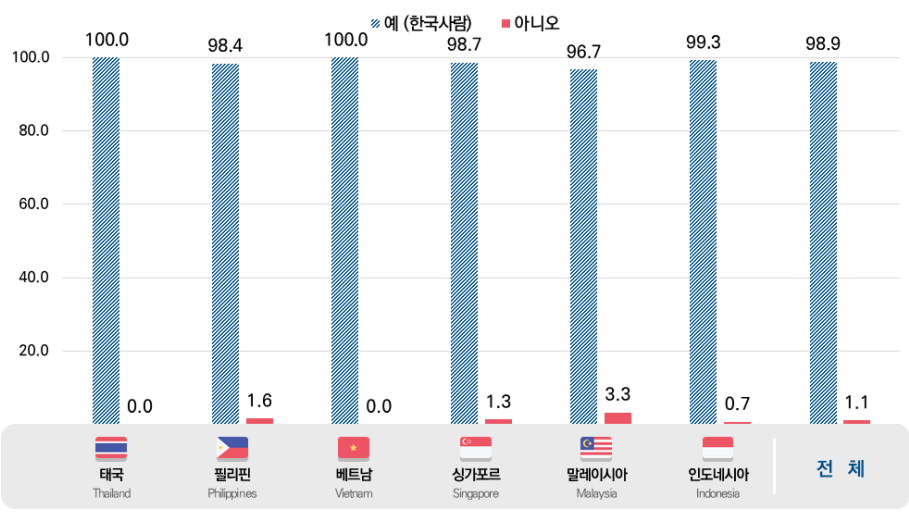


그림 V-7 아버지의 한국 국적 여부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95% 이상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베트남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83.2%만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도 1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에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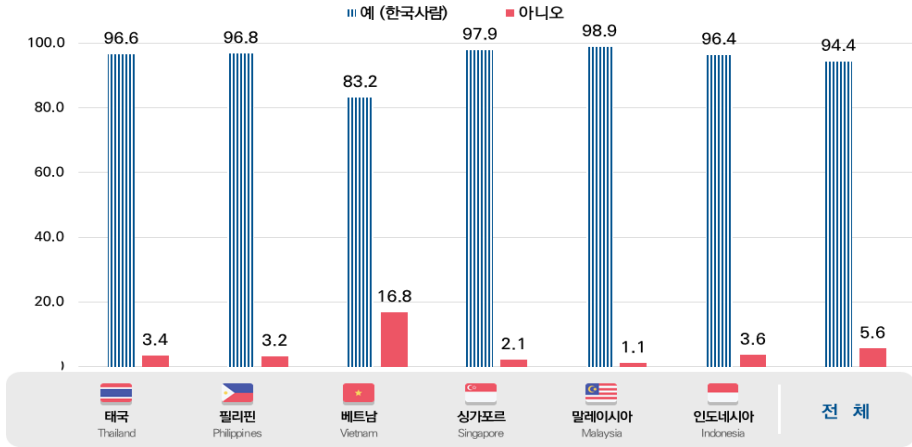


그림 V-8 어머니의 한국 국적 여부

6) 부모의 직업

응답자의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경우에 대기업 직원 (23.7%), 사업가(22.0%), 중소기업 직원(21.9%), 기타(24.5%)가 20%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44.7%)와 필리핀(27.4%)의 경우에 대기업 직원이 가장 분포가 높았으며, 베트남(29.3%)과 인도네시아(41.8%)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직원, 말레이시아(35.2%) 경우에는 사업가, 그리고 태국(47.2%)의 경우에는 기타가 가장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에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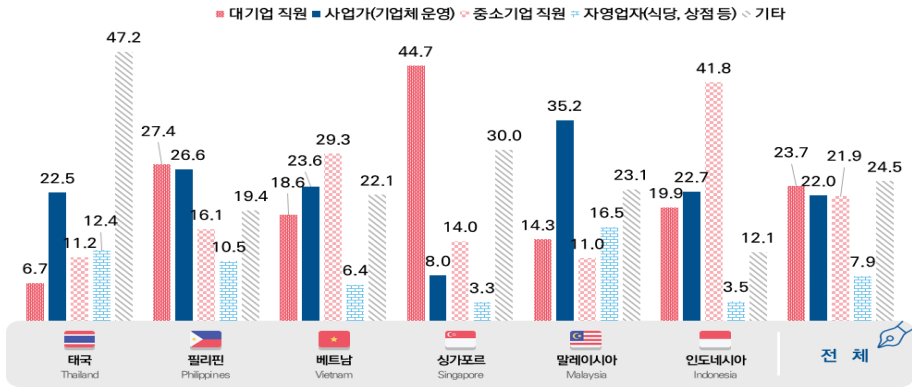


그림 V-9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정주부가 52.6%로 가장 분포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23.8%), 무직(13.6%), 자영업자(5.4%), 한국 공무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도 대부분 가정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태국이 기타(36.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주부(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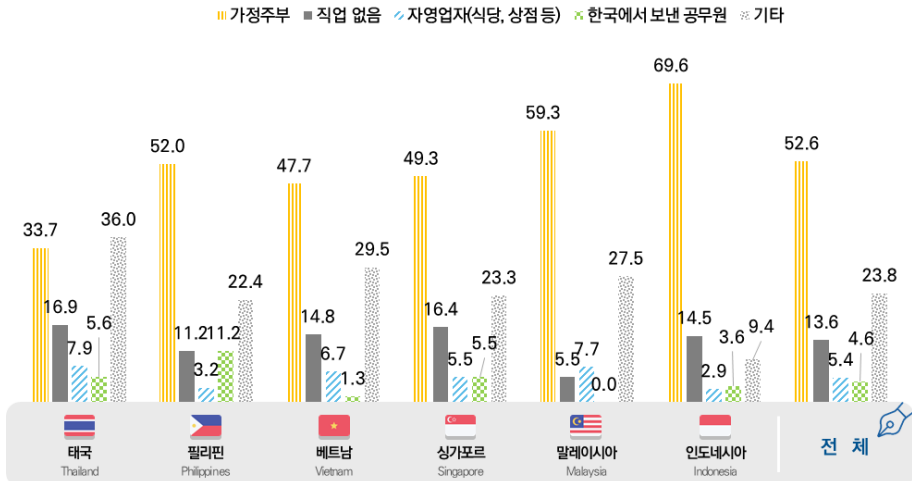


그림 V-10 어머니의 직업

7) 부모의 거주국 언어 수준

부모의 거주국 언어 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49.5%(잘 한다 30.3%, 매우 잘 한다 19.2%), 보통이다가 29.8%, 못한다는 응답이 20.7%(못 한다 12.0%, 전혀 못 한다 8.7%)로 과반수 정도가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잘 한다 42.6%, 매우 잘 한다 32.6%)와 싱가포르(잘 한다 37.3%, 매우 잘 한다 30.7%)의 경우에 잘한다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도 잘 한다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못한다는 응답보다 분포가 높았으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잘 한다는 응답이 24.2%(잘 한다 21.0%, 매우 잘 한다 3.2%)로 못 한다는 응답인 41.9%(못 한다 24.2%, 전혀 못 한다 17.7%)보다 낮아, 동남아 국가별로 아버지의 거주국 언어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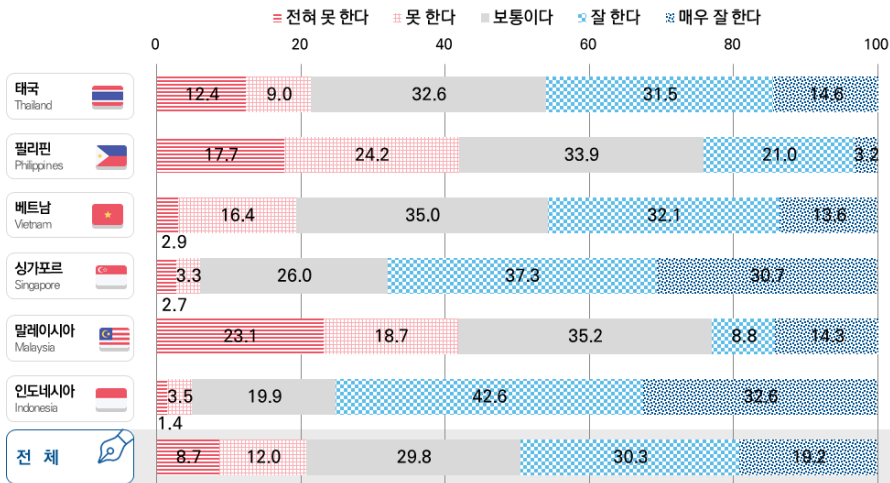


그림 V-11 아버지의 거주국 언어 수준

아버지의 거주국 언어 수준은 필리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국가의 아버지의 경우에 거주국 언어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거주국 언어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잘 한다는 응답이 30.4%(잘 한다 18.6%, 매우 잘 한다 11.8%), 보통이다가 33.7%, 못한다는 응답이 35.9%(못 한다 23.2%, 전혀 못 한다 12.7%)로 못 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 잘 한다는 응답과 못 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잘 한다는 응답(인도네시아 52.1%, 싱가포르 40.4%)이 못 한다는 응답(인도네시아 8.7%, 싱가포르 25.4%)보다 훨씬 높았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잘 한다는 응답(잘 한다 15.4%, 매우 잘 한다 18.8%)이 못 한다는 응답(못 한다 25.5%, 전혀 못 한다 4.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잘 한다는 응답보다 못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으며,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그 차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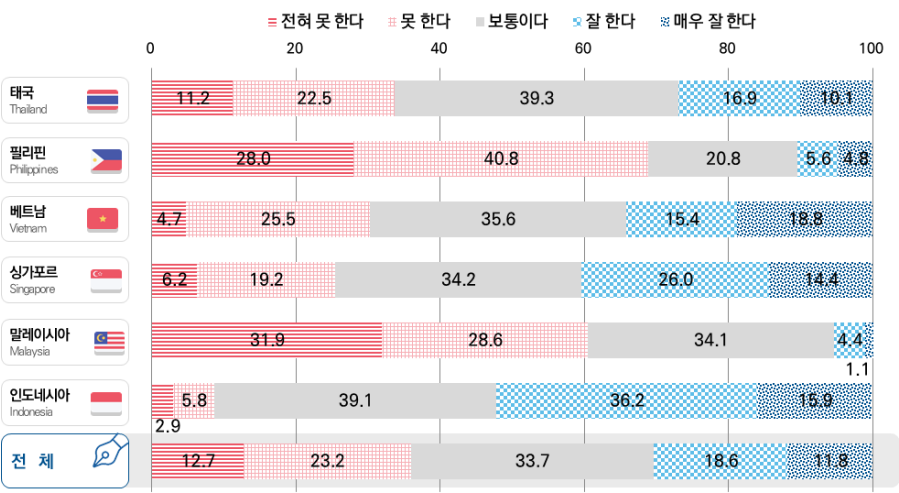


그림 V-12 어머니의 거주국 언어 수준

2.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정체성

1)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외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차문화 청소년들(cross-cultural kids)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에게서 개방적인 세계관(평균 4.0점)이라든가 다문화 수용성(평균 4.0점), 그리고 다양한 친구관계 형성의 능력(평균 3.8점)은 확연히 보였으며, 현재적인 삶을 중시하는 태도(평균 3.3점)라든가 외국어 학습 능력(평균 3.1점)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깊이 있는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평균 2.3점)이나 한국 문화 이해의 어려움(평균 1.9점), 그리고 정주의 불안함(평균 1.8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남아 국가별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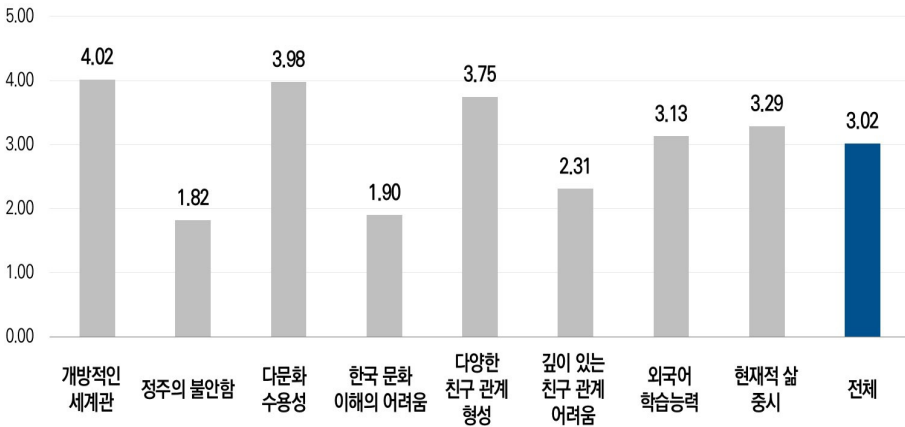


그림 V-13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표 V-1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분	태국 N=92	필리핀 N=127	베트남 N=151	싱가포르 N=150	말레이시아 N=96	인도네시아 N=143	전체 N=759
개방적인 세계관	4.0 (0.9)	4.1 (0.8)	3.9 (0.9)	4.2 (0.9)	3.9 (1.0)	4.0 (0.8)	4.0 (0.9)
정주의 불안함	1.6 (0.8)	1.8 (0.9)	1.9 (1.1)	1.7 (1.0)	1.8 (1.0)	1.9 (1.1)	1.8 (1.0)
다문화 수용성	4.0 (0.8)	4.0 (0.8)	3.9 (0.9)	4.1 (0.9)	4.0 (0.8)	4.0 (0.8)	4.0 (0.8)
한국 문화 이해의 어려움	1.8 (0.9)	1.9 (1.1)	2.0 (1.2)	1.9 (1.0)	2.0 (1.0)	1.8 (1.0)	1.9 (1.0)
다양한 친구 관계 형성	3.8 (1.0)	3.6 (1.0)	3.7 (1.1)	3.9 (0.9)	3.8 (1.0)	3.7 (1.0)	3.8 (1.0)
깊이 있는 친구 관계 어려움	2.3 (1.1)	2.4 (1.2)	2.3 (1.1)	2.1 (1.0)	2.4 (1.2)	2.4 (1.0)	2.3 (1.1)
외국어 학습능력	3.2 (1.1)	3.1 (1.1)	3.2 (1.1)	3.2 (1.1)	3.2 (1.1)	3.0 (1.1)	3.1 (1.1)
현재적 삶 중시	3.2 (1.1)	3.3 (1.0)	3.5 (1.1)	3.3 (1.0)	3.1 (1.0)	3.3 (1.1)	3.3 (1.0)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문항 각각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문화 이해의 어려움’과 ‘외국어 학습 능력’ 문항에서 거주기간과 학교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평균 1.64점)보다 3년 이상의 경우(‘3년~9년 미만’ 평균 1.90점, ‘9년 이상’ 평균 2.10점)에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교 유형 별로는 현지학교(평균 2.25점)와 국제학교 학생들(평균 2.07점)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평균 1.81점)에 비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한국문화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구분		한국 문화 이해의 어려움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거주 기간	3년 미만	1.64	1.00	11.998*** 3년~9년 미만, 9년 이상 > 3년 미만
	3년 ~ 9년 미만	1.90	1.08	
	9년 이상	2.10	1.02	
	전체(N=759)	1.9	1.0	
학교 유형	현지학교	2.25	1.21	7.019*** 현지학교, 국제학교 > 한국국제학교
	국제학교	2.07	1.05	
	한국국제학교	1.81	1.02	
	전체(N=752)	1.91	1.05	

* 주: *** α .001

또한 외국어 학습능력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3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 거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9년 이상 장기간 거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외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외국어 학습능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구분		외국어 학습이 어렵지 않음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거주 기간	3년 미만	2.94	1.12	4.714*** 9년 이상 > 3년 미만
	3년 ~ 9년 미만	3.17	1.14	
	9년 이상	3.24	1.03	
	전체(N=759)	3.13	1.10	

* 주: *** α .001

2) 국가 정체성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그리고 약 10명 중 1명은 스스로를 한국인인 동시에 거주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태국과 필리핀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인 정체성이 높은 반면, 싱가포르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인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중정체성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인 정체성은 줄어들고 이중 정체성이 높아졌다.

국가 정체성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8%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인인 동시에 거주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9.5%, 거주국인이라는 응답자는 0.5%,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의 동포청소년들(92.4%)과 필리핀의 동포청소년들(90.6%)의 한국인 정체성 인식이 높은 반면, 싱가포르의 동포청소년들(78.0%)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인 정체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12.7%)와 베트남(11.3%)의 동포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응답자들에 비해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싱가포르(6.7%)와 말레이시아(6.3%)의 동포청소년들은 잘 모른다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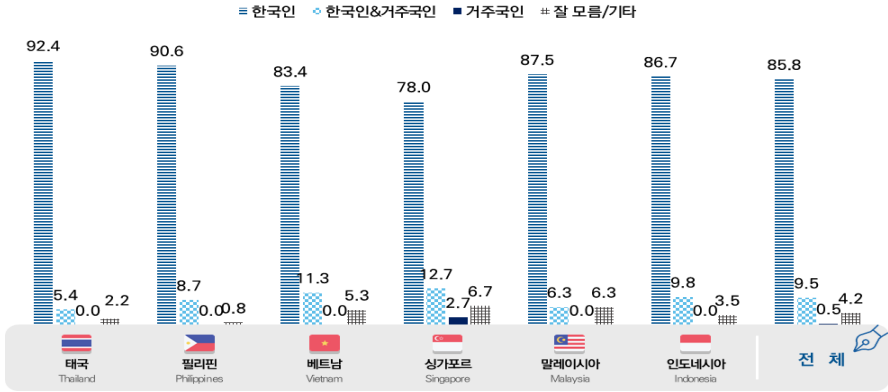


그림 V-14 국가 정체성

동포청소년들의 국가 정체성은 거주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인 정체성(‘3년 미만’ 93.9%, ‘3년 이상 9년 미만’ 90.9%, ‘9년 이상’ 74.6%)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이중 정체성(‘3년 미만’ 2.3%, ‘3년 이상 9년 미만’ 5.3%, ‘9년 이상’ 18.9%)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국가 정체성(거주기간별)

단위 :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한국인	93.9 (201)	90.9 (241)	74.6 (209)	85.8 (651)	56.038***
한국인이자 거주국인	2.3 (5)	5.3 (14)	18.9 (53)	9.5 (72)	
거주국인	0.0 (0)	0.8 (2)	0.7 (2)	0.5 (4)	
잘 모름 /기타	3.7 (8)	3.0 (8)	5.7 (16)	4.2 (32)	
전체	100.0 (214)	100.0 (265)	100.0 (280)	100.0 (759)	

* 주 : *** $p < .001$

2) 한민족 정체성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느낀다.’의 4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한민족 정체성 의식은 매우 높았다. 한국인이라는 동일체 의식이나 한국의 역사나 전통, 조상에 대한 자부심은 높으나 한국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이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응답은 5점 만점에 4.38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문항별로는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평균 4.68점,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는 평균 4.37점,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평균 4.50점으로 높았으나,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느낀다.’는 응답은 평균 3.9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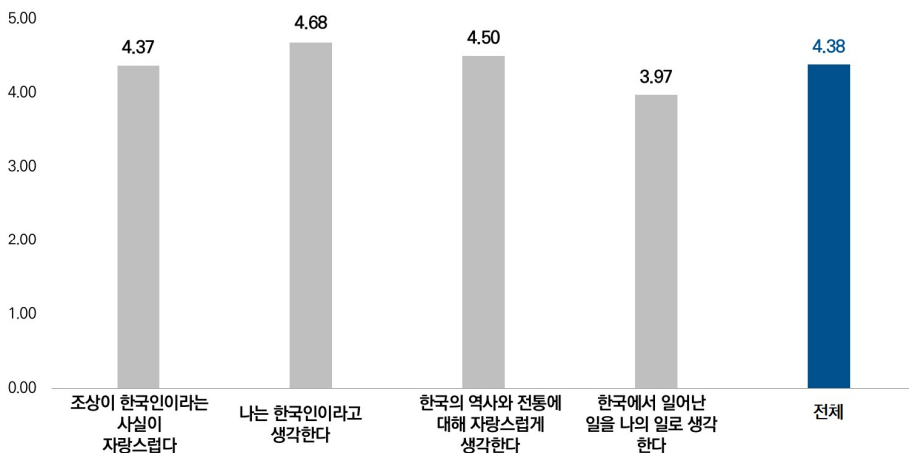


그림 V-15 한민족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동남아 국가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말레이시아의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의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고, 태국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48로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베트남 응답자는 평균 4.24점으로 가장 낮았고 인도네시아가 4.31로 그 다음으로 낮아서 네 국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V-5 한민족 정체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분	태국 N=92	필리핀 N=127	베트남 N=151	싱가포르 N=150	말레이시아 N=96	인도네시아 N=143	전체 N=759	F (사후검정)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4.49 (0.73)	4.36 (0.84)	4.22 (0.89)	4.39 (0.76)	4.60 (0.62)	4.29 (0.86)	4.37 (0.81)	4.501**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4.79 (0.48)	4.72 (0.50)	4.61 (0.74)	4.62 (0.67)	4.84 (0.49)	4.59 (0.62)	4.68 (0.61)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63 (0.57)	4.55 (0.60)	4.38 (0.84)	4.47 (0.75)	4.61 (0.62)	4.43 (0.80)	4.50 (0.72)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한다	4.00 (0.94)	4.12 (0.99)	3.75 (1.04)	3.97 (0.96)	4.18 (0.91)	3.91 (1.04)	3.97 (0.99)	
전체	4.48 (0.49)	4.44 (0.57)	4.24 (0.70)	4.36 (0.60)	4.56 (0.53)	4.31 (0.67)	4.38 (0.62)	

* 주 : ** $p < .01$
 **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test 통계량과 Games-Howell 사후검정 결과를 정리함.

3. 한국과 거주국에 대한 관심과 태도

1)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욕구

(1) 한국어에 대한 관심

동포청소년(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약 10명 중 8명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77.7%(그렇다 37.7%, 매우 그렇다 40.0%)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1.2%, 부정적인 응답은 1.2%(‘그렇지 않다’ 0.8%,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대부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동포청소년들(그렇다 66.7%, 매우 그렇다 25.0%)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그렇다 29.2%, 매우 그렇다 52.1%), 말레이시아(그렇다 38.5%, 매우 그렇다 41.7%) 등의 순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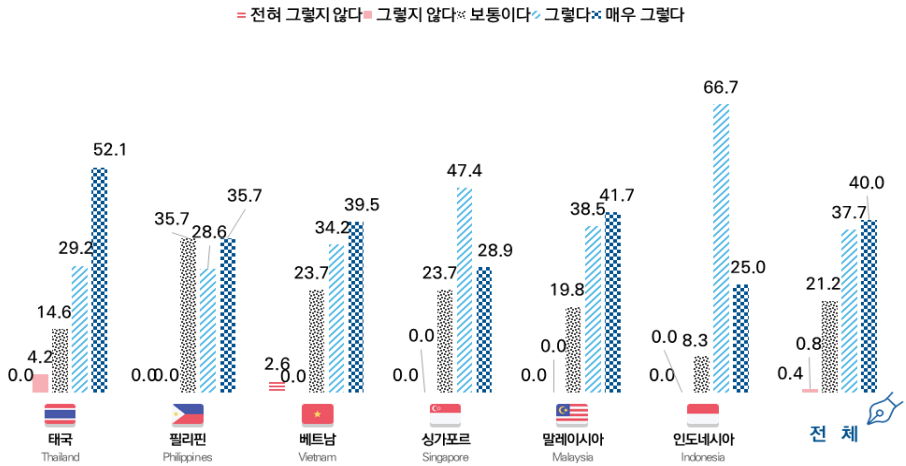


그림 V-16 한국어에 대한 관심

(2)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3%(‘그렇다’ 37.7%, ‘매우 그렇다’ 34.6%)가 한국어 학습을 원하고 있었고, 3.8%(‘그렇지 않다’ 1.9%, ‘전혀 그렇지 않다’ 1.9%)만이 한국어 학습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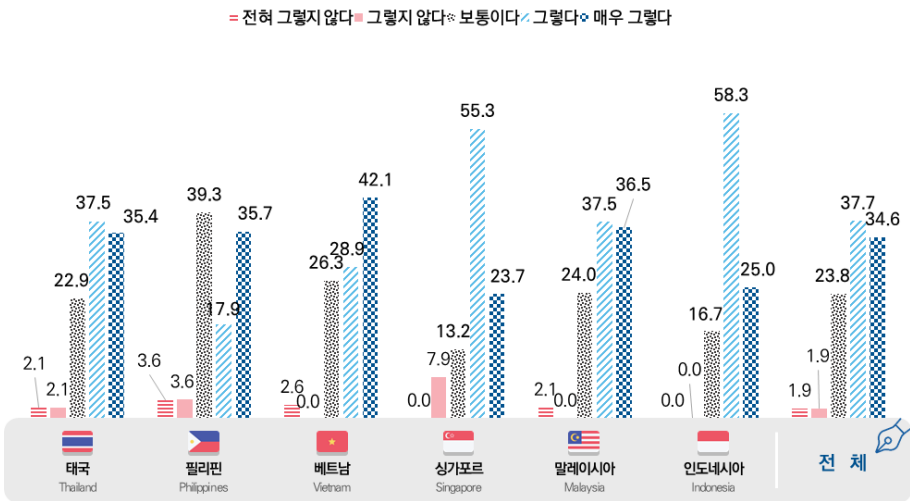


그림 V-17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

각 국가별로도 한국어 학습 욕구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욕구가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의 동포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욕구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네시아의 응답자들의 그렇다는 응답이 83.3%(‘그렇다’ 58.3%, ‘매우 그렇다’ 25.0%)로 다른 국가보다도 높았으며, 필리핀의 그렇다는 응답은 53.6%(‘그렇다’ 17.9%, ‘매우 그렇다’ 35.7%)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한국어 능력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능력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4.6점 이상으로 한국어 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가장 높았고, 한국국제학교를 제외한 학교유형별로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현지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한국어능력이 평균 4.50점, 중학생은 평균 4.70점, 그리고 고등학생은 평균 4.82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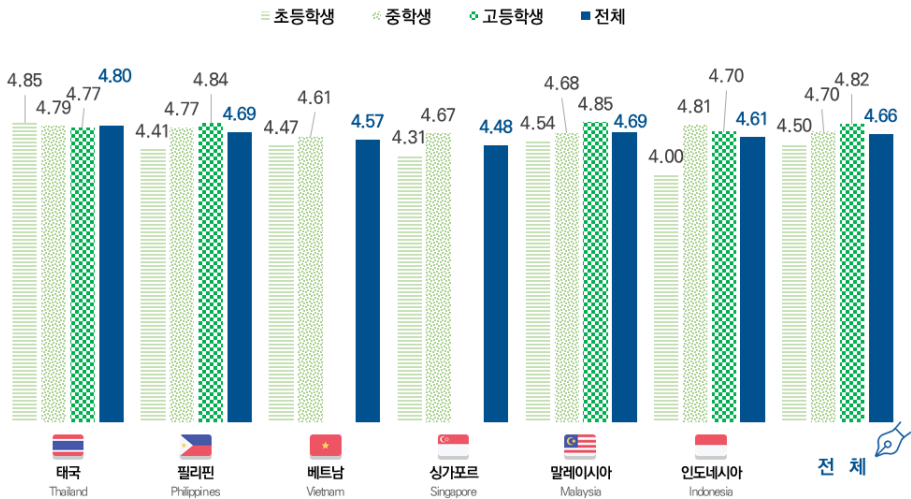


그림 V-18 한국어 능력(학교급)

학교 유형별로는 한국국제학교 학생을 제외하고 현지학교 학생과 국제학교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비교하였는데, 현지학교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평균 4.46점이고

국제학교 학생은 평균 4.72점으로 국제학교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현지학교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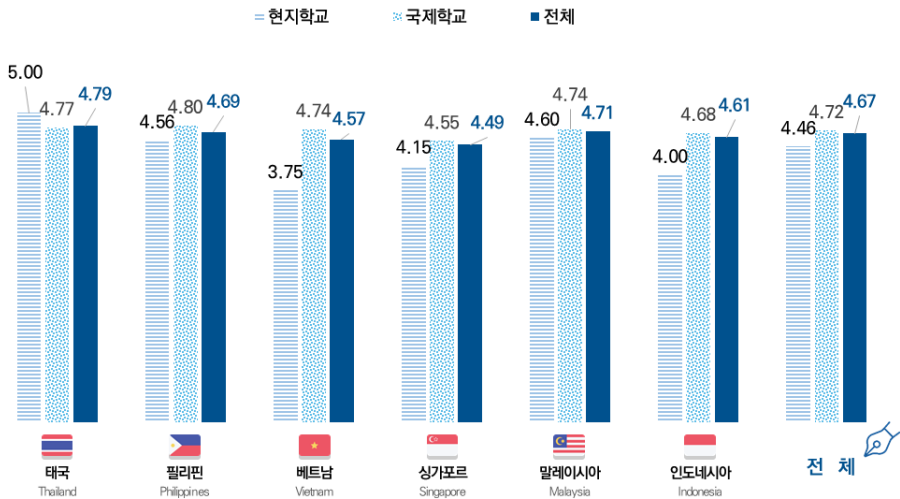


그림 V-19 한국어 능력(학교유형)

2) 거주국 및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

(1)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 언어에 대해서는 약 10명 중 3명 이상이 관심이 있었고,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동포청소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5.9%(‘그렇다’ 25.0%, ‘매우 그렇다’ 10.9%)가 긍정적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8.3%, 부정적인 응답은 25.7%(‘그렇지 않다’ 16.9%, ‘전혀 그렇지 않다’ 8.8%)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약 10% 정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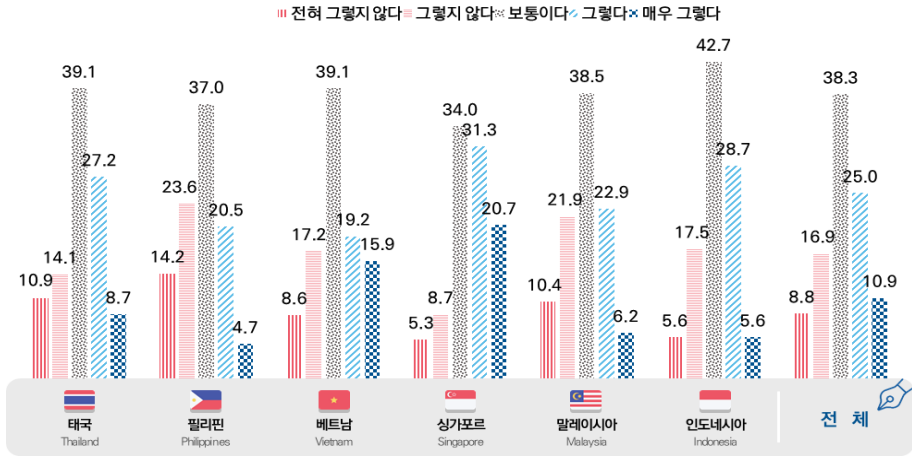


그림 V-20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동포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52.0%(‘그렇다’ 31.3%, ‘매우 그렇다’ 20.7%)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의 응답자가 35.9%(‘그렇다’ 27.2%, ‘매우 그렇다’ 8.7%), 베트남의 응답자가 35.1%(‘그렇다’ 19.2%, ‘매우 그렇다’ 15.9%), 인도네시아의 응답자가 34.3%(‘그렇다’ 28.7%, ‘매우 그렇다’ 5.6%) 등의 순으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한 욕구

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해서 약 10명 중 4명이 긍정적이어서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한 욕구도 비교적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의 동포청소년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해서 응답자의 41.4%(‘그렇다’ 27.7%, ‘매우 그렇다’ 13.7%)가 긍정적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3%, 부정적인 응답은 24.4%(‘그렇지 않다’ 16.1%, ‘전혀 그렇지 않다’ 8.3%)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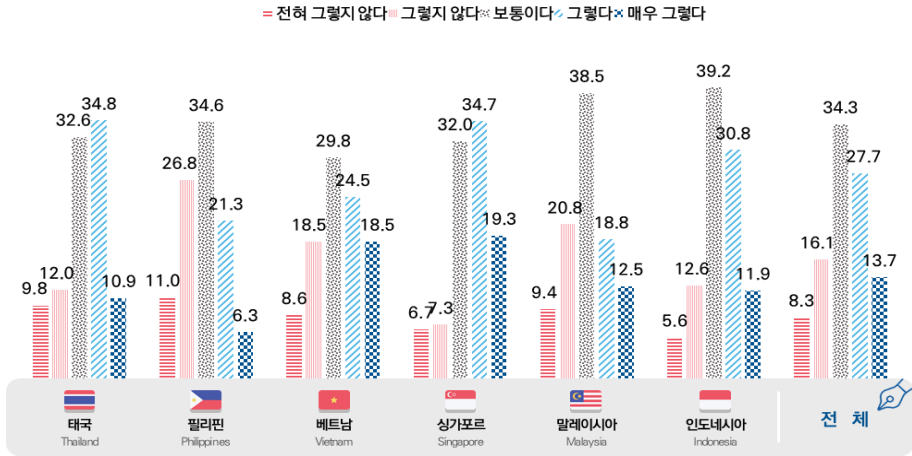


그림 V-21 거주국 언어 학습 욕구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동포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54.0%(‘그렇다’ 34.7%, ‘매우 그렇다’ 19.3%)로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 45.7%(‘그렇다’ 34.8%, ‘매우 그렇다’ 10.9%), 베트남 43.0%(‘그렇다’ 24.5%, ‘매우 그렇다’ 18.5%), 인도네시아 42.7%(‘그렇다’ 30.8%, ‘매우 그렇다’ 11.9%) 등의 순으로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

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은 잘한다는 응답이 약 10명 중 2.5명으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나 학습 욕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의 동포청소년들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 길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25.2%(‘그렇다’ 16.5%, ‘매우 그렇다’ 8.7%)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5.0%, 부정적인 응답은 49.8%(‘그렇지 않다’ 28.6%, ‘전혀 그렇지 않다’ 21.2%)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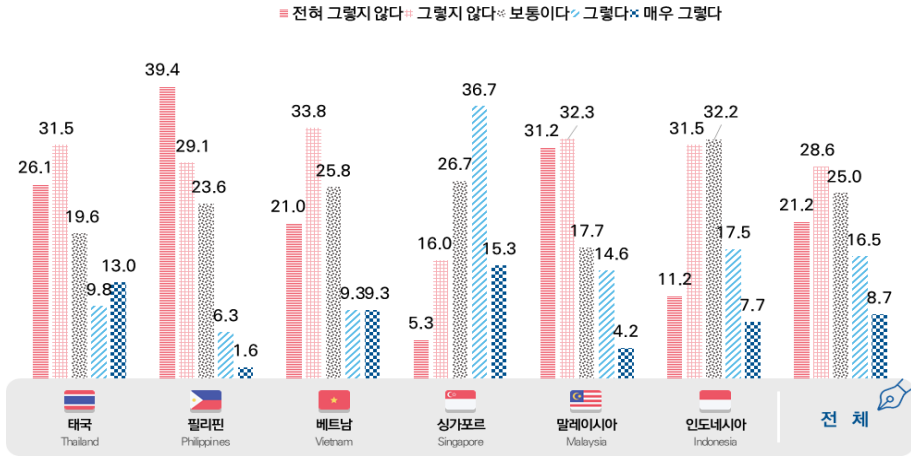


그림 V-22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동포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52.0%(‘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15.3%)로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25.2%(‘그렇다’ 17.5%, ‘매우 그렇다’ 7.7%), 태국 21.8%(‘그렇다’ 9.8%, ‘매우 그렇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은 거주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국 언어를 잘한다는 응답이 18.7%(‘그렇다’ 9.8%, ‘매우 그렇다’ 8.9%)였으나 3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에는 20.8%(‘그렇다’ 13.6%, ‘매우 그렇다’ 7.2%), 9년 이상인 경우에는 40.4%(‘그렇다’ 24.3%, ‘매우 그렇다’ 16.1%)로 나타났다.

표 V-6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거주기간별)

단위 :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36.0 (77)	21.9 (58)	9.3 (26)	21.2 (161)	113.071***
그렇지 않다	35.0 (75)	33.2 (88)	19.3 (54)	28.6 (217)	
보통이다	18.2 (39)	24.2 (64)	31.1 (87)	25.0 (190)	
그렇다	9.8 (21)	13.6 (36)	24.3 (68)	16.5 (125)	
매우 그렇다	8.9 (2)	7.2 (19)	16.1 (45)	8.7 (66)	
전체	100.0 (214)	100.0 (265)	100.0 (280)	100.0 (759)	

* 주 : *** $p < .001$

(4)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

거주국 문화에 대해서 동포청소년들의 약 10명 중 4명 정도가 이해하고 있었으며,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응답이 35.6%(‘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9.1%)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9.5%, 부정적인 응답은 24.9%(‘그렇지 않다’ 16.7%, ‘전혀 그렇지 않다’ 8.2%)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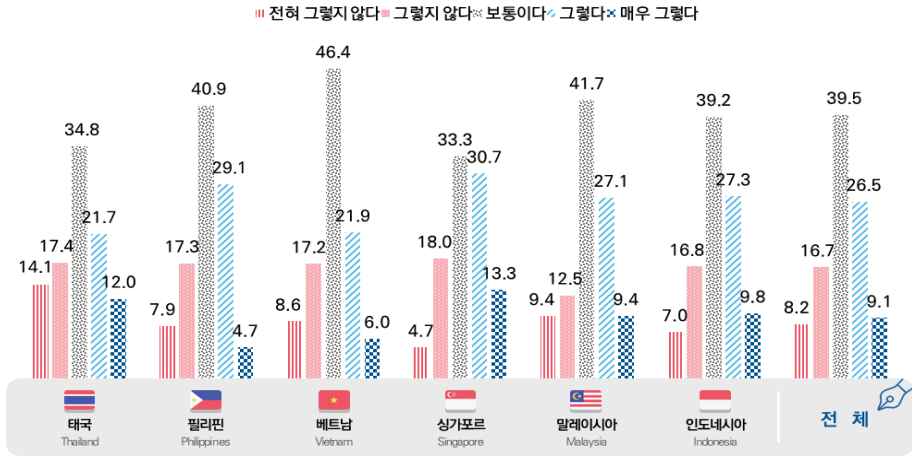


그림 V-23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

한편,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는 거주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 기간이 길수록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가 높다는 응답이 20.1%(‘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2.3%)였으나 3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에는 32.5%(‘그렇다’ 25.7%, ‘매우 그렇다’ 6.8%), 9년 이상인 경우에는 50.4%(‘그렇다’ 33.9%, ‘매우 그렇다’ 16.5%)로 나타났다.

표 V-7 거주국 문화 이해 정도(거주기간별)

단위: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36.0 (38)	21.9 (16)	9.3 (8)	21.2 (62)	94.590***
그렇지 않다	35.0 (75)	33.2 (88)	19.3 (54)	28.6 (217)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보통이다	38.3 (82)	112 (42.3)	37.9 (106)	39.5 (300)	
그렇다	17.8 (38)	25.7 (68)	33.9 (95)	26.5 (201)	
매우 그렇다	2.3 (5)	6.8 (18)	16.5 (46)	9.1 (69)	
전체	100.0 (214)	100.0 (265)	100.0 (280)	100.0 (759)	

* 주 : *** $p < .001$

(5) 거주국 문화 수용 의사

동포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가 거주국 문화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응답이 53.9%(‘그렇다’ 36.4%, ‘매우 그렇다’ 17.5%)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3.5%, 부정적인 응답은 12.6%(‘그렇지 않다’ 9.2%, ‘전혀 그렇지 않다’ 3.4%)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4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거주국 문화 수용 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66.0%(‘그렇다’ 42.0%, ‘매우 그렇다’ 2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58.8%(‘그렇다’ 37.8%, ‘매우 그렇다’ 21.0%), 태국 53.3%(‘그렇다’ 34.8%, ‘매우 그렇다’ 18.5%), 베트남 52.3%(‘그렇다’ 33.8%, ‘매우 그렇다’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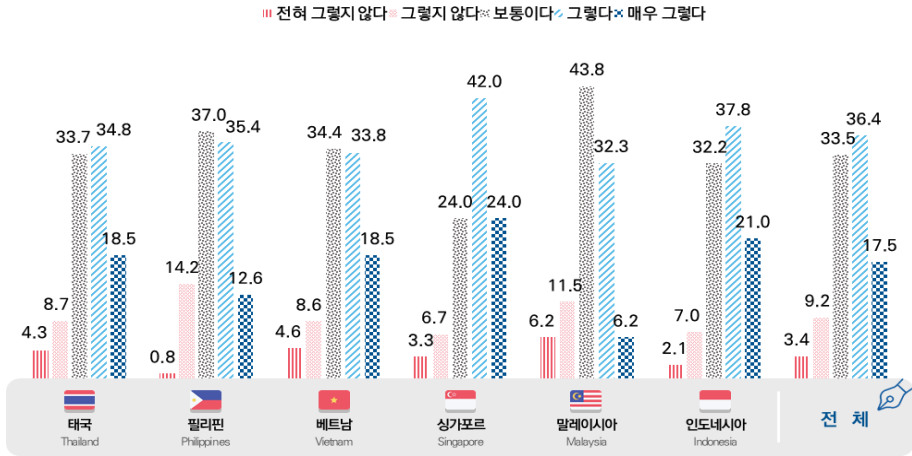


그림 V-24 거주국 문화 수용 의사

4.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주변 환경

1)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의식 및 활동

(1)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

동포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나 한국노래 시청 등 한국 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을 ‘나는 부모님과 대화 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나와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나와 부모님은 함께 한국드라마를 보거나 한국노래를 듣는다.’의 3개 문항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3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한국어 사용에 대한 평균 점수가 4.8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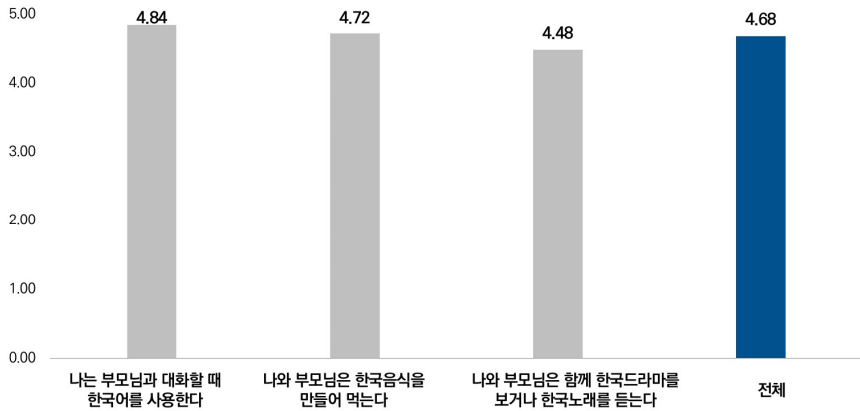


그림 V-25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을 동남아 각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태국이 평균 4.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평균 4.76점), 필리핀(평균 4.72점), 싱가포르(평균 4.63점), 베트남(평균 4.5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간, 태국과 싱가포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V-8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분	태국 N=92	필리핀 N=127	베트남 N=151	싱가포르 N=150	말레이 시아 N=96	인도네 시아 N=143	전체 N=759	F (사후 검증)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4.95 (0.31)	4.90 (0.45)	4.68 (0.80)	4.77 (0.52)	4.90 (0.45)	4.93 (0.33)	4.84 (0.53)	4.349**
나와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4.84 (0.45)	4.80 (0.48)	4.50 (0.86)	4.69 (0.57)	4.81 (0.47)	4.78 (0.55)	4.72 (0.61)	태국, 인도 네시아, 말레이 시아)

구분	태국 N=92	필리핀 N=127	베트남 N=151	싱가포르 N=150	말레이 시아 N=96	인도네 시아 N=143	전체 N=759	F (사후 검증)
나와 부모님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4.64 (0.91)	4.48 (1.01)	4.35 (1.03)	4.41 (1.01)	4.56 (0.83)	4.55 (0.85)	4.48 (0.96)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전체	4.81 (0.41)	4.72 (0.51)	4.51 (0.76)	4.63 (0.53)	4.76 (0.42)	4.76 (0.44)	4.68 (0.55)	

* 주 : ** $p < .01$

**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test 통계량과 Games-Howell 사후검정 결과를 정리함.

(2)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

상당수의 동포청소년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관련한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 동포청소년 부모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국 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을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으로 살기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 한국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한다.’의 4개 문항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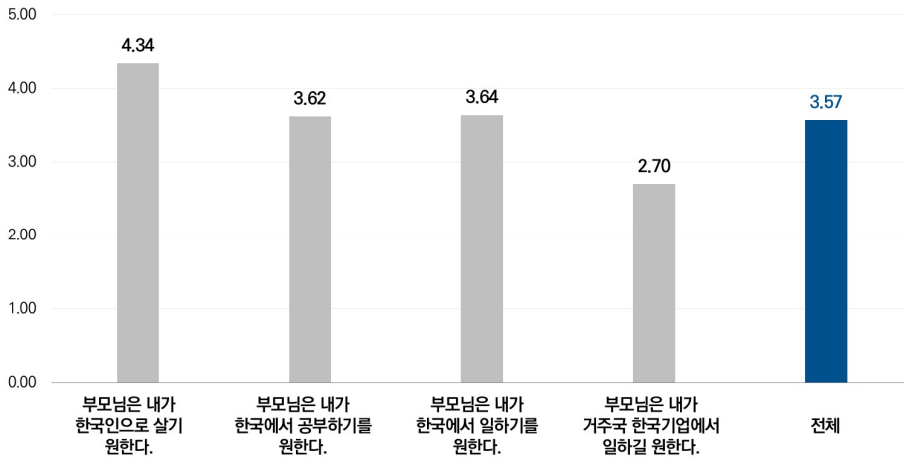


그림 V-26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

4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3.57점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가장 원한다고 동포청소년들은 인식하였으며(평균 4.34점), 한국에서의 공부(평균 3.62점)나 취업(평균 3.64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거주국 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평균 2.70점)에 대해서는 그 원하는 정도가 높지 않다고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각 국가 별로는 필리핀의 경우에 평균점수가 3.7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말레이시아가 평균 3.37점으로 가장 낮아서 두 국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V-9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의식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분	태국 N=60	필리핀 N=100	베트남 N=103	싱가포르 N=92	말레이시아 N=71	인도네시아 N=120	전체 N=546	F (사후검증)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으로 살기 원한다.	4.33 (0.88)	4.59 (0.67)	4.16 (1.00)	4.23 (0.84)	4.42 (0.79)	4.31 (0.79)	4.34 (0.84)	3.058 [*]

구분	태국 N=60	필리핀 N=100	베트남 N=103	싱가포르 N=92	말레이시아 N=71	인도네시아 N=120	전체 N=546	F (사후검증)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3.57 (1.13)	3.97 (0.96)	3.64 (1.01)	3.55 (0.94)	3.14 (1.03)	3.65 (1.01)	3.62 (1.03)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3.55 (1.11)	3.88 (0.90)	3.57 (1.16)	3.60 (0.84)	3.30 (0.93)	3.78 (0.91)	3.64 (0.99)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 한국기업에서 일하길 원한다.	2.53 (0.98)	2.46 (0.99)	2.81 (1.08)	3.02 (0.88)	2.62 (0.83)	2.68 (0.90)	2.70 (0.96)	
전체	3.50 (0.59)	3.74 (0.52)	3.54 (0.72)	3.60 (0.62)	3.37 (0.64)	3.60 (0.61)	3.57 (0.63)	

* 주 : * $p < .05$ ** 주 : 초등학생 제외 응답 문항임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관련해서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 동포청소년 부모들은 자녀들이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즉, 선진국에서의 학업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긍정적이라는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57.2%(‘그렇다’ 29.5%, ‘매우 그렇다’ 27.7%)로 과반수를 넘었고, 부모들이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은 8.1%(‘그렇지 않다’ 7.7%,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의 동포청소년 부모들이 긍정적이라는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76.1%(‘그렇다’ 42.4%, ‘매우 그렇다’ 33.7%)로 가장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50.8%(‘그렇다’ 25.0%, ‘매우 그렇다’ 2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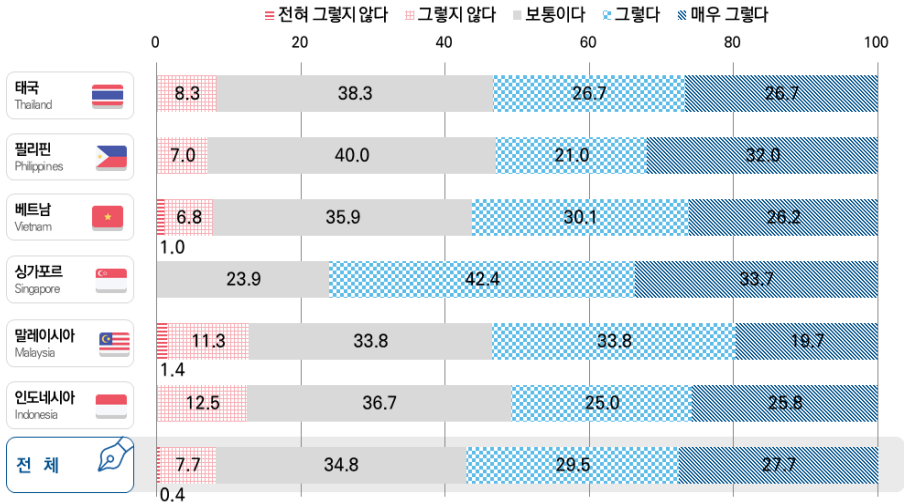


그림 V-27 부모님은 내가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한편, 거주국에서의 자녀들의 학업을 원하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국가의 동포청소년 부모들이 거주국에서의 자녀들의 학업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국에서의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청소년들의 응답률은 23.2%(‘그렇다’ 17.0%, ‘매우 그렇다’ 6.2%)였고, ‘보통이다’는 46.9%, 부정적인 응답은 29.8%(‘그렇지 않다’ 20.1%, ‘전혀 그렇지 않다’ 9.7%)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46.8%(‘그렇다’ 35.9%, ‘매우 그렇다’ 10.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31.0%), 베트남(23.3%), 태국(16.7%), 인도네시아(15.8%), 필리핀(9.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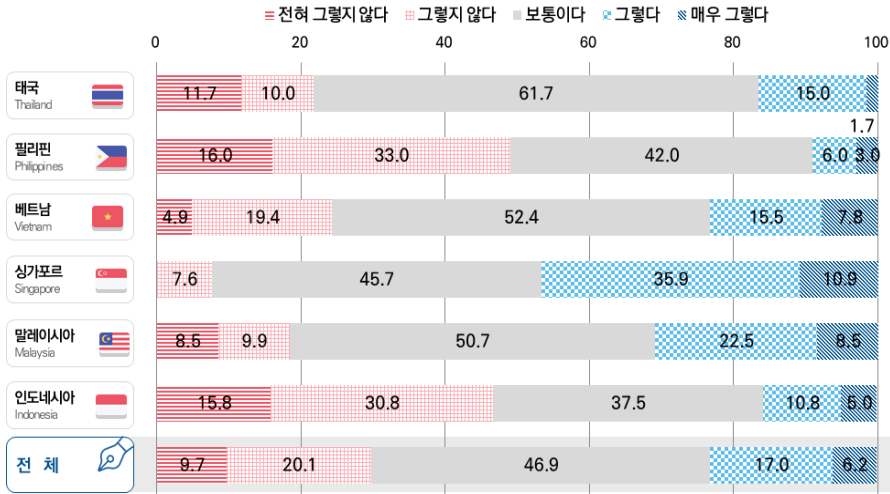


그림 V-28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2) 한국인 및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

(1)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

동포청소년들의 약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거주기간별로는 3년 미만 거주한 경우보다는 3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한국인 친구와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포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그렇다' 25.7%, '매우 그렇다' 55.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8.1%에 불과하여 대부분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베트남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응답률('그렇다'와 '그저 그렇다')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85.3%), 필리핀(85.0%), 싱가포르(77.4%), 말레이시아(75.0%), 태국(72.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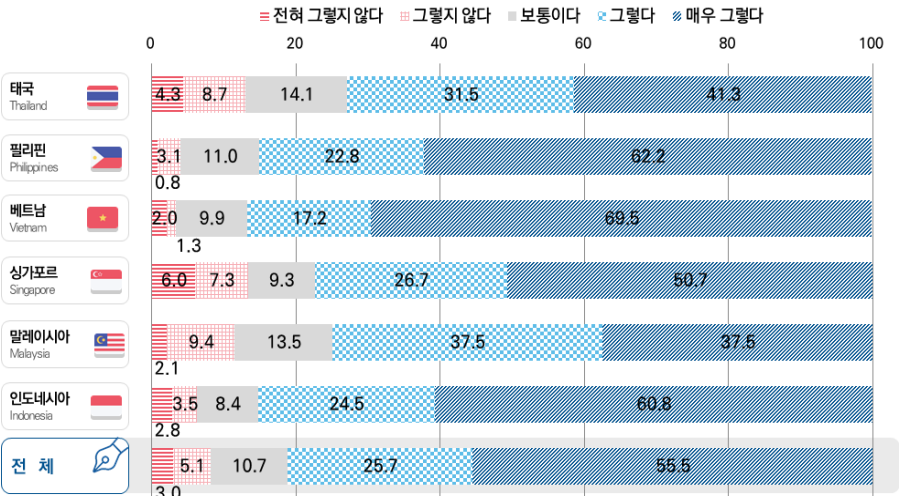


그림 V-29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은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 유형이나 거주기간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살펴보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84.9%(‘그렇다’ 22.7%, ‘매우 그렇다’ 62.2%)로 한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장 많이 자주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학교 학생(76.8%), 현지학교 학생(6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학교 학생들은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인 친구와의 잦은 만남을 하고 있고, 국제학교 학생은 10명 중 7명, 그리고 현지학교 학생들은 10명 중 6명이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을 자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0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학교유형별)

단위: %(빈도)

구분	현지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기타	전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4.2 (2)	3.1 (6)	2.9 (15)	0.0 (0)	3.0 (23)	45.066***
그렇지 않다	12.5 (6)	8.2 (16)	3.1 (16)	14.3 (1)	5.1 (39)	
보통이다	18.8 (9)	11.9 (23)	9.0 (46)	42.9 (3)	10.7 (81)	
그렇다	29.2 (14)	32.5 (63)	22.7 (116)	28.6 (2)	25.7 (195)	
매우 그렇다	35.4 (17)	44.3 (86)	62.2 (317)	14.3 (1)	55.5 (421)	
전체	100.0 (48)	100.0 (194)	100.0 (510)	100.0 (7)	100.0 (759)	

* 주: *** $p < .001$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을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75.7%) 단기간 거주한 경우보다 중기(3년 이상~9년 미만)(83.8%)와 장기(9년 이상)(82.9%) 간 거주한 경우가 한국 친구와의 만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한국인 친구와의 만남(거주기간별)

단위: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7.0 (15)	1.5 (4)	1.4 (4)	3.0 (23)	20.095***
그렇지 않다	6.1 (13)	4.5 (12)	5.0 (14)	5.1 (39)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보통이다	11.2 (24)	10.2 (27)	10.7 (30)	10.7 (81)	
그렇다	27.6 (59)	23.8 (63)	26.1 (73)	25.7 (195)	
매우 그렇다	48.1 (103)	60.0 (159)	56.8 (159)	55.5 (421)	
전체	100.0 (214)	100.0 (265)	100.0 (280)	100.0 (759)	

* 주 : *** $p < .001$

(2)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

동포청소년들의 약 10명 중 5정도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을 하고 있었으며,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동포청소년들이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6%(‘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23.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과반수 정도가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75.0%(‘그렇다’ 29.2%, ‘매우 그렇다’ 45.8%)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59.7%), 싱가포르(47.3%), 필리핀(44.9%), 인도네시아(44.1%), 베트남(38.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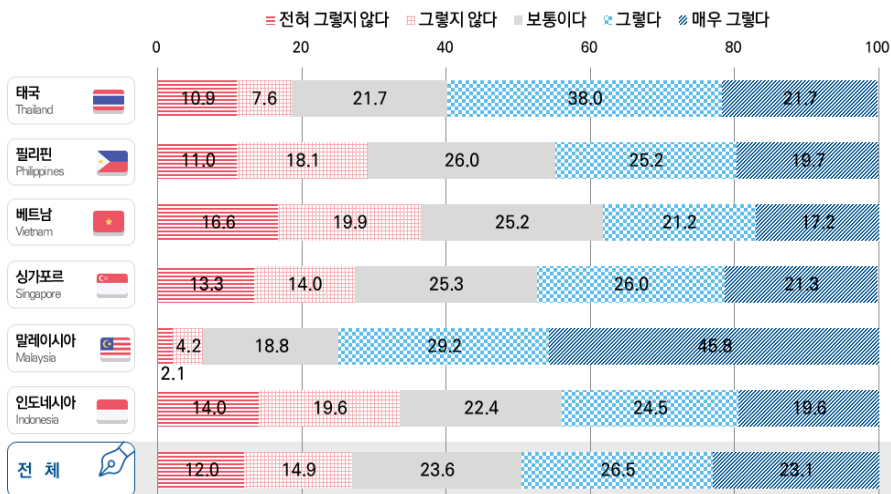


그림 V-30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를 학교 유형과 거주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70.7%(‘그렇다’ 35.6%, ‘매우 그렇다’ 3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학교 학생(68.8%), 한국국제학교 학생(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평상시 학교에서 외국인들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국제학교나 현지학교 학생들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보다 외국인 친구가 많았으며, 한국국제학생들의 경우에도 10명 중 4명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학교유형별)

단위 : %(빈도)

구분	현지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기타	전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4.2 (2)	4.1 (8)	15.9 (81)	0.0 (0)	12.0 (91)	93.183***

구분	현지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기타	전체	χ^2
그렇지 않다	10.4 (5)	2.1 (4)	20.0 (102)	28.6 (2)	14.9 (113)	
보통이다	16.7 (8)	23.2 (45)	24.1 (123)	42.9 (3)	23.6 (179)	
그렇다	25.0 (12)	35.6 (69)	23.1 (118)	28.6 (2)	26.5 (201)	
매우 그렇다	43.8 (21)	35.1 (68)	16.9 (86)	0.0 (0)	23.1 (175)	
전체	100.0 (48)	100.0 (194)	100.0 (510)	100.0 (7)	100.0 (759)	

* 주 : *** $p < .001$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외국인 친구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그렇다’ 30.7%, ‘매우 그렇다’ 2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년 이상~9년 미만’(48.3%), ‘3년 미만’(4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3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거주기간별)

단위 :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18.7 (40)	13.2 (35)	5.7 (16)	12.0 (91)	32.881***
그렇지 않다	17.8 (38)	10.9 (29)	16.4 (46)	14.9 (113)	
보통이다	22.9 (49)	27.5 (73)	20.4 (57)	23.6 (179)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그렇다	23.4 (50)	24.5 (65)	30.7 (86)	26.5 (201)	
매우 그렇다	17.3 (37)	23.8 (63)	26.8 (75)	23.1 (175)	
전체	100.0 (214)	100.0 (265)	100.0 (280)	100.0 (759)	

* 주 : *** $p < .001$

3)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및 진로

(1)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유무

동포청소년들 중에서 정규 학교 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은 약 10명 중 5명 정도가 있었으며,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동포청소년들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은 51.6%로 과반수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응답자가 8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태국(60.9%), 싱가포르(51.3%), 필리핀(48.0%), 인도네시아(42.0%), 베트남(35.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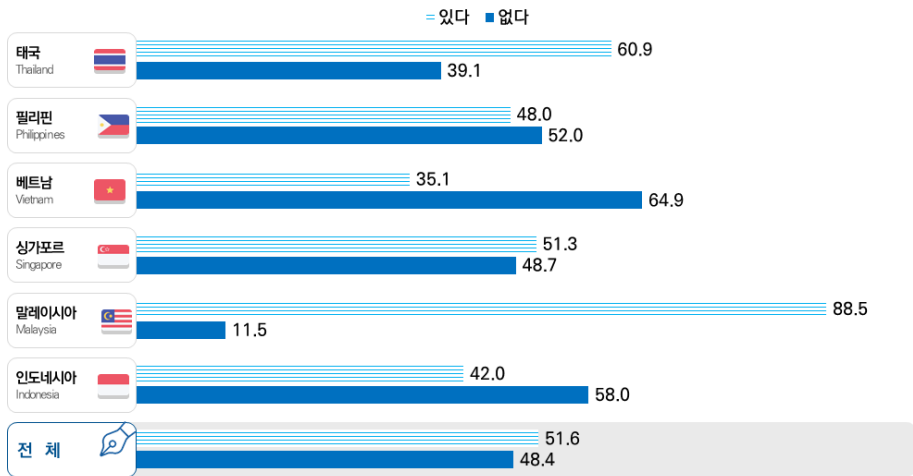


그림 V-31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유무

(2) 한국어 교육기관 재학기간

한국어 교육기관에 재학한 기간은 평균 42.38개월이었으며,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가 60.23개월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42.89개월), 필리핀(40.49개월), 태국(39.07개월), 싱가포르(36.93개월), 베트남(28.24개월)이었다.

표 V-14 한국어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

구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체
사례수(N)	54	59	51	69	76	56	365
평균(월)	39.07	40.49	28.24	36.93	60.23	42.89	42.38
범위(월)	1~118	0~96	0~73	0~144	0~148	0~156	0~156
표준편차	31.71	40.49	21.00	34.59	60.26	37.22	35.34

(3) 고교 졸업 후 진로

동포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는 약 10명 중 7명 정도가 한국대학을 생각하고 있었고, 약 2명은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약 1명은 해외대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 동포청소년들이 한국대학을 가장 선호하였고, 학교유형별로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10명 중 8명이 한국대학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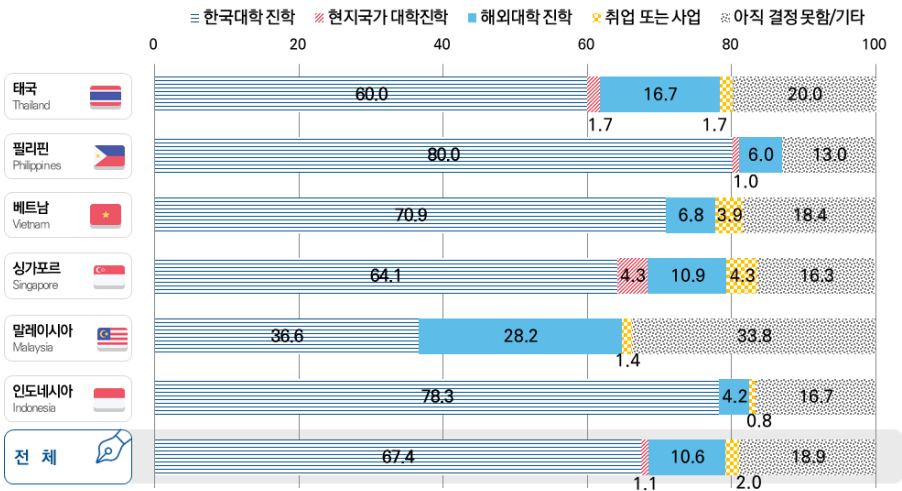


그림 V-32 고교 졸업 후 진로 계획

즉,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한국대학이 6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진로 미결정(18.9%), 해외대학(10.6%), 취업 또는 사업(2.0%), 현지대학(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대학으로의 진로를 선택한 응답자가 필리핀이 8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8.3%), 베트남(70.9%), 싱가포르(64.1%), 태국(60.0%) 등이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경우에는 한국대학으로의 진로가 단지 36.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진로 미결정(33.8%)과 해외대학(28.2%)으로의 진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한국국제학교 응답자가 거의 없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약 10명 중 8명이 한국대학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지학교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10명 중 약 5명이 한국대학, 그리고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해외대학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표 V-15 고교 졸업 후 진로(학교유형별)

단위: %(빈도)

구분	현지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전체	χ^2
한국대학	50.0 (12)	45.5 (65)	78.0 (291)	68.1 (368)	115.499***
현지국가 대학	12.5 (3)	0.7 (1)	0.5 (2)	1.1 (6)	
해외대학	25.0 (6)	23.8 (34)	4.6 (17)	10.6 (57)	
취업 또는 사업	0.0 (0)	2.8 (4)	1.9 (7)	2.0 (11)	
미결정/기타	12.5 (3)	27.3 (39)	15.0 (56)	18.2 (98)	
전체	100.0 (24)	100.0 (143)	100.0 (373)	100.0 (540)	

* 주: *** $p < .001$ ** 주: 초등학생 제외 응답 문항임

조사결과, 한국국제학교 응답자의 78.0%, 현지학교 응답자의 50.0%, 국제학교 응답자의 45.5%가 한국대학으로의 진학에 응답하였다. 해외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현지학교 응답자의 25.0%, 국제학교 응답자의 23.8%가 응답하였으며, 한국국제학교 응답자들은 해외대학 진학에 대해서 4.6%로 낮게 응답하였다.

(4) 학교 졸업 후 희망 거주 국가

학교 졸업 후에 희망하고 있는 거주 국가에 대해서는 10명 중 약 7명이 한국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1명은 미국, 캐나다 등 미주 국가였으며, 현지 거주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희망 거주 국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74.4%가 한국을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미주(10.4%), 호주, 뉴질랜드(7.3%), 유럽(5.1%), 현지국가(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81.7%)가 한국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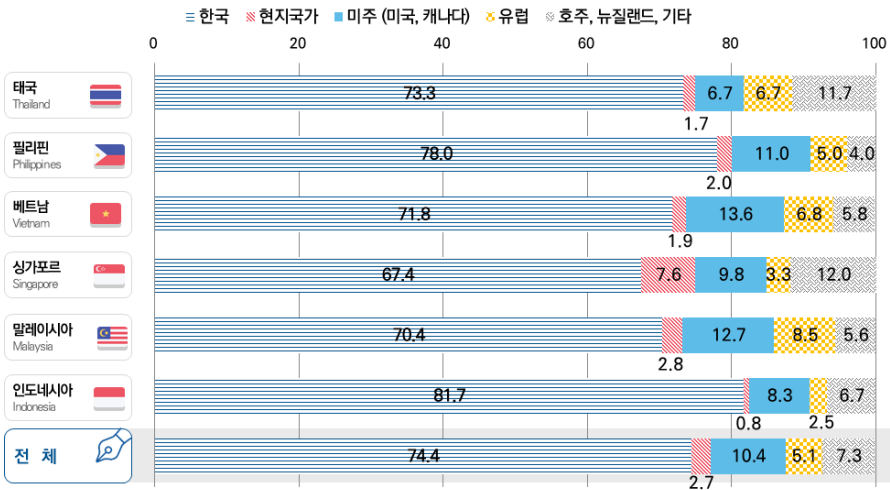


그림 V-33 학교 졸업 후 희망 거주 국가

4) 부모의 자녀 친구 인지 및 주변인과의 교류

(1) 부모의 내 친구 인지

부모들이 자녀의 친구들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10명 중 6명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친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의 자녀들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62.6%(‘그렇다’ 35.6%, ‘매우 그렇다’ 27.0%)로 부정적인 응답률 10.7%(‘그렇지 않다’ 8.6%, ‘전혀 그렇지 않다’ 2.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내 친구 인지는 동남아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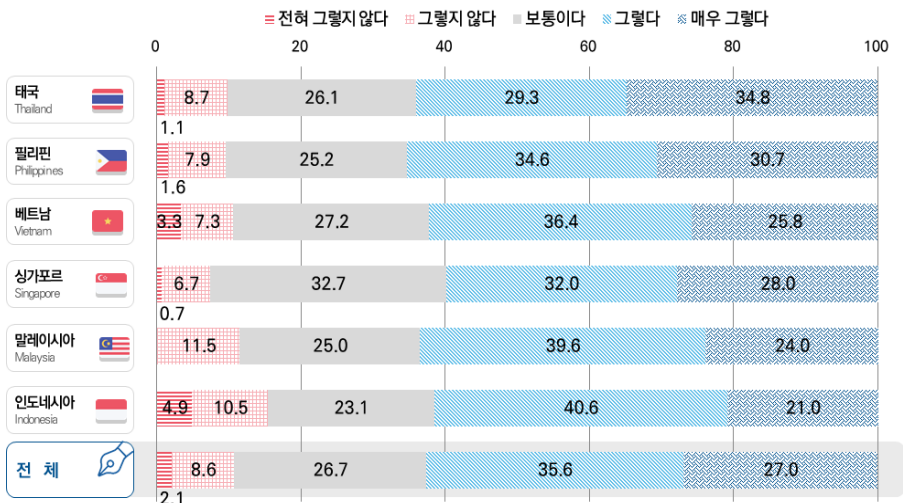


그림 V-34 부모의 내 친구 인지

(2) 친·인척 간의 교류

친인척 간의 모임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약 10명 중 3명 정도가 친인척 모임을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인척 간의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28.6%(‘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10.8%)로 부정적인 응답률 39.0%(‘그렇지 않다’ 27.5%, ‘전혀 그렇지 않다’ 11.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간의 모임은 동남아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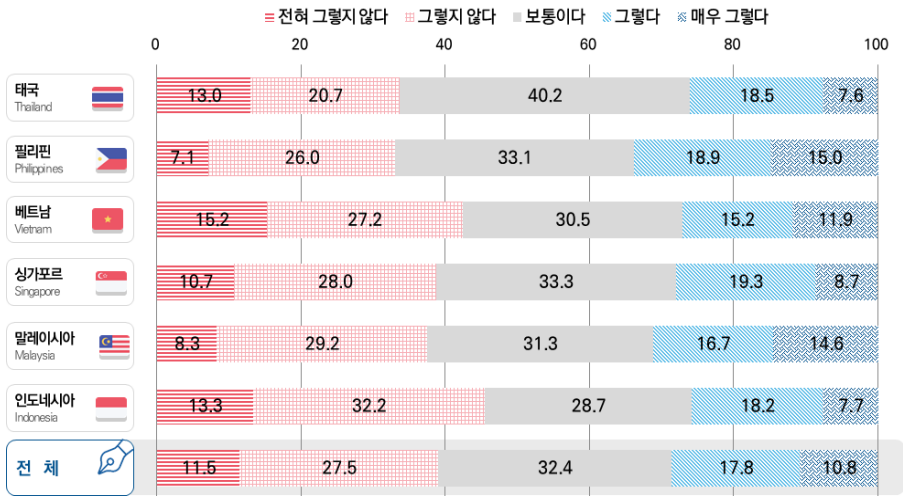


그림 V-35 친·인척 간의 모임

(3) 타 한인 부모들과의 교류

부모들이 다른 한인 부모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약 10명 중 7명 정도가 자주 만나고 있었고,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 동포 부모들이 타 한인부모

들과의 교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한인 부모와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67.7%(‘그렇다’ 30.3%, ‘매우 그렇다’ 37.4%), ‘보통이다’가 18.8%, 부정적인 응답률 13.4%(‘그렇지 않다’ 9.2%, ‘전혀 그렇지 않다’ 4.2%)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필리핀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76.4%(‘그렇다’ 30.7%, ‘매우 그렇다’ 4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9.3%), 태국(66.3%), 베트남(65.6%), 말레이시아 (64.6%), 싱가포르(64.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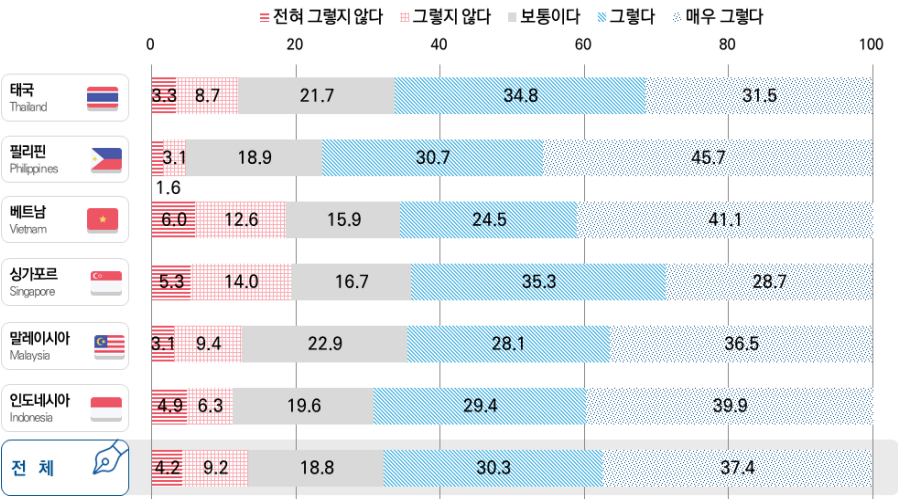


그림 V-36 부모의 타 한인 부모와의 만남

(4) 학교 교사와의 교류

부모들이 학교 교사와 어느 정도 자주 만나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약 10명 중 2명 정도가 자주 만나고 있었고,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 동포들의 학부모들이 학교 교사를 가장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교사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

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20.4%(‘그렇다’ 12.6%, ‘매우 그렇다’ 7.8%), ‘보통이다’는 39.4%, 부정적인 응답률은 40.2%(‘그렇지 않다’ 29.1%, ‘전혀 그렇지 않다’ 11.1%)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긍정적인 응답률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29.4%(‘그렇다’ 20.7%, ‘매우 그렇다’ 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27.5%), 태국(19.6%), 말레이시아(17.7%), 인도네시아(15.4%), 베트남(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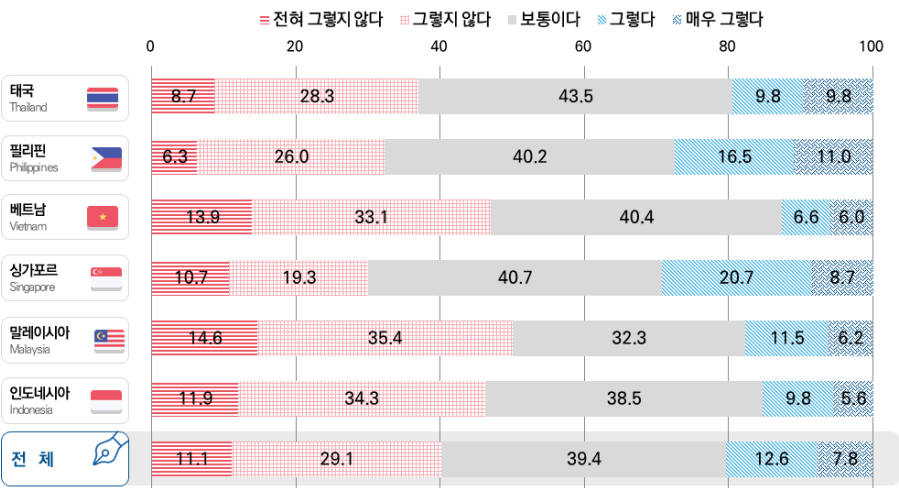


그림 V-37 부모님은 학교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

5.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교육·문화·교류 여건

1) 한국어 교육 여건

(1) 한국어수업 개설 및 수강 여부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22.7%가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77.3%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동남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인도네시아가 8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35.7%), 베트남(34.2%), 태국(31.2%), 말레이시아(5.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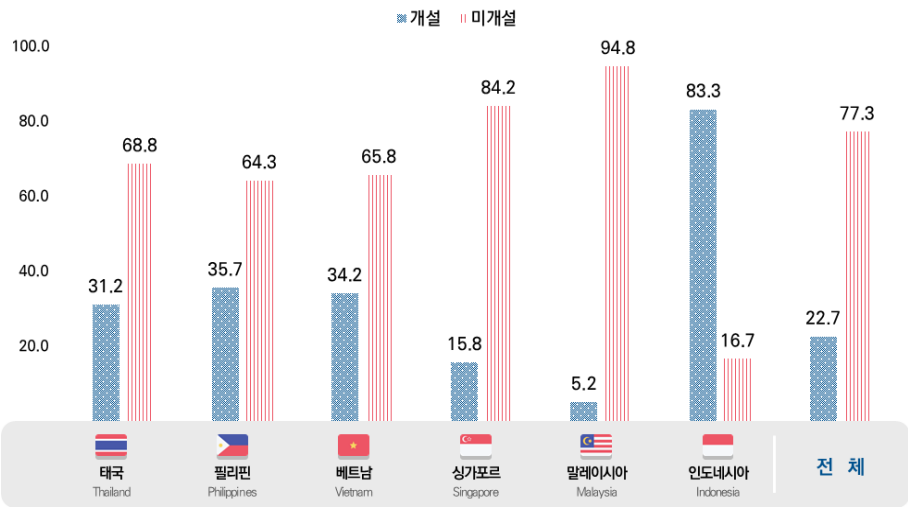


그림 V-38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개설 여부

한편, 학교에 한국어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수강해 본 경험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약 10명 중 8명은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79.7%가 한국어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20.3%가 한국어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남아 국가별로 한국어수업 수강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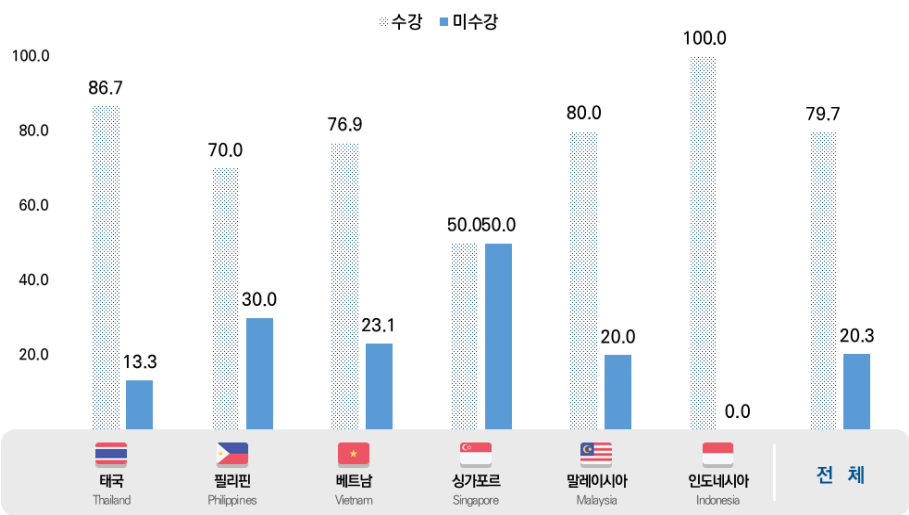


그림 V-39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수강 여부

(2)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수업 개설 및 수강 여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거주국 언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80%가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79.3%가 거주국언어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98.6%로 가장 높았으나, 태국(98.9%), 베트남(94.7%), 말레이시아(85.4%) 등도 매우 높게 나타

났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20.5%만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여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 국언어 수업 개설은 현지학교 100.0%, 국제학교 33.3%, 한국국제학교는 8.1%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6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개설 여부

단위: %(빈도)

구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체	χ^2
개설 여부	개설	98.9 (91)	20.5 (26)	94.7 (143)	79.3 (119)	85.4 (82)	98.6 (141)	79.3 (602)	345.952***
	미개설	1.1 (1)	79.5 (101)	5.3 (8)	20.7 (31)	14.6 (14)	1.4 (2)	20.7 (157)	
전체		100.0 (92)	100.0 (127)	100.0 (151)	100.0 (150)	100.0 (96)	100.0 (143)	100.0 (759)	

* 주: *** $p<.001$

한편, 거주국 언어 수업의 개설 여부는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의 거주국수업 개설 여부에 대해 현지학교 응답자의 95.8%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국제학교는 82.5%, 한국국제학교는 76.5%로 학교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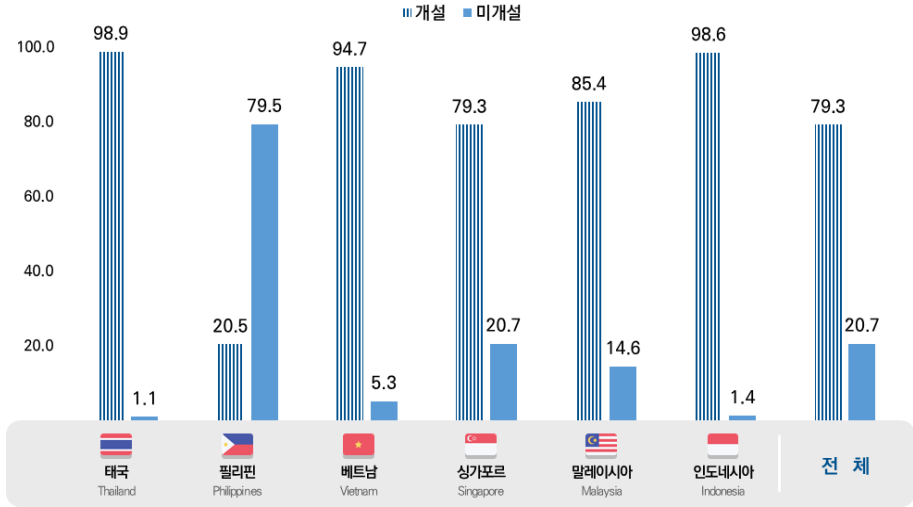


그림 V-40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개설 여부

표 V-17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개설 여부(학교유형별)

단위 : %(빈도)

구분	현지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전체	χ^2
예	95.8 (46)	82.5 (160)	76.5 (390)	79.3 (596)	11.652***
아니오	4.2 (2)	17.5 (34)	23.5 (120)	20.7 (156)	
전체	100.0 (48)	100.0 (194)	100.0 (510)	100.0 (752)	

* 주 : *** $p < .001$

학교에서 거주국 언어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수강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2.0%로 대부분이었으며, 수강하지 않은 응답자는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90% 이상이 수강 경험이 있었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76.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V-41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수강 여부

거주국 언어 수업의 수강 여부는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와 현지학교에 비해서 국제학교 학생들의 수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유형별로 거주국 언어 수업의 수강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국제학교와 현지학교 응답자는 각각 96.9%, 95.7%가 거주국 언어에 대한 수강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국제학교 응답자의 경우에는 79.4%만이 거주국 언어 수업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18 정규학교에서의 거주국 언어 수업 수강 여부(학교유형별)

단위: %(빈도)

구분	현지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전체	χ^2
예	95.7(44)	79.4(127)	96.9(378)	92.0(549)	49.087***
아니오	4.3(2)	20.6(33)	3.1(12)	7.9(47)	
전체	100.0(46)	100.0(160)	100.0(390)	100.0(596)	

* 주: *** $p < .001$

2) 지역사회에서의 한국문화 체험

거주국 내 지역사회에서의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한인회 행사에 대한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약 10명 중 6명이 한인회 행사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국가별로는 태국과 필리핀의 동포청소년들의 경험이 많은 반면,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인회 행사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3.7%가 한인회 행사의 참석 경험이 있었는데, '4번 이상' 참석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1번' 16.7%, '2번' 13.7%, '3번' 8.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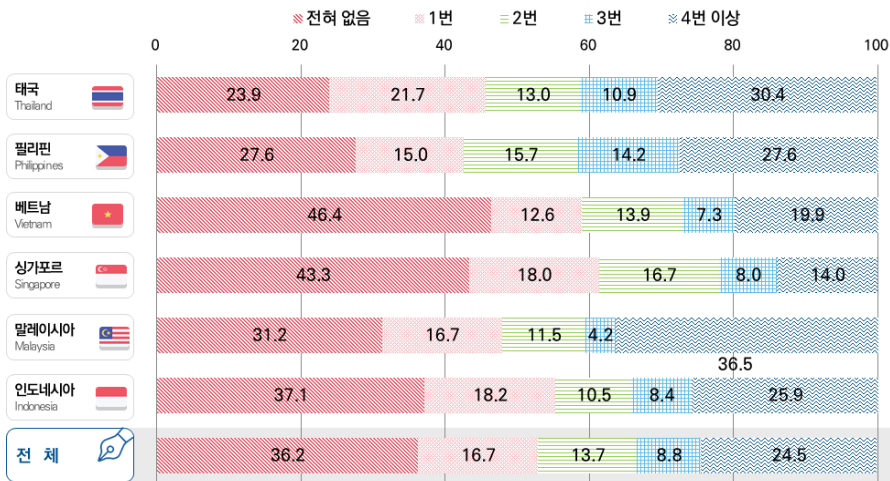


그림 V-42 한인회 행사 참석

국가별로 살펴보면, 1번 이상 참석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태국이 7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72.4%), 말레이시아(68.8%), 인도네시아(62.9%), 싱가포르(56.7%), 베트남(5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회 행사 참석을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인회 행사 참여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회 행사 참여와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거주국에서 3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44.9%의 응답자만이 한인회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비해, ‘3년 이상~9년 미만’은 67.9%, ‘9년 이상’은 74.3%의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4년 이상’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에도 ‘3년 미만’은 8.9%였으나 ‘3년 이상~9년 미만’은 23.8%, ‘9년 이상’은 37.1%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한인회 행사 참석(거주기간별)

단위: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없음	55.1 (118)	32.1 (85)	25.7 (72)	25.7 (72)	77.788***
1번	18.7 (40)	17.7 (47)	14.3 (40)	14.3 (40)	
2번	11.2 (24)	14.7 (39)	14.6 (41)	14.6 (41)	
3번	6.1 (13)	11.7 (31)	8.2 (23)	8.2 (23)	
4번 이상	8.9 (19)	23.8 (63)	37.1 (104)	37.1 (104)	
전체	100.0 (214)	100.0 (265)	100.0 (280)	100.0 (759)	

* 주: *** $p < .001$

3) 거주국에서의 캠프 및 연수 참여 여건

거주국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 및 연수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동포청소년 약 10명 중 3명만이 경험이 있었고,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10명 중 5명으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며,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결과, 거주국에서의 캠프 및 연수 참여에 대해서 29.5%의 응답자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번’ 참여한 경우가 1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거주국에서의 캠프 및 연수 참여 경험에 대해서 태국의 응답자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30.7%), 말레이시아(32.3%), 인도네시아(28.0%), 싱가포르(23.3%), 베트남(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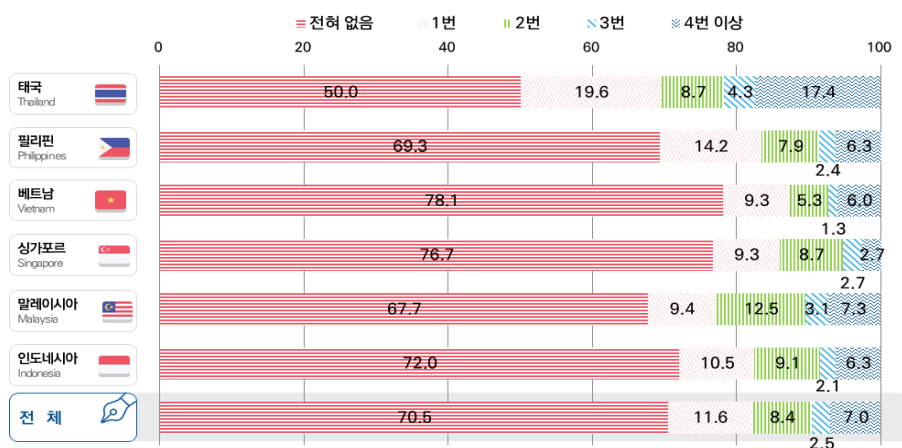


그림 V-43 거주국에서의 캠프 및 연수 참여 경험

한편, 거주국에서의 캠프 및 연수 참여 경험은 거주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국에서의 캠프 및 연수 참여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결과, 거주국에서 3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의 응답자만이 캠프 및 연수 참여 경험이 있었는데 비해, '3년 이상~9년 미만'은 31.3%, '9년 이상'은 38.9%의 응답자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의 청소년캠프 및 프로그램 여건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면, 동포청소년 약 10명 중 3명만이 참여 경험이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험이 높았으며,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결과,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참여에 대해서 33.1%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1번' 참여가 1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태국이 42.4%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약 30%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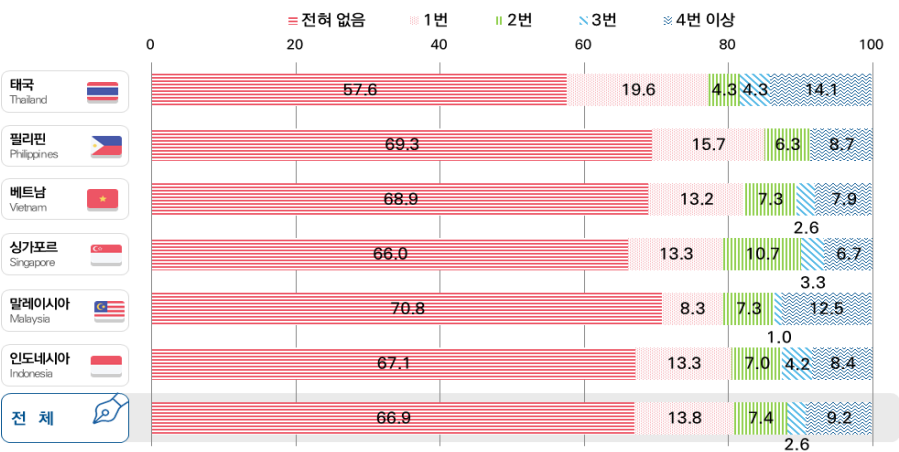


그림 V-44 한국 개최 청소년 프로그램 / 캠프 참여 경험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은 학교 유형과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의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학교(29.9%), 현지학교(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은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대한 정보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참여 횟수를 보면, ‘1번 참여’한 비율(16.3%)이 가장 높아서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참여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20 한국 개최 청소년프로그램 / 캠프 참여 경험(학교유형별)

단위 : %(빈도)

구분	현지학교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전체	χ^2
전혀 없음	79.2 (38)	70.1 (136)	64.9 (331)	67.2 (505)	18.700*
1번	8.3 (4)	8.8 (17)	16.3 (83)	13.8 (104)	
2번	6.2 (3)	6.7 (13)	7.8 (40)	7.4 (56)	
3번	0.0 (0)	1.0 (2)	3.3 (17)	2.5 (19)	
4번 이상	6.2 (3)	13.4 (26)	7.6 (39)	9.0 (58)	
전체	100.0 (48)	100.0 (194)	100.0 (510)	100.0 (752)	

* 주 : * $p < .05$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을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참여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조사결과, 거주국에서 9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8.6%의 참여 경험이 있었는데 비해, ‘3년 이상~9년 미만’은 31.7%, ‘3년 미만’은 40.7%로 거주기간이 적을수록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참여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과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다만,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적을수록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의 경험이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표 V-21 한국 개최 청소년프로그램 / 캠프 참여 경험(거주기간별)

단위 :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없음	59.3 (127)	68.3 (181)	71.4 (200)	66.9 (508)	16.987*
1번	13.6 (29)	14.0 (37)	13.9 (39)	13.8 (105)	
2번	9.8 (21)	8.3 (22)	4.6 (13)	7.4 (56)	
3번	4.2 (9)	1.1 (3)	2.9 (8)	2.6 (20)	
4번 이상	13.1 (28)	8.3 (22)	7.1 (20)	9.2 (20)	
전체	100.0 (214)	100.0 (265)	100.0 (280)	100.0 (759)	

* 주 : * $p < .05$

6.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타문화 수용

1) 한류의 확산

동포청소년의 약 10명 중 9명이 거주국에서의 한류의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국에서 K-Pop이나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90%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을 한 응답자는 1.3%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의 응답자들이 98.6%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한류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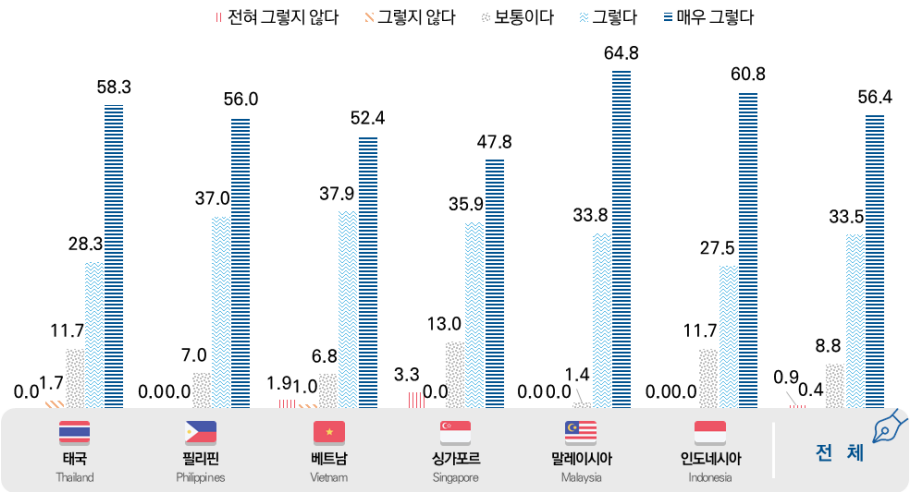


그림 V-45 한류의 확산(K-Pop, 한국드라마 등)

2)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동포청소년의 약 10명 중 6명이 거주국 내 동포사회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거주기간이 단기간보다는 3년 이상 되는 경우에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남아 국가 내의 한인 교포사회에서 거주국에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57.5%의 응답자들이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하였고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필리핀의 응답자들이 62.0%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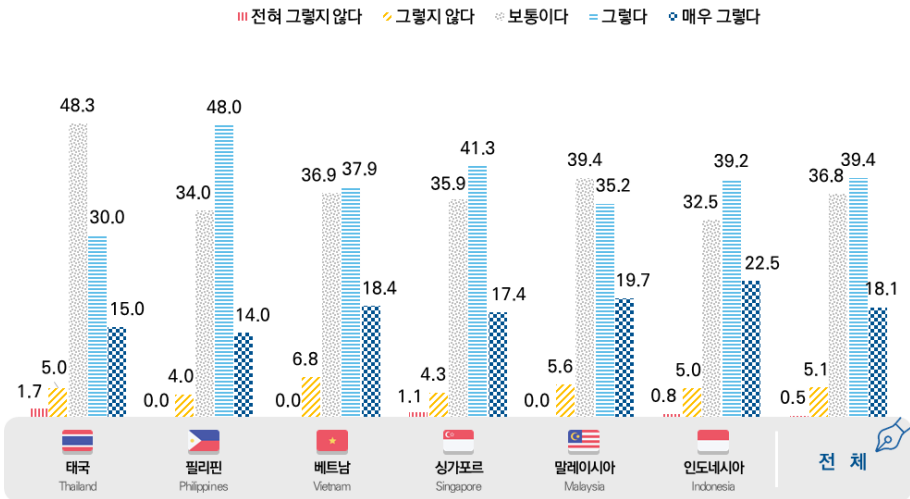


그림 V-46 한인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홍보 노력

동남아 국가 내에서의 한인 교포사회의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 노력은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국에서 3년 이상~9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9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56.9%), 그리고 3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55.8%)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 단기간 거주한 동포청소년들보다 3년 이상 중장기 기간 동안 거주한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교포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22 한인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홍보 노력(거주기간별)

단위 :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0.7 (1)	1.1 (2)	0.0 (0)	0.5 (3)	15.513*
그렇지 않다	2.1 (3)	4.0 (7)	7.8 (18)	5.1 (28)	
보통이다	41.4 (58)	35.1 (61)	35.3 (82)	36.8 (201)	
그렇다	42.9 (60)	36.2 (63)	39.7 (92)	39.4 (215)	
매우 그렇다	12.9 (18)	23.6 (41)	17.2 (40)	18.1 (99)	
전체	100.0 (140)	100.0 (174)	100.0 (232)	100.0 (546)	

* 주 : * $p < .05$

3) 거주국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동포청소년의 약 10명 중 7명이 거주 국가에서 한국문화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가별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조사결과, 거주국 사회에서 한국문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응답은 74.4%(‘그렇다’ 51.1%, ‘매우 그렇다’ 23.3%)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2%(‘그렇지 않다’ 1.8%, ‘전혀 그렇지 않다’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긍정적인 응답이 8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및 태국(70.0%), 베트남(69.0%), 싱가포르(63.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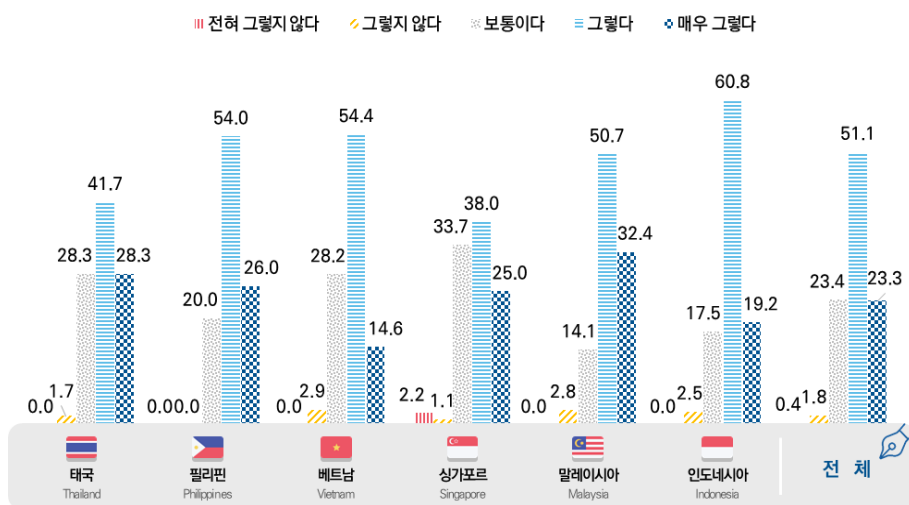


그림 V-47 거주국가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4)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동포청소년들의 약 10명 중 5명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조사결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외동포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54.6% ('그렇다' 38.8%, '매우 그렇다' 15.8%)였으며, '보통이다'는 35.9%, 부정적인 응답은 9.5%('그렇지 않다' 7.5%, '전혀 그렇지 않다' 2.0%)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았으나 과반수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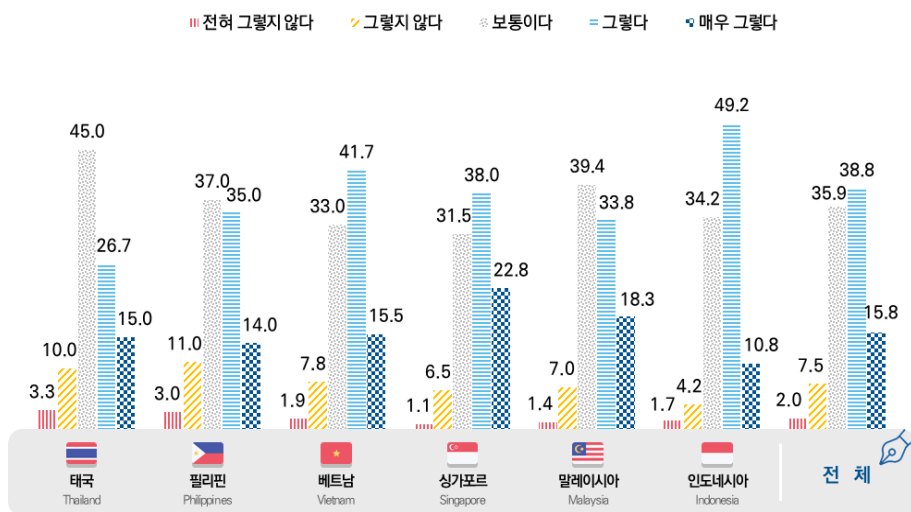


그림 V-48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7. 한국 문화 경험과 욕구 및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1) 한국 문화 경험

동포청소년들의 약 10명 중 8명은 과거에 한국 문화를 자주 경험하였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 경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6.9%의 응답자들이 한국 문화를 자주 경험(‘자주’ 22.9%, ‘매우 자주’ 54.0%)하였으며, 가끔 경험했다고 한 응답자는 16.8%,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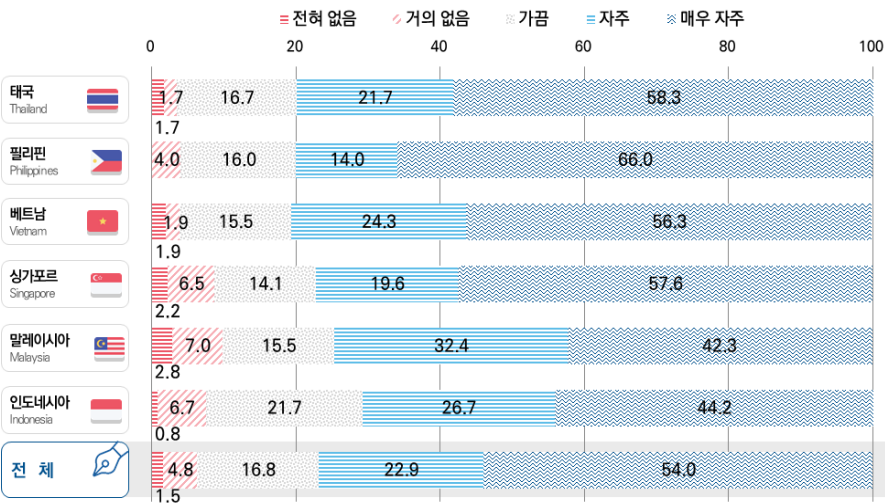


그림 V-49 한국 문화 경험

한편, 한국 문화의 경험은 거주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문화 경험 정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년 미만 거주국에서 거주한 응답자의 경우에 한국 문화 경험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 비율이 91.4%였으나 3년 이상~9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82.8%로 낮아졌고, 그리고 9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63.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한국 문화 경험 (거주기간별)

단위 :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없음	0.7(1)	0.6(1)	2.6(6)	1.5(8)	60.320***
거의 없음	0.7(1)	4.0(7)	7.8(18)	4.8(26)	
가끔	7.1(10)	12.6(22)	25.9(60)	16.8(92)	
자주	17.1(24)	23.0(4)	26.3(61)	22.9(125)	
매우 자주	74.3(104)	59.8(104)	37.5(87)	54.0(295)	
전체	100.0(140)	100.0(174)	100.0(232)	100.0(546)	

* 주 : *** $p < .001$ ** 주 : 초등학생 제외 응답 문항임

2) 한국 방문 경험 및 욕구

(1) 한국 방문 경험

동포청소년의 약 10명 중 8명은 과거에 한국을 자주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거주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 한국 방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6.4%의 응답자들이 자주 경험(‘자주’ 18.7%, ‘매우 자주’ 57.7%)하였으며, 가끔 경험했다고 한 응답자는 19.8%,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별로는 필리핀 응답자들의 ‘자주’ 또는 ‘매우 자주’ 방문한 비율이 8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82.6%), 베트남(74.8%), 태국(73.3%), 인도네시아(70.8%), 말레이시아(69.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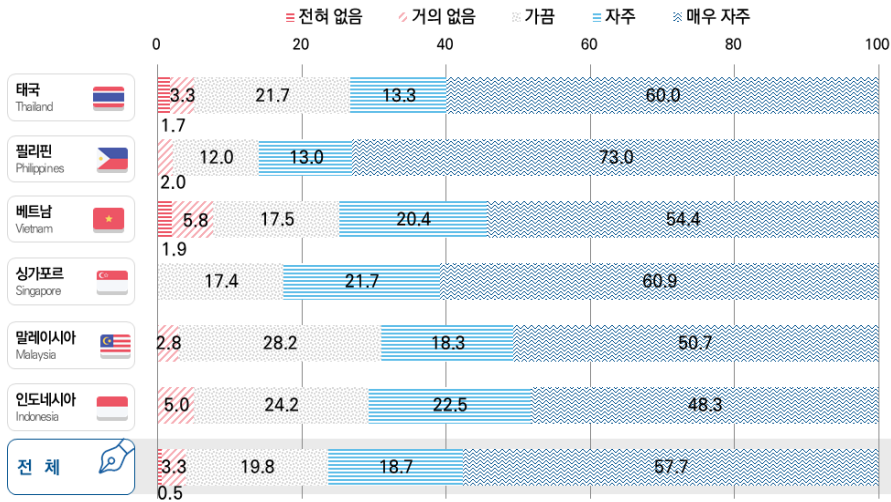


그림 V-50 한국 방문 경험

한편, 한국 방문 경험도 거주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국에서 ‘9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 ‘3년 미만’이나 ‘3년 이상~9년 미만’ 거주한 경우보다 한국방문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국을 방문한 비율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인 경우의 응답율은 85.7%, 3년 이상~9년 미만의 응답율은 77.0%였으나 9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70.2%로 나타났다.

표 V-24 한국 방문 경험 (거주기간별)

단위: %(빈도)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전혀 없음	0.7(1)	1.1(2)	0.0(0)	0.5(3)	36.835***
거의 없음	2.1(3)	2.9(5)	4.3(10)	3.3(18)	

구분	단기 거주 (3년 미만)	중기 거주 (3년 이상~ 9년 미만)	장기 거주 (9년 이상)	전체	χ^2
가끔	11.4(16)	19.0(33)	25.4(59)	19.8(108)	
자주	9.3(13)	19.0(33)	24.1(56)	18.7(102)	
매우 자주	76.4(107)	58.0(101)	46.1(107)	57.7(315)	
전체	100.0(140)	100.0(174)	100.0(232)	100.0(546)	

* 주 : *** $p < .001$ ** 주 : 초등학생 제외 응답 문항임

(2) 한국 방문 및 학업·취업·프로그램 참여 욕구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방문,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 및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욕구는 매우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방문 욕구가 높았다. 즉, 한국 관련 욕구를 한국 방문, 한국청소년프로그램 참여, 한국에서의 공부, 한국에서의 취업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평균 5점 만점에 한국 방문 욕구가 평균 4.6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평균 3.90점),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평균 3.50점),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욕구(평균 3.4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한국 관련 욕구(평균 3.94점)가 가장 높은 반면, 싱가포르(평균 3.76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방문 욕구와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욕구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고,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학업 욕구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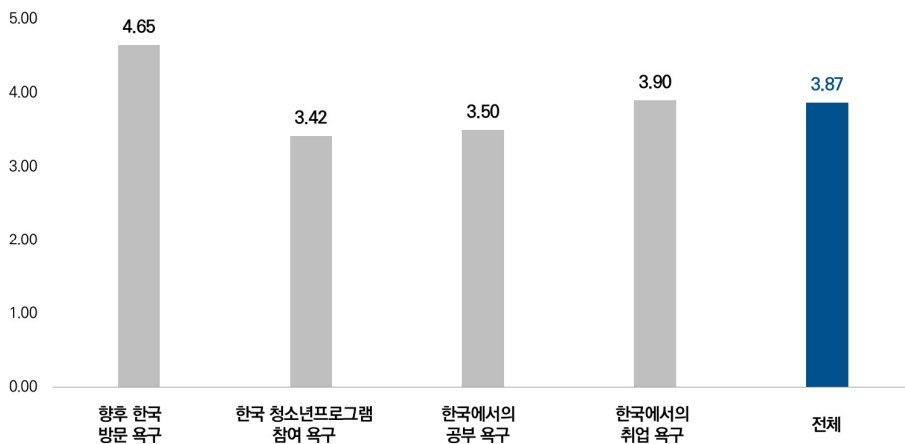


그림 V-51 향후 한국 관련 욕구

표 V-25 향후 한국 관련 욕구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분	태국 N=92	필리핀 N=127	베트남 N=151	싱가포르 N=150	말레이시아 N=96	인도네시아 N=143	전체 (N=759)
한국 방문 욕구	4.74 (0.55)	4.68 (0.62)	4.54 (0.8)	4.63 (0.67)	4.72 (0.66)	4.65 (0.69)	4.65 (0.69)
한국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욕구	3.49 (1.29)	3.52 (1.28)	3.36 (1.31)	3.19 (1.32)	3.63 (1.21)	3.48 (1.23)	3.42 (1.28)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	3.48 (1.25)	3.56 (1.23)	3.41 (1.25)	3.44 (1.17)	3.55 (1.21)	3.57 (1.14)	3.50 (1.21)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	3.90 (0.96)	4.02 (1.14)	3.91 (1.1)	3.77 (1.02)	3.72 (1.11)	4.05 (0.92)	3.90 (1.05)
전체	3.90 (0.77)	3.94 (0.79)	3.80 (0.87)	3.76 (0.75)	3.90 (0.76)	3.94 (0.75)	3.87 (0.79)

3)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동포청소년들의 약 10명 중 6명은 과거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즉, 과거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어떠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56.5%(‘긍정적으로 변한 편이다’ 34.1%,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22.4%)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6.8%(‘부정적으로 변한 편이다’ 5.4%,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1.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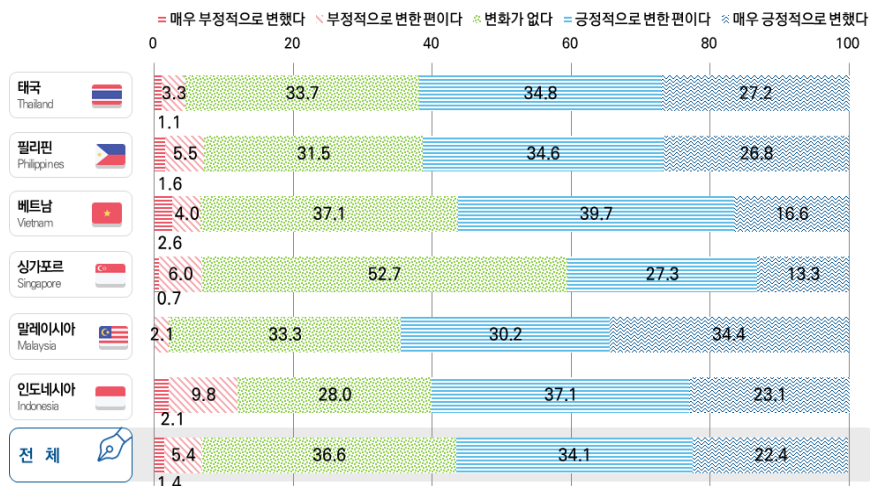


그림 V-52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동남아 각 국가별로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의 국가가 55% 이상이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40.6%에 머물렀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11.9%(‘부정적으로 변한 편이다’ 9.8%,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2.1%)로 다른 국가보다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거주국으로의 이주 후에 한국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적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높았지만, 이와 함께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한 경우도 10명 중 1명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동포청소년의 역할 및 지원방안

1)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동포청소년의 역할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및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거주국 내에서의 한국문화 확산이나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고 거주국 내 한인사회의 발전이나 남북평화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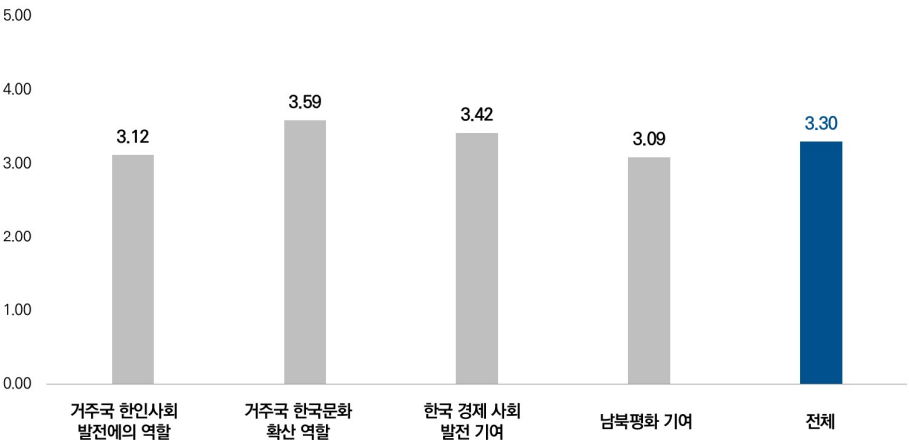


그림 V-53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표 V-26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분	태국 N=60	필리핀 N=100	베트남 N=103	싱가포르 N=92	말레이시아 N=71	인도네시아 N=120	전체 N=546
거주국 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3.05 (0.98)	2.95 (1.02)	3.15 (1.02)	3.33 (0.85)	3.27 (0.91)	3.04 (0.90)	3.12 (0.96)
거주국 한국문화 확산 역할	3.60 (1.00)	3.43 (1.05)	3.58 (0.87)	3.65 (0.88)	3.75 (0.87)	3.58 (0.88)	3.59 (0.92)
한국 경제 사회 발전 기여	3.48 (1.00)	3.45 (0.94)	3.42 (0.91)	3.46 (0.88)	3.55 (0.95)	3.26 (0.91)	3.42 (0.92)
남북평화 기여	3.08 (1.06)	2.95 (1.03)	3.08 (0.88)	3.30 (0.99)	3.03 (1.15)	3.08 (0.95)	3.09 (1.00)
전체	3.30 (0.85)	3.20 (0.77)	3.31 (0.78)	3.43 (0.78)	3.40 (0.81)	3.24 (0.73)	3.30 (0.78)

즉,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및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거주 국가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거주 국가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서 남북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의 4개 문항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거주국에 한국문화 확산(평균 3.59점)과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평균 3.42점)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거주국 내 한인사회의 발전(평균 3.12점)과 남북평화 기여(평균 3.09점)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2) 동남아 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1)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서술형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우선 동남아 동포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1순위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 2순위는 ‘기타’, 3순위는 ‘부족한 공공/교육시설’, 4순위는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표 V-27 동남아 동포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서술형 문항)

순위	응답자수(비율)	내용	비고
1	153(24.4)	언어 소통의 어려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1순위
2	94(15.0)	기타	
3	74(11.8)	부족한 공공/교육시설	필리핀 1위
4	38(6.1)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 교육기회 부족	
5	36(5.7)	자연 및 기후 적응의 어려움	
5	36(5.7)	주거 및 교통 불편	
7	35(5.6)	낙후된 사회/교육/치안 시스템	
8	28(4.5)	한국 물건(음식 포함) 구하기 어려움	
9	24(3.8)	현지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	
10	21(3.3)	외로움/모국에 대한 향수	

* 전체 응답자=628명 (없음 및 무응답 제외)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없음 및 무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음.

이들이 인식하는 어려움은 거주국의 자연환경, 공공시설 부족, 낙후된 사회 시스템, 언어 소통,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 등 거주국의 환경과 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내용인 반면,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 교육기회 부족’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결 가능한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포청소년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필리핀 동포청소년들은 ‘부족한 공공 / 교육시설’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한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거주 청소년들은 어려움이 없거나 무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포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서술형 문항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는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2순위는 ‘기타’, 3순위는 ‘경제적 지원’, 4순위는 ‘한국 물건에 대한 지원’, 5순위는 ‘한국문화 / 역사에 대한 경험 기회 및 정보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은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포청소년들의 1순위 요구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조사 응답자의 다수가 한국국제학교 재학생이라는 점과 관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 조사 응답자들의 다수는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거주국 내 국제학교 및 현지학교 청소년들인데 태국 동포청소년은 ‘한국문화 / 역사에 대한 경험 기회 및 정보 확대’를, 말레이시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 물건에 대한 지원’과 ‘거주국과 한국 간 교류 기회 확대 및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동남아 동포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술형 문항)

순위	응답자수 (비율)	내용	비고
1	73(18.0)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한국학교 설립, 급식 지원 등)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순위
2	48(11.8)	기타	
3	38(9.4)	경제적 지원(장학금 포함)	
4	28(6.9)	한국 물건(음식)에 대한 지원 (구매 인프라 확충 및 배송지원 등)	말레이시아 공동 1순위

순위	응답자수 (비율)	내용	비고
5	22(5.4)	한국문화 / 역사에 대한 경험 기회 및 정보 확대	태국 1순위
6	20(4.9)	거주국과 한국 간 교류 기회 확대 및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	말레이시아 공동 1순위
7	16(3.9)	현지 언어 소통에 대한 지원	
8	16(3.9)	교통 및 주거 편리성 지원	
9	15(3.7)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10	14(3.4)	한국 학교 진학 / 한국 진출이 용이하도록 지원	

* 전체 응답자=406명 (없음 및 무응답 제외)

** 국가별 1순위는 기타 응답을 제외했을 때의 결과임.

(2) 한국 /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방안

미래 한국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청소년을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한국 방문 또는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한국 방문 또는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인사회의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활동 지원(23.8%),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국어와 역사 교육 지원(21.2%), 부모의 한국과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지원(11.4%), 거주국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지원(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9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단위 : %(빈도)

구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체	χ^2
부모의 한국과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지원	8.3 (5)	6.0 (6)	15.5 (16)	13.0 (12)	12.7 (9)	11.7 (14)	11.4 (62)	44.282*
한국어와 역사교육 지원	23.3 (14)	30.0 (30)	11.7 (12)	20.7 (19)	28.2 (20)	17.5 (21)	21.2 (116)	
한인사회의 차세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활동지원	16.7 (10)	24.0 (24)	24.3 (25)	23.9 (22)	23.9 (17)	26.7 (32)	23.8 (130)	
거주국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지원	5.0 (3)	1.0 (1)	9.7 (10)	12.0 (11)	5.6 (4)	5.8 (7)	6.6 (36)	
한국방문 또는 한국 청소년과 교류기회 확대	35.0 (21)	37.0 (37)	33.0 (34)	28.3 (26)	26.8 (19)	36.7 (44)	33.2 (181)	
기타	11.7 (7)	2.0 (2)	5.8 (6)	2.2 (2)	2.8 (2)	1.7 (2)	3.8 (21)	
전체	100.0 (60)	100.0 (100)	100.0 (103)	100.0 (92)	100.0 (71)	100.0 (120)	100.0 (546)	

* 주: * $p < .05$ ** 주 : 초등학생 제외 응답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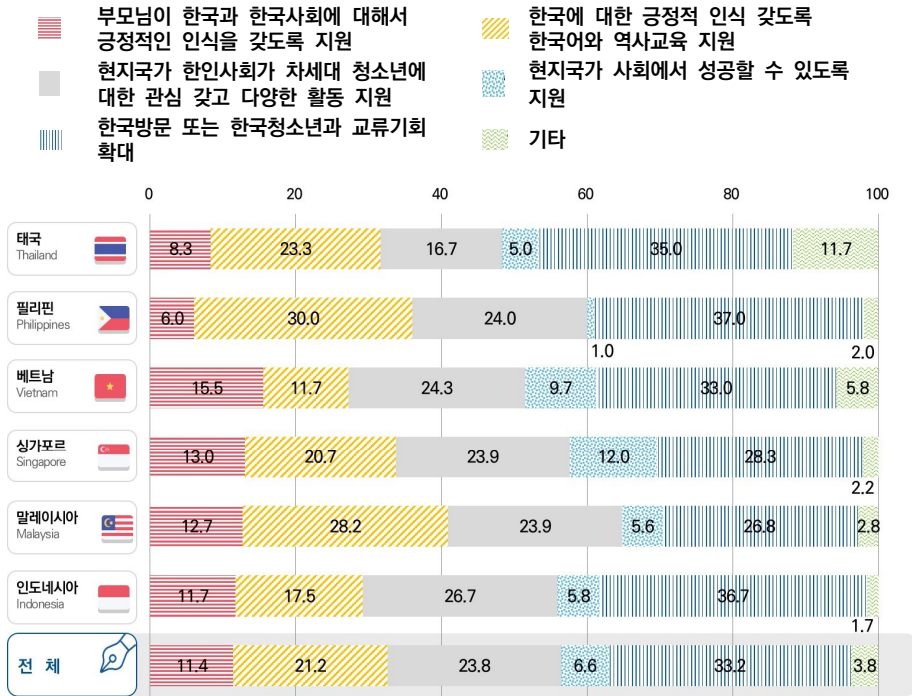


그림 V-54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동남아 국가별로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5개 국가에서 한국 방문 또는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방문 또는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26.8%)보다 한국어와 역사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률(28.2%)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태국과 필리핀의 응답자들도 한국어와 역사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이 한국 방문 또는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 다음으로 응답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차이를 보였다.

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의 중요성의 순서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이 동일하였다. 하지만 한국 방문 또는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남자 청소년’ 29.4%, ‘여자 청소년’ 37.0%), 한인사회의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활동 지원(‘남자 청소년’ 21.0%, ‘여자 청소년’ 26.7%), 한국어와 역사 교육 지원(‘남자 청소년’ 20.6%, ‘여자 청소년’ 22.0%)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보다 높았으나, 부모의 한국과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지원(‘남자 청소년’ 15.4%, ‘여자 청소년’ 7.0%)과 거주국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지원(‘남자 청소년’ 8.8%, ‘여자 청소년’ 4.4%)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여자 청소년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30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성별)

단위 : %(빈도)

구분	남자	여자	전체	χ^2
부모의 한국과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지원	15.4 (42)	7.0 (19)	11.2 (61)	18.404***
한국어와 역사교육 지원	20.6 (56)	22.0 (60)	21.3 (116)	
한인사회의 차세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활동지원	21.0 (57)	26.7 (73)	23.9 (130)	
거주국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지원	8.8 (24)	4.4 (12)	6.6 (36)	
한국방문 또는 한국청소년과 교류기회 확대	29.4 (80)	37.0 (101)	33.2 (181)	
기타	4.8 (13)	2.9 (8)	3.9 (21)	
전체	100.0 (272)	100.0 (273)	100.0 (545)	

* 주: *** $p<.001$ ** 주 : 초등학교 제외 응답 문항임

9.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및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변수와 분석 방법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배경 변수,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친구 관련 변인, 한국 관련 참여 욕구, 한국 관련 프로그램 및 캠프 참여 경험,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한민족정체성은 초·중등 청소년이 모두 응답한 문항인 반면,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은 초등 청소년을 제외한 중등 청소년만 응답한 문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수는 종속변인별(한민족정체성: 759명,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546명)로 다르다. 또한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배경 변수를 포함하여 상술한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반면,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의 경우에는 한민족정체성 변인과 중고등 청소년들이 응답한 ‘고교 졸업 후 진로’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문항 그리고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 ‘거주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문항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및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진행한 1, 2차 연구(유럽 및 오세아니아 동포청소년 대상 연구)와 다른 차별성은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유럽 및 오세아니아 동포청소년은 상당수가 거주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신분으로 향후 거주국에서 삶을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민자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대다수는 재외국민 신분으로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경제인 또는 제3문화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한민족정체성과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을 종속변수로 해서 전체 동포청소년, 한국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의 3개 대상으로 나누어서 각각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중,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민족정체성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이들에게만 질문한 문항(한국어 능력,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어 학습욕구)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한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및 측정방법,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31 투입변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방법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한민족정체성	4개 문항 ⁴⁸⁾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4.379	.619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4개 문항 ⁴⁹⁾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304	.781
독립 변수	성별	더미변수	남=0, 여1	.503	.500
	학교급	서열변수	초=1, 중=2, 고=3	2.05	.777
	학교유형(현지)	더미변수	한국국제학교=0, 현지학교=1	.064	.245
	학교유형(국제)	더미변수	한국국제학교=0, 국제학교=1	.258	.438
	거주기간	연속변수	개월수	45.381	35.337
	거주이유	더미변수	유학=1, 그 외=0	.187	.390
	나의 정체성	더미변수	한국인=1, 그 외=0	.858	.350
	고교 졸업 후 진로*	더미변수	한국대학 진학=1, 그 외=0	.668	.471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방법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거주국 언어 관심 및 학습욕구*	2개 문항 ⁵⁰⁾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174	1.054
	거주국 문화 이해 및 수용*	2개 문항 ⁵¹⁾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335	.879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4개 문항 ⁵²⁾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572	.626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3개 문항 ⁵³⁾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4.683	.551
	한인친구 교류	1개 문항	5점 리커트	4.250	1.038
	한국문화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1개 문항	5점 리커트	3.340	1.305
	한국문화 교류 경험	3개 문항 ⁵⁴⁾	①전혀 없음, ②1회, ③2회, ④3회, ⑤4회 이상 3개 문항 평균값	2.020	1.004
	한국 관련 참여 욕구	4개 문항 ⁵⁵⁾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868	.786
	한국어 능력**	4개 문항 ⁵⁶⁾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4.660	.559
	한국어에 대한 관심**	1개 문항	5점 리커트	4.18	.785
	한국어 학습욕구**	1개 문항	5점 리커트	4.05	.891
	교차문화청소년 특성1 (강점)	4개 문항 ⁵⁷⁾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721	.678
	교차문화청소년 특성2 (약점)	3개 문항 ⁵⁸⁾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2.008	.768

48)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느낀다.'

49) '거주국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거주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0)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거주국 언어를 배우고 싶다'

*주: 해당 문항은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분석에만 투입함.

**주: 해당 문항은 현지/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 대상 분석에만 투입함.

2) 분석 결과

한민족정체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F_{값}=41.81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민족정체성 분석에서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 10이 넘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은 1.047~1.370,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6으로 2에 가까워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동포청소년을 한국국제학교와 현지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 집단으로 각각 분리하여 분석한 분석에서도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51) '거주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 '거주국 문화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 52) '부모님은 내가 한국으로서 살기를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와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
 - 53)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노래를 듣는다.'
 - 54) '한인회의 한국의 날과 같은 한인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거주국에서 열리는 한인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55)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 56)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한국어를 쓸 수 있다.'
 - 57)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어느 나라에 가든 새로운 친구와 사귄다.',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 58) '나는 한국이나 거주국 어느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는 친구들과 깊게 사귀는 것이 어렵다.'

표 V-32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결정요인

구분	전체		한국국제학교		현지 / 국제학교	
	B(s.e)	β	B(s.e)	β	B(s.e)	β
상수	1.918(.198)***		2.024(.260)***		1.498(.339)***	
성별더미(여자=1)	-.079(.035)*	-.064	-.096(.043)*	-.076	-.090(.057)	-.072
학교급	-.064(.024)**	-.081	-.078(.029)**	-.098	-.048(.047)	-.060
학교유형(현지=1)	.243(.076)**	.095	-		-	
학교유형(국제=1)	.145(.044)**	.102	-		-	
거주기간	.000(.000)	-.027	.000(.000)	-.019	.000(.001)	.030
거주이유(유학=1)	.147(.046)**	.092	.135(.062)*	.072	.149(.067)*	.117
나의 정체성 (한국인=1)	.229(.054)***	.130	.193(.067)**	.111	.247(.091)**	.140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166(.035)***	.149	.147(.046)**	.120	.129(.056)*	.140
한인친구 교류	.086(.019)***	.144	.072(.024)**	.111	.093(.030)**	.180
한국문화 관심 있는 외국인친구	.002(.015)	.005	-.008(.017)	-.016	.017(.034)	.031
한국문화 교류경험	.008(.019)	.013	-.006(.024)	-.009	.016(.029)	.030
한국 관련 참여 욕구	.284(.024)***	.363	.331(.031)***	.401	.138(.039)***	.201
교차문화특성1(강점)	.112(.028)***	.124	.121(.035)**	.127	.057(.044)	.079
교차문화특성2(약점)	-.152(.024)***	-.190	-.177(.031)***	-.212	-.089(.037)*	-.124
한국어에 대한 관심					.203(.051)***	.277
한국어 학습욕구					.025(.044)	.039
한국어 능력					.054(.063)	.052
N	736		505		231	
R ²	.448		.462		.503	
Adj R ²	.437		.448		.469	

* 주 :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전체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43.7%(Adj R^2)의 설명력을 보였다. 한민족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교급, 학교유형, 거주이유, 나의 정체성, 한인 친구 교류,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강점, 약점 특성 변인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일수록, 학교급이 낮을수록, 한국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에 비해서 현지학교와 국제학교에 재학한 동포청소년일수록 한민족정체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직업이나 현지 출생에 의한 거주 이유가 아니라 유학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민족정체성이 더 높았으며, 스스로를 ‘한국인이면서 거주국인’ 또는 ‘거주국인’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에 비해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동포청소년일수록 강한 한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도중 또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다른 학교급에 비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면서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한국국제학교에 비해 현지학교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국제학교 및 거주국 청소년 다수가 재학하고 있는 현지학교라는 환경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한국국제학교 청소년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는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한민족정체성을 오히려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국제학교나 현지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들은 인종적, 민족적 이질성이 큰 공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의미를 더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민족정체성에 더 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주 이유가 유학인 동포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직업이나 현지 출생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주보다 유학이라는 내부적이고 자발적 동기에 의한 이주가 한민족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한민족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한인 친구와의 교류, 한국 관련 참여 욕구(한국 방문,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한국에서 공부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한국 관련 참여 욕구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 한민족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문화 교류경험은 한민족정체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 교류경험에 대한 평균값이 2.019로 거주국 한인단체의 행사나 한인청소년 캠프 참여 경험,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프로그램 및 캠프 참여 경험이 전혀 없거나 1~2회에 그치는 등 큰 차이가 없는 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으로 주목한 교차문화청소년의 강점 특성이 높고, 약점 특성이 낮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문화청소년으로서의 강점 특성이 한민족정체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교차문화청소년으로서의 약점 특성이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 동포청소년을 한국국제학교와 현지 / 국제학교 동포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국제학교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현지 / 국제학교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는 일부 변인의 영향력이 사라졌고, 새롭게 투입한 변인(한국어 관련 변인) 중 일부 변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지 / 국제학교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는 성별, 학교급 변인의

효과가 사라졌다. 또한 교차문화청소년의 강점 특성의 효과가 사라졌다. 반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 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국제학교 동포청소년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F_{값}=17.451, p.<.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은 1.073~1.926,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3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국제학교과 현지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분리하여 분석한 회귀모형 각각의 적합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고등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37.2%(Adj R^2)의 설명력을 보였다.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는 성별, 나의 정체성, 한국문화 교류 경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강점 특성 그리고 새롭게 투입한 변인 중,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거주국언어 관심 및 학습욕구, 거주국문화 이해 및 수용, 한민족정체성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나의 정체성 변인을 제외하면, 한민족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개인 배경 변인들의 효과는 모두 사라졌다.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성별의 효과와 유사하게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일수록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한민족정체성 수준이 높았던 반면,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면서 거주국인 또는 거주국인으로 인식하는 동포청소년일수록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의 정체성 인식에 따라서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거주국 내 한인사회의 발전을 고려할 때 자신을 한국인으로만 인식하는 청소년보다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거주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 점이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인다.

표 V-33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

구분	전체		한국국제학교		현지 / 국제학교	
	B(s.e)	β	B(s.e)	β	B(s.e)	β
상수	-.559(.381)		-.458(.482)		-1.114(.637)†	
성별더미(여자=1)	-.151(.056)**	-.096	-.178(.068)**	-.119	-.156(.107)	-.095
학교급	.036(.059)	.023	.029(.068)	.020	.014(.123)	.007
학교유형(현지)	.049(.14)	.013	-		-	
학교유형(국제)	.078(.076)	.044	-		-	
거주기간	-.001(.000)	-.043	-.001(.001)	-.050	-.001(.001)	-.074
거주이유(유학=1)	.027(.072)	.014	.014(.093)	.007	-.016(.118)	-.009
나의 정체성(한국인=1)	-.184(.092)*	-.079	-.193(.111)†	-.090	-.161(.175)	-.058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097(.061)	.065	.094(.077)	.063	.091(.105)	.061
한인친구 교류	-.029(.031)	-.038	-.001(.039)	-.001	-.089(.060)	-.117
한국문화 관심 있는 외국인친구	.037(.025)	.061	.030(.027)	.051	.080(.069)	.094
한국문화 교류경험	.052(.029)†	.069	.070(.036)†	.091	.013(.051)	.017
한국 관련 참여 욕구	.194(.045)***	.198	.187(.056)**	.194	.210(.078)**	.211
교차문화특성1(강점)	.351(.049)***	.302	.299(.060)***	.263	.468(.087)***	.387
교차문화특성2(약점)	-.015(.040)	-.015	.037(.052)	.038	-.123(.06)†	-.119
고교 졸업 후 진로(한국대학 진학=1)	-.002(.069)	-.001	.125(.087)	.070	-.189(.119)	-.111

구분	전체		한국국제학교		현지 / 국제학교	
	B(s.e)	β	B(s.e)	β	B(s.e)	β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089(.052) [†]	.071	.005(.062)	.004	.315(.094) ^{**}	.238
거주국언어 관심 및 학습욕구	.109(.031) ^{**}	.119	.085(.036) [*]	.119	.173(.061) ^{**}	.222
거주국 문화 이해 및 수용	.111(.042) ^{**}	.119	.143(.050) ^{**}	.157	.005(.083)	.005
한민족정체성	.101(.058) [†]	.083	.114(.070)	.099	.116(.113)	.083
N	529		371		158	
R ²	.394		.360		.532	
Adj R ²	.372		.329		.476	

* 주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는 한국문화 교류경험이 $p < .10$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 관련 참여 욕구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점은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중 강점 특성이 여전히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이 지닌 특성이 향후 한국사회 및 거주국 내 한인사회 발전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중 강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동남아 동포청소년에게 잘 주지시키고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주목할 점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이 동포 청소년들이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이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인식하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거주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 변인이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거주국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 거주국 문화를 이해

하고 존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점은 동남아 동포청소년이 향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부모들도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여 거주국에서의 자녀교육 과정에서 거주국 언어를 강조하고 거주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추가적으로 고교 졸업 후 진로⁵⁹⁾ 변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않는 반면, 한민족정체성은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민족정체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한인친구와의 교류, 교차문화청소년의 약점 특성 변인들은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모두 사라졌다.

다음으로 한국국제학교와 현지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국제학교 청소년 대상 분석결과와 전체 중고등 청소년 대상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한민족정체성 변인의 효과는 사라졌다. 반면, 현지 / 국제학교 재학 청소년 대상 분석결과에서는 성별, 나의 정체성, 한국문화 교류경험 변인의 효과가 사라진 반면, 교차문화청소년의 약점 특성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변인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국제학교 동포청소년에 비해 현지 / 국제학교 동포청소년의 경우 교차문화청소년의 약점 특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한국국제학교 동포청소년에 비해 현지 / 국제학교 동포청소년들은 거주국 언어와 문화 또는 영미권 교육과정과 영어 사용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서 이들 중 한국 대학에 진학한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VI장 질적조사 참조), 현지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이나 거주국가에서 잘

59) 고교 졸업 후 진로는 한국대학 진학(67.4%), 미결정(18.7%), 해외대학 진학(10.6%), 거주국 대학 및 취업 등(3.3%)의 순으로 나타남.

적응하면서도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지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의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제학교 동포청소년에 비해 현지 / 국제학교 동포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기를 기대하고, 한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또는 거주국의 한국기업에서 일하기를 기대할수록 자녀가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들은 대다수가 고교 졸업 후 한국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반면, 현지 / 국제학교 동포청소년들은 해외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이들이 향후 동남아 한인사회 또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거주국 문화 이해 및 수용, 한민족정체성 변인은 현지 / 국제학교 청소년의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인식하는 한민족정체성보다는 부모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한국 관련 인식이 이들이 향후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인식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소결

이상의 동남아 6개국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거주국에서 오래 살수록, 그리고 한국국제학교 학생보다는 현지 또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국 사회나 현지학교 또는 국제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류 확산을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 동포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이외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포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 혼란은 대부분의 대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만이 이중 정체성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비록 그 숫자는 적더라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유로운 동남아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 언어나 거주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거주국에서의 적응과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미래에 대학이나 직업 등 동포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 결과, 거주국 언어에 대해서 약 10명 중 3명 이상이 관심이 있었고,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해서 약 10명 중 4명이 긍정적이었으나,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은 잘한다는 응답이 약 10명 중 2.5명으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나 학습 욕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국 문화에 대해서 과반수 정도(53.9%)가 수용 의사가 있었으나 약 10명 중 4명 정도가 거주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국 언어와 거주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회를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동의하고(평균 4.34점), 한국과 관련한 일을 하고(평균 3.64점),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평균 3.62점)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았으나, 거주국 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평균 2.70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과반수이상(57.2%)이 동의하고 있었으나 거주국에서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23.2%만이 동의하였다.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약 10명 중 7명 정도가 한국대학을, 약 2명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약 1명은 해외대학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과 학업과 관련해서 선진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동남아 국가에 대한 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한국 정부와 동남아 국가와 관계, 그리고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동포청소년들의 동남아 이주 경험에서 얻어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남아시아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의 개설은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학교에 다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6개국의 한국어수업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20% 정도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77.3%이며, 필리핀 35.7%, 베트남 34.2%, 태국 31.2%, 말레이시아 5.2%, 인도네시아 5.2% 등으로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동남아 국가에서의 한국어 확산을 위해서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 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동남아 각 국가에서 한국어수업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한국 방문, 한국

에서의 학업, 한국에서의 취업,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등에서의 욕구가 높았다. 그러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요구에 비해서 한국 방문 기회,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청소년캠프 및 프로그램 참여는 약 10명 중 3명만이 경험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이나 한국에서 청소년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눈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 프로그램에 요구가 높아서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할 경험은 학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35.1%인데 비해,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29.9%, 현지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20.8%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 경험의 차이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에 대한 정보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지학교,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개최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재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공공 / 교육시설의 부족, 한국어 / 한국문화 / 한국사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지원, 한국 물품 지원, 한국문화 / 역사 체험 기회 및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포청소년들이 미래에 한국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 방문 또는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의 확대, 한인사회의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활동 지원, 한국어와 역사 교육 지원, 부모의 한국과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성별, 학교급, 학교유형, 거주이유, 나의 정체성, 한인 친구 교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한국어에

대한 관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2(약점) 변인들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인 친구들과의 교류의 활성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확장된 세계관, 다문화 수용성 등 교차문화청소년의 긍정적 특성을 확대하고, 고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깊이 있는 관계 형성 부족 등 부정적 특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교 및 현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차문화청소년 특성 2(약점)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차문화청소년의 약점 요인을 줄이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홉째,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영향 요인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성별, 나의 정체성, 한국문화 교류 경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2(약점), 거주국언어 관심 및 학습 욕구, 거주국문화 이해 및 수용, 한민족정체성 변인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등은 한민족정체성 뿐만 아니라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어 한국 관련 참여 의욕을 높이고 교차문화청소년의 긍정적 특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학교 학생과 현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교차문화청소년의 부정적 특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중요한 변수였으며, 현지 /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거주국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지 /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거주국언어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부모들의 한국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제6장 동남아시아 동포 청소년, 동남아시아 체류 경험 청년 및 성인전문가 질적 조사 분석

- 1.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분석 결과
- 2. 동남아시아 체류 경험 청년들의 생애사 분석 결과
-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성인전문가 면담조사 분석 결과
- 4. 소결

1.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분석 결과

1)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정체성

- (1)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특성 : 넓은 세계관, 다문화 이해, 언어능력, 유연한 사고 vs. 고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 나태한 학습 태도, 적응 스트레스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모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긍정적인 특성으로는 한국에서와는 다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나 거주국 언어 등 보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학습기회로 인해서 언어 능력이 향상되며, 사고에 있어서도 경직되게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여 보다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 등이 있었다.

60) 이 장의 1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3,4절은 김정숙 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청소년 1 : 계속 옮기다 보면 경험하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더 깊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되게 여러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7 : 여기에 살다 보면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문화 같은 걸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큰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청소년 4 : 조금 더 생각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생각이라 해야 되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좀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혼자 생각을 하면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건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애들 하는 거 보고 계속 베트남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고, 저럴 수도 있는 건가? 하면서 유연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 동포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여러 문화에 대한 경험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도 한다. Pollock 외(2017)가 지적했던 고국문화에 대한 이해나 뿌리의식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여유로운 동남아에서의 생활 속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도 있지만, 학습 등에서 다소 나타해지고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언어에 있어서도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언어에 적응하기까지의 고충이나 어려움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서의 스트레스도 상당하며, 심지어는 틱 장애를 경험한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 9 : 두 가지 문화를 접하니까 두 가지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있겠쥬. 그런데 단점도 그거인 게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 문화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둘 다 불완전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 13 : 아무래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랑 함께 생활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학업적인 면에서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뒤로부터는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 1 : 어려운 점은 일단 적응하는 거? 나라가 바뀌면 또 언어가 바뀔 수도 있고 하나까 언어가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2 :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제가 적응을 너무 못해 가지고 1, 2학년 동안 친구도 못 사귀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그룹활동 같은 거를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7학년 때 학교를 옮기고 그때는 좀 다르게 적응을 금방 했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말레이시아 처음 왔을 때 제가 6개월 동안 틱 장애 아시나요? 그거를 앓았어요.

(2) 나의 정체성 : 한국인, 일시적 정체성 혼란, 제3의 정체성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인을 만날 때 일시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있고, 한국인과 거주국인 사이에서 심각하게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 이후에 이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주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부모님 직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정환경 등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11 :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올 때는 새로운 문화에 힘들었긴 한데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고 수용하면서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까지는 없고 새로운 문화의 수용?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3 : 저는 옛날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싱가포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지금은 사실 한국 사람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다른 나라에서 산 해 보다 한국에서 산 해가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있죠.

청소년 8 : 저 여기서 태어났어요... 부모님들도 다 한국 분이시고, 전 그냥 여기에 아바 직업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보통 한국인을 만나거나 한국에 가게 될 때 발생한다. 이 때 다른 한국인들과 이질감을 느끼거나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이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과 거주국 사이의 생활환경 비교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1 : 가끔 한국인들을 만나면 나도 같은 한국인인데 개네랑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차이점이 느껴져서 나도 한국인이고 싶는데 비교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가끔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있어요.

청소년 9 : 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내가 만일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하고. 한국에 가면 제 나이 또래 한국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낮설고 부럽고 그래요 약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고, 제가 꿈에 그리는지 그런 모습이에요. 평범한 한국 학생들의 생활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약간 제가 소속되지 못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태국에서는 그런 걸 딱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가면 저 자신한테 이질감을 많이 느껴요.

한편, 한국인과 거주국인 사이에서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거나 헷갈려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국적 상으로는 한국 국적이어서 한국인인 것 같기는 한데 거주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성격과 다른 성격을 소유하고 있거나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한국인이나 거주국인으로서의 어느 한쪽의 정체성이 아닌 양쪽을 다 포함하는 제3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복잡하고 헷갈려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12 :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도 많이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인은 맞는데 외국에 살고 있고, 그런데 한국인 같진 않은 것 같고 많이 복잡해요 마음이...한국에 갔을 때 성격도 다르고 이야기하는 주제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 있을 때도 그냥 여기 사는 필리핀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이 많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청소년 10 : 일단 제가 태국에서 태어났고 완전한 한국문화를 모르니까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가 태국사람인가, 미국문화도 조금 섞여 있으니까, 해서 제 자신의 이거(정체성)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가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주변 생활환경(미시체계)

(1) 가정 : 한국 친화적인 문화

동남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은 대부분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 또한 동포 자녀들의 경우에도 부모의 직업상의 이유나 자녀 교육관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국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느 대륙의 동포들보다도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독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글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거주국에서 출생했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6 : 한국어로. 아빠가 되게 싫어해요. 영어로 하는데 아빠가 자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벌금... 왜냐하면 학교에선 계속 영어를 했으니까 집에 와서라도 한국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청소년 12 : 엄마가 토요일마다 보냈어요. 한글학교를... 그리고 매일 엄마가 가르쳐주시고 해서... 엄마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해야 되고, 지금도 한국인이니까 외국 이름 영어 이름은 안 된다고 하시고, 계속 한국인인 걸 까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2) 친구 : 한국국제학교와 국제학교의 친구문화 차이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살펴보면, 한인 친구들은 한인교회나 한글 학교, 그리고 한국국제학교를 통해서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국제학교에서는 한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인 친구들보다는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가 보다 많았다. 한편, 한글학교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 저학년 때까지 다니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한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은 한인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는 한 지속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2 : 한인교회에 매주 일요일마다 가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친해요. 지금까지 같은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 친구들과는 교회 말고도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친근해요. 한글학교 친구도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되게 많았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한 명씩 다 빠지더라고요...

청소년 5 : 제가 영국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한국 친구들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빼고는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같이 계속 만난 친구들 빼고는 없고, 한국에서는 유치원밖에 안 나와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친구의 딸, 아들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친구문화는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국제학교/한글학교와 국제학교의 친구문화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친구문화 중에서도 나이 차이를 중시하여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로 대해야 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억울할 것 같다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인 친구들은 주로 K-Pop이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반면,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개방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 5 : 한국 문화 중에 나이를 많이 따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약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끈대 질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약간 억울할 것 같고...

청소년 6 : 약간 취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한인 친구들은 K-Pop이나 보이그룹, 연예인 되게 좋아하고, 반면 국제학교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주로 학교 많이 얘기하고 다른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그러고 연예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3) 한글학교 : 한국을 알기에 다소 아쉬운 교육 환경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글학교에 다니게 된 동기는 다른 대륙의 동포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부모들이 권유한 후에 자녀들이 동의하여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권유하기도 하고, 미래 자녀들의 진로에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한글학교에 다니는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부모들의 한글학교 권유에 대해서 곧바로 수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보다도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한글학교에서 배우는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한글학교에서 배우는

한국 수학이 국제학교의 수업에 큰 도움이 되어서 계속해서 한글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 6 : 아빠가 약간, 한국말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전 한국인이니까 기본 지식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가게 됐어요.

청소년 3 : 솔직히 저는 처음엔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에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즐겼거든요. 토요일에. 그런데 한글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걸 못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재미있어서 지금 쪽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청소년 1 : 외국 생활을 할 때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당연히 잘 하면 이익(benefit)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배우라고 권유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올해는 바빠지니까 다니지 말라고 권유는 하셨는데, 제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은근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 수학이 외국 수학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훨씬 어렵고. 그래서 한글학교에서 수학을 듣다 보니까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 한글학교 수업이 여러 참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낮은 수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져서 한국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만족감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한국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글학교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아쉬웠다고 한다.

청소년 9 : 수업 자체가 한국의 느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반 애들이 다 한글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요 한글학교가.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 한글학교가 9학년까지만 있어요. 제 생각엔 저 같이 나이 든 애들 말고 약간 어린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문화 같은 것도 경험하게 해주고 하면 한국으로 만약 가게 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4) 정규 학교 : 한국국제학교와 국제학교의 장점과 단점

동남아에서 동포청소년들의 학교 선택은 미래 진로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 대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 외국 대학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외국 설립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국대학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라도 외국어 학습이나 좋은 학습 환경 등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현지 국가에서의 생활 적응이나 미래 진로 등을 위해서 현지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 국제학교, 현지학교, 한국국제학교 등 여러 학교를 다닌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현지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 때 다니고 중학교 이후에는 국제학교나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청소년 7 : 중간에 영어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국제학교로 옮겼다가 옮기기도 생각했는데, 대부분 한국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육과정 커리큘럼 따르고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고, 한국학교 오는 애들은 대부분 그냥 다 한국대학을 가고 싶어서 다 여기로, 전학도 중간에 엄청 많이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소년 10 : 태국학교 다니다가 국제학교로 옮겼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태국학교 다녔어요. 일단 저희 엄마께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태국문화랑 언어를 먼저 다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가 되면, 더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옮겼어요.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옮겼어요.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미국 국제학교, 영국 국제학교, 현지 국제학교 등 여러 유형의 학교가 있지만, 한국국제학교와 비교하면, 외국어 학습기회가 많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국제학교의 단점은 미국, 유럽 등 국제학교를 설립한 국가의 문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학교생활 초기에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어 사용이나 친구들 사이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대화 참여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학교에 따라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기독교계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선교 목적으로 교사들이 배치된 경우도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청소년 5 :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경험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캠프 이런 것도 다른 나라로 가니까 저도 작년에 인도도 처음 가봤고 학교에서 태국도 가고, 이런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일단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나쁜 점은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영국 학교니까 영국식 문화를 많이 학교에서 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문화를 따르게 되는...

청소년 6 : 문화차이도 있고 처음에는 약간 미국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모르는 게 있고 그래서 대화에 쫓 수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게 유행하고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친구들도 사귀면서 조금 더 개방된 거 같아요.

청소년 12 : 국제학교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다 돈이 많고 부자들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가끔 저희가 선교사 자녀니까 돈 없겠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낮게 보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가끔씩 그렇게 하니깐 저도 가끔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비교하게 되고...

청소년 9 : 국제학교는 여러 나라 문화도 접하고 확실히 한인학교보다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약간 선교 목적으로 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간 전문적이지 못한 면모도 있고 그래요.

한국국제학교는 국제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고 평이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현지 국가로 파견되어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교사들의 성급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은 규모의 학교는 단점이자 장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학생들이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친구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점과 한국어, 영어, 현지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청소년 13 :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면서 한국어도,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 장점인 것은 반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같은 인원으로 매년 올라오거든요. 똑같은 친구들이니까 그것도 아쉬운데 그만큼 끈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는 것 같고...

청소년 4 : 아쉬운 점은 몇몇 외에는 한국학교와 다를 게 없어요.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도 한국 따라가고, 그렇게 큰 차이점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중략)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특유의 빨리 빨리 하고 사무적인 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권위적인 것도...

(5) 부모의 직장 및 후원기관 : 진로 선택에 주요한 영향

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부모의 직업상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에서의 파견, 사업처의 변동, 선교사로의 파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업에서 파견된 부모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서 자녀들을 시스템이 좋은 국제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 나라로 파견됨에 따라 그 자녀들도 여러 학교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로 인해서 이주 국가의 교육환경에 따라서는 크게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선교사로 사역을 오게 된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많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고, 대개 선교자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할인해주는 기독교계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적 문제 등으로 졸업 후의 진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 : 저는 한국에 살다가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2년 동안 살러 갔었어요. 아빠 직업 때문에 거기로 옮겨서 2년 동안 살다가 아빠가 업무를 옮기셔서 그때 말레이시아로 오게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특히 여자들은 나갈 때 아버야도 입어야 되고 운전도 못하고, 또 돼지고기 이런 것도 못 먹으니까 제약도 많고. (중략)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학교가 있어서 시설이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게 됐어요.

청소년 13 : 가족사이긴 한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필리핀으로 처음 왔어요. 아시는 지인 분도 계시고 해서 영어도 배울 겸 겸사겸사 온 것 같아요.

청소년 12 : 처음에는 2007년도 세 살 때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빠가 선교사이셔서 사역하러 가셨는데 그때 학교를 다니고 먼저, 그리고 동생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중략) (한국)교회마다 조금 조금씩 후원해 주셔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좀 도움은 되는데 아직은...

(6) 지역사회 : 사회문화적 특성이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한인들과의 주거 방식이나 현지인들과의 교류 등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인들이끼리 타운 형태의 주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현지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인들이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인들과의 교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청소년 3의 사례를 보면 이보다는 거주국가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3은 싱가포르에서 3년 반을 살다가 베트남으로 이주하였는데, 싱가포르에서 거주할 때에는 현지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으나 베트남으로 이주한 후에는 현지인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이는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 못지않은 경쟁적 문화와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에 대한 강조로 인해

현지인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청소년 8에 따르면, 거주 국가별로 한인들은 한인들끼리 모여서 살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3 : 싱가포르에 살 때는 그냥 따로따로 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끼리(한-한, 한-베)의 교류도 활발하고 그런 점은 좋은 거 같아요.

청소년 8 : 저희 동네에는 어딜 가든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라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거의 한국 분들도 많이 사시고 현지인 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는 한인 집단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현지 문화나 현지어에 대한 접촉 기회가 많아져서 현지어 구사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7의 경우에 가정에 현지인 가사도우미나 기사를 두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현지어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또한 학교에 들어가서 현지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능통하게 현지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청소년 7 : 인니어는 거의 현지인처럼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사도우미랑 기사가 거의 한 가구마다 보통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니어도 배우고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3) 교육·문화·교류환경(외체계)

(1) 교육환경 :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 부족한 전문 학원

동남아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청소년들은 주로 한국 대학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나, 이밖에도 미국, 캐나다 등의 미주 지역의 대학, 유럽지역의 대학,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거주국 현지 대학이나 동남아 국가의 다른 대학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다. 한국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국제학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9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의 뜻과는 다르게 한국대학보다는 싱가포르 대학을 권하고 있는데, 학비에 대한 부담도 외국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1 : 아직 정확한 나라는 정하지 못했지만 유럽 쪽이나 아니면 영국, 미국 이런 곳에 가보고 싶어요.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청소년 9 :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는데 저희 부모님은 별로 내켜 하진 않네요. 부모님은 싱가포르 이런 데 있잖아요. 기회가 더 많은 곳? 저희 부모님은 한국으로 안 가는 걸 원하시는 이유가 학비가 많이 들잖아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전액 장학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 한국대학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한국국제학교를 다니거나 현지학교나 국제학교에서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며,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글학교나 학원, 그리고 국제학교 내에서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고 있다.

청소년 13 : 전 한국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현지학교에 있는 것보다 한국학교에 다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니랑 같이 전학을 왔어요.

청소년 8 : 한국어는 학원과 한글학교에서 배웠어요. (중략) (국제)학교에서 6학년부터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는데, 월요일에 40분, 화요일에 80분, 수요일에 40분, 목요일은...

또한 동남아 국가에 있는 한인 부모나 학생들은 한국 학원이 동남아 국가의 학원에 비해서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대학이나 외국대학으로의 진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1~2달 동안 한국에서 어학학원, 수학학원, 예체능학원 등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9 : 미술학원은 태국학원 다니고 있어요. (중략) 방학동안 (한국에) 있어요. 학원 다니려고 거의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한국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7 : 한국 가면 학원 다녀요, 수학 대체로 다니거나 토플학원, 시험 점수 따려고 토플학원 주로 다니는 거 같아요.

청소년 6 : 한국 가서 사촌동생 만나고, 일단 방학이니까 즐기는 한데 학원 다니고 그러는 건 좀 싫죠. (중략) 그냥 예체능 쪽으로 몇 개만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만...

(2) 한국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환경: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특히 부족한 체험 기회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학교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일반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한국문화 체험 기회는 거의 없고, 도시 내 쇼핑몰이나 특별 공연 시에 간혹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7 :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K-Pop 같은 경우는 아이돌들 콘서트 많이 오니까 거기다 자주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는 코리안 데이 이러면서 한국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해보는 행사가 매년 있어서... 있어요. 한복 입고 무슨 행사 여러 번 있던 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가끔 있고.

청소년 8 : 쇼핑을 같은 데 들어가면요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입고 사진 찍거나 아니면 K-Pop 그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캠프나 연수 기회도 부족한데, 캠프 종류는 거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인들 간의 캠프나 거주 국가에서 주최하는 캠프, 그리고 모국연수 등이 있었다. 거주국 내의 캠프는 통상적으로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학생들끼리 연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골든 벨 대회, 그리고 거주국에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캠프가 있었다. 모국연수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참여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그 밖에 개별적으로 한국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유엔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 후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5 :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하룻밤 자고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한인 캠프 같은 건 안 해봤어요.

청소년 11 : 한인사회에서도 통일 골든 벨 이런 걸 주최하잖아요. 그래서 한태 문화 교류 활동이 이전에 몇 번 있었거든요. 태국의 서울대인 쥘라롱콘 대학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을 모아서 태국문화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주는 캠프 같은 게 있어요.

청소년 13 : 저는 재외동포 모국연수를 다녀왔어요. 2년 전에 여름마다 하는데 그때 한번 다녀오고, 한국으로 경희대 모의유엔 한국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어요. (중략)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랑 교류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4) 한국과 거주국에 대한 인식(거시체계)

(1) 거주국 사람들의 한류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 잘생기고 똑똑하지만 상처주고 사고치는 한국인

대부분의 동남아국가에서 한류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K-Pop에서부터 한국 음식, 한국 의류, 한국 화장품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최근에는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훌륭한 대처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1 : 태국에도 지금 한류가 장난 아니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K-Pop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음식, 옷, 화장품 이런 것도 다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을 바라볼 때 굉장히 시선도 좋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을 느꼈어요.

청소년 2 : 현지인들은 그래도 한국 되게 좋아해요. 최근이면... 코로나 대응법을 우리 한국이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 현지인들이 한국인을 높이 볼 수 있는...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동남아 국가 사람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었다. 한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한국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피부도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5 : K-Pop이나 드라마 보면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많으니까,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인들이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 하는 그런 이미지여서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드라마 등을 통해서 얻어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거주 국가의 생활 속에서 확인된 일부 한국인들은 거주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이다. 일부 한국 학생들은 학교를 자주 빼먹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비쳐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 12의 아버지는 현지인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비싼 옷을 입지 않고 현지인 수준에 맞춰서 입는다고 한다.

청소년 12 : 몇 명은 좋아하고 몇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나쁜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분들이 필리핀 사람을 너무 낮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어떤 현지인들은 한국인 출입금지 이렇게 해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가서 그냥, 그 분들은 그때는 시내에 살다 보니까 옷도 현지인들 만나는데 비싼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게. 저희 아빠는 현지인들 수준에 맞춰서 입거든요 일부러.

청소년 2 : 제 학교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외하고 다른 한국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를 자주 빼먹고 공부도 잘 안하고 사고를 많이 쳐서... 시험지를 베끼거나...

(2)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 좋고 부럽지만 창피하고 두렵기 까지 한 한국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우수하다거나 옷이 예뻐서, 음식이 맛있어서, 동남아에서는 볼 수 없는 눈을 볼 수 있어서 등이 있었고, 영화나 K-Pop 등 최근 한류로 인한 한국의 위상 상승이 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 : 일단 제가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태어난 곳이라 뭔가 외국보다 한국에 제품이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도 저랑 더 잘 맞는 게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외국보다는 한국이 더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서 한국에 자주 가서 물건 사고 이러는 게 좋아요.

청소년 8 : 좋아요. 너무 좋죠. 겨울이 좋아요. 여긴 눈이 없잖아요. 한국은 추운 바람이랑 겨울 그 날씨가 너무 좋아요.

청소년 5 : 최근에 기생충도 상 받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우리 부모님이 기생충 너무 재미있게 봤다고, 영화가 너무 좋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10 :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요즘 K-Pop이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 사람들 대단 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일부 동포청소년들은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는 거주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경쟁적인 입시문화에 대한 기억 등으로 인해서 한국을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섭기까지 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 10 : 한국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너무 아끼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가지고...

청소년 12 : 한국 생활은 좋은데 한국 공부랑 그런 게 너무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다들 너무 힘들고 들어가기 힘들다 해서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학습, K-Pop이나 K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의 대처 능력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나 한류, 한국

정부의 위상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8 :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알게 되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걸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칭찬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뿌듯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청소년 7 : 예전에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유달리 좋다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가면서 K POP이나 K드라마 이런 게 엄청 유행하고 여기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국문화를. 그래서 제가 어디 가거나 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을 찍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한편,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어릴 때는 한국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에서 맹목적인 사랑을 한 측면이 있으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부터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한국사회 범죄의 심각성, 특히 N번방과 같은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됨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9 : 예전에는 약간, 전 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한국에 대한 환상도 있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맹목적이었어요. 너무 좋고 그랬는데 요즘은 크면서 뉴스나 이런 것도 보고, 문제점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범죄들이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요. 요즘 N번방 보고...

(3) 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에 대한 인식 :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과 거주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처음에 이주할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 초기에는 거주국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그리고 문화적 이해의 부족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거주국의 문화나 역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매력 있는 문화, 좋은 나라 등으로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청소년 11 : 태국문화를 경시하고 멀리했던 게 있었는데, 태국에서 오래 살면서 적응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화랑 역사 같은 것도 조금씩 배우면서 한국이랑 다른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매력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 3 : 예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저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길 꺼려했는데 이제 와서는 베트남이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된 것 같고, 나중에 베트남에 여행 올 수 있다면 또 올 것 같긴 해요.

거주국이나 거주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거주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 초기에는 두렵고, 게으르고, 답답하고, 비능률적인 사람들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친근하고, 여유롭고, 느긋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청소년 13 : 초반에는 필리핀 사람들의 여유로움을 답답해하고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능률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사람들의 그런 자유로움이...

청소년 2 : 처음에 피부가 검은 사람을 보면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피해 다니고. 그런데 이제 국제학교 다니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동남아 사람들이 더 친근하다고 느껴져요.

청소년 3 : 아까도 말했듯이 교류가 좀 활발하고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대부분 다들 느긋하게 지내는 편이죠.

(4) 동포청소년들의 현지어에 대한 인식 : 일상생활과 미래 진로에 도움 vs.
불필요하고 어렵고 학업에 부담

동남아 동포청소년 간의 현지어 사용능력은 큰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에서의 현지어 학습 환경과 현지어에 대한 관심과 인식 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부모들의 현지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녀들의 현지어 능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동남아 동포청소년 중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거의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현지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앞으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 현지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배운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9 :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능숙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도 맨날 말씀하세요. 현지인들이랑 문제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예요.

청소년 13 : 아무래도 살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리핀어를 여기서 잘 하는 것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무시를 일단 안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것 같아요.

청소년 7 : PD 아니면 방송 업계에 종사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기서 살았다는 게 좀 있으니까 메리트가, 나중에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문화 이런 거하고 교류하고, 여기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나중에 되면 되게 높아질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쯤엔 제가 여기 살았고 이 언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게 장점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현지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청소년들은 현지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이미 많은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학습에 부담이 되고, 현지어가 진학이나 취업 등의 진로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3 : 베트남어는 딱히 배우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특유의 억양이 있어서...

청소년 1 : 딱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 이미 중국어도 하고 있고 불어도 배우고 있는데, 영어도 더 잘 해야 되는데 거기다 말레이어까지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생각을 안했어요.

청소년 9 : 언어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태국어는 아직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언어를 잘 하면 취직을 잘할 수 있다가나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가나 이런 범위가 아닌...

(5) 한국 사람들의 동남아 국가 및 동포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한 정보, 잘못된 인식으로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

한국 사람들의 동남아 국가 및 국민들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서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못사는 나라 혹은 좋지 않은 나라 등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동포청소년들에게도 떡볶이를 먹어봤느냐는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한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청소년 13 : 필리핀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랑 헛갈리시는 분도 많고, 여기 주변 지역이랑 똑 같은 나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점에서 약간, 필리핀이라고 하니까 ‘아 태국, 베트남?’ 이렇게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안 좋게 보시거나.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왜 사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

청소년 9 : 어떤 분은 태국이 어딘지 모르는 분도 계셨고, 태국에서 코끼리 타고 다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수상보트에서 사나는 분도 계셨고 저보고 떡볶이 먹어봤냐고 물어 보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생소하고 신기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질감이 더 드는 건 사실이니까 약간 씁쓸하다고 해야 되냐?

5)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과 지원 방안

(1) 미래 진로 개발과 문화 가교 역할 지원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도거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 동포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한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진로체험 체험 기회를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동남아 국가의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방학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면 동포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 7 : 우선 책을 좀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진로 관련된 책이나,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책을 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진로체험 같은 것들을 한국 가서 재외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맞춰져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한정적이고 대부분 똑 같은 봉사활동이거나 그렇거든요.

또한 진로와 관련해서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로는 거주국이나 한국의 문화를 책이나 특정

콘텐츠로 만들어서 상호 소개함으로써 양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가교하는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과 거주국 사람들이 상호 간에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소년 11 : 제 진로가 어떤 나라의 문화나 도시나 역사 그런 거를 콘텐츠 화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태국에 와서 한국을 알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 일단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태국어가 아깝다면 정말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 같은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1 : 약간 책을 써도 괜찮을 거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경험을 책으로 써서, 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써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읽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유학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거...

(2) 한국 이해를 위한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학교나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실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은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학교나 한글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한국문화 체험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동포청소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인타운 등과 같은 일정한 한국 문화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동포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한국문화가 확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청소년 3 : 역사 정도?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국의 역사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역사가 재미있으니까 더 알고 싶고,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청소년 1 :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국문화를 계속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 한인학교니까 한국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일주일에 한번이긴 해도 교복을 입어보고 싶어요.

청소년 8 : 차이나타운처럼 한국타운 같은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서 떡 만드는 거 경험해보고 부채 만드는 거 경험해보고 윷놀이 하는 거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여기 현지인 사람들도 입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문화가 더 퍼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3) 세계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이나 제3국에서 개최되는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어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 동포청소년들과 함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의 또래 동포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 10 :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제 또래 친구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4) 거주국에서의 적응 및 거주국 이해를 위한 학습지원

동포청소년들은 거주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학교 내 생활지원이라든가 거주국 언어 학습, 문화학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거주국으로의 이주 초기의 학교생활에서 친구들 간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전 예방과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거주국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거주국의 언어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마련하여 거주국을 보다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현지인과의 소통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12 : 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중략) 2, 3년 전에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를 따돌린 적이 있어 가지고 무시를 한다 해도 그걸 듣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생각이 엄청 깊어지고 가끔은 좌절할 수도 있어 가지고...

청소년 13 : 필리핀어를 배우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오래 배우진 않았거든요. 학교마다 한국인들을 위한, 또는 필리핀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따갈로그 수업을 듣는데 약간 특별 수업이 있어요. 기초적인 걸 배운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부터 배워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할 정도로 좋은 실력은 아닌데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4 : 베트남에 관한 것들에 대한, 그쪽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5) 한글학교 지원 : 시설환경, 교과서 수급, 수업내용 등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학교와 관련한 지원으로는 한글학교 건물 등 학습 환경의 개선, 교과서의 적절한 수급, 그리고 학습시간 조정 등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글학교는 자체 건물이 아니라 학교나 교회, 기타 다른 시설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설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과서가 제 때 전달되지 않아서 교재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의 수업시간이나 수업방법으로는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 2 : 제가 다니는 한글학교가 사실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현지학교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섯 번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지학교가 렌트비를 올려 가지고, 아니면 우리 한글학교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옮기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13 : 이거는 나라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교과서 받을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에서 배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끔 4월 다 끝나 가는데 교과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업 진도의 문제도 있고 많이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10 : 조금 더 국어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어가 조금 부족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 쓰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제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더 깊이 모르는...

(6) 한국 대학 진학 시 적응 지원

동포청소년들은 대학 특례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 전에 한국 환경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남아 학교의 여유로운 학습 환경과 한국의 경쟁적인 학습 환경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적응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거주 국가 간 입학 시기 차이로 인해서 한국에 일찍 입학한 학생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문화 적응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11 : 12년 특례 선배들 중에서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가족 같은 화목한 그런 힐링 하면서 공부했던 분위기에서 한국 경쟁사회에 확 들어가니까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랑 태국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환경이 변했을 때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 정부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 태국의 문화교류? 청소년들이 조금 더 한국으로 진출했을 때 너무 사회적인 변화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5 : 만약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는 졸업을 8월에 하거든요. 8월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3월이 입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다르니까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이걸 고려를 해서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2. 동남아시아 체류 경험 청년들의 생애사 분석 결과

1) 거주국으로의 이주 시기와 이주 계기

생애사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 동남아 6개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부모의 직업(사업 또는 선교) 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나 부모의 권유에 의한 유학을 위해서였다. 참여자들의 아버지가 이미 거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해외 상사원 및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거주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 차원의 유학 또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을 벗어나고 싶은 바람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이 동남아 국가로 이주했던 시점은 이른 경우 이들이 초등학교 1-2학년, 늦은 경우 중학교 2-3학년 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 때 이주했던 청년 1, 청년 15는 독립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에 이주했던 터라 큰 두려움이나 슬픔은 없었던 것으로 당시를 회상하는 반면, 중학생 때 이주했던 청년 18, 청년 6은 사춘기를 겪고 있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본인의 주도적 의사결정과 판단에 의해 유학을 결심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특히

청년 4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당시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치열한 경쟁사회인 한국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열망에 의해 이주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따라 이주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의 결정에 따라 반강제로 이주한 경우라 볼 수 있지만, 유학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청년 1 : 2007년 여름, 9살이라는 나이에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미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서 파견 근무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 오빠와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2007년부터 베트남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략) 만약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거나 그 위였다면, 나의 나라와 내 친구들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거 같지만, 꽤 어린 나이에 변화를 겪어서 그런지 그 당시가 큰 두려움 혹은 슬픔으로 기억되진 않습니다.

청년 15 : 저는 2006년 말 11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사의 뜻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시게 되었고 저와 누나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 18 : 2007년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한국에서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게 된 배경에는 제가 그때는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부모님의 권유가 컸고 거기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청년 6 : 중학교 2학년 생활을 끝내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2월에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엄격하셨던 부모님으로 인해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지인 중 한 분이 자녀들을 말레이시아에 보냈는데 너무 좋았다고 저희 부모님께 추천을 하였고, 부모님은 오빠를 말레이시아로 보내기로 결정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빠를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신 후 저에게도 가고 싶은지 의견을 여쭙봤을 때 저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가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한국의 치열한 경쟁에 치여 살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말레이시아로 이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거주국에서의 생활 및 적응

(1) 거주 : 동거인 유형에 따른 차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시기에 타국으로 이주한 것은 삶에서 큰 전환점이자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 시기에는 당사자들도 매우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는 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거주국으로 이주하여 누구와 동거했는가가 이들의 적응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에는 새로운 학업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내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 사업으로 이주한 경우, 아버지 혼자 거주국에서 일을 하다 전체 가족이 완전체가 되어 거주하는 상황이었어서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청년 2).

청년 2 : 저는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다정한 아빠, 친절한 엄마, 착한 남동생이예요. 1년에 정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갔고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도 보냈지만 그만큼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반면, 유학을 위해 혼자 이주했거나(청년 18) 거주국에 이미 정착한 친척집에 맡겨지거나(청년 11), 전혀 모르는 가디언의 집에 맡겨져 지내거나(청년 6), 주로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있고 어머니와 함께 유학차 이주한 경우(청년 19)가 있었다.

청년 18 : 부모님과 작별인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혼자 탑승한 후에도 제가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부모님과도 떨어져서 지낸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2주 정도는 외롭고 우울하게 지낸 것 같으나, 그 후 곧 잘 적응하여 친구도 만들고 어렵지 않은 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청년 11 : 2004년 초등학교 졸업 직후 이모가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과 정말 떨어져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것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 할 때라 마냥 해맑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 6 : 저와 오빠 그리고 가디언과 함께 공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비행에 많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안 계시는 타지에, 한국어도 통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내가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년 19 : 싱가포르 유학 당시에는 저와 어머니 둘이서 왔고 남은 가족들(아버지와 누나 둘)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딱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트러블은 없었고 1-2년에 한번 한국에 귀국하는 빈도여서 가족들과의 교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는 같이 생활을 해서 가깝게 지냈고, 학업이나 교우관계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싱가포르에서의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같이 계시면서 했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와 함께 또는 부모 중 일부와 함께 이주한 경우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서 심리·정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친척집이나 가디언에게 맡겨진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해준 보호자의 성향이나 청년들의 10대 때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거주국에서의 적응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 동포청소년 삶의 주된 전환점(turning point)

아무래도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학업 및 학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로 이주했던 청년들이 당시를 회고할 때, 이주 후 적응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업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주 당시 연령(10대 초반 또는 10대 중반)뿐만

아니라 이들이 입학한 학교 유형, 즉 현지학교, 국제학교 또는 한국국제학교인지에 따라서도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언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적응하고 학업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 낮은 선생님 및 친구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점이 이들에게는 긴장과 불안의 시간으로 다가왔고, 다수의 청년들은 이주 후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국제학교에 다녔던 청년 1, 청년 9는 초기 현지어와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청년 1 : 새로운 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가게 된 학교는 영어 기반의 국제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영어실력은 그저 동물 이름 몇 개를 말할 수 있는 정도였기에,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략) 수업 시간만 되면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업 내용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혹여나 눈이 마주치면 나에게 질문을 할까봐 계속 불안해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지독한 버릇을 하나 얻었는데, 손톱 물어뜯기입니다.

청년 9 : 첫 (국제)학교를 다니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단연 ‘언어’였습니다. 태국에서의 현지 생활은 태국어로 해야 하고, 또 모든 학업을 영어로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몇몇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수업내용이 잘 들리지 않고, 외국 친구들과는 소통이 잘 안되니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조차, 짧은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고, 언제나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하며 극복해나갔습니다.

이주 초기에는 현지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국제학교에 입학했다가 몇 년 후 현지학교에 시험을 봐서 들어간 청년 18의 경우, 국제학교에서나 현지학교에서나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국제학교에서는 학교 내 한국 학생들과 주로 교류하면서 지냈던 반면, 현지학교에서는 오히려 현지 학생들과 더 교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떤 이들과 교류하는가는 향후 한국대학 진학 여부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 18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중고등학교로 진학했고 거기에서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 18 : 사실 국제학교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유학을 온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외국 학생 배려 차원으로 그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나는 사건 하나로는 제가 영어 수업 시간에 작문을 하나도 못하고 집중도 안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 친구가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 못 알아들어 도움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교 때는 제가 운동을 해서 운동 잘하는 현지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친구들이었으며 대부분의 시간도 한국 친구들과 보낸 것 같습니다. (중략) 그 후에는 제가 따로 또 부모님의 권유로 현지학교에 입학하는 시험을 준비해서 보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현지학교를 다녔습니다. 현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낮았고 현지 학생들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질적으로 영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아예 모르는 애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김치, 북한 등등의 외국인들이 알법한 한국의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며 유치한 별명을 지어가며 한국인을 부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은 덜 했으나 저는 현지인들과 더 많이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현지인들과도 즐겁게 지낸 것 같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인에 어머니가 한국인인 청년 14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학교를 모두 다녔다. 인도네시아인이자 한국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14는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국제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가 심해서 다니지 못했다. 그 때문에 청소년기 부모와 갈등이 많았다. 아버지 사업으로 인한 잦은 이주는 본인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청년 14 :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돌아올 때 그때 적응하는 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대다수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이주한 거주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다. 물론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학교폭력이나 문제를 일으켜 도피성 유학을 간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가족과 함께 이주하거나 자발적인 유학 목적으로 이주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어가는 편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롭지 않고 학업에 따른 억눌린 생활을 이어가는 반면, 동남아 국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청년들은 그들의 청소년기를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특히 학업과정에서 부모의 교육열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나 태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5의 경우 당시 부모가 학업에 대한 지나친 강요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은 미국처럼 큰물에서 놀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높은 교육기대와 포부를 내비치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부모의 바람대로 청년 15는 거주국 내 국제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대학에 진학하였다.

청년 15 : 저희 부모님은 청소년기 때에는 방목적으로 자유롭게 즐기고 배워가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살면서 국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게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고 아메리칸드림처럼 사람은 미국처럼 큰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대학을 선택할 때에는 한국보다는 큰물인 미국 대학을 가기를 원하신 것을 많이 어필하셨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들이 현지에서 어떤 유형의 학교에 재학했는가는 졸업 후 대학 진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 영미권 국가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국제학교에 다닐 경우 주로 한국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해외대학 진학을 준비 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입시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국제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직업으로 이주한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거주국 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홀로 영미권 국가로 대학 공부를 하러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대개 영어 유학 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이주한 청소년들 역시 대학 진학 시 국내보다는 거주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동남아 국가의 동포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이후부터는 가족들과 떨어져 독립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 이외 다양한 국가들을 이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에 접했던 다양한 이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수용력, 그리고 영어와 거주국 언어 등 능통한 언어 구사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한인 및 현지인과의 교류 :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남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은 거주국에서 주로 한인들과 교류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회고했다. 한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한인타운에서 한인들과의 교류, 한인교회에서의 만남과 행사 참여 등 주로 한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다. 특히 청년 1이 거주했던 베트남의 경우 특정 거주지역에 한인들이 모여 집단 거주하고 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치안이 좋고 편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생활 편의와 한인들 간의 유대와 교류라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청년 15, 청년 7이 회고하는 바와 같이, 한인사회 내 타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간섭, 소문, 한인들 간의 갈등 등 불편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 1 : 베트남은 한인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암묵적으로 한인타운

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한인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동네를 다니다 보면 학교 선생님, 친구들, 학부모들을 아주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네에서만 10년간 거주하며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아파트 친구들끼리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아무 연락 없이 모여서 놀기도 하며 해외 거주로 인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처음 이주하였을 때 새로움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 도움이 됐던 것은 한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한인 어린이 합창단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만나며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었고, 환경은 새로울지 몰라도 사람들은 낯설지 않았기에 빠르게 안정감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15 : 타지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는 교회와 한인회는 큰 중심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를 떠나 많은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만남의 광장이 되었고 추석/설날 그리고 운동회처럼 큰 행사를 열기도 했던 한인회는 하나의 권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학교와 관계없는 한인들과는 많은 교류가 없었지만 교회에서 많은 트러블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7 : 한인사회가 좁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애착도 많지만 크고 작은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정도로 소소하게 서로의 일들을 알다 보니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국제학교나 한국국제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또래들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한인학생들과 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현지인들과 교류했던 청년 3을 제외하면, 이들은 청소년기에 동남아에서 비교적 제한된 인적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 3 : 저는 베트남 현지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와 친했던 현지인분들은 항상 저한테 너무 친절하셨고, 그냥 가게를 갔을 때도 한 번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매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인식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악의 없이 순수하게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운동을 통해 현지인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현지 클럽 사람들과 저희 클럽 사람들이 교류전을 했었는데, 경기 사이사이에 현지인 분들과 앉아서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고, 가끔 운동 시간이 겹칠 때 함께 경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당시에 교육학 쪽으로 전공을 희망해서 교육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토요 한글학교에서 한-베 가정 초등 멘토링, 또래 멘토링 등 다양한 한-베 가정 베트남 부모님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 14는 동남아 한인들이 제한된 인적교류를 맺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인들만의 제한된 교류는 거주국 사회와 거주국 시민에 대한 몰이해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어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현지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점은 한인들이 거주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청년 14 :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현지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중략)저는 혼혈이기 때문에 계속 현지학교를 나오고 현지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주변에 한국 친구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오래 지냈지만 인도네시아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지에 오래 살아서 자기가 현지에 대해서 견문이 넓다고 자랑하면 뭐해요. 나갈 때는 무조건 우버만 부르거나 운전기사를 쓰는 사람들이고 사회 범위가 한국 사람들이 끝인데요...

이처럼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이해, 현지어 구사 여부,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은 부모가 거주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가 현지인들과 직접 교류하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 자녀들이 현지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를 갖는 반면, 현지인을 직접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를 두고 고용하는 경우 거주국과 거주국 시민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유인이 부족한 편이다. 여기에 거주국 시민에 대한 무시와 하대를 일상화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아래 청년 1이 언급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1 : 동남아에 있는 국가이고,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어린 나이에 거주 국민들을 하대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는 거주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이 대다수인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만이 아닌 그 지역에 대한 얹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자신’과 ‘한국’에 대한 재인식: 제3문화 정체성 형성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청소년기 동안의 동남아에서의 체류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몇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밝혔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재학했던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에서는 동남아시아 체류 경험의 긍정적 측면과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재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어서 분석해 본다.

(1) 동남아시아 체류 경험의 긍정적 측면

청년들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체류 경험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민족, 문화를 접함으로써 편견 없이 이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청년 1, 청년 3은 동남아 체류 경험을 통해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자신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으며, 다문화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 7 역시 다양한 민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으로 회고했다. 청년 9는 한국을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태국으로의 이주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이 생각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배우고 익혀

야 할 것들이 더 넓고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시간이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낙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보다 무시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거주국 사회 체류 경험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제기하는 태도 등을 갖게 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청년 1 : 저는 고3까지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자국이라고 해도 처음으로 독립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이 더 컸습니다. 아마 재외국민 학생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처음 해외로 갈 때 새로운 공간에 대한 낯섦,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낯섦.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며 어려움도 많이 겪을 것이고 배우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와 애착이 높은 편이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처음 한국에 와서 혼자 생활을 해야 했을 때 외로움과 무서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해외생활이라는 낯선 경험을 기반으로 쌓은 적응력이 있었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와는 느끼지 못했던 스스로의 계획 능력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독립심이 없다고 생각한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청년 3 : 청소년기에 보냈던 해외 거주 경험은 저를 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갈 땐 걱정도 많고 너무 무서웠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음식 등 수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당시엔 조금 힘들었지만 막상 바꾸고 나면 더 좋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 경험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년 7 : 청소년기를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저는 다양한 민족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저는 타지에 나가더라도 또 다른 민족과 어울리며 그들의 생활에 편히 스며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9 : 태국에 가게 되면서, 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학생으로서의 생활양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정말 내가 모르는 다양한 세계가 있구나 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외의 다른 세계가 있음이 너무 흥미로웠고, 저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넓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배우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열적, 우위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저의 태도 또한 많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로만 생각했고, 태국인들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하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던 저의 저급했던 태도 또한 발견 했습니다. 국적과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에 동등하게 존중을 받아야함을 지금까지도 믿는 바이고, 한국 사회에 은근하게 만연해 있는 인종 차별주의가 너무 불편하고, 그런 인식들이 안타깝습니다. (중략) 현재의 나를 종합적으로 돌아볼 때,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질문하고, 소신 있게 생각 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스펙트럼을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인간관계, 한국어,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청년들은 잦은 이주로 인해 지속가능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계 형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깊은 관계 자체를 맺지 않기 위해 사람들에게 정을 주지 않는 등 인간관계에 대한 방어적 기제를 보이기도 했다.

청년 11 :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달리 말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거주국 사회로 가기 전의 나는 주도적인 성격이고 리더의 자리를 줄곧 맡으며, 열정을 쏟곤 했다면 그 곳에서는 주목을 피하고, 어차피 떠나보낼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을 주지 않는단지 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14 : 저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6개월에 1번씩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나라를 옮겨 다닌 적도 많았고요, 고등학생 쯤 되니까 너무 많이 지역을 옮겨 다녀서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덤덤해지고 전혀 슬프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동남아국가에서 국제학교 졸업 후 한국대학에 진학한 경우,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잘 알아듣고 과제도 나름 잘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한국어 지문은 읽기 어려웠고 동기가 구사하는 고급 어휘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들은 한국어 강의보다는 영어 강의를 익숙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청년 16 : 글 쓰는 게 전 나름대로 괜찮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그걸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소 알아들을 정도로는 썼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사람들 기준으로 못 미치는... 약간 학기말 성적 보고 많이 충격 받긴 했어요. (연구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수업을 영어수업이랑 한국어 수업이랑 왔다 갔다 듣긴 하는데 글 쓰는 게 아직도 편해진 않은 것 같아요.

청년 17 :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아무리 한국어로 된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상대평가인 대학교 채점 시스템에서 순위권 안에 들기는 어려웠습니다. 평생 한국어로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로 공부를 한 저는 한국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어렵지도 않았고 강의를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성적은 제가 예상한 만큼 나와 주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거주국 사회와 한국 사회를 경험했고, 거주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접해 왔기에 자신들이 보통의 한국인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동일한 아시아권이지만, 유교문화의 뿌리가 없고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성장했던 청년들은 자유분방한 학창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다 보니, 위계적, 서열적, 수직적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 들어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거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청년 15는 한국에 들어와서 느꼈던 ‘낯설음’, 청년 11이 언급하는 ‘이방인’, 청년 12가 말하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과는 정서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 15 : 인도네시아를 떠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은 매우 이국적이었습니다. 뭔가 나의 나라지만 익숙지 않고 낯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말이 들리고 TV에서 한국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은 매우 편하였고 자차가 없어도 어느 곳이든지 갈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한국생활은 뭔가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인데 한국 생활 문화에 익숙지 않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뭔가 애매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치열한 교육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또래 나이의 친구들과 공감할 수 없었던 포인트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들도 없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청년 11 : 저는 한국에서도 이방인, 외국에서도 이방인 고로 여기저기 끼지 못하고 어디서나 이방인인 느낌일 때가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면,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던 반가운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막상 한국에 나오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고, 다시 외국에 들어가도 다른 일상에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정체성 혼란은 무조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12 : 자라나는 시기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중략) 저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렇게 자라왔고요. 다양한 인종들과 문화를 경험했기에 다문화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겨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아주 크게 느낀 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과는 정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일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 중 다수는 나머지 가족은 거주국에 남고 혼자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인간관계 및 교류의 제한으로 인한 단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 8의 경우, 미국 대학을 진학하려다가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한국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한국 입국 이후 원하던 대학에 낙방한 후 재수를 하면서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한국에 홀로 남겨져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이들은 단절감, 고립감을 느끼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 8 : 힘든 부분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 보면 저희 또래들 보면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다 있어서 언제든 나가서 만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한국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알바를 해도 알바 갔다가 집에 와서 놓고 싶어도 혼자 있고. 그래서 동호회 같은 것도 찾아서 나가 보기도 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울릴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3) 한국사회에 대한 양가감정 또는 거리두기

여러 곳을 이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어딘가에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거주국에 살면서 방학마다 한국에 입국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또 한국에 홀로 입국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온전한 한국인도 그렇다고 동남아인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이들은 동남아 국가에 거주할 당시에는 현지인들로부터 이방인으로 대우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교포로 불리는 상황에 대해 어색해 했다. 청년 16은 본인이 어디에도 깊게 뿌리내리며 살고 있지 못한 느낌을 갖는다고 했다.

청년 13 : 전 처음에는 되게, 왜 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한국이 있는데 왜 굳이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반면에 또 필리핀이 너무 좋다, 굳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이 좋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싫기도 했어요.

청년 16 : 어느 한 국가에서 장기간 산 적이 없다 보니까, 한국은 살긴 살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거의 까먹었고, 인도네시아는 살긴 살았는데 그렇다고 현지인들하고 섞여서 현지인 학교를 다녔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고. 어느 곳에도 깊이 뿌리내려서 살고 있지 않은 느낌.

또한 이들은 한국문화와 거주국 문화, 또는 제3의 문화 등을 접하면서 어딘가에 정착하기보다는 낯선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기에 한국사회를 떠나 있었기에 주류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불편함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 18의 경우, 다양한 문화 경험, 언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향후 취업 및 거주를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일부 청년들은 청소년기를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일정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했다. 청년 19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싱가포르에 유학을 왔거나 이민 온 한인학생들이 싱가포르 한인 커뮤니티의 위계적, 서열적 문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위계적 조직문화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서구적,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을 포함한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싱가포르 시민이 지니고 있는 동일한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과 거주국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음으로써 제3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반면, 동남아 거주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커진 경우도 있다. 청년 9는 태국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대학에 진학한 사례에 해당하는데, 대학생이 되어 새롭게 재정착한 한국사회는 선진사회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청년 18 : 저는 아직도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나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싱가포르에서는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었고, 향후 2-3년 내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3년 내에는 싱가포르를 떠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커리어 전망 보다 외국에서의 커리어 전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청년 19 : 한인학생들은 한인커뮤니티에서나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문화의 특성상 한인들과 더 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략) 이런 한국문화는 싱가포르 한인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인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은 한국 기업문화 등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고 단정 짓습니다. (중략) 싱가포르의 다민족 국가여서 거주국에 사는 동안 다양한 민족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이런 다른 민족들이 비교군이 되면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중략)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선호하는 저를 볼 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국내의 한국인과 동일시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에 오래 거주하다 싱가포르로 이민, 유학 온 한인들과 교류했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장기 거주한 한인들은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더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해외에 오래있던 저는 한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수한 사고방식이라 생각되지 않으나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에서 온 한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청년 9 : 저는 한국이 막연하게 너무 빠빠할 것 같고, 웬지 한국의 경쟁적인 시스템이 싫어 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는 것이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생활양식에 대해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이 외국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각자의 이주 과정과 거주국에서의 상이한 경험을 통해 자신과 한국사회를 재인식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이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한국과 거주국 사회에서의 문화와 경험을

통해 제3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진 못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이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위계적, 집단적, 경쟁적 문화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누렸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 덕택에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한국과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균형감을 갖고자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욕구

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청소년기를 동남아 지역에서 보내고 있는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거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대학으로 입학한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희망했고, 해외대학 진학 및 졸업 후 취업까지 해외에서 하는 경우 역시 본인들의 이해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을 희망하였다. 거주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지원 욕구 중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을 미래 국가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 입국 후 거주지 지원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 입국해 대학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한국에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 친척들이 한국에 거주하긴 하지만 다양한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어 도움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제학교 졸업 후 한국에 입국할 경우 9월부터 대학 입학 전 이듬해 2월까지 거주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에서도 보통의 대학 신입생들이 동일하게 거주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적어도 어떤 곳에 어떤 유형의 거주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은 용이

한 편이다. 반면, 동남아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안내 또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13 :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요, 제가 집이 없어요. 부모님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선 집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 8 : 저는 일단 거주할 곳.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갈 곳이 없으니까, 보통 보면 가족들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저희가 대학교 지원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게 좋은데 서울에 가족이 많지는 않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 교육

이들은 아주 어린 시기에 한국을 떠나 동남아 국가에서 오랜 시간 체류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어찌 보면 한국사회에 입국한 이후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 국가의 사고방식, 문화, 태도, 가치관이 몸에 배인 채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 다소 경직되고 위계적인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입국 직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한국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했다.

청년 13 : 외국에 오래 살았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 게 좀,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중략) 쓰레기 버리는 거, 분리수거 하는 게 제가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버려야 되고, 일반 쓰레기가 뭐고, 그리고 언어 같은 거, 높임말이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그냥 높임말을 쓰는데 그 높임말의 뉘앙스도 다르잖아요. 하셨습니다까랑 했어요? 다니까랑 요를 언제

쓰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누구한테 하느냐, 어느 상황에서도 좀 다르잖아요
뉘앙스. 그 세세한 뉘앙스를 배우는 것도 힘들었고.

청년 5 : 해외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한국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은 부모님 없이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10 : 정부에서 조금 더 재외국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캠프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힘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재외국민 학생을 위해 대학입학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 한국대학들 대부분 3월에 신입생 입학식이 이루어지고 가을학기 입학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동기간 교류 기회가 부족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을학기 입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이들이 대학 입학 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 17 :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인데, 학년을 가을학기에 시작한
저는 여름 학기에 시작한 애들과 같은 1학년이지만 6개월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14학년
이었던 저는 애들 사이에서 14.5학년이라고 불렸고, 대학에서 한다는 MT 한번 못 가보고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학년 애들은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서로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온 저로서는 친한 사람도 없고 이미 만들어진
그룹에 끼어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청년 4 : 9월 학기 입학식이 없는 것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무성의로 보여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입학 당시 아쉬웠던 점은 3월에 입학한
18학년 동기들과는 친해질 기회가 없어 첫 학기에 과에서 걸도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재외국민 학생들이 한국대학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서는 3월 학기
입학생들과의 교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청년 1은 거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주국 이해교육, 다문화교육,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 2와 청년 15는 동남아를 포함해서 청소년기를 해외에서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재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청년 1 : 특히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세계시민으로 자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또 교육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사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어릴 적부터 해외한국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지만, 영어 기반의 국제학교, 현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한국사입니다. (중략) 한국사에 집중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해외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관련 도서, 토론 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청년 2 : 저는 고등학교만 해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생활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오랜 기간 거주했던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하기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한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운영하고 학교 내 상담실이 있지만 보다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상담실 운영, 혹은 한인회와의 교류 사업을 통한 한국 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15 : 방학 동안 많은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학원을 다닙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뭔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재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동남아체류 경험 청년을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

청년 19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영미 지역으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우수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된 지원을 희망하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한인 우수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 등 매력적인 유인이 제공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19 : 대부분 [동남아 체류] 한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개인마다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한인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그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낄만한 오퍼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한인 학생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글로벌화 되어 있어 한국 외에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청년 11의 경우, 다인종, 다민족 등 동남아 지역들에서 다문화적 지식과 태도를 습득한 경험이 있는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다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고등 교육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취업한 청년들은 대부분 영어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 11이 생각할 때 이들을 단순히 영어를 잘 하는 인재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기실, 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ASEAN 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 국가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각국의 문화와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을 향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청년 11 : 해외에서 지내는 동포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 위주로 직업이나 한국에서 적응하며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영어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영업이나 학원 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 유학생들이 그냥 학원에서 영어만 가르치게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5) 청년 생애사 분석을 통해 본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 청년들이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동남아 지역으로의 이주와 그곳에서의 거주 경험은 이들에게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한국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생애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명의 조사 참여자가 작성한 생애사적 글쓰기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기에 모국에서 이주국가로 이동한 후 다시 모국으로 복귀하거나 아예 세계시민으로서 유목민적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청년들의 생애사 분석결과를 개인의 생물학적 차원, 거주국의 사회적, 심리사회적 차원들(dimensions), 몇 가지 전환(turnings)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이들이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을 적응(adaptations)의 결과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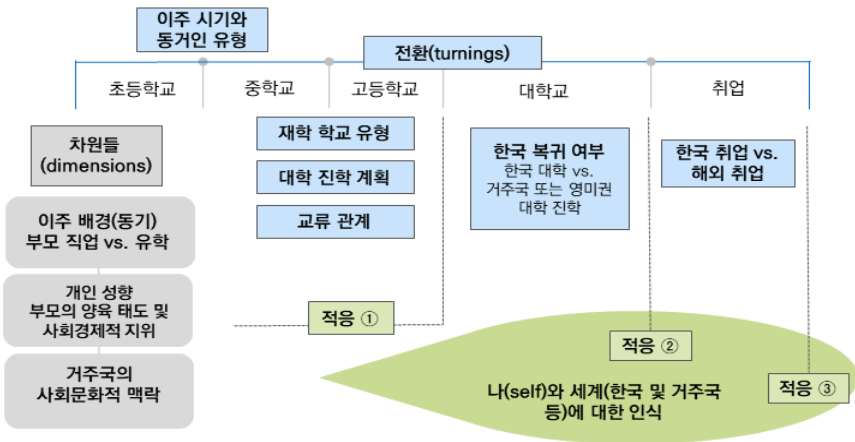


그림 VI-1 동남아 체류 경험 청년들의 생애사 분석 결과

우선 이들의 이주와 이주 후 거주국 사회에서의 적응, 그 후 한국 복귀 또는 해외에서의 체류 등 일련의 과정에는 이들의 이주배경 또는 동기가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에게 중요한 생애사적 전환점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이들의 연대기, 생애 구간(life span) 사이에 배치된다. 우선 이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했던 시점이 중요한데 이주 시기는 이주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 시기에 이주한 경우 이주 후 적응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는 반면, 사춘기를 겪는 시기인 중학교 시기에 이주한 경우 새로운 친구, 교사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 후 동거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적응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대학 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 경우, 국제학교에서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을 했고, 거주국 대학이나 영미권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할 경우 국제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현지 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들의 적응에는 이들이 거주국 사회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는가에 따라 달랐다. 특히 거주국 사회와 거주국 시민에 대한 이해, 거주국 언어 습득 등은 부모의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개인적인 진로준비나 계획에 따라 학교 밖에서 맺는 관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복귀해 대학을 다니는지 여부와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복귀하여 취업하는지 여부는 자신과 한국사회, 거주국 사회 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으로 복귀해 한국사회에 재적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거주국 사회에서의 체류 기간, 거주국에서 재학한 학교 유형(국제학교 vs. 한국학교), 거주국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에 따라 재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거주국에서 체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제학교에서 중고

등학교를 마친 경우 한국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작용하겠지만, 거주국에서의 긴 체류 기간과 동남아 국가들의 다문화, 다민족적 특성이 반영된 수용적이고 개방적 문화에 대한 익숙함은 한국 사회의 위계적, 서열적 조직문화를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이문화에 열린 태도와 수용성,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또는 제3의 국가로의 이주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관련 성인전문가 면담조사 분석 결과

1)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생태체계

(1) 가정, 학교, 또래관계(미시체계)

가. 가정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놓인 미시체계 중 가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한-한 가정에 해당하고 가정 내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는 한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국제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데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오거나 초등학교 일부 과정을 이수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다.

성인 4에 따르면, 최근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화에 있다. 자녀가 모국어도 잘 구사하면서도 영어와 현지어 모두를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영어에 대한 강조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모국어가 우선되어야 다른 언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관점이 우세해지고 있어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와 다양한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녀가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성인 4 : 부모님이 자녀들이 글로벌화 되길 원하고요, 아이들은 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있어요.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계속 작아지고, 부모님이 계속 주입을 시켜요. 너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해야 되고, 옛날 같으면 영어, 오로지 영어 때문에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고 본인들도 이주를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현재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우리 모국어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 외 외국어도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학교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화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글로벌화’는 이중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즉, 한편으로 자녀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기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특정 국가의 문화에 대한 위계적인 태도나 종족적(ethnic) 우월 의식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적(ethno-centric) 태도를 여전히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채수홍, 2019: 67). 이는 베트남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에게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성인 16에 따르면, 부모들은 베트남 언어나 문화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부족하다. 자녀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 한인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현지인들과의 교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때로는 한인들끼리만의 교류가 자민족 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성인 10의 지적처럼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 현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부모들의 현지인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16 :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아무래도 언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신 것 같아요. 일단 베트남어가 중국어는 4성인데 7성이거든요. 저도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웬만한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못 살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리스펙트(존중) 하는 면이 조금 떨어지고, 문화에 대한 수용성 역시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저희가 영어교육과정도 운영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고 영어 레벨이 뭐가 나왔을 지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불만)이 많고 피드백이 많은데, 베트남어 레벨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인 10 : 인도네시아 내 한국사람이나 외국사람들은 한국과 다르게 집을 도와주는 메이드, 운전기사를 두고 살아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내 발로 내가 어디 걸어서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중략)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크면서 집에 가정부와 기사를 두면서 좀 현지인을 하대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먼저,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좀 한국에 오면 그럴 수 없는 삶인데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몸에 배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부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하여, 성인 5는 일부 동남아 유학 가정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한 가정의 경우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들 가정에서는 가사를 지원하는 현지인 헬퍼와 기사가 고용되어 있다. 국제학교 내 백인학생들로부터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동포청소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등 의식을 갖는 한편, 가정 내에서는 현지인을 고용한 우월적 위치 속에서 국제학교에서 경험했던 열등의식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태국언어와 문화, 역사를 존중하기보다는 국제학교에서 경험하는 백인 중심주의와 그에 따른 위계화된 질서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성인 5의 관점을 모든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가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특정 국가와 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세계 경제 질서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성인 5 : 동남아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서 가정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백인사회 속에서 받은 열등의식이 있어요. 여기도 학교가 다양한 층이 있는데 백인 숫자가 많은 학교에 다닌 아이들은 딱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때부터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등의식과 벽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밖에 나와 가지고 영어를 쓰면서 국제학교 다닌다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태국인 사회 속에서 우월감을 풀면서 살아가요. 구조적으로 집에는 헬퍼가 있고 잔디를 깎아주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는 상상을 못한 삶들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의식구조 속에 불필요한 우월의식이 굉장히 쌓여 갑니다. 그러니까 태국 문화를 배우지 못해요. 제가 태국문화와 태국역사를 강의해주면 아이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태국이라는 사회를 보게 되면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선진문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의식구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할 문화가 많아요. 언어적으로도요. (중략) 저는 치앙마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남아 한글학교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글학교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모든 동남아 지역이 다 그래요.

한편,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가정적 특징 중 눈여겨볼 변화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이다. 성인 10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 한인 아버지와 현지인 어머니 가정의 경우, 한인 어머니와 현지인 아버지 가정에 비해 자녀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강조가 덜한 편이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다문화가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국제학교의 초등학교에서는 한-베 가정 자녀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제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 내용이나 자료 활용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는 반면, 성인 10이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에서는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들 중 자녀를 한글학교에 보낼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체성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인 10 :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에서 아빠가 한국인인 경우가 95%도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의 마음이 뭐랄까, 부족하다고 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너는 한국인이다, 너는 국어를 알고 한국말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아버지들이 집에 오면 아내하고의 대화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니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의 언어를 따라서 인니어를 하고, 아빠도 집에 오면 인니어로 대화를 해요. 그러다보니 집에서도 한국어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략)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내를 교육시키는 사람은 5%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나. 학교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크게 국제학교와 한국국제학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다. 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에게는 한국어 외에도 현지어와 현지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성인 17은 한국국제학교에서 글로벌, 내셔널, 로컬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겸비하는 것이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 17 : 사실 제가 부임하고 글로벌, 내셔널, 로컬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글로벌이컬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진학도 좀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다, 다른 국제적인 대학들도 가고 글로벌, 그리고 로컬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 대학들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저는 베트남어학과 이런 것보다는 법대, 의대 이런 메인 스트림을 열어 달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주류, 특히 한-베 아이들은 이중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가야 된다. 법대, 의대 이런 걸 열어 달라. 그걸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는 동포청소년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제학교를 다니는 동포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또래들도 현지 국가에 있는 영미권 출신인 경우가 많아서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한다. 성인 16의 언급대로 국제학교에 다니는 동포청소년들은 얼굴만 한국인일 뿐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사고방식도 다르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것이 동포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정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성인 16 : 저희 토요 한글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거의 99%가 국제학교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얼굴은 한국인인데 외국인, 하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다 영어로 얘기하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중략)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나 현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현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요. (중략) 이 아이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중략)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다국적인 문화 아니면 베트남 현지 문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인종차별 당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고민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다. 또래관계

여타 대륙과 달리 동남아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청소년들은 잦은 이동과 이주를 경험한다. 한국에서 거주국으로 이주한 것 외에도 거주국 내에서도 학교 이동이 잦다. 부모들이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는 국제학교를 다니게 하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직전에 한국국제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로 관계 형성과 유지가 쉽지 않다. 성인 16의 지적 대로, 래포가 형성될 즈음에는 학교를 옮겨야 해서 장기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앞서 교차문화 아동 청소년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Pollock & Van Reken, 2001; Pollock et al., 2017). 이러한 특성이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성인 16 :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고 환경변화가 굉장히 잦잖아요. 그래서 국제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옮기고, 다시 한국학교로 옮기고 이렇게 학교를 옮기는 케이스가 일단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학교를 옮긴 거고 이 안에서 또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이별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 한국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계약이 보통 2~3년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저희가 상담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위키 학생이라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는지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전에 계신 상담 선생님하고 rapport가 다 형성되어서 너무너무 마음 다 터놓고 했는데 상담선생님이 돌아간 거야, 한국으로. 그게 너무 자기는 상처였던 거죠. 정들면 떠나고 이런 거에 대한 이별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예요. 국제학교는 더 심하지 않나. 자녀가 자살할 것 같다 라는 부모님의 상담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국제학교에서는 한두 명씩은 해마다 자살하는 한국학생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 가정, 학교, 한인 커뮤니티, 현지인들과의 관계(중간체계)

다른 대륙과 유사하게 동남아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국제학교 또는 한글학교와 한인회 간에는 제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한글학교 중에는 한인회가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한글학교 운영이나 교류에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성인 17이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에도 한인회 행사에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하러 가거나 한인회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뿐 한인회와 한국국제학교 또는 한글학교 간 활발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인회가 주로 이주 1세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국국제학교나 한글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전 이주 세대와는 차이가 있고 한인회 자체적으로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한국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그나마 한인회나 거주국 내 한국 기업(신한은행 등) 등과 교류하고 있었지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한글학교를 다니는 동포청소년들은 한글학교와 교회를 제외할 때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다. 동포청소년 개인이 현지 국가에서 교류할 수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다수 존재하지도 않지만, 베트남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성인 18은 동포청소년을 포함한 한인들의 교류 관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이 현지인과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성인 17 : 저는 학교가 더 이상 학교 울타리 안에 있어선 안 된다. 교육을 위해서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필요하면 울타리 바깥의 교육자원을 끌어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중략) 여기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주로 경상계열 진학을 많이 해요. 저희가 작년부터 신한은행하고 손잡고 신한 금융 아카데미 12주 과정, 창업과정 이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실제로 베트남에서 성공한 기업인들 이런 분들로 단순히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12주 과정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특히 경상계열 진학할 아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략) 교민사회에서는 한국 학교에 의존도가 굉장히 큼니다. 모든 행사에서 우리 아이들 오케스트라나 사물놀이나 우리 학교 행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서 우리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공연, 뮤지컬,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교민들의 전체적인 축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학교가 교민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교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죠. 우리 아이들이 안 가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 18 : 동포청소년들이 대부분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고 현지문화를 이해하거나 현지 인들과 사귀거나 하는 관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과만 어울려서 현지 이해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교 졸업 후 진로 : 한국 및 거주국에 대한 인식(외체계 및 거시체계)

동남아 국가 동포청소년들은 대부분 고교 졸업 후 한국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거주국 내 대학의 위상 및 향후 취업 가능성과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진로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한국국제학교 vs. 국제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타났지만, 상당수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한국보다는 영미권 국가나 현지대학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싱가포르에서도 최근 한국대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1 동남아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진로

구분	내용
태국	[한국국제학교 : 80% 이상은 한국대학 진학, 20% 태국 또는 해외 대학 진학] 저희 학교(한국국제학교)에서 80% 이상은 한국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태국 현지학교나 외국 학교 붙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여기 현지에서도 현지 채용이 올라오는 걸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라는 게 쉽게 익힐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요(성인 6). [한글학교 : 70% 한국대학 진학, 30%는 해외 대학 진학] 201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북미, 유럽을 선호했었습니다. 고3을 졸업하고 진로의 방향 들을요. 그런데 2010년부터인가 아이들이 한국의 대학을 엿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아마도 작년까지는 반반이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70, 외국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성인 5).
필리핀	[80%는 한국 대학 진학, 20%는 영미권 대학 진학] 필리핀 전체적으로는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는 기러기 엄마 아빠 스타일의 사람들은 필리핀에 와서 자녀교육을 할 때에는 미국이나 영어권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8 대 2 정도. 8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2는 미국이나 영어권 쪽으로. 호주나 그 외에 다른, 여기 필리핀 저희 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혹은 저쪽 두바이 있는 데로 가더라고요(성인 2).

구분	내용
	[외국인 신분으로 필리핀에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졸업 후 진로 수립에 어려움 있음] 대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학 수준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기 로컬대학을, 우린 외국인이거든요. 영주권도 없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사실 법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학에는 학교 재량에 따라서 학생을 받아 주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해서 받아주기도 하는데... (중략) 여기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 라이선스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도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고, 의학 공부를 해도 의사 자격을 여기서 받을 수 없고. 변호사라든지 하이클래스 부분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정착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성인 1).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졸업생 다수는 한국대학을, 국제학교 졸업생 다수는 영미권 대학 진학] 일단은 한국학교에 온다는 거는 한국에 대학을 가겠다는 포석을 두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12년 특례는 힘들지만 3년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 영미권, 그 다음 현지 베트남. 국제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영미권 대학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성인 16). [베트남 현지 대학 졸업 후 취업전망이 좋음에도 한국대학 선호가 높음] 베트남과 한국 사이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역 3위 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투자국 1위가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데 (중략) 지금 이곳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로컬 법대를 나오면 그런 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봉이 다는 아니지만 로컬 법대를 나온 경우, 여기 8,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법무법인에서 서로 입도선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연봉이 1억이 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대학을 선호하고 있죠(성인 17).
싱가포르	[과거에 비해 한국대학 진학 희망자 증가, 여전히 영미권 대학 진학이 다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보다는 해외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8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 대학 가려고 한국국제학교로 옮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략)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조차도 한국을 좋아해서 결국 한국대학을 가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저는 토요 한글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어서 저는 그런 학생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여기 아이들은 영국으로 많이 가죠.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비율이 나뉘더

구분	내용
	라고요. 한 집안의 형제자매지만 어떤 아이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요, 미국 가기도 하고 여기 NUS(싱가포르국립대) 가기도 하고 다양해요. 가족 안에서도 글로벌인 가족들이 많아요(성인 9).
말레이시아	[한국대학에 대한 동경이 있음. 최근에는 현지 대학, 아시아권 대학 진학 증가] 아이들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대학을 가길 원해요. 왜, 이게 일종의 동경이라고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온 몇 년 안 된 아이들은 원치 않아요 한국으로 가는 걸. 오랜 기간 여기 로컬 학교라든가 현지학교, 국제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잠깐 잠깐 방문했을 때 좋았는지, 예를 들면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중략) 요즘 분위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꼭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싱가포르나 홍콩, 가까이는 호주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영국이라든가 미국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성인 14). [국제학교 졸업생은 영미권 대학 진학, 부모들은 한국대학 진학 선호]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중국계 학생이나 말레이계 학생이나 인도계 학생들 대부분이 집안이 잘 살거나 하면 영국하고 호주를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학생들도 국제학교 다니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주변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쪽으로 가니까 한국보다는 외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나 미국, 영국으로 많이 가고요. 앞으로 장래 직업 취업 같은 걸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요(성인 15).
인도네시아	[한국대학 진학 희망자가 다수, 미국 홍콩/싱가포르 대학 진학도 다수]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재학)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는 한국대학이에요. 해외에서 12년 다 공부한 아이들은 한국으로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외국인 자격이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5학년 6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국제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주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긴 동남아니까 주로 홍콩, 싱가포르 이쪽으로 많이 가요(성인 12). [대학 졸업 후 한국거주 비율이 70%, 인도네시아 30%] 대학 졸업 후에 거주국을 보면 한국이 7, 여기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만 봐도 한국 간 후 여기(인도네시아) 생각 안 나니 그러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한국이 더 좋아요.” 아버님들이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취업해서 몇 년 다니고 다시 여기 와서 아버님이랑 같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성인 11).

태국의 경우, 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80%는 한국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한글학교 졸업생들 중 약 70%가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했다. 필리핀 역시 전체 동포청소년 중 80% 이상은 한국 대학을 진학하고 20% 정도가 영미권 대학, 호주,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학을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다. 필리핀 동포청소년들이 현지 대학 진학을 거의 희망하지 않는 것은 현지대학이 한국대학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인식과 현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조건이나 정착 여건이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의 경우에도 졸업생 다수는 한국대학을 진학하면서 일부가 영미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동남아 국가와 대조적으로 베트남의 경우 현지대학을 졸업했을 때 현지에서의 취업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은 한국대학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정 부분 베트남이 사회주의의 국가라는 점과 한국에 비해 거주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싱가포르 동포청소년의 경우 이들은 동남아 여타 국가나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거주해 본 경험이 있는 등 글로벌한 이주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국계와 미국계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은 오래 재학생들이 영미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고, 영국계 학교는 영국 대학 진학이, 미국계 학교는 미국 대학 진학이 용이한 편이어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이들은 영미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성인 9의 언급대로 싱가포르 동포청소년들의 진로는 한국, 영미권, 싱가포르 현지 등 훨씬 다양하고 글로벌한 면모를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말레이시아 동포청소년들 역시 영미권 대학 진학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제학교 졸업생들은 영미권 대학을 진학하는 경향이 강한데, 성인 14에 따르면 또 한국대학 진학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대학을 진학하려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12년 특례 대상이

아니고 3년 특례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서 한국대학 진학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필리핀 동포청소년과 유사하게 호주, 홍콩 및 싱가포르 대학을 진학하거나 현지대학 진학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포청소년들은 말레이시아 현지의 국립대학 진학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립대학은 민족별 할당제가 부여되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토착 원주민이 아닐 경우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지에서는 사립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동포청소년들의 다수도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하지만, 국제학교 졸업생들은 영미권 대학이나 홍콩 및 싱가포르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여타 동남아 동포청소년과 다른 차이점은 대학 졸업 후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인니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취업은 비교적 용이한 편인데,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의 급여는 현지 수준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이나 해외 대학 졸업 후 인도네시아로 역유입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님의 사업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한국 또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2세들이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진학은 현지어 어학코스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가능하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치대, 의대, 법대 등의 경우 졸업하더라도 국적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 현지 대학 진학이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립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한국대학이나 외국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국가별 특성 및 거주 여건(거시체계)

동남아 6개국은 유사하면서도 다소 상이한 거주 여건 및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V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6개국에 거주하고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부모 직업

또는 유학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태국 동포들은 방콕과 치앙마이에 다수 거주하고 있고, 방콕에는 주재원이, 치앙마이에는 은퇴자, 관광업 종사자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필리핀 동포들은 메트로마닐라, 세부 등을 중심으로 다수 거주하고 있는 반면, 선교 목적, 개인사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에 속한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교류 활성화로 인해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서 싱가포르의 주재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지만 자녀 유학 목적으로 거주한 한인들도 다수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서 동포들은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초기 이주한 동포들은 개인사업 또는 주재원 자격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은퇴 이민, 자녀 유학 목적으로 이주한 동포들이 다수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수가 개인사업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으며, 자카르타가 속한 자바섬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6개국 중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문화 가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필리핀의 경우 코피노(Kopino)⁶¹⁾를 제외하고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개국에는 모두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필리핀한국국제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 한국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현지어가 개설되어 있어 재학생들은 한국어, 영어 외에 현지어를 배울 수 있다.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국제학교 또는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으로 현지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대학 또는 해외 대학 진학이라는 진학 경로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달리하고 있다. 즉, 한국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경우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한다. 또는 초등

61) 코피노는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자녀이다. 주로 관광, 사업, 유학 차 필리핀에 간 한국 남성들에 의해 버림받는 아이들로 2014년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42&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2020년 9월 14일 인출).

학교나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한국국제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현지학교 또는 국제학교를 다닌다. 간혹 국제학교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해외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표 VI-2 재외동포청소년 국가별 거주 특성 및 교육 여건

구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포 청소년 이주 이유	• 부모 직업 • 유학	• 부모 직업 • 유학	• 부모 직업	• 부모 직업 • 유학	• 부모 직업 • 유학	• 부모 직업
동포 다수 거주지역*	1. 방콕 2. 치앙마이	1. 메트로마닐라 2. 세부	1. 호치민시 2. 하노이시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및 인근지역	1. 자카르타 2. 자바 (자카르타 외)
동포 특성 및 거주국 국가 특성	• 방콕: 주재원 다수 • 치앙마이: 은퇴자, 관광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 다수	• 선교, 개인 사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 이주	• 한-베 교류 활성화로 인한 베트남 진출 한인 증가	• 주재원들이 다수 있긴 하지만, 자녀 유학 목적 거주자 다수 • 다인종, 다민족 국가	• 초기 이주자는 사업 목적, 최근에는 은퇴 이민, 자녀 유학 목적 이주 다수 • 다인종, 다민족 국가	• 사업 목적 이주 다수
다문화 가정비율	• 초등학교생 중에서 증가 추세	• 일부 있음	•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거의 없음	• 거의 없음	•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한국국제 학교 설치	• 방콕한국국제학교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마닐라)	• 하노이한국국제학교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한국국제 학교 내 현지어 개설 여부	○	× (중국어 개설) *주 언어: 영어, 따갈로그어	○	○ (중국어 개설) *공용어: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 (중국어 개설) *공용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 (인니어 개설 의무)
재학 및 진로유형	1) 현지학교 또는 국제학교(초중등) → 해외대학/한국대학 진학 2) 국제학교(초등) → 한국국제학교(중등) → 한국대학 진학 3) 한국국제학교(초중등) → 한국대학 진학					

* 주 : 외교부 (2019). 재외동포현황 2019.

(1) 태국

태국 내 한인 다수 거주지는 수도 방콕과 치앙마이인데 많은 수가 방콕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재외국민 자격으로 태국에 일시체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재원, 자녀교육 목적으로 이주한 가가족,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은퇴자, 선교사, 관광 가이드 및 개인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녀들을 서로 다른 학교에 보내고 있다.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들에게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국제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체류 기간이 길 경우 초기에는 국제 학교에 보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시점을 고려해 자녀들을 한국국제 학교로 전학시키기도 한다. 체류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국제학교나 현지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태국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학교에서 오랜 기간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림 VI-2 태국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태국, <https://goo.gl/maps/tspewEXmDcsSsgGX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현재 방콕에는 한국국제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100명 미만의 다소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방콕 거주 동포 다수가 주재원⁶²⁾이라는 점과 학교가 방콕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국제학교가 방콕 시내로 옮겨옴에 따라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동포들의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인 6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고 최근 한류가 확산되고 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이미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태국 내 체류 한인들의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문화적 교류 정도에 따라 변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6 : 태국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20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50여개교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도 많이 파견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도 한국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고 한데,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걸 보더라도 일본이 3,000여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100여개 기업체밖에 안 들어와 있고, 또 최근 가장 유입이 많은 곳이 중국이에요. (중략) 여기 한국어 능력시험도 한번 칠 때마다 1,000~2,000명가량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이 사회 내에서 보면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62) 주재원들은 2~3년 파견 후 한국으로 복귀해야 하는 관계로 자녀를 주로 국제학교에 보내는 경향이 있음.

(2) 필리핀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메트로마닐라 지역과 남쪽에 위치한 세부이다(외교부, 2019). 필리핀에는 선교사, 개인사업자 또는 자녀교육 목적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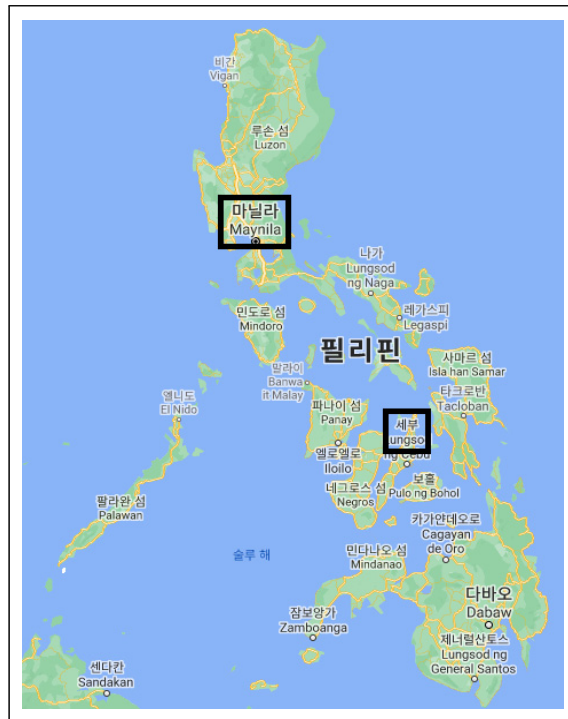


그림 VI-3 필리핀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필리핀, <https://goo.gl/maps/6erbnYttuppPcTRY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성인 1에 따르면, 필리핀 한인들은 일시체류자 신분이고 특정 시점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필리핀 내 취업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다, 거주 여건이

한국보다는 열악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한인 부모들의 경우 선교나 사업 목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더라도, 자녀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 때문에 자녀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에 보내거나, 한국 대학 진학이 용이하도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적극적이다. 성인 2는 필리핀에서도 한류가 뒤늦게 확산되고 있어 향후 영어뿐만 아니라 필리핀어(타갈로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인 2세들의 경제적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인 1 : 여기(필리핀)는 이민 지역이 아닙니다. 미주 같은 경우는 이민지역이라 볼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든 정착을 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얻고 살기 위해서 가는데, 동남아 쪽은 이민지역이 아니고요, 잠시 머물렀다가 자기 부모님들이 어떤 목적이 끝이 나면 다시 귀국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라든지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이죠.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열악하잖아요.

성인 2 : 필리핀에 취업할 만한 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략) 영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 중에 몇몇은 로컬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리핀 말도 어느 정도는 하죠. 근래에는 여기 필리핀에 한류가 굉장히 뒤늦게 뜨고 있어서 제 생각엔 앞으로 필리핀 말을 잘 하는 우리 2세들이 창업을 하면 잘될 것 같아요. 한류를 위한 창업.

(3) 베트남

베트남은 현재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해당한다. 1990년 이후 한국기업의 공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호치민 한인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외환위기 전후로 호치민 한인사회는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2007년 이후 삼성과 LG 등이 공장 건립을 시작하면서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인 수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2000년 전후, 2010년 전후로 베트남 한인사회에는 양적, 질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채수홍, 2017, 2019).

베트남 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호치민시로 호치민시 내에는 한인 집단 거주지역(7군, 푸미흥)이 형성되어 있다. 성인 16에 따르면, 푸미흥 지역은 베트남이지만 흡사 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관련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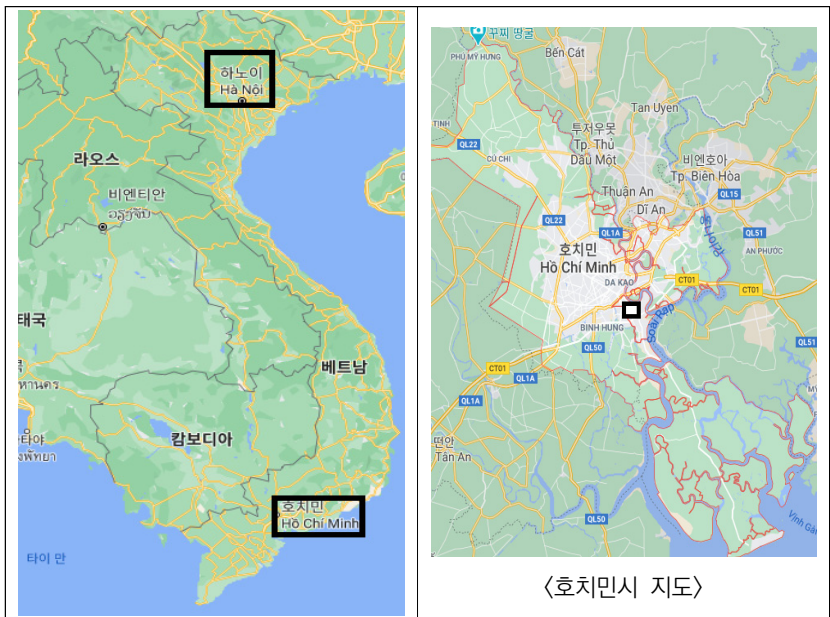


그림 VI-4 베트남 및 호치민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베트남, <https://goo.gl/maps/43qvbLmg2ckSrAAq6>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호치민, <https://goo.gl/maps/9hxDf1ndPUTT1ME7A>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성인 16 : 서울특별시에 여러 가지 구가 있듯이 여기는 군이라고 돼 있는데, 7군 푸미흥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 한인들이, 호치민에 교민 9만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절반은 여기 살지 않나. 그냥 다니다 보면요 한글 간판이예요 다. 베트남인지 한국에 있는 건지, 하루 세끼 다 한식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성인 17 : 싱가포르나 하노이 쪽은 주재원이 많은 상황이에요. 주재원이 많은 곳은 잠깐 왔다가 부모님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는데 우리 호치민 같은 경우는 정착형이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에 못 가본 애들도 많이 있어요.

채수홍(2019: 63)에 따르면 베트남 한인의 주요 구성원은 대기업과 공관에서 파견한 주재원, 노동집약적 공장의 관리인, 자영업자로 크게 구분된다. 하노이와 호치민 모두 주재원들이 다수 거주하지만 성인 17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보다 호치민에는 주재원 비율보다는 정착형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채수홍(2019: 63-64)은 베트남 한인사회가 대기업 및 공관 파견 주재원, 노동집약적 공장의 기술자나 관리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한인사회의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택, 편의 시설 이용 등 생활 여건 전반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1998년 7군 푸미흥에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되면서 자녀의 한국 대학 진학을 고려하거나, 국제학교의 학비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한국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여타 동남아 국가와 다르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국가이다(〈표 III-10〉 참조).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지금까지 주재원 사회로 불릴 만큼 한국 기업이나 공관에서 파견한 주재원들로 구성되었으나, 최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다른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거나 동남아 다른 국가나 타 국가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하거나, 글로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 그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김지훈, 2019a: 9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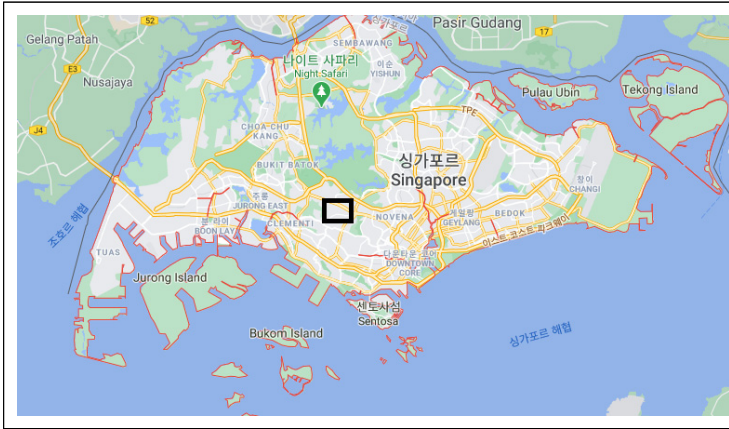


그림 VI-5 싱가포르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싱가포르, 출처: <https://goo.gl/maps/13pgcAEbhpCAKeMSA>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금융, 외환, IT 등 다국적 기업에 종사자나 한국 파견 주재원들은 자녀교육 지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인 7에 따르면 싱가포르 한인 자녀들이 주로 재학하는 학교 유형은 크게 4가지로 확인된다. 첫째, 고액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영국계와 미국계 국제학교, 둘째, 한국국제학교, 셋째, 싱가포르 현지인들이 재학하고 있는 국제학교, 넷째 일반 현지 공립학교이다. 이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도 다양하지만, 싱가포르 내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인종, 민족 구성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싱가포르 한인들은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국제학교가 위치한 부킷 티마(Bukit Timah) 인근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성인 7 :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유형이 국제학교 중에서 학비가 비싼 영국계, 미국계 학교가 있고, 그리고 한국국제학교가 있고요. 또 다른 국제학교의 유형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싱가포르 시티존이 많이 갈 수 있는 국제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학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 방침이나 지침이 더

많이 반영돼요. 그리고 로컬 학교, 싱가포르 공립학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12년을 다 여기서 공부한다고 봤을 때 비싼 학교를 보낼 건지 아니면 로컬 학교를 보낼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갈리고. 그래서 동남아 다른 나라들보다 애들이 훨씬 다양성이 많은 것 같아요.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한인들은 한국 기업 및 공관 업무, 자녀유학, 개인사업, 은퇴 이민을 위해 이주한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지만 실제로 말레이 민족을 위한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 민족 외에 말레이계 중국인, 말레이계 인도인도 존재하지만, 말레이시아 혈통만이 정부 관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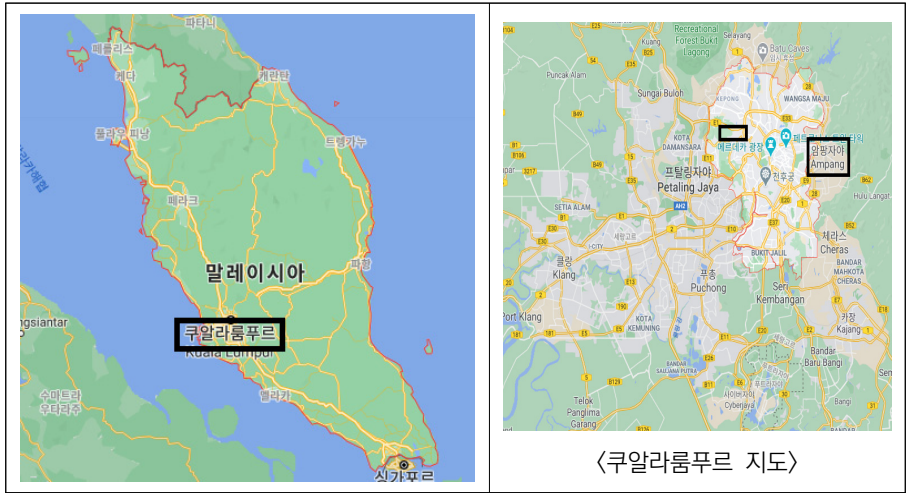


그림 VI-6 말레이시아 및 쿠알라룸푸르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말레이시아, <https://goo.gl/maps/DrkT1WzVGFFBS4w5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쿠알라룸푸르, <https://goo.gl/maps/yH4pzLwByJCWpRtC6>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말레이시아 역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유사하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인들은 대부분 일시체류자 신분으로 거주 중이다. 말레이시아 한인들은 쿠알라룸푸르와 인근 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 내에서는 과거 10년 전에는 암팡 지역에 한인이 다수 거주했다면, 최근에는 몽키아라 지역으로 한인 거주지가 이동하고 있다. 몽키아라에는 한인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명 국제학교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과거에는 암팡 한 곳을 중심으로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몽키아라 외에도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등으로 거주지 거점이 다양화되고 있기도 하다.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말레이시아 국민들 대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나 배타심이 없고 온화하고 친절하다. 성인 14에 따르면, 이슬람교의 영향도 있겠지만 수평적 관계,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등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성인 15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개인 사업을 성공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 역시 현지화 전략을 통한 기업 경영과 성공을 모색하는 편이다.

성인 14 : 말레이시아 민족들은 약간, 제가 20년 살면서 느낀 건데 이들은 아주 친절해요. 자기들의 알라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이들은 보면 높고 낮음의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라고 할까요? 알라 앞에선 너도 나도 동등해. 민족적 성향이 있어요. 언어 면에서도 다양해요.

성인 15 : 말레이시아가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환경상. 그리고 세금이라든가 법 관련해서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은 참 드물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대기업 삼성, 현대, LG, CJ 이런 대기업들이 와서는 대부분 현지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주재원, 개인사업자, 선교사들이 주를 이룬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가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교역을 활발하게 하는 동남아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크게 수마트라섬, 자바섬, 누사틍가라 군도, 깔리만탄섬(보르네오섬), 술라웨시섬, 말라꾸 군도, 이리안자야섬으로 구성되며, 동포들은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성인 1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다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달리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니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에 소재한 한국국제학교에서도 인니어를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그림 VI-7 인도네시아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인도네시아, <https://goo.gl/maps/j6K9Fp7MSXZbmbyV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성인 11 : 인도네시아는 다른 데 비해서 교육 때문에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 사업이라든가 주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아빠 직장 이동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중략) 저희가 완전 영어권은 아니고, 제3국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외국 국적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국가 6개 중 인도네시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가장 많기도 하다(〈표 Ⅲ-10〉 참조). 성인 1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등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중에는 현지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룬 경우들이 꽤 있고, 이들 자녀들이 한글학교에 재학하고 있기도 하다.

성인 10 : 인도네시아에서 살거나 사업을 하려면 외국 국적은 좀 힘들어요. 집을 사거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외국인이면 사업장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략) 제조업에 종사하시면서 현지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4)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교차문화 청소년으로서의 특성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에 있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외에 영어, 거주국 언어까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다문화적 관점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포청소년들은 거주국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는다(성인 3, 7, 13, 16).

성인 3 : 실제로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를 말씀 드리자면, WHO의 서태평양 본부도 마닐라에 위치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의외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교관이 라든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중략)

한국과 조금 다른 상황이, 실제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열려있다는 생각을 해요.

성인 7 : 여기(싱가포르) 공용어는 영어를 쓰지만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 하나 외국어로 더 배우는 게 중국어예요. 그래서 중국어 교육 환경이 잘 되어있다 보니 국제학교에서도 중국어를 제 2 외국어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한국 국제학교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으면서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까지 배울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리고 여기 나라 자체가 정말 다양한 인종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중략)

성인 13 : 장점이라고 하면 말레이시아가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민족 친구들을 학교에서 자유롭게 대하다 보니까 열린 사고가 있죠. 열린 사고여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또 언어도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곳이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이 나라 민족성을 닮아 가는지 아이들이 끈기,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럴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인 16 :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이걸 노력하면 아이들이 다 잘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거고, 여기 베트남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학생자치 활동이나 중고등학교에서도 모의 유엔 같은 동아리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현지 국제학교랑 교류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얻는 지식과 경험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동남아 국가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의 방식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적응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이고,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의사결정이 강조되며,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해 왔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을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청소년기를 동남아 국가에서 보냈던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면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이들의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오랜 기간 동남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거주해 본 경험으로 인해 글로벌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동남아 동포 성인들은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형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사회에서도 강한 소속감이나 뿌리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이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이들의 약점 또는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동포청소년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인 10, 7, 5).

성인 10 : 뭐랄까, 인도네시아 문화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의 정체성에 속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처음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 해요.

성인 7 : 약점은 한국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막상 애들이 여기서 12년을 자라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 애들하고 잘 융화가 될까 이것이 걱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말 사고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성인 5 : 제 큰 아들은 미국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지가 마지막까지 한국을 고집해서 한국으로 간 아이입니다. 대학 나오고 ROTC로 군대 제대하고 직장생활 2년째거든요. 아빠 내가 한국에서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게 8년을 산 결론이에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갈등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순간에 가서는 [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가 미국은 또 아니에요, 태국사람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 갈등을 큰 아이가 8년을 겪는 것을 보았고 둘째가 지금 6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요구상하고 아이들이 직접 겪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5)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성장 지원 방안

(1) 심리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한국에서 거주국으로 그리고 거주국 내에서 다양한 학교로 옮기면서 학업을 지속하는 동남아 청소년들은 어딘가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국제학교 학생들 중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국제학교 부설 한글학교를 다니는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반면, 그에 대한 상담 인력이 거주국 내에 많지 않다. 성인 16, 17은 상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동포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이나 전문 기관을 연계해 줌으로써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인 16 : 위기학생이 발생을 하면 누가 자살할 것 같다, 누가 크게 싸웠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한국어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40%가 한-베 가정이지 않아요. 베트남어가 훨씬 편한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학교 상담실에서는 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의 상담 건수가 있을 때 어떻게 더 큰 기관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가가 고민이거든요.

성인 17 : 우리 애들은 상담실이 있어서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니까 좀 나은 편인데,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상담 선생님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가 아니지만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2,000명 넘는 아이들을 두 분의 상담 선생님이 커버하기에는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중략) 우리 아이들이 부리가 들려 있고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한국 모국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미국, 중국, 유럽 등 여타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은 거주국의 시민권자로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적다. 반면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과 비교적 근접한 국가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다 초등학교 과정 중이거나 졸업 후에 거주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아서 한국 방문이나 모국연수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남아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중 일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지 않지만, 상당수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자주 한국방문을 하고 있지는 못했다. 또한 여타 대륙의 동포청소년들과 유사하게 거주국에서 한국 관련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성인 12에 따르면, 거주국 주민들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많은 반면, 동포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2 : 저희 학교(인도네시아 중국계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아이들 보면 한국 문화도 되게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한국에 가니까 언어나 어휘 면에서도 한국말은 잘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모르는 게 많아요. 만약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쪽에서 개최를 해주시거나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인들,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세종학당에서 자주 해서 많은데, 오히려 한국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가끔 있는데, 한국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것 빼고는 그런 거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진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간단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위한 모국연수는 참가 인원이 제한적인데다 대륙별로 인원이 할당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거주 동포청소년들의 경우 100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다(2019년 기준). 성인 15, 8은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포함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 모국연수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겨울을 경험한 적이 없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겨울 모국연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 14는 현재 동포청소년 모국연수 대상자가 중고생과 대학생으로 구분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국연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인 15 : 모국 동포연수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번밖에 안 하잖아요. 특히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은 눈 보기도 힘들고 하니 겨울에도...[하면 좋겠어요]

성인 8 :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선생님 전 태어나서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을 보는 게 소원이예요. 그래서 겨울에 맞춰서, 한국도 요즘 눈이 안 오긴 하지만 겨울에 가보고 싶다고 하고.

성인 14 :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한국 방문해서 코스를 밟게끔 하잖아요. 항공료 50% 지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청년층에 올라가면 조건이 대학에 다니고만 있어야 돼요. 대학에 다니거나 내지는 대학에서 오피 받은 학생만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는 코스인데. 안타까운 게 말레이시아에는 저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대학을 안 간 학생들도 많아요. 그냥 취업한 친구들도 그런 걸 느끼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은 전혀 기회조차 없는 게 아닌가...[싶더라고요].

(3) 현지 한국 관련 기관들의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협력

면담에 참여한 동남아 재외동포 성인들은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 교육을 실시할 때 각국에 파견된 공관 또는 거주국에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파견된 인력의 도움을 제공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성인 10에 따르면, 한국문화원 내 세종학당에서는 거주국 시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현지인에 국한될 뿐 동포청소년은

사업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다양한 기자재와 유능한 강사풀을 한글학교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유사하게, 성인 5 역시 KOICA에서 현지인들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해 파견한 한글교사들 역시 현지 한글학교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들이 비판하는 핵심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하면서도 재외국민을 위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거주국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은 이미 거주국에 파견되어 있는 세종학당 인력이나 KOICA 한글교육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사업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연계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인식하였다.

성인 10 : 저는 한국문화원에 있는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보면 한국을 알리기 위한 거는 참 많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많이 전파하고 보급하는 건 있는데, 한국 사람을 위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한국 선생님들이나 문화 같은 거, 약기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아이들도 한국의 역사나 문화,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현지인 애들은 거의 무료예요. 교육받는 게. 부채춤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을 무료로 배우는데, 정말 우리 한국 아이들도 와서 저런 거를 배우고 싶은데 대상이 다 현지인 대상이에요.

성인 5 : 지금 태국에는 태국사람들을 위한 KOICA 한글 파송 교사가 거의 8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파송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희들이 대사관과 이런 관계기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한 게 뭐냐 하면 KOICA 단위들을 한글학교에 파송해달라는 것이죠. 한 명 정도만 파송이 되어도 행정과 이 교사 학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태국사람들을 위해서는 공짜로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한국에서 월급을 주면서도 80명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포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걸 아이러니한 외교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 근접해 있고 대부분 재외국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자녀들에게도 한국문화나 역사 관련 지원이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 13, 성인 3에 따르면,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나 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각 국가별로 한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거주국 내 전체 한인을 위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긴 하지만,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주 드물게 거주국 내 한글학교협의회가 잘 조직되어 있는 경우, 거주국 내 동포청소년을 위한 캠프나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글 학교 종사자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봉사활동 성격으로 동포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 운영 외에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동남아 국가에서 출생했거나, 아주 어린 시기에 이주한 동포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관련 기관들이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체험이나 한국어 교육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 13 :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너무 없어서 그런 쪽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청소년 음악제라든가 청소년들이 한국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공유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게 한인사회의 힘으로는 좀 여건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 3 :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 운영을 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강사]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걸 필리피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사물놀이라든가 태권도나 이러한 고유의 것들은 한국분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강사 확보의 문제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4)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동포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대학이나 영미권 대학 등을 진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남아 현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주국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기업이나 유명한 직종에 대한 정보나 안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일부 한국국제학교에서는 현지의 한국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특강형, 강의형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 한국국제학교에서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인 6 : 여기는 사실 다른 주요 교과 선생님도 부족하다 보니까 진로교사라는 것은 생각해볼 수도 없고요. 전 진로교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다는 그런 지원들, 학생들의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빼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활동 비용들을 책정을 해 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휴를 맺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요즘에는 한국에서 사업비로도 많이 내려주잖아요. 그걸 다른 돈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이거는 진로와 관련된 걸 해라 라고 사업비로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내려주시든지...

성인 6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진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태국 현지 학교와 진로 관련 행사나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관련 비용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포청소년들 역시 현지에서의 진로전망이나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지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진로체험은 이들의 진로탐색과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포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위한 재정지원 또는 기존 진로사업에 한국국제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인 12는 현지 한국기업의 인턴 프로그램에 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강형, 강의형, 견학형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의 진로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동포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인 12 :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면 한국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많고, 그래서 인재를 키운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커넥션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업 차원에서 인재교육을 시킨다거나 꼭 인재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같이 기업 활동에 인턴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가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죠.

(5) 자문화 중심주의 극복,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앞서 언급했다시피, 동남아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중 일부는 거주국에 대한 종족적 우월 의식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동포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는 한인 집단거주지 형성을 통한 제한적 교류관계, 가정 내 현지인을 고용하는 구조, 국제학교 내에서의 백인 중심의 인종 차별 경험이 현지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거주국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동포청소년이 동남아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남아 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각국의 역사, 문화, 언어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지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인 18 : 현지인들과 유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양국 국민들 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문화중심주의나 민족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6) 한글학교 지원 : 교사 연수, 한국문화 용품 지원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한글학교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 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 국가의 한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성인 10과 같이, 한글학교 교사들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는 한글학교 교사 대상 연수 확대, 한글학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 용품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 하였다. 현재는 대륙별, 국가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어 많은 한글학교 교사들이 교사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성인 10은 한글학교별로 교사 1인 이상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연수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성인 10 : 재외동포재단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좀 더 많이 우리나라 전통문화, 활동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요. (중략) 제가 한글학교 하면서 교감을 하는데 실무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 교감 연수회 신청을 했는데 안됐어요.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서 제가 가서 배워서 선생님들한테 보급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에 또 저희 선생님이 한번 신청했는데 안됐어요. 워낙 신청하는 분이 많긴 한데. 그래서 최소한 한 학교에서 한 분은 교사 연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한국에 가서 교육받은 거를 못 간 선생님들에게 가르쳐서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들 연수회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한국 문화 용품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수급 받을 수 있는 거.

(7) 한국국제학교 교육과정 개선

성인 17은 현재 여러 국가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주국의 특성에 부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재외국민교육법)⁶³⁾ 제8조 2항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8조 1항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외한국학교가 한국국제학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주국의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학교 재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변경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에는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일부 변경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전체 교육과정의 몇 %를 자율적으로 변경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성인 17 : 저는 재외한국학교의 역할이 명확하게 글로네이컬(글로벌, 내셔널, 로컬)이라고 생각해요. 재외한국학교가 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지만 각국의 관계를 잇는 중요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곳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국에 국내학교들 제재하듯이 그런 잣대로 하다 보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법률에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8조 1항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고 8조 2항은 소재국의 특수성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8조 1항의 관점에서 국내 학교를 감사하듯이 하다

63)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0년 4월 20일 인출

보니까 한국학교가 아까 말한 글로벌 미래 인재를 키우는 그 포스트 역할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자율성을 줘서 진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현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마음껏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하기 어렵죠.

(8)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 : 동포청소년들의 활동 거점

현재 대부분 대륙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게 동남아 동포 청소년들 역시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인 동남아 6개국에는 모두 한국 국제학교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북쪽 하노이와 남쪽 호치민에 각 1개씩 2개의 한국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이 섬이 많고 국토가 넓은 경우 현재 1개씩 운영되고 있는 한국국제학교가 동포청소년들의 활동 거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국제학교가 소재한 지역에서만이라도 동포청소년들이 여가, 스포츠, 문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인 17은 한국국제학교 졸업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가 한국 국제학교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졸업생 네트워크는 한국국제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되, 동시에 현재 한국국제학교의 공간을 거주국 모든 동포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서술형 문항 조사 결과,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어 도서를 구하기 어렵다’, ‘한국문화를 접할 수 없다’, ‘놀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동포청소년들이 한국국제학교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 관련 도서를 읽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국제학교에 관련 활동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성인 17 : 네트워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한다면 그런 정도? 재외 아이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하는 것도 고민해본다면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게 한국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재외 한국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국에 나가 있는 재외 한국학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중략) 우리 아이들 우리 졸업생들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해서 이 아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 중에서 몇몇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사례들이 있으면 후배들하고 공유를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9) 한국 대학 진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특히 한국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또는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중 일부는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한국 교육과정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졸업생들이 한국대학에 진학하여 적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진학한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어의 제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대학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일부는 한국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영미권 대학으로 재진학 하거나, 또 다른 일부는 거주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일부 대학들은 재외국민 학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이 대다수이다.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문화와 조직 내 권위주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 3은 오랜 기간 해외 생활로 인해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문화와 가치관에 낯설게

반응하는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성인 3 : 한국 국제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로컬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으로 대학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봐요. 그런 학생들이 정형화된 대학교육에 지쳐서, 혹은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낙오자가 돼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중략) 특히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계속 다녔다가거나 혹은 로컬 학교를 다녀서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고 혹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 정부 신남방정책에 동남아 동포청소년 출신 인재 활용 방안 마련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동남아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성인들은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체감하고 있지는 못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거주국 현지인들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현지인들의 한류에 대한 반응이 뜨겁긴 하지만 거주국 내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정부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방식의 기회는 제공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성인 2는 거주국 내 우수한 동포청소년들이 한국과 영미 국가로 빠져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거주국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 1은 그러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한국에서가 아니라 거주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거주국 내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성인 4 역시 거주국 내 동포청소년들의 언어적, 문화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신남방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성인 2 :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있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그 국가를 배우고 그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지를 높이는, 또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중략) 필리핀에서도 사실 필리핀말 잘하고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는 2세들을 최고로 쳐주는 때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없고 사업도 없고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한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되니까...(중략) 지금 필리핀에는 가장 큰 자원 중의 하나가 선교사 자원인데, 선교사가 2,000 가정이 넘습니다. 2,000 가정에 자녀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눌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자녀들이 물론 영어를 잘하고 미국으로 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 우수한 인재들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는 것이 신남방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인 1 :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한국으로 불러와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훈련, 교육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양성프로그램 훈련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나라하고 연관성이 있는 일을 하고, 그 나라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하는 게 필요하다.]

성인 4 : 신남방정책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교민 2세, 3세들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면에서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탁월한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남방정책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자 하잖아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제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11) 다문화가정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동남아 6개국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면담조사 결과, 베트남 한국국제학교의 초등부 학생의 40%는 다문화가정 학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국제학교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다문화교육 관련 콘텐츠를 활용 가능하지만, 많은 한글학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들을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성인 10, 4는 거주국 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이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거주국과 한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사 연수 시 동남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별도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인 10 : 저는 사실 따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다문화 가정 공부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만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안타까워요. 좀 더 활성화되어서 다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거나 어떤 것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성인 4 : 저희(태국 한글학교)는 한국국제학교보다 다문화학생이 많죠. 많이 늘어났어요. 한 5년 사이에, 지금 유치부에는 3분의 1 정도가 다문화생이고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사이사이 다 다문화생들이 끼어있고 현재는 중등까지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보통 보면 아버지가 태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어머니가 태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하는데 두 분 다 생각이 이제는 한국어교육을 배우고 나중에는 한국을 가야 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후에는 이 아이들이 태국어와 한국어를 정확하게 유창하게 배워서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현재는 다문화생들을 위한 교육이나 한글교육 이런 게 약간 열악한 편이고요.

4. 소결

지금까지 동남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 내러티브 분석, 10대에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분석, 동남아 6개국 성인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질적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남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넓은 세계관과 유연한 사고, 유창한 언어능력을 갖게 되는 등 긍정적 특성을 보여준 반면 고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나태한 학습태도를 보이거나 적응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남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역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한국인으로 인식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일시 귀국하거나 한국인을 만났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형성하지는 못했으나, 스스로 제3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동포청소년의 가정은 한국어 사용을 독려하고 한글학교에 보내는 등 한국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이들의 친구관계는 한국국제학교/한글학교 vs. 국제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한국국제학교와 국제학교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어 국제학교로서의 특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어, 현지어, 영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국제학교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립 국가의 문화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학교생활 초기에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직장관 후원기관은 동포청소년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포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거주국 내 형성된 한인들의 집단거주지가 일정 부분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거주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특성이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남아 동포청소년은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등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현실적으로 거주국에서 진로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원 등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에게는 한국문화와 한인청소년들 간 교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들에게 거주국에서의 삶은 한국과 거주국 사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류의 확산으로 거주국인들이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중 일부는 거주국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한국의 경쟁적 입시문화나 사회문제로 인해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한편 동포 청소년들은 이주 초기 거주국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 부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거주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고, 거주국 현지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지어를 배우는 데 소극적인 경우도 많았다. 또한 동남아 국가와 동남아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일반 한국인들의 이해와 정보 부족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애사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부모의 직업 또는 유학 목적으로 동남아 6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 후 이들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자 사건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이들이 거주국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교류한 사람들은 한인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인들만의 제한된 교류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남아에서 현지인들 또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 교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이 현지어를 구사하거나 거주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거주국 사회와 현지인에 대한 부모의 관점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들에게 동남아 체류 경험은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고, 스스로 계획하고 생활하는 능력,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은 오랜 시간 거주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위계적, 서열적 조직문화와 인간관계에 낯설어 하고 정서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한국인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거주국 문화에도 영향을 받은 제3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연구자들은 동남아 거주 성인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동포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거주국의 특성과 거주 여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생태체계 중 가정, 학교, 또래관계는 이들의 한국과 거주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심리정서적 상태, 교차문화 청소년(또는 제3문화 청소년)으로서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 간 교류, 학교와 한인사회 또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부분적으로 활발한 반면, 가정과 한인 커뮤니티 또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거주국 내 한인회의 활성화 정도, 부모의 한인사회 및 현지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인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교차문화 청소년으로서의 특성은 Pollock와 동료들(2017)이 제시했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6개국 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부모 직업 외에 유학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고교 졸업 후 동포청소년들은 주로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만 영미권 대학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권 대학 진학자도 일부

있었다. 이들이 한국대학이나 영미권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은 현지 대학을 졸업 하더라도 현지에서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거나 거주국에서의 거주 여건의 열악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이들 동포청소년들을 향후 거주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학 졸업 후 현지 또는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동포청소년, 20대 청년, 성인 전문가들은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청소년들의 미래 진로개발과 문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한국역사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세계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거주국에서의 적응 및 거주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 지원, 한글학교 지원, 한국대학 진학 시 적응 지원을 희망하였다. 20대 청년들은 한국 입국 직후 거주지 지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교육,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동남아 체류 유경험자들을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성인전문가들은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한국 모국 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현지 한국관련 기관들의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자문화 중심주의 극복 및 현지인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한글 학교 지원, 한국국제학교 교육과정 개선, 한국국제학교의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 으로의 역할 강화, 한국 대학진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신남방정책에 동남아 동포청소년 출신 인재 활용 방안 마련, 다문화가정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 제7장 정책 제언

- 1.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절차
- 2.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정책 목표와 방향
-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 4.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

1.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절차

동남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 분석의 시사점에서 정책 과제(안) 도출, 학계 및 현장전문가 타당성 검토, 관련 정부 부처 검토,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등 크게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6개국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동남아시아 6개국 동포청소년, 동남아시아 6개국 청소년기 경험의 청년, 동남아시아 6개국 현장전문가 대상의 질적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정책과제(안)을 마련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재외동포전문가 및 동남아 관련 학과 교수, 전 동남아 한국국제학교 교장, 재외 공관 및 현지 한글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각 3차례에 걸쳐서 정책과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는 교육부,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의 정책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안대응 정도와 정책기여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정책과제를 확정하였다.

64) 이 장의 1, 2, 4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숙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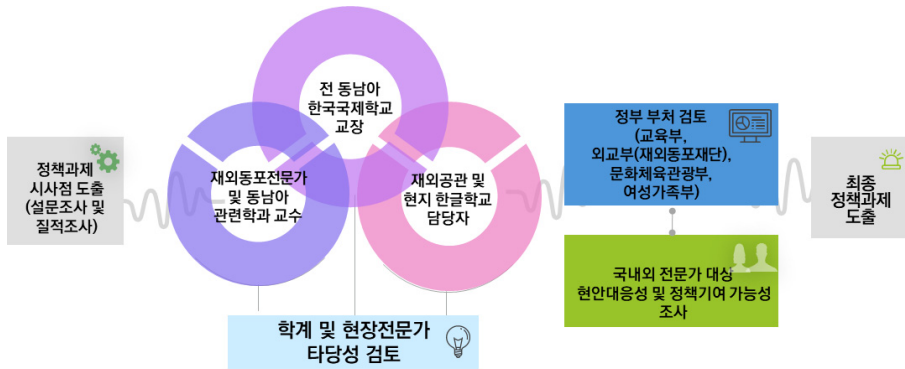


그림 Ⅶ-1 동남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절차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한 정책과제의 시사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Ⅶ-1 주요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 결과와 시사점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설문조사	- 거주국에서 오래 살수록, 그리고 한국국제학교 학생들보다 현지 또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이외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 문화체험 기회 제공 -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 이중 정체성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 동남아 환경의 특수성으로 일탈의 위험성이 높음.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비해서 거주국 언어 구사능력이나 거주국 문화 이해 수준이 낮아 거주국에서의 적응이나 진로에 어려움 예상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회 제공 - 학업, 직업 등과 관련하여 동남아 국가의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거주국에 대한 인식이 낮음.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를 감안해서 거주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동남아 국가별로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수업의 개설에 큰 차이를 보임. →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남아 각 국가에서 정규 학교에 한국어수업 확대 노력 •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며,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 교류 프로그램 참여 등의 욕구는 높으나 기회가 적음. 특히, 현지학교,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기회가 매우 적음. →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동계 청소년캠프,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 필요 •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언어소통, 공공 / 교육시설 부족, 한국 문화역사교육 기회 등의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지원, 한국 물품 지원, 한국 문화역사 체험 기회 제공 •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성별, 학교급, 학교유형, 거주이유, 나의 정체성, 한인 친구 교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한국어에 대한 관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2(약점) 변인들의 영향력이 확인됨. → 한국인 친구들과의 교류의 활성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 교차문화청소년의 긍정적 특성(확장된 세계관, 다문화 수용성 등)의 확대와 부정적 특성(고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깊이 있는 관계 형성 부족 등)의 축소 노력 필요 • 한국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영향 요인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성별, 나의 정체성, 한국문화 교류 경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2(약점), 거주국언어 관심 및 학습욕구, 거주국문화 이해 및 수용, 한민족정체성 변인 등의 영향력이 확인됨. → 한국 관련 참여 의욕을 높이고 교차문화청소년의 긍정적 특성을 위한 노력, 특히 국제학교 학생과 현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교차문화청소년의 부정적 특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질적 조사 (청소년 면담)	• 동남아 국가에서는 진로를 위한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진로 정보를 얻거나 진로체험 기회를 갖기가 좀처럼 쉽지 않음. → 한국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거주국이나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제작·보급 필요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한국학교나 한글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한국문화 체험 기회 부족 →한국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동포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의 또래 동포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음. →한국이나 제3국에서 개최되는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거주국으로의 이주 초기에 친구들 간의 따돌림이 종종 발생함. →거주국 적응을 위해서 거주국의 언어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원 필요 • 한글학교의 경우에 시설, 교재의 수급, 학습시간과 학습내용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시설 임차 지원, 교재 수급시기의 조정, 커리큘럼의 개선 등이 필요 • 한국 대학 진학 시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의 문제 발생으로 염려 →한국 대학 진학 시 사전에 한국문화 적응 지원 필요
질적 조사 (청년 생애사)	•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 입국해 대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거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전 안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 입국 거주지 지원 • 동남아 국가의 사고방식, 문화, 태도, 가치관이 몸에 밴 채 한국에 입국한 청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 다소 경직되고 위계적인 한국문화 수용의 어려움이 있음. →한국 입국 직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한국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대학 입학 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 제공 • 오랜 기간 외국에서 거주했던 청소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큼. →한국에서 재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제공 •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희망 →한인 우수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질적 조사 (성인 전문가)	• 국가 간에, 지역 간에 다양한 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상담 인력 부족 →심리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필요
	•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체험 욕구에 비해서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 →모국 연수 기회의 확대, 특히, 모국 연수에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마련
	•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각국에 파견된 공관 또는 거주국에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파견된 인력의 도움을 제공받을 수 없음.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관련 기관들이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체험이나 한국어 교육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구축 필요
	• 진로체험 기회 부족.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진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태국 현지학교와 진로 관련 행사나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관련 비용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동포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위한 재정지원 또는 기존 진로사업에 한국국제학교가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기타 현지 한국기업의 인턴프로그램에 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고려
	• 동포들 중 거주국에 대한 종족적 우월 의식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태도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거주국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차별로 이어지고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현지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 실시
	• 대부분의 동남아 한글학교는 인적·물적 자원에서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음. →한글학교 교사 대상 연수 확대와 한글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화 용품 지원 확대 • 한국국제학교가 한국과 거주국과의 관계를 잇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한국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주국의 특성에 부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지침 개선 필요 • 동포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부재 →한국국제학교가 소재한 지역에서 한국국제학교가 동포청소년들의 여가·스포츠·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 필요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한국어의 제약과 문화적 차이로 한국 대학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 필요 • 신남방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거주국 내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정부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방식의 기회가 제공하고 있지 못함.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언어적, 문화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 필요 • 동남아 학생의 상당수가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구성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은 부족 →한글학교 교사 대상의 연수 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관련 콘텐츠를 한글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여 7개 영역, 28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전문가 검토 및 정부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8개 영역,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Ⅶ-2 정책 과제의 도출 및 수정

시사점으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		전문가 자문 및 정부부처 검토 후 수정된 정책 과제	
정체성 형성 및 문화 체험 지원	제3문화적(교차문화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및 진로 지원	⇒	- 정체성과 한국 문화 이해 지원 - 교차문화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 거주국사회 내 한국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한국문화 지원 확대 - 지자체 및 NGO 단체별 한국 역사 문화 탐방프로그램 확대
	거주국 이해 및 적응을 위한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시설 설치		거주국
	거주국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거주국사회에서의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거주국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아세안-한인동포청소년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한글 학교 개선	한국 역사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교재 개발 지원	⇒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한국 전통문화활동 기자재 및 강사 지원		한국문화체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
	한글학교 교사 연수 기회 확대		한글학교 교사의 모국연수 기회 확대
	코이카(KOICA)를 통한 한국학교 교사인력 지원		한글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 사업 발굴·운영 지원
	동남아 한글학교 동포청소년 캠프 지원		
	다문화가정 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한국 국제 학교 개선	한국국제학교에 진로사업비 지원을 통한 진로체험기회 확대	⇒	- 한국 국제학교 진로 지원 및 역할 강화 -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배치 등의 지원 -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으로서의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 -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거주국 한국 기관과 한국국제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활동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시사점으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		전문가 자문 및 정부부처 검토 후 수정된 정책 과제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개선	• 현지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 확대	⇒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동포 청소년 지원	• 현지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한국어수업 확대
	• 동남아 한인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 가정학습용 한글교육 보조교재 정보 제공
	• 한국 및 거주국 내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기회 제공
청소년 캠프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단체를 통한 다양한 세계적인 청소년 캠프 개발 운영	⇒ 동남아 동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 동남아 동포기관 주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지원
	•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계 청소년교류프로그램 운영		•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계 청소년캠프 개최
	• 세계 및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청소년단체를 활용한 세계 및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진로 및 취업 지원	• 방학 중 한국 방문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 동남아 동포 청소년을 위한 진로 취업 지원	• 방학 중 한국 방문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 한국대학 진학 예정자를 위한 예비 학교 운영		•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동남아 동포청소년 대상의 동남아 지역 진로 정보 제공		•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주거시설
	• 동남아 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		•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거주국 내 예비학교 운영
	• 동남아 진출 기업 및 기관의 한인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남아 지역 진로 정보 제공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 문화개선	• 동남아 동포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 문화개선	• 동남아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한국과 동남아 국가 교과서에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한 내용 추가		• 한국 및 동남아국가 간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한 교류기회 제공
	• 동남아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지원		•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전문가 자문 위원회 운영

2.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의 정책 목표와 방향

1) 정책 목표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이들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적 특성이 강한 청소년, 거주국 특성이 강한 청소년, 한국과 거주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교차문화적(제3문화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 등에 대해서 그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려서 진로를 개척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역사와 문화 등 보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서 성장하여 향후 한국과 거주국, 그리고 제3국의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서 동포청소년들의 성장은 물론 동포사회,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한국과 거주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다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책목표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국과 거주국, 그리고 제3국에서도 한인의 후예로서 자신은 물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책 방향

이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정책 대상은 동남아 지역의 특성상 주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상당수의 재외국민 학생들이 국제학교, 현지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해서 이들 학생들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한국 정부의 정책은 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학교와 현지학교 재학생들과 한글학교 지원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정책 내용은 동포청소년의 성장 환경의 조성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과 체험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정책의 범위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가정과 학교, 한글학교, 그리고 거주국 동포사회, 거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및 세계 동포사회까지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추진은 교육부와 외교부(재외동포재단)를 중심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책방향	1. 재외국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재외한국학교 재학생 이외에 국제학교 재학생과 현지학교 재학생을 포괄한다. 2. 성장 환경 조성과 한국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과 체험활동을 포함한다. 3. 재외동포청소년의 가정과 학교, 한글학교, 그리고 거주국 동포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및 세계 동포사회까지를 포괄한다. 4. 교육부와 외교부(재외동포재단)를 중심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	--

3.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이 연구에서는 설문 및 질적조사 결과 분석과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통대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8개 정책과제 영역, 3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1	동포청소년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	------------------------------------

1-1.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에게서 교차문화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교차문화적 특성에는 다문화 수용성, 적응 유연성 등의 장점과 함께 고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부족, 관계 형성 부족 등의 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포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장점보다 단점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체성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수경의 연구(2017: 148)에서도 제3문화 아이들이 자아정체성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주 경험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화가 교차되는 경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나. 주요 내용

정체성 교육은 한글학교, 한국국제학교, 한인회, 한인종교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한국국제학교 등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한국국제학교와 한글학교가 중심으로 운영하되 한인회, 문화교류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제학교, 현지학교 재학들에게 특화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온라인 연수 수료 시에 세계시민증 발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은 교차문화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중정체성, 다중정체성 등의 다양한 정체성의 양상, 교차문화 청소년의 장·단점, 교차문화 환경에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포청소년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나 같은 세대의 청소년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거나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서로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상호 간에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차문화 청소년으로서 향후 학업이나 취업 등의 진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정보 공유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들에 의해서 동포청소년들의 제3문화적 정체성 인식을 위한 특강을 함과 동시에 동포청소년들 간에 소규모 집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제3문화 아이들’과 관련한 도서나 자료를 읽게 하여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	프로그램	교육내용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한인회, 한인종교기관, 교류협회 등	- 온오프라인 정체성 이해 프로그램 운영 - 한국국제학교와 한글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교육 실시	제3문화 정체성 이해, 선·후배 소집단활동 등을 통한 사례 공유
재외동포재단	온라인 특강	정체성 이해 교육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교육부에서 한국국제학교에 관련 교육비를 지원하여 한국국제학교 학생과 지역 내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글학교나 한글학교협의회에 교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부나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한인회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국가별 정책과제	• 베트남 : 한-베 문화교류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실시
----------	-------------------------------------

1-2. 거주국 내 한국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한국문화 지원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최근에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거주국에 설치한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 중에는 동포청소년들의 진로나 활동에 도움을 줄만한 기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들은 자신의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한국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원이나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문화나 한국어 보급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세계 27국에 32개, 아시아에는 8개국에 11개가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이 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싱가포르에는 문화홍보관이 있으나 말레이시아에는 한국문화원이나

문화홍보관이 없다. 한국문화원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표 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주국 청소년들과 함께 한인 자녀, 유학생들을 포함하는 문화행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⁶⁵⁾. 또한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으로서 세계 세종학당에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세종학당은 76국에 213개소가 있으며, 아시아에는 114개소로 53.5%가 설치되어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15개소, 인도 7개소, 인도네시아 6개소, 태국 5개소, 필리핀 5개소, 말레이시아 2개소 등이 있다.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에 설치한 세종학당, 한국 대학, 현지 대학, 그리고 한국 대학과 현지 대학이 연계하여 설치한 세종학당, 한국 지자체가 설립한 세종학당, 교육센터나 훈련원 등에서 설치한 세종학당 등이 있어서 기관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⁶⁶⁾ 동포대상의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관들은 한국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동포청소년들을 사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서 오히려 동포청소년들은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거주국의 지방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크다고 한다. 동포들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인회의 경우에도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거나 주요한 활동에 동포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흔하지 않다.

나. 주요내용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역사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6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kocclIntro.do>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66)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사업마당,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국제학교나 한글학교를 통한 개별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거주국 내 한국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문화원이나 세종학당 등의 기관에서 한국국제학교나 한글학교와 협력해서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인회 등의 한인단체에서도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인 동포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거주국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기업과도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행사나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운영주체	역할
한국국제학교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육원, 한인회	동포청소년 대상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원	- 동포청소년 대상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국제학교 또는 한글학교에 문화활동 콘텐츠, 기자재 및 강사 지원
세종학당	- 동포청소년 대상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국제학교 또는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육자료 및 강사 지원
거주국 내 한국기업	- 동포청소년 대상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국제학교 또는 한글학교에 교육 예산 지원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등에서는 사업 목적 상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포청소년들은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일부 현지인과의 교류활동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기관의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동포청소년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업 범위 내에서 동포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고, 중장기

적으로 기관의 사업의 범위를 동포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동포청소년 대상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로도 그 특성을 살려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 내에 자율적 학습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어 학습 등을 위해 강사나 학습자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정책과제	• 싱가포르 : 다국적 기업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실 운영
-----------------	--

1-3. 지자체 및 NGO 단체별 한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포청소년 모국 초청 연수 이외에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동포청소년 모국 초청 연수의 경우에도 참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사회봉사단체, 청소년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국에 초청하여 지역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해서 학교단위로 혹은 동남아 지역 학교가 연합하여 한국 역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NGO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 예술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2018년 전통문화 연구개발 및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2018년 7월 중에 10개국의 10~16세 동포청소년 34명을 대상으로 10일간 한국어교육, 한옥체험, 전통놀이체험, 사물놀이, 부채춤, 소고춤, 탈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8월 중에는 10개국 한글학교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전문가 특강, 사물놀이, 부채춤 중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주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등의 활동을 운영한 바 있다⁶⁷⁾.

운영주체	프로그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 한국지역문화체험프로그램	• 지역 전통문화 체험,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
NGO단체 (사회봉사 및 문화예술 등)	• 한국예술문화체험프로그램	• 문화, 예술 등 단체 특성별 한국문화예술 체험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관련 NGO단체의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포상 제공, 지자체 평가 시 가산점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정은주, 김정숙, 2018: 227).

67) 한국전통문화전당. 2018사업(전통문화연구개발(R&D) 및 콘텐츠 개발,
http://www.ktcc.or.kr/2020/inner.php?sMenu=2018_2320에서 2020. 11. 23 인출

2-1. 거주국사회에서의 문화 적응을 위한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세계 여러 나라를 이주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 학교나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고 문화 적응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보일 수 있다(이수경, 오인수, 2015: 210). 본 연구에서도 일부 동포청소년들은 새롭게 이주한 학교에서 학습과 친구관계 등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은 한국에서보다도 쉽게 약물이나 마약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문화 적응에서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자칫 비행과도 연결될 가능성도 큰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포청소년들의 문화 적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상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없다.

나. 주요내용

다른 국가로의 이주로 학교 적응에서의 어려움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의 특성상 온라인 상담 또는 온-오프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야 하며, 거주국 경험이 있는 청년이나 대학생, 그리고 또래청소년들을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이수경, 오인수, 2015: 210). 한국의 청소년상담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청

소년 대상 카카오톡(보이스톡) 상담 등을 확대해야 한다. 베트남과 같이 현지 교민 중에서 상담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한인회와 연계한 청소년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언어 및 문화 적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전문가와의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상담 관련 학회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상담 및 문화 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운영주체	프로그램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상담 관련 학회	• 온·오프라인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 문화 적응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상담, 토레 멘토 운영 등
한인회(베트남 등)	• 청소년상담프로그램 운영	• 교민 전문가 활용 청소년상담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청소년상담 관련 학회가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청소년상담 관련 학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온·오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2-2. 거주국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를 통해서 거주국 언어와 문화의 이해는 동포청소년들이 현지에서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한국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동포청소년들은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서 오히려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역할 의식이 높아질 수 있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거주국 문화 이해 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모들의 거주국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청소년들의 거주국 언어나 문화 이해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들의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의 재정립 등에 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한인회 주최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대사관 주관으로 학부모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별로 한국국제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거주국 언어나 문화 학습에 차이가 있지만, 거주국과의 상생과 한민족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에 학생들에게 거주국 언어 및 문화 학습을 위한 시간 배정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 교육원에서 현재는 현지인 위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주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운영주체	프로그램	주요내용
한인회 또는 대사관	• 학부모교실	• 거주국 문화 이해 교육
한국국제학교	• 교과시간 배정(특별프로그램)	• 거주국언어 및 문화 이해 교육
한국교육원	• 거주국문화교실	• 거주국 문화 이해 교육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거주국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거주국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학부모교실은 한인회나 대사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한국국제학교에서 거주국 언어나 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 상황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의 개선을 통하여 교과시간을 보다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원에서도 기존의 사업 이외에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국 문화 이해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2-3. 아세안-한인동포청소년 상호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사람 공동체, 평화 공동체, 상생 번영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문화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공동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동남아 국가에서의 거주 경험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동남아 국가의 동포청소년들은 동남아 국가에서의 거주 경험에서 얻어지는 강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인들끼리만 어울리고 거주국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데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살고 있지만 거주국의 문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과 거주국의 양국에서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향후 동남아 국가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과 거주국을 연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주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나. 주요내용

동포청소년과 거주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 국제학교, 한글학교 등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과 거주국 청소년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활동을 기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문화 축제, 언어나 문화체험 행사 등에서부터 아시아지역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 등을 발굴·운영한다. 필요하다면 한국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운영주체	프로그램	주요내용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한글학교)	• 양국 문화교류 축제 (문화어울마당)	• 각종 문화체험 행사 (춤, 노래, 공연, 음식체험 등)
	• 청소년기획사업	• 청소년기자단 운영, 공동프로젝트 기획, 청소년토론대회 운영 등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거주국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 축제 등에서 일부의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 평가 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켜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된 의미 있는 축제가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획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유사 사례

현재 동남아 각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에서는 동포청소년과 거주국 청소년들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청소년기자단 운영, 문화교류 축제, 거주국어 말하기 대회, 토론대회 등의 행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주태국 한국교육원에서도 양국의 교류프로그램인 문화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주베트남한국문화원에서는 하노이한국국제학교와 국립하노이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로 구성된 한-베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하여 한-베 양국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⁶⁸⁾,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에서도 2019년 한-필수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필리핀 양국 참가자들이 노래와 댄스 공연, 패션쇼 등을 하는 ‘한-필 문화교류 축제’⁶⁹⁾, 현지 적응을 위한 ‘한국인을 위한 필리핀어 말하기 대회’⁷⁰⁾ 등의 행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동남아 각국의

68)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활동(베트남), <http://www.kocis.go.kr/kocc/list.do?langCode=lang001&ctrancode=CTR0005&searchType=menu0023&searchText=&page=1>에서 2020년 10월 1일 인출

69)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70 YEARS & BEYOND, ‘2019 한-필 문화교류축제’ 성료, <http://www.kocis.go.kr/kocc/view.do?seq=1033663&page=2&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menu0023&searchText=&RN=&ctrancode=CTR0035>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7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필 수교 70주년 기념 ‘한국인을 위한 필리핀어 말하기대회 개최’, <http://www.kocis.go.kr/kocc/view.do?seq=1013510&page=2&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menu0023&searchText=&RN=&ctrancode=CTR0035>에서 2020년

한국문화원에서는 한-아세안 차세대 리더들의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서 2020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⁷¹⁾. 주태국한국교육원과 방콕한국국제 학교에서도 한국과 태국의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해서 재 태국 한국청소년과 태국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인 한국-태국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실시하여 태국 현지학교 학생, 국제학교 학생, 한국국제학교 학생 100여명이 사물놀이 체험, 태국 전통춤 체험, 한태 음식 체험, K-Pop공연 등을 한 바 있다⁷²⁾.



그림 VII-2 한-베 청소년기자단⁷³⁾

그림 VII-3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⁷⁴⁾

10월 16일 인출

- 71) 필리핀 한국문화원. 공지사항. 2020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 모집 안내, <http://phil.korean-culture.org/ko/671/board/25/read/104592>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 72) 모바일 한아시아닷컴. '한국-태국 청소년 어울림 마당' 참석 신청 안내(11/14~11/23), <http://www.hanasia.com/thai/mobile/view/271820/b>에서 2020년 10월 20일 인출
- 7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활동(베트남), <http://www.kocis.go.kr/kocc/list.do?langCode=lang001&ctrCode=CTR0005&searchType=menu0023&searchText=&page=1>에서 2020년 10월 15일 인출
- 74) 필리핀 한국문화원. 2020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 모집 안내, <http://phil.korean-culture.org/ko/671/board/25/read/104592>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3-1.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글학교 교사나 학생들은 현재 한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과서가 제 때에 전달되지 않아서 한글학교 학생들이 시기에 맞게 교재를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글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이나 수업 내용도 시간적 제약 등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글학교 교재 수급과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한글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글학교 교재가 적절한 시기에 보급되도록 해야 하며, 한글학교 커리큘럼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 교재의 보급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국에서 각 국가별로 교재가 배포된 이후에 재차 지역별로 배분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의 경우에 늦어지는 현상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학교, 지역이나 권역 단위로 직접 발송하는 방안이나 교재 제작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그리고 교재 파일을 제공하여 현지에서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글학교협의회 등에서 제작된 지역 커리큘럼 중에서 검증된 내용을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아넷(study.korean.net)에 별도 메뉴를 만들어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글학교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거주국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한글학교 간에 혹은 거주국 내 한글학교협의회, 동남아 한글학교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통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교육부	한국어 교재 배포 시기 및 방법 조정
동남아(거주국)한글학교 협의회	거주국 특성에 맞는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재외동포재단	스터디코리아넷(study.korean.net)에 검증된 한글학교 커리큘럼 메뉴 추가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주국 내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 또는 거주국 한글학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재개발이나 커리큘럼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2. 한국문화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글학교에 다니는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체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이며, 한글학교에서는 주로 사물놀이나 민속놀이 등을 한국문화체험활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997년부터 재외동포재단에서 모국 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한인회, 재외한글학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물놀이, 민속놀이용품, 전통 의복, 부채춤 도구 등 전통문화 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조사결과 한글학교 현장에는 전통문화물품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강사도 부족하여 한국전통문화활동에 대한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학교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관련 물품이나 전문 강사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나.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에서 전통문화 용품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물놀이(뿃과리, 장구, 북, 징, 의상), 민속놀이용품(제기, 팽이, 윷놀이), 전통 의복, 부채춤 도구 등은 2016년도에는 35개국 60개 공관, 182개 단체에 182건, 2019년도에는 75개 단체에 879개로⁷⁵⁾(재외동포재단, 2017: 153)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국가별로 볼 때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물품의 수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한글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한글학교 간에 혹은 한국국제학교나 예술단체 등과 협조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글학교 중에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공급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물놀이나 민속놀이 등의 전통문화체험 이외에 근현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한다.

강사의 경우에는 국내·외 교사 연수 시에 지도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 강사 파견 사업에 현행 교수나 교사 중심의 강사 이외에 전통문화활동 전문 강사를 포함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강사의 파견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교육원이나 한국문화원의 교사가 순회지도하거나 연수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

75) 재외동포재단 사업실명제. 2020-16 문화사업, http://www.okf.or.kr/homepage/info/real_name_business.do?mode=view&articleNo=4271758&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2020년 10월 12일 인출

문화원과 한국교육원 중심으로 현지 한국인 강사를 양성하여 한국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한글학교, 한국국제학교, 예술단체	• 전통문화활동 물품 공동 이용 또는 거점시설 운영
재외동포재단	• 전통문화활동 물품 확대 • 전문 강사 파견 사업에 전통문화활동 전문강사 포함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 한국문화활동 콘텐츠 제공 및 한글학교 순회 지도, 지역사회 내 한국인 강사 발굴·지원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효과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등 거주국 내 한국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거주국 내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중심으로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나 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활동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3. 한글학교 교사의 모국 연수 기회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글학교 교장·교사 초청 연수, 한글학교교사 현지 연수 지원,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장·교사 초청 연수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을 한국에 초청하여 7박 8일간의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도에는 한글학교 교사의 경우에 44개국에서 159명을 초청하여 연수하였

으며, 한글학교 교장은 29개국에서 64명을 초청하여 연수하였다. 한글학교교사 현지 연수 지원은 한글학교협의회 주관으로 현지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5개국에 57개 교사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현지 한글학교 연합연수에 24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 35명을 선발하여 경희사이버대 등 6개 사이버대학의 학위 취득과정을 지원하였다⁷⁶⁾. 매년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 인원은 확대되고 있는 편이나 전 세계 한글학교 교원 수 15,971명의 약 1.3%(223명)이 국내 초청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교사 연수 지원도 25개 국가에 머물러 있고 강사 파견도 매우 미흡하여⁷⁷⁾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수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 실제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어서 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한된 예산을 통해서만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연수 참여를 원하는 교사들에게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국내 기업이나 해외 동포기업 등 민간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수의 시기나 형태도 대륙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름과 겨울, 그리고 단기와 중장기 등의 다양한 연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다양한 사이버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76) 재외동포재단 사업실명제. 2020-02 한글학교 교사 육성, http://www.okf.or.kr/homepage/info/real_name_business.do?mode=view&articleNo=4271744&article.offset=10&articleLimit=10에서 2020년 10월 8일 인출

77) 교육부 (2019).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mobile/publ/publFile?survSeq=2019&menuSeq=3894&publSeq=2&menuCd=80897&menuId=1_26_2&itemCode=02#detail에서 2020년 1월 29일 인출

한국인 정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한국국제학교 부설 한글학교보다는 소규모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국 연수의 효과를 거주국에서 확산하기 위하여 모국 연수를 경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학습공동체의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	• 재원의 다양화 및 참가자 비용 부담 등을 통한 연수 확대, • 시기별, 대륙별, 사이버, 소규모 학교 연수 등 확대 • 모국연수 경험 교사 중심의 학습공동체 지원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대륙별로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하여 연수 형태나 시기, 참가 규모 등을 확인·조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연수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 교사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3-4. 한글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사업(캠프) 발굴·운영 지원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 지역의 한글학교도 다른 대륙의 한글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 내 한글 학교협의회와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가 있어서 매년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나 독후감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의회 사업은 주로 교사 연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포청소년 대상의 행사는 다소 정적인 측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활동적인 사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역사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 사업이나

자원이 부족한 한글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글학교협의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주요내용

동남아 각 국가 내 한글학교협의회나 국가 간 협의체인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를 통하여 개별 한글학교에서 부족한 한국역사문화 체험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동포청소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동포청소년 간 캠프를 한국에서 초청하는 캠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 캠프를 거주국의 여건을 고려해서 거주국 내 지역 단위, 국가 단위, 아시아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재외 동포재단 등에서도 거주국 내 동포청소년들의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단위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캠프에 소요되는 비용은 캠프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를 재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국 내에서 한글학교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한글학교 간의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를 동포사회에 홍보해야 한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지역 및 국가별 한글학교협의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지역별 동포청소년캠프, 국가별 동포청소년캠프, 아시아연합 동포 청소년캠프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국가별, 지역별 한글학교나 한글학교협의회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 동포 청소년캠프 또는 국가별 동포청소년캠프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캠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지역이나 국가 동포청소년캠프에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서 확산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캠프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성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나 국가의 캠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캠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

정책과제 4

한국국제학교의 진로 지원 및 역할 강화

4-1.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주로 한국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로에 대한 정보를 대체로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도 부족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내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진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여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의 한국국제학교에서는 그러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거나 진로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 주요내용

교육부에서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개발을 위해서 한국국제학교에 진로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국제학교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진로 행사나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거주국에 특성화된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필리핀한국국제학교에서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거주국 현지에서 직업군별로 멘토제를 운영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대사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진로체험 학습장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로체험학습장에는 한국과 거주국 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한국국제학교	• 진로사업비 편성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개발·운영 •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멘토링 운영
거주국 한국대사관	• 진로체험 학습장 구축·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커리어넷의 진로프로그램 연계·활용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교육부에서의 진로사업비 지원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서 성과를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온라인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한국 내 진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거주국 내 직업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위해서 대사관에서 거주국 당국과 거주국 진출 한국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4-2.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 등의 지원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국제 학교 교사들의 진로진학상담 역량도 충분치 않아서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동남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결과에서는 한국에서의 학교폭력의 문제가 동남아의 한국국제학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 등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어나 기타 언어가 우수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제학과 등의 전공에 대한 안내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방학 때 상담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에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진로에 관한 사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도록 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사전에 예방하여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진로전문교사를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한국국제학교(교육부)	• 단기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학진학 등 진로 정보 확대 • 중장기 : 진로전문교사 배치 확대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국정부나 대사관에서는 한국 및 거주국의 진로 관련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진로정보를 공유·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4-3. 동포청소년의 활동 거점기관으로서의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으나 거주국에서의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 공간, 지도인력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대륙과 비교해서도 학교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큰 비용을 들여서 활동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나 공간,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나. 주요내용

한국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한계는 있으나 시설과 공간, 인력 등을 갖추고 있고 동남아 6개국에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한 동포청소년 활동 운영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국제학교를 동포청소년들에게 개방하여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특히, 한국국제학교가 가지고 있는 한국 도서나 전통 악기, 전통놀이도구, 전통의상 등을 이용한 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글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제학교와 공동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

그럼을 개발·운영하고, 한인회 등에서 청소년 연합 동아리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한국국제학교 내에 재외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교육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센터에서 관련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한국국제학교(교육부)	• 학교 내 재외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및 예산 지원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과감한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부, 외교부(재외동포재단) 등 관련 부처와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한인회 등 거주국 내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문화원이 없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학교에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한국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별 정책과제	주요내용
국가별 정책과제	• 싱가포르 :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한국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부여

4-4.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과 거주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외한국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률과 교육부 지침에서는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2항)에서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해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⁷⁸⁾ 또한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⁷⁹⁾에서도 “소재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재외한국학교의 교육적 요구와 특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의 일부 변경의 범위가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미숙, 이수정, 신향수, 장근주(2017)의 연구에서도 재외한국학교 초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사항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 교과시수를 순증할 경우에 그 범위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0% 범위 안에서 순증할 수 있도록 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덕과의 의무 편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 동남아 한국학교 교장들과의 인터뷰에서도

78)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lnqyDet1010.do>에서 2020. 4. 20 인출

79) 교육부. 2016년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6315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s=moe&m=0309&opType=N>에서 2020. 11. 12 인출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서 현지에서 동남아 거주국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

나. 주요내용

재외한국학교가 학생들을 대한민국과 거주국 사이를 연결하고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재외한국학교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여 거주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전·현직 재외한국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별 교과와 시간 배당 기준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륙별, 국가별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주체	주요내용
교육부	• 재외 한국학교 교장 및 교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수정

이미숙, 신향수, 장근주, 이수정(2016)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 변경사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 변경 사항(예시)	추진전략
• 특정 교과 중심의 증배 상선 규정 개선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다양한 교과 교육 및 교과 외 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방향으로 수정 •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실시하는 현장체험 학습 등의 수업시수 산정 기준의 현실화	• 세부 지침 수정안에 대한 교육부 해당 부서 차원의 검토 및 협의 • 재외한국학교 기관장을 통한 의견 수렴 실시 • 교육부 내 행정 절차를 통한 재외 한국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수정 • 재외 한국학교에 공문 시행 안내 • 재외 교육기관 정보 서비스에 재외한국 학교 교육과정 운영편성 지침 메뉴 신설 및 탑재 •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질 관리

* 출처 : 이미숙 외 (2016).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방안 (p. 176).에서 인출하여 부분 수정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도 미래에 한국으로 돌아와 삶을 살아갈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거주국이나 제3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학생들이 있어서 모든 국가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거주국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지원해야 한다.

5-1. 현지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한국어수업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 중 일부는 해당 국가에 설치된 한국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다수의 동포청소년들은 현지학교나 다양한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다양한 언어와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역사를 학습하고 관련 내용을 체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영미권 대학이나 현지 대학을 진학하지만, 또 다수는 한국대학을 진학한다. 때문에 이들이 원할 경우 현지학교나 현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쉽게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동남아 국가들에 한국어수업 개설을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주요 내용

2019년 현재 아세안 10개국 중 중등 학교급에서 한국어를 채택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있는 반면,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는 한국어를 채택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23일 우리 정부는 라오스 교육부와 한국어 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11. 23.).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6개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5개국에서도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5개국 전체 216개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별 평균은 40개교에 이른다. 향후 아세안 중 한국어를 채택하지 않은 4개국에도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한국어를 채택한 6개국에도 한국어 채택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현지학교에서 한국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제2, 제3외국어로 인정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교육과정 내 한국어가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되 단기적으로는 거주국 내 비영리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한국어 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트랙(two-track)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교육부	• 동남아 국가 교육부와 협력하여 현지학교 내 한국어 수업 개설 및 확대를 위한 협력 및 지원 • 동남아 거주국 내 평생교육시설에 한국어수업 개설 확대 노력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경우, 현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 개설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교사를 파견한 사례가 있다(정은주, 김정숙, 2018; 김경준, 김정숙, 2019). 현재 한국어를 채택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 중 한국어 개설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한국어 교사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2. 가정 학습용 한글교육 보조교재 정보 제공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지학교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학업 수행 및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학교와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이 현지 국가에서

운영 중인 주말 한글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한글학교들이 중학교 학교급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관련 내용 학습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동남아지역이 한국과 멀지 않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대부분 재외국민이라는 점 때문에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이 많지 않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 교육을 한글학교나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배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들이 어떠한 한글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가정 학습용 한국어교육 교재나 보조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면 자녀의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발하여 한글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범용 교재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여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동포청소년 가정에서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테디코리안(study.korean.net) 사이트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료와 교사들을 위한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학생이나 교사 등을 제외하면 이 사이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글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스테디코리안에서 한글학교를 위한 온라인 수업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용 자료에는 한국어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K-Pop,

만화, 드라마, 동요, 동화, 국악)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사용 자료에도 멀티 미디어 자료, 역사교육 자료, 대륙별 한글학교 연수자료, 학술자료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재단이 YTN, EBS, 동북아 역사재단, 교육부와 연계 협력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세종학당 콘텐츠를 학부모들에게 안내한다면, 동포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한국어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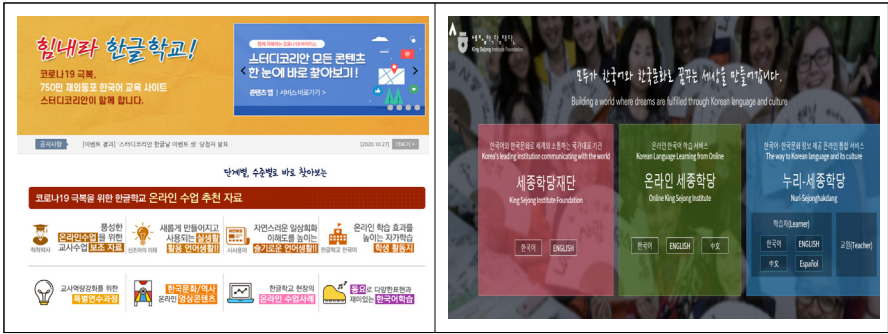


그림 Ⅶ-4 스테디코리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글학교 온라인 수업자료(좌) 및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학습사이트(우)⁸⁰⁾

운영주체	주요 내용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기존 교재(범용교재 및 언어권별 교재) 온라인으로 제공
재외동포재단	- YTN, EBS, 동북아 역사재단, 교육부 관련 자료 기 제공 - 문제부(세종학당재단) 개발 자료 홍보 및 보급

80) 스테디코리안 홈페이지,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home.MainAction?p_new=new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https://www.ksif.or.kr/intro.do>에서 2020년 11월 24일 인출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다양한 자료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학교 교사나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어 및 역사 문화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외공관, 한국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관련 정보를 동남아 동포 가정에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 6개국의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들은 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주말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에 비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참여 경험’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전혀 없음’에 대한 응답은 현지학교(79.2%), 국제학교(70.1%), 한국국제학교(64.9%) 순으로 나타났다(〈표 V-20〉 참조). 또한 과거 한국문화 경험 관련 3개 문항 평균값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현지학교(3.79) 재학 동포청소년들이 국제학교(4.28)와 한국국제학교(4.27) 재학 동포청소년에 비해 과거 한국문화 경험에 대한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남아 지역이 한국과 근접한데다 대부분 재외국민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거주국 내에서도 한국문화 체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들이 현지 또는 한국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한국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원은 주로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거주국 재외동포에게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관련 콘텐츠를 비교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동남아 동포청소년 대상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 또는 정기적인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데 거주국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한인회와 재외공관이 협력하여 거주국 동포청소년을 위해 관련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한인회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인회가 동포청소년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재외동포 대상 한국(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인회, 재외공관	거주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기획 운영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국교육원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 중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한국교육원 설치 및 기존 한국교육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동남아 국가 중 한국교육원이 설치된 곳은 베트남과 태국뿐이다. 동남아 국가 중 재외동포

인구를 고려할 때(〈표 III-10〉, 2019년 기준 1위는 베트남(172,684명), 2위는 필리핀(85,125명), 3위 인도네시아(22,772명), 4위 싱가포르(21,406명) 순), 모든 동남아 국가에 한국교육원을 신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1, 2위 국가에는 한국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1위 국가인 베트남에는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2위 국가인 필리핀에 한국교육원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모든 한국교육원에는 교육원장과 현지 인력 1명 등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별 정책과제	한국교육원 신규 설치 : 필리핀 (동남아 6개국 중 한국교육원 기설치 국가 : 베트남, 태국)
	한국교육원 인력 및 예산 지원 : 베트남, 태국

6-1. 동남아 동포기관 주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지원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방안 1순위는 ‘한국 방문 또는 한국청소년과 교류기회 확대’(〈표 V-29〉 참조), 2순위는 ‘한인사회의 차세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거주 동포 청소년의 경우 한국과 근접한 데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주한 경우가 많아 한국방문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예상과 달리 한국방문과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욕구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⁸¹⁾ 특히 한글학교 운영진의 경우 다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주말 한글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 거주국 전체 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제학교 역시 학기별 교육과정과 학교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재학생 외에 거주국의 다양한 동포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거주 동포들이 주최하는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동포청소년의 정체성 강화와 역사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는 모국 초청 연수 인원이 많지

81) 유럽지역 동포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욕구 1순위 역시 한국 방문 기회였으며(정은주, 김정숙, 2018: 105), 오세아니아 동포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욕구 1순위는 호주의 경우 한국 방문 및 한국청소년과 교류 기회 제공을,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어 및 한국역사 교육 지원으로 나타났다(김경준, 김정숙, 2019: 153, 254). 유럽 및 오세아니아 동포청소년이 한국 방문 기회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은 거주국이 한국과 멀고 한국 방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동남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비교할 때 문화적, 환경적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데 따른 모국에 대한 향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않은 상황에서, 거주국에서 개최하는 자체 교류프로그램은 상당한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요 내용

동남아지역 동포기관이 주최가 되어 개최되는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과 한인기관 간 협력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교류프로그램의 운영은 한인회, 한글학교협의회, 한국국제학교가 컨소시엄 형식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각국 한인회, 한글학교협의회, 한국국제학교는 인적, 물적, 콘텐츠 유형별로 협력 가능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개최 시기, 예산 확보 등이 확정되어야 교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면담조사 결과, 동포청소년 전문가들은 동남아 동포기관 주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자체 교류프로그램인 만큼 각국 한인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한인 관련 유관기관들이 예산을 일정 부분 분담하고, 한글학교협의회가 인력 지원을 그리고 한국국제학교 등이 물리적 공간 지원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동남아 지역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경우 교육부 및 재외동포재단은 예산 일부 또는 강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한인회, 한글학교 협의회, 한국국제 학교(공동)	• 한인회(한인 유관기관), 한글학교협의회 : 인적 지원, 예산 분담 • 한국국제학교 : 물적 지원(장소 제공) • 교육부, 재외동포재단 : 강사 및 예산 지원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거주국 내에서 동포청소년 간 교류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주국 내 교류 프로그램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글학교협의회, 한국국제학교, 한인회가 협력하여 동남아 국가별로 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면 매칭펀드 형식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 관련 전문 강사가 필요할 경우 인력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거주국 내 동포청소년 간 교류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거주국 내 한인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6-2.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계 청소년캠프 개최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의 질적조사 결과,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현지에서 무더운 기후만을 경험하고 있어 겨울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캠프 참여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동포청소년 대상 모국 방문 행사는 하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연수 인원이 매년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방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 외에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방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문·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들의 경우 겨울철에 진행되는 동계 캠프를 신설하여 모국 초청 연수를 시범 적용한 후 새로운 모국방문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내용

현재 각 대륙별 동포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하계 모국 초청 연수만 개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모국 연수 개최 횟수와 유형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 캠프를 실시하여 모국 초청 연수를 새로운 유형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 동계 캠프에 대한 동포청소년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이는 대륙별 동포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재외동포재단	• 동남아 동포청소년 대상 동계 캠프 시범 운영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남아 동포청소년 대상 동계 캠프를 통한 교류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및 대학생 모국 초청 연수를 연 2회(하계, 동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동계 연수 개최에 대한 타당성 심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6-3. 청소년단체를 활용한 세계 및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가족과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 때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안내나 동포청소년들 간 교류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욕구는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 동포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던 바, 전 세계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포함하여 세계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모국 초청 연수 외에 여성 가족부와 다양한 청소년단체가 주체가 되어 전 세계 동포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청소년활동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에는 국제교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교류활동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국제감각,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방문하거나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⁸²⁾ 따라서 전 세계 및 동남아 동포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류 활동의 범위에 전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교류활동을 ‘국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 또는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로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8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안내,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intrIExchgActIntroForm.yt?curMenuSn=395>에서 2020년 10월 12일 인출

한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외에 지자체 산하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일정 부분 활용해 볼 수 있다.

표 Ⅶ-3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유형(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구분	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	- 대상 : 만16~24세 청소년 25명 - 시기 : 3일간 - 교류국 : 브루나이, 일본 - 주요활동 : 온라인 청소년교류(토의, 공동과제 수행 등)	
국제사회 참여 및 협력사업	‘꿈과 사람 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 대상 : 만 15~20세 청소년 100명 - 시기 : 10일 - 교류국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 주요활동 : 해외봉사활동 (교육영상제작 및 배포 등)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 대상 : 만 16~24세 청소년 20명 - 시기 : 5~15일 내외 - 교류국 : 국제회의의 행사 개최국 - 주요활동 : 국제회의, 행사 참여 및 토론, 발언문 낭독 등
	한일 대학생 토론회	- 대상 : 대학생 15명 - 교류국 : 일본 - 주요활동 : 주제토론회, 미래프로젝트, 자유도시 투어, 문화교류회 등

* 출처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안내,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intrExchgActIntroForm.yt?curMenuSn=395>에서
 2020년 10월 12일 인출

예컨대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국제교류 사업⁸³⁾에는 성남시청소년 재단과 협약을 맺은 도시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상호교류활동, 봉사활동,

83) 성남시청소년재단. 국제교류 프로그램, <https://www.snyouth.or.kr/lay1/S1T38C58/contents.do>에
 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배낭여행, 국내교류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여기에 동남아 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포함하거나, 기존 봉사활동이나 국내교류 활동 대상에 동남아 거주 동포 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추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자체 내 청소년 단체 및 기관에서 동남아 동포 청소년 또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교류활동의 유형과 대상 확대(국제 활동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동포청소년 등)과의 교류 활동 포함)
지자체	산하 청소년 단체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제교류 활동에 동포청소년과의 교류활동 포함하여 확대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상술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 국제교류사업 담당 부서와 청소년단체가 주체가 되어 동남아지역 현지 또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정책과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성가족부 내 국제교류사업 예산으로 진행하되, 만약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와 외교부(재외동포재단 또는 코이카(KOICA)의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동남아 동포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간 국제교류 또는 동남아 동포청소년과 동남아 청소년 간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도 진행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 개 부처가 예산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므로 협업을 통한 운영도 가능하다.

7-1. 방학 중 한국 방문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 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내 거주 청소년과 비교할 때 거주국에서 진로 관련 체험을 활발히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미래 진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므로, 우선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주요 내용

현재 국내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인 ‘꿈길’(www.ggoomgil.go.kr)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진로체험은 단위학교 단위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인 청소년은 체험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대부분 재외국민 신분인 동남아 동포청소년이 진로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청 자격을 단위학교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국내 거주 청소년의 경우 단위학교로 신청을 하되, 국외 거주 재외국민 청소년의 경우 개인이 진로체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부터 꿈길 사이트 이용을 학교밖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청소년에게도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개인이 진로상담, 직업체험, 멘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길 시스템의 주요 기능**

공길은 공길 홈페이지와 진로체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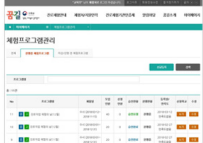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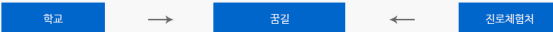
기능		기능
체험지 및 체험프로그램 관리 (진로체험 인프라 관리)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열람	 (체험처) 진로체험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진로체험 매칭	 - 경보제공: 진로체험 제공 희망 기관 및 개인은 진로체험 경보(위치, 내용, 일시 등)를 '공길'에 등록 - 단위 학교에 제공 - 진로체험신청: 단위 학교는 원하는 진로체험을 검색, 신청 및 매칭확정 등 운영관리 업무를 원클릭으로 처리	

그림 VII-5 꿈길 시스템의 주요 기능⁸⁴⁾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들이 주로 한국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대학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이 한국의 진로체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진로체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동남아 거주국에서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동포청소년들이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4) 꿈길 홈페이지. “꿈길 소개” 내용 중 꿈길 시스템의 주요 기능, <http://www.ggoomgil.go.kr/front/intro/intro02.do?rootMenuId=05&menuId=0502>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운영주체	주요 내용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온라인 '꿈길' 사이트의 신청 자격 대상을 단위학교가 아니라 개인으로 변경하여 재외국민 청소년(동남아청소년)에게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재외국민 청소년(동남아청소년)의 진로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현재 꿈길의 운영지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맡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무 부처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이다. 시스템 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학교에서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신청은 재외국민 청소년을 입증할 수 있는 고유 식별 번호 등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장의 진로체험처에서는 개인별 진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단위학교별로 진로체험을 실시할 때에는 단체 또는 집단 수준에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인 단위로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경우 진로체험 운영 건수가 늘어나 진로체험처의 피로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2.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은 국내 거주 청소년에 비해 진로체험 기회가 다양하지 않다.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들에게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내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이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 국가별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한국 재외공관 및 한인단체 소속 민간기관들이 다양하다. 일부 한국국제학교에서는 이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학교와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청소년을 포함하여 거주국 내 동포청소년 다수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인회와 한인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거주국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 내 진출한 한인들의 업종을 파악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직종에서 일정 기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에도 의미 있는 지원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국 내 한인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인상공인들에게도 일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면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결정되면 진로체험처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심사와 질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⁸⁵⁾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와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후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프로그램을 이수한 동포청소년에게는 진로체험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하는 등 공인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85) 꿈길 홈페이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https://www.ggoomgil.go.kr/front/exp/expPlaceCertificationInfo.do?rootMenuId=09&menuId=0901>에서 2020년 9월 16일 인출

다음으로 동남아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동포청년들에게 동남아지역에서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지원사업, 즉 K-Move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지역 출신 동포청년들은 이 사업을 통해 동남아에서의 취업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에서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을 해외사무소에 파견하여 ODA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DCF(기재부 산하기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에서 파견한 청년인턴은 2016년 23명, 2017년 34명, 2018년 41명, 2019년 40명, 2020년엔 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1. : 14).⁸⁶⁾ 2019년 기준 아시아 해외사무소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 설치되어 있다.⁸⁷⁾ 동남아지역 거주경험이 있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인턴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면 동남아 출신 동포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취업 연계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부에게도 개발협력 분야에 청년 진출이 확대되어 ODA 사업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6) 관계부처 합동 (2020.1).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http://www.odakorea.go.kr/hz.bltn2.YearPlanSIPL2.do?brd_seq=3&bltn_div=oda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87) EDCF 공식 블로그. "걸어서 EDCF 속으로, 해외사무소 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dcfkorea&logNo=221444264332&parentCategoryNo=&categoryNo=63&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그림 Ⅶ-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홈페이지⁸⁸⁾

그림 Ⅶ-7 한국수출입은행
2020년 EDCF 청년인턴 공고 안내문⁸⁹⁾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한인회 (한인상공인회)	거주국 내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동남아 거주경험 청(소)년에게 동남아 관련 인턴십 (ODA 프로젝트 포함) 기회 제공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국 한인회와 한인상공인회의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진로 체험처를 제공하는 등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재외공관이 진로체험처 제공 사업장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88)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 <https://www.edcfkorea.go.kr/site/main/index004#>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89) 한국수출입은행. 2020년 EDCF 청년인턴 공고 안내문, <https://koreaexim.bzpp.co.kr/recruit/view>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있다. 또한 동남아지역 거주 경험 동포청년들에게 동남아 지역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에 대한 정보가 안내될 필요가 있고 ODA 관련 활동이 진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 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거주국 내 예비학교 운영” 과제에서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3.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주거시설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10대에 동남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대학에 입학한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재적응과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거주국 문화에 익숙해 있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문화, 대인관계 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 등 기초적인 생활적응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했다. 거주국 현지학교나 국제학교 졸업생들이 한국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고, 지방 소재 대학을 진학한 경우에는 낯선 곳에서의 학업 수행과 한국사회 재적응에 따른 고충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주거시설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남아 거주국의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의 학사 일정이 한국과 달라 이들은 9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들의 부모들은 거주국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관계로 홀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3월까지

약 반년 남짓 기간 동안 거주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거주 시설 정보 또는 거주 시설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 정착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주요 내용

우선 한국대학에 입학 예정인 동남아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졸업 동포청소년이 입학 전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또는 동남아 동포 청소년 중 한국대학 입학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자체적으로 이들 동포 청소년을 위한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동포청소년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외동포재단 등이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한국사회 재적응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주 공간이 마땅치 않은 동포청소년에게는 부모 직업과 연계된 거주 지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외교협회에서는 해외 근무 공무원 및 정부 유관기관 임직원 자녀 등을 위한 재외공무원 자녀기숙사를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재외공무원 자녀들이 주 지원 대상인데다 서울 한 곳에 서만 운영되고 있어 기숙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재원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재직한 기업에서 거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선교사 자녀의 경우 종교기관 중 거주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을 매칭하여 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다. 부모 직업이 기타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사회 단체 중 주거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을 연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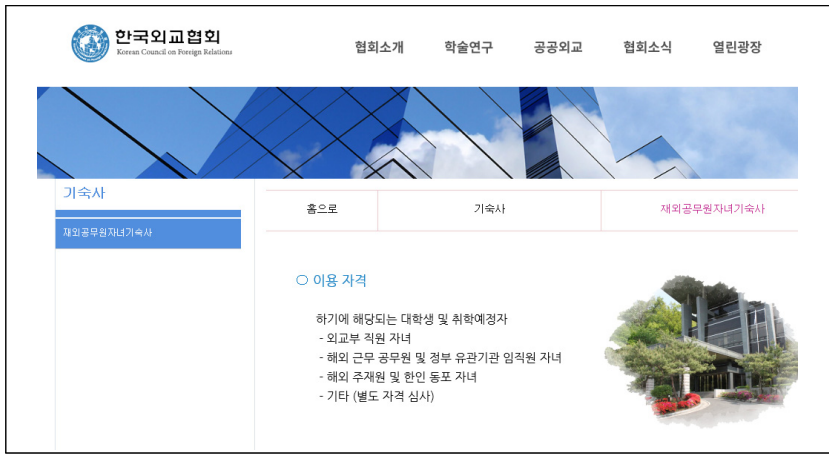


그림 Ⅶ-8 한국외교협회에서 운영 중인 재외공무원 자녀기숙사⁹⁰⁾

운영주체	주요 내용
재외동포재단	- 한국대학 진학 예정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안내
교육부	- 입학예정인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각 대학에 재외동포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독려 - 한국대학 입학 예정 동포청소년 대상 단기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위탁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외교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확대 운영 - 주재원 자녀 기숙사 운영 또는 거주 공간 안내 - 시민사회단체(종교기관 포함)에서 동포청소년을 위한 거주 공간 운영 및 정보 안내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홀로 입국하여 대학입학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주변에 관련 거주 시설은 많을 가능성이 크다.

90) 한국외교협회. 재외공무원자녀기숙사, http://www.kcfr.or.kr/bbs/board.php?bo_table=601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그러나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거주 공간이 마련된다면, 이들의 한국사회 재적응이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기업 및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동포청소년을 위한 거주 공간 마련 및 관련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으나, 우선은 재외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 등을 확대한다면 이들의 한국사회 재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4.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거주국 내 예비학교 운영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 동포청소년 중 한국대학 입학예정자를 위한 정착 지원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동남아 국가별로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한국 입국 이전부터 한국문화 재적응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생활교육(금융거래, 집 계약, 교통시설 이용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국제학교 재학 청소년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만,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재학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대학 입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대상으로 거주국 내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한다면 이들이 향후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내용

거주국 내에서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예비학교는 물리적 공간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국제학교를 거점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별로 한국국제학교는 베트남을 제외할 때 1개 학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거주국 내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청소년들에게 예비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국제학교를 거점으로 여러 회기로 나누어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또는 한글학교협의회가 몇 개의 거점도시를 정한 후 거점도시 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한글학교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 중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국국제학교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주체의 단일화와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활용에 관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거점도시를 지정하여 주요 한글학교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관련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학교 운영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강사는 동남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한국에서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비학교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교육(금융, 주거, 교통 등), 한국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 한국어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 중, 한국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Study in Korea⁹¹⁾에서 제공하는 외국유학생을 위한 정보를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주체	프로그램	교육내용
한국국제학교	한국대학 진학예정자 예비학교	- 기초생활교육 - 한국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
한인회, 한글학교협의회	한국대학 진학예정자 예비학교	- 기초생활교육 - 한국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 - 한국어교육

91)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Study in Korea 홈페이지, <http://www.studyinkorea.go.kr/ko/main.do>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은 현지학교와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 청소년에게 예비학교 운영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인회와 재외공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비학교 운영에 대한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예비학교 운영 규모와 실시 횟수, 기간 등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7-5.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남아지역 진로 정보 제공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재까지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들의 다수는 한국대학 또는 영미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 또는 다양한 국가에서의 취업이나 거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현지 대학보다 한국대학이나 영미권 대학을 주로 진학하고 있는 것은 동남아 국가의 거주 여건이나 취업 상황이 양호하지 않아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래 삶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어를 잘 구사하고 베트남 현지대학을 졸업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현지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부모의 사업을 이어가는 동포 청년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주국에서 취업하거나 거주국에서 개인사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운영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로 인해 이에 대한 정보가 동남아 동포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에게 동남아 지역에서의 취업이나 청년 창업 네트워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거주국에서의 진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우선 현재 동남아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와 동남아 현지대학을 졸업했을 때 취업가능한 직업군에 대한 안내, 그리고 동남아지역에서 창업한 한인 및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에 대한 정보를 한인회와 각국에 설치된 대한상공회의소 사무소가 협력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이나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조사국 6개국 중 특히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상당한 많고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가 운영 중에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방정환, 2020). 그 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⁹²⁾ 현재 KOTRA에서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동남아의 문화적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동포청소년들에게 동남아 국가의 성장 가능성과 동남아 국가 관련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92) 한국경제신문 (2017.5.22). “스타트업 5000개 육성” 베트남, 동남아 ‘창업 메카’로 뜬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7052154781>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한국국제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동남아 관련 진로 정보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연계한 진로 정보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KOTRA	- 동남아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정보 제공 - 동남아 국가에서의 스타트업 현황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남아 국가들 중 대한상공회의소 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내 아주협력팀⁹³⁾이 존재하므로 동남아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동남아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남아 6개국 중 스타트업과 디지털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른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KOTRA가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동포청소년에게 진로 관련 자료로 정리하여 제공해 볼 수 있다.

국가별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각국 사무소: 거주국 진출 한국 기업 정보 제공
	KOTRA : 베트남,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 스타트업 관련 정보 제공

7-6. 동남아 인재 활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재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한-아세안

93)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Kcci/appl/orgchart.asp>에서 2020년 11월 18일 인출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정부가 신남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019년까지 매년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동남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동남아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현지어 구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청년 대상 생애사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대학 입학과 졸업 후에 동남아국가 관련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들 중 일부는 해외 지사가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여 거주국으로 다시 돌아가 직장 생활을 이어가거나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동남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동남아 거주 경험이 있는 동포청소년 및 청년에게 동남아국가 관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이 거주국과 한국 간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동남아 국가와의 다양한 교류 과정에서 동남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남아국가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동포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에게는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정부에게도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동남아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춘 인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동남아 동포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력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다수 파견되어 국내 및 현지 동포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는 한국 정부와 동남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투자 장벽이 낮아질 때 가능하므로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남아 국가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증가해야 현지인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듯이, 이와 유사하게 동남아지역에서의 거주경험이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동남아 국가에서의 취업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⁹⁴⁾ 해당 위원회에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동남아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신남방정책 위원회	동남아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아이디어 발굴

9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보도자료 (2018.8.28). 신남방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남방정책위원회’ 8. 28. 현판식 개최, http://www.pcpp.go.kr/post/notice/reportView.do?post_id=353&board_id=2&s_text=%EC%8B%A0%EB%82%A8%EB%B0%A9&s_type=uall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남아 인재 활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동남아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동포청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8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문화 개선

8-1. 동남아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 재외동포 중 동남아 재외동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경제수준에 대한 비교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동남아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동남아는 적은 비용으로 여행을 가기에 좋은 국가, 한국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국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들은 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때 동남아국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종종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는 동남아국가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한 청년들은 한국에 취업한 직장 상사로부터 무시나 모멸감을 경험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신남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동남아국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낮은 이해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고 일부 동남아 국가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동남아 국가 전반에 대한 무시와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한국에게 동남아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 동남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 언어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로 이어져 다문화적 관점과 태도를 갖추는 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상술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인식은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동남아 다수 국가인 아세안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역동성 등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⁹⁵⁾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 동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동남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 언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연유로 동남아 국가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다. 동남아 지역에서 거주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한국과 거주국 문화를 동시에 경험으로써 교차문화청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시민들은 그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곤 한다. 한국 시민들의 동남아 동포청(소)년 일부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⁹⁶⁾ 이들 중 다수는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로 이주했고, 동남아 국가의 다문화적 사회

95) 정책위키 (2019.11.19). 신남방정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96) 물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는 이들이 동남아 거주를 토대로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활용하여 손쉽게 한국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점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다 현지 국제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반적인 한국인들과는 다른 서구적 태도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 위계적 조직문화로 인해,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서구적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인해 정서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으면서 이(異)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어 동남아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적고 일부는 동남아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는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사회가 동남아 국가들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남아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들이 한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국제정치와 정책 환경의 맥락에서 동남아국가들(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동남아국가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3P (people, prosperity, peace) 중 사람(people) 분야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신남방 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한-신남방 소프트 협력 강화, 신남방 지역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19.12.20).⁹⁷⁾ 이 자료에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홍보영상과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고, 교육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역사, 문화 관련 특강 등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7)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19.12.2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180&board_id=2&page=3에서 2020년 11월 13일 인출

운영주체	주요 내용
외교부	•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홍보 및 자료 제작, 배포
교육부	• 동남아 국가의 역사, 문화, 언어 관련 특강 개최 지원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남아 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사회 역시 동남아 국가와 유사한 국가 발전 단계를 거쳐 왔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 국가의 역사, 문화, 언어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8-2.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상호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위한 교류기회 제공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남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 언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낮은 인식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몰이해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한류 열풍이 높은 반면, 한국에서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역사, 문화, 언어 관련 교육 요구가 높지 않다. 이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지 않은 점과도 일정 부분 관련된다.

동남아 국가의 문화와 언어 학습 등 상호문화 이해교육은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업 및 직업 등을 이유로 동남아 국가에 이주한 동포 또는 이주 예정자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주 초기에 현지어와 현지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이 현지어와 거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면 거주국 사회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적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동남아 국가와 동남아 현지인에 대한 동포 성인들의 우월적 태도와 거주국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동포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거주국에 이주한 동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문화 이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내용

한국 정부와 동남아국가들 간 상호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문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동남아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특정 교과를 통해 동남아국가에 대한 상호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추후 관련 교과목에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은 장기적 과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동남아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동남아 국가의 중고등학생과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각 시도교육청과 동남아 국가의 지방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한국의 지자체와 동남아 국가의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남아국가에 유학 및 직업을 위해 이주한(할) 동포들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남아 현지에서 운영 중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중 일부는 해당 국가의 언어과목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이해 과목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가능하면 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거주국 관련 교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의 교육과정에도 한국 관련 내용,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아세안 국민들이 한-아세안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서정인, 2019: 26).

아울러 동포청소년의 부모, 동남아국가로 이주한 성인 동포들이 거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거주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주국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동남아 국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는 동남아 국가로 이주하기 전 한국의 아세안문화원을 통해 동남아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교육부	• 동남아 국가의 역사, 문화, 언어 관련 특강 개최 지원 • 동남아 국가 교육과정에 한국 관련 내용, 한-아세안 관련 내용 포함하도록 협력
지자체 시도교육청	• 동남아국가 도시와 한국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 동남아국가 시도교육청과 한국 시도교육청간 자매결연 및 교류
한국국제학교	•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언어 교육 실시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 동남아국가에 이주한 한국인을 위한 거주국 언어, 문화강좌 개설 요청 • 동남아 국가 이주 전 한국 내 아세안문화원 프로그램 및 정보 안내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내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동남아 국가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는 중앙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관련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데 참여할 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동남아 국가별 도시 또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내국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내 아세안 문화원은 동남아국가 관련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문화원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아세안문화원은 부산광역시 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세안 국가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Ⅶ-9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⁹⁸⁾

98)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ach.or.kr/user/main>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8-3.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재 동남아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또는 거주경험이 있는 동포 청년들 간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캠프나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동포청소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남아지역 동포 기관이 주최하는 별도의 캠프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국가별로 1~2개교씩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국국제학교 졸업생 간에도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는 이들이 유사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동남아 국가별로 모두 설치되어 있으므로, 한국국제학교 졸업생들 간 정기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학교별로 졸업생 네트워크가 꾸려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동남아지역 한국국제학교 졸업생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현지학교와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확대된 네트워크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나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동남아국가 자체적으로 동포청소년 캠프 등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는 한편, 대학 졸업과 취업 후에는 동남아지역과 한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 전문가를 양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은 외교부(2017.8.10: 42)⁹⁹⁾의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과제 중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지역 거주경험이 있는 동포청년들이 공공외교 민간사절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거주국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잘 알고 있어 거주국에 한류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참여가 동남아 동포청년들이 한국과 거주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한국국제학교	• 한국국제학교 졸업생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한인회	• 동남아 동포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외교부 (공공외교 담당)	• 동남아지역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주제로 동남아 동포청년 네트워크 활용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상술한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가 모두 구축된다면 동남아 동포청소년에게도

99) 외교부 (2017.8.10).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http://www.mofa.go.kr/www/brd/m_4075/view.do?seq=3662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의 동남아 인재 활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한국국제학교 졸업생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한국국제학교는 졸업생 관리가 가능하고, 학교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국제학교별로 졸업생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그 후에 동남아지역 연합 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국제학교에서 관련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8-4.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국가 성인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지만, 이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에 설치된 기관(한국교육원 또는 한국문화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규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동남아 한인청소년 성장 지원 및 인재양성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및 관련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가칭) ‘동남아 한인청소년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동남아 동포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은 정규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모국 초청 연수를 현지에서 진행하거나, 동남아시아 지역 거주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남아지역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동포청소년 또는 한국대학 졸업 후 다시 동남아로 돌아가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동남아 모든 국가별로 상술한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있으므로 동남아 국가들 중 거점 도시 몇 곳을 선정하고 기관을 설치운영 한다면 동남아국가 동포들이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해외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이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을 활용하거나 또는 신규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신규 기관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 설치된 기관의 설립 목적이 있어 동남아 동포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신규 전문기관 설치의 동남아지역의 인재 양성 및 차세대 교육,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이 용이할 수 있지만, 실제 기관 설치까지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예상되어 과제 실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정책과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 한인청소년들을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뿐만 아니라,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집단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남아 지역 전문가, 동남아 청소년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동남아 한인청소년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위원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운영주체	주요 내용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기관 (가칭)	• 동남아 거주 한인청소년 대상 연수 및 캠프 실시 • 한국문화 및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동남아 한인 이주사 편찬 및 보급 • 동남아 현지 취업 및 창업 준비 한인청년 지원 • 동남아 거주 한인청소년 거점 활동공간으로 기능
신남방정책위원회	• (가칭)동남아 한인청소년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현재 동남아 국가 중에는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은 동남아 현지인에게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두 기관을 이용하여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신규 전문기관 설치가 효과적인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 현실적으로 전문기관의 신규 설치가 어렵다면,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되어 있고, 한국교육원은 베트남과 태국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동포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다수의 한인과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다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상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는 베트남에서 동남아 동포청소년 인재양성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거나 또는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에 한국교육원을 신규 설치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 기관(한국교육원 또는 한국문화원)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교육부가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정책과제	• 한국교육원 설치 국가 : 베트남, 태국 • 한국문화원 설치 국가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 인재양성 전문기관 설치 또는 추가적인 기능 부여(안) : 인도네시아 또는 베트남
-------------	--

4.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

8개 정책과제 영역, 30개 정책과제에 대한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VII-4와 같다. 정책과제에 대한 현안대응성 정도와 정책기여 가능성 정도는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5점 만점에 평균 4.00점 이상 혹은 4.00점에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지원 과제의 경우에는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에서 각각 평균 3.59점, 평균 3.4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II-4 정책과제에 대한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분석 결과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 대응성	정책기여 가능성
				<i>M(SD)</i>	<i>M(SD)</i>
과제영역1 정체성 형성과 한국문화 이해 지원	교차문화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국제학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4.12 (0.68)	4.29 (0.46)
	거주국 사회 내 한국 기관들 간 협력을 통한 한국문화 지원 확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4.24 (0.81)	4.29 (0.46)
	지자체 및 NGO 단체별 한국 역사문화 탐방프로 그램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회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3.82 (0.78)	4.06 (0.80)
과제영역2 거주국 문화 이해 지원	거주국 사회에서의 문화 적응을 위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한인회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등 상담 관련 기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여성가족부	4.06 (1.00)	3.88 (0.83)
	거주국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한인회, 대사관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4.12 (1.02)	4.24 (0.73)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 대응성	정책기여 가능성
				<i>M(SD)</i>	<i>M(SD)</i>
	아세안-한인동포 청소년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4.12 (0.76)	4.18 (0.62)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한글학교 한글학교협의회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4.35 (0.68)	4.29 (0.67)
과제영역3 한글학교 운영 환경 개선 및 사업 확대	한국문화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한국문화원 예술단체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4.29 (0.57)	4.24 (0.55)
	한글학교 교사의 모국 연수 기회 확대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3.76 (0.73)	3.94 (0.73)
	한글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운영 지원	한글학교협의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3.94 (0.80)	3.94 (0.64)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한국국제학교 대사관	교육부 외교부	4.41 (0.84)	4.53 (0.61)
과제영역4 한국국제 학교의 진로 지원 및 역할 강화	진로 진학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등의 지원	한국국제학교	교육부	4.18 (0.92)	4.06 (0.73)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기관으로서의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	한국국제학교 한인회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4.00 (0.59)	4.18 (0.71)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 개선 및 운영	한국국제학교	교육부	4.35 (0.76)	4.29 (0.82)
	현지 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한국어수업 확대	한국교육원 대사관	교육부 외교부	4.00 (0.69)	4.12 (0.76)
과제영역5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가정 학습용 한글교육	한국교육원	교육부	3.94	3.65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 대응성	정책기여 가능성	
				M(SD)	M(SD)	
동포 청소년지원	보조교재 정보 제공	한인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0.87)	(0.76)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한인회, 대사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3.76 (0.81)	4.12 (0.68)	
과제영역6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자체 청소년교류프로 그램 지원	한글학교 한국국제학교 한인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4.18 (0.62)	4.18 (0.62)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계 청소년캠프 개최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4.12 (0.76)	4.24 (0.73)	
	청소년단체를 활용한 세계 및 동남아 동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여성가족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3.94 (0.80)	4.18 (0.86)	
과제영역 7	방학 중 한국 방문 진로 체험프로그램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부	3.88 (0.90)	4.35 (0.68)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한인회 한인상공인연합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4.53 (0.61)	4.53 (0.61)	
	동남아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주거시설	주재원 기업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교육부	3.59 (1.24)	3.41 (0.97)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거주국 내 예비 학교 운영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협의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4.06 (0.87)	3.88 (0.68)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남아지역 진로 정보 제공	한인회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4.00 (1.03)	4.06 (0.87)	
	동남아 인재 활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	현지 기업	고용노동부	4.00 (0.84)	4.12 (0.90)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 대응성	정책기여 가능성
				<i>M(SD)</i>	<i>M(SD)</i>
과제영역8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문화 개선	동남아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교육부	3.82 (0.86)	3.94 (0.64)
	한국 및 동남아국가 간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한 교류기회 제공	국내외 초중고	교육부	4.00 (0.77)	4.12 (0.76)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한국국제학교 한-아세안센터	교육부 외교부	4.00 (0.84)	3.94 (0.80)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전문가 자문 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3.82 (0.92)	3.82 (0.92)

과제 영역별로 현안대응성 정도를 살펴보면, 8개 정책과제 영역 중에서 한국 국제학교의 진로지원 및 역할 강화가 평균 4.2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거주국 문화 이해 지원(평균 4.10점), 한글학교 운영 환경 개선 및 사업 확대(평균 4.09점),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평균 4.08점), 정체성 형성과 한국문화 이해 지원(평균 4.06점),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전로 및 취업 지원(평균 4.01점),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문화 개선(평균 3.91점),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동포청소년 지원(평균 3.9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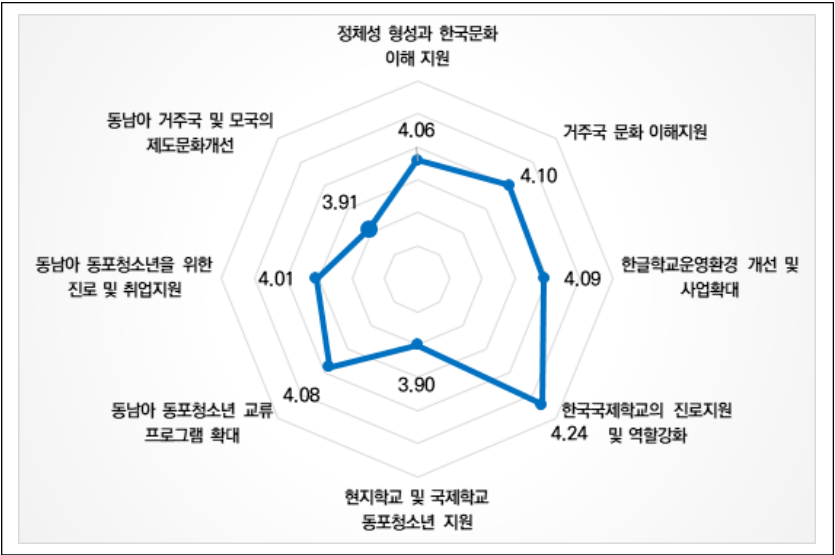


그림 Ⅶ-10 정책영역별 현안대응성 순위

과제 영역별로 정책기여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면, 8개 정책과제 영역 중에서 한국국제학교의 진로지원 및 역할 강화가 평균 4.2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체성 형성과 한국문화 이해 지원(평균 4.22점),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평균 4.20점), 거주국 문화 이해 지원(평균 4.10점)과 한글학교 운영 환경 개선 및 사업 확대(평균 4.10점),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평균 4.06점),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문화 개선(평균 3.96점)과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동포청소년 지원(평균 3.9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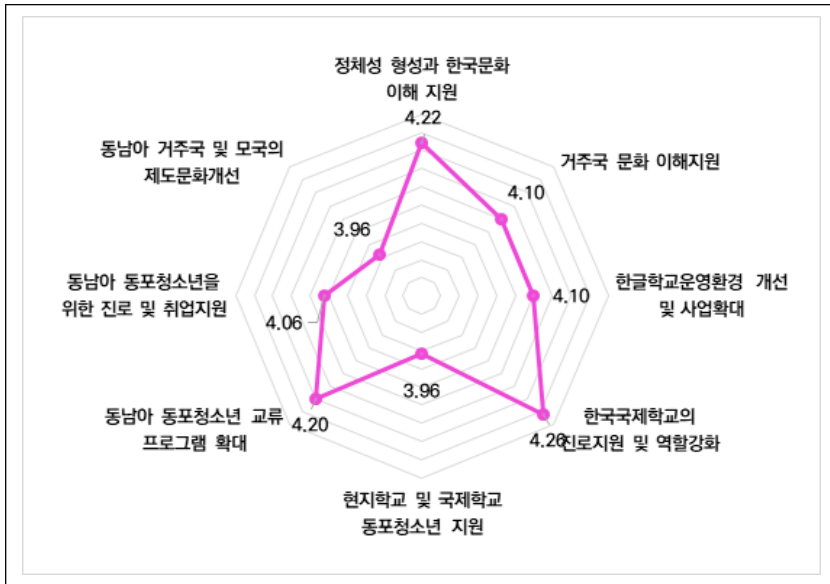


그림 VII-11 정책영역별 정책기여 가능성 순위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때 8개 정책과제 영역 중에서 한국국제학교의 진로지원 및 역할 강화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별 정책과제별로 현안대응성과 정책기여 가능성을 살펴보면, 현안대응성에서는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 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이 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평균 4.41점),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평균 4.35점)과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평균 4.35점), 한국문화체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평균 4.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기여 가능성에서는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과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가 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평균 4.29점)과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평균 4.29점)과 교차문화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평균 4.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5 세부 정책과제별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상위 5순위

순 위	현안대응성		순 위	정책기여 가능성	
	평균	내용		평균	내용
1	4.53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 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1	4.53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 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2	4.41	(한국국제학교) 온 / 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1	4.53	(한국국제학교) 온 / 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3	4.35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3	4.29	(한국국제학교) 거주국 내 국제 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3	4.35	(한국국제학교) 거주국 내 국제 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3	4.29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5	4.29	(한글학교) 한국문화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	3	4.29	교차문화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이상에서 개별 정책과제별로 진로체험과 관련한 과제들과 한국국제학교 및 한글학교의 교육과정 개선 등과 관련한 과제들이 시급하고 정책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곽성일 (2018).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중소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 전략. **트레이드 인사이트**, 2018(8), 2-12.
- 곽재석, 예동근, 장현일, 소은선, 문정매 (2011). **재외동포의 이주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경준, 김태기 (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5-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정은주 (2017).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 17-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김정숙 (201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II** (연구보고 19-R03) (pp. 26, 153, 15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혜 (2019). “환영할만한” 은퇴이주자의 탄생: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비자 정책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8(3), 123-154.
- 김동엽 (2019). 필리핀 2018: 권력 집중, 경기 위축, 자주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29(1), 79-113.
- 김영선 (2019). 한-아세안관계 30주년,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아세안지역 리뷰**, 2(1), 1-6.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재기 (2005). 세계 한민족 Diaspora와 네트워크 구축의 정치경제. **21세기 정치**

- 학회보**, 15(2), 121-145.
- 김지훈 (2019a).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한인사회의 분화. **2019년 한국진흥사업단 해외한인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95-110.
- 김지훈 (2019b).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 한인사회: 순환이주 주재원 사회에서 글로벌이민 한인사회로. **동남아시아연구**, 29(4), 223-266.
- 김형중, 최경희 (2017).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pp. 16, 19, 25). 서울: 한-아세안 센터·외교부.
- 김홍구 (2019). 초국가주의적 현상 속 재태한인. **동남아시아연구**, 29(1), 205-245.
- 박은홍 (2019).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변영 미래: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성과와 기대. **국립외교원 정책포럼자료집: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29-39.
- 방정환 (2020). **수제맥주에서 스타트업까지 동남아를 찾습니다: 밀레니얼을 위한 NEW 아세안 가이드**. 서울: 도서출판 놀민.
- 백순근 (2002).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교육평가에 주는 시사. **아시아교육연구**, 2(1), 27-42.
- 백영옥 (2014). 통일한국의 미래와 재외동포의 역할.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11-43.
- 서정인 (2019).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국립외교원 정책포럼자료집: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21-27.
- 송요한 (2018).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방향. **KIET 산업경제**, 2018(4), 69-72.
- 신윤성 (2019.7.9). 신남방정책과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류 NOW**, 31, 9-15.
- 외교부 (2019). **2019 재외동포현황** (pp. 14, 17-18, 88-125). 서울: 외교부.
- 우양호 (2019).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향한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2), 135-175.

- 육주원 (2018). 초국적 이동성과 일 경험: 한국 청년들의 싱가포르 해외취업 사례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8(3), 111-158.
- 윤인진 (2012).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 연구**, 28, 7-47.
- 이미숙, 신항수, 장근주, 이수정 (2016).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연구보고 RRC 2016-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숙, 이수정, 신항수, 장근주 (2017). 재외 한국학교 초등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0(1), 31-35.
- 이수경 (2017). 제 3문화 아이들(third-culture kids: TCKs)의 문화적소속감 부재와 심리적안녕감 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31-154.
- 이수경, 오인수 (2015). 아시아 거주 한인 CCKs(cross-culture kids)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아시아교육연구**, 16(1), 193-219.
- 이승은 (2014).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한인사회: ‘이주’와 ‘정착’의 역사 및 전망. **한중미래연구**, 2, 135-165.
- 이장섭, 이석인 (2019). 인도네시아 진출 한상기업의 비즈니스 특성과 기업가정신 분석연구. **재외한인연구**, 47, 91-124.
- 이재현 (2018). 신평남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이슈브리프**, 2018(4), 1-17.
- 이진영 (2014). 통일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와 신평남프로세스. **문화와 정치**, 1(1), 63-83.
- 이진영, 박우 (2013). 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4, 22-43.
- 임영상, 윤인진, 이진영, 박우, 한준태, 예동근, 이병조 (2012). **미래 지향적 재외동포 정책 방향-초국가적 환경에서의 재외동포정책과 민족공동체**. 서울: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재단 (2017).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정은주, 김정숙 (2018).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 연구 I** (연구보고 18-R09) (p. 1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채수홍 (2005). 호치민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11(2), 103-142.
- 채수홍 (2017). 하노이 한인 사회의 형성, 분화, 그리고 미래. **한국문화인류학**, 50(3), 125-174.
- 채수홍 (2019). 베트남 한인사회의 빛과 그림자: 사회경제적 분화와 문화정치. **2019년 한국학진흥사업단 해외한인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53-76.
- 최원기 (2019). 신남방정책 성과와 향후 외교적 과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국립외교원 정책포럼자료집)**, 11-19.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018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 홍석준 (2012). 현지지식의 글로벌화와 다문화사회의 재발견: 2008년 제12대 총선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문화의 변화와 말레이시아 거주 한인들의 말레이시아 현지지식의 문화적 전략화. **인문학논총**, 12(1), 133-179.
- 홍석준 (2019). 말레이시아 이주정책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MM2H를 중심으로. **2019년 한국학진흥사업단 해외한인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111-148.
- Besley, A. C. (2003). Hybridized and globalized: Youth cultures in the postmodern era. *The Review of Education, Pedagogy & Cultural Studies*, 25(2), 153-17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 2nd ed.* Oxford: Elsevier. pp. 1643-1647. (Reprinted from *Reading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 pp. 37-43. by M. Gauvain, & M. Cole, 1993, (Eds.), NY: Freeman.)

- Bronfenbrenner, U. (1995). **인간발달 생태학**. 이영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79년 원저 발간).
- Cameron, R. (2003). *The ecology of third culture kids: The experiences of Australasian adults* (pp. 141-1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urdoch University, Perth, Australia.
- Carroll, M. (2019). *How does growing up as a third culture kid(TCK) impact life choices?: Effects on ATCKS and career experiences* (pp. 19, 21). Unpublished master's, University of Waikato, Hamilton, New Zealand.
- Chase, S. E. (2005). Narrative inquiry: Multiple lenses, approaches, voices. In N.K. Denzin & Y.S. Lincoln (Eds.),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656, 657).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Choi, K. M., & Luke, M. (2011).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early adult friendships of third culture kids.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1(1), 47-60.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11).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pp. 79-83).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2000년 원저 발간).
- Clandinin, D. J., & Huber, J. (2010). Narrative inquiry. In B. McGaw, E. Baker & P. P. Peterson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pp. 436-441). NY: Elsevier.
-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 Gerner, M., & Perry, F. (2000). Gender differences in cultural acceptance and career orientation among internationally mobile

- and non-internationally mobile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29(2), 267-283.
- Gerner, M. E., Perry, F., Moselle, M. A., & Archbold, M. (1992).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ly mobile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 197-214.
- Hervey, E. (2009). Cultural transitions during childhood and adjustments to colleg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8(1), 3-12.
- Hannaford, J. (2016). Digital worlds as sites of belonging for third culture kids: A new literacies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5(3), 253-265.
- Hill, I. (2006). Student types, school types and their combined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5(1), 5-33.
- Hoersting, R. C. (2009). *No place to call home: Cultural homelessness, self-esteem and cross-cultural identities*. Unpublished master's, University of North Texas.
- Kwon, J. (2018).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with mobility and cross-cultural transitions. *Diaspora, indigenous, and minority education*. 13(2), 113-122.
- Lijadi, A., & Van Schalkwyk, G. J. (2014). Narratives of third culture kids: Commitment and reticence in social relationship. *The Qualitative Report*, 19, 1-18.
- Limberg, D., & Lambie, G. W. (2011). Third culture kids: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5(1), 45-54.

-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Pollock, D. C., & Van Reken, R. E. (1999). *The third culture kid-experience: Growing up among the worlds*.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Pollock, D. C., & Van Reken, R. E. (2001). *Third culture kids: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mong worlds*. Yarmouth, ME: Nicholas Brealey/Intercultural Press.
- Pollock, D. C., & Van Reken, R. E. (2008). **제3문화 아이들**. 박주영 역. 서울: 비즈앤비즈. (2001년 원저 발간).
- Pollock, D. C., & Van Reken, R. E. (2009).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mong worlds*. Boston: Nicholas Brealey.
- Pollock, D. C., Van Reken, R. E., & Pollock, M. V. (2017).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pp. 43-46, 63-72). Boston·London: Nicholas Brealey.
- Rogoff, B. (2003).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antrock, J. W. (2008). *Essentials of life-span development*. New York, NY: McGraw Hill Higher Education.
- Sharp, L. W. (1987). *Patterns of religiosity, worldmindedness and commitment to justice issues for Brazil-experienced missionary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 Useem, R. H. & Cottrell, A. B. (1996). Adult third culture kids. In C. Smith (Ed.) *Strangers at home: Essays on the effects of living overseas and coming home to a strange land* (pp. 22-35). Bayside, NY: Alethea.
- Velez-Agosto, N. M., Soto-Crespo, J. G., Vizcarrondo-Oppenheimer,

M., Vega-Molina, S., & Garcia Coll, C. (2017). Bronfenbrenner's bioecological theory revision: Moving culture from the macro into the micro.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5), 900-910.
관계부처 합동 (2020.1).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http://www.odakorea.go.kr/hz.bltn2.YearPlanSlPL2.do?brd_seq=3&bltn_div=oda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교육부. 2016년 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6315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s=moe&m=0309&opType=N>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교육부 (2019).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mobile/publ/publFile?survSeq=2019&menuSeq=3894&publSeq=2&menuCd=80897&menuId=1_26_2&itemCode=02#detail에서 2020년 1월 29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19.11.23). 아세안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열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79058>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교육부 정보공개청구자료. 2020년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및 교원해외파견사업 개요.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동남·서남아시아 한인)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southeastAsia.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재외 한인의 시대별 변천)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transition.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Study in Korea 홈페이지

<http://www.studyinkorea.go.kr/ko/main.do>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선 2020년
4월 20일 인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재외동포재단법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꿈길 홈페이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https://www.ggoomgil.go.kr/front/exp/expPlaceCertificationInfo.do?rootMenuId=09&menuId=0901>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꿈길 홈페이지. “꿈길 소개” 내용 중 꿈길 시스템의 주요 기능

<http://www.ggoomgil.go.kr/front/intro/intro02.do?rootMenuId=05&menuId=0502>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코피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42&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2020년 9월 14일 인출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

<https://www.edcfkorea.go.kr/site/main/index004#>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보도자료 (2018.8.28). 신남방정책 범정부 컨트롤타
워 ‘신남방정책위원회’ 8. 28. 현판식 개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

3887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7.11.10). 문재인대통령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http://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0292>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Kcci/appl/orgchart.asp>에서
 2020년 11월 18일 인출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http://manifesto.or.kr/?p=5106>에서 2019년 12월 22일 인출 (한국매니페
 스토실천본부)

데일리인도네시아 (2019.11.1).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1).
<http://dailyindonesia.co.kr/news/view.php?no=18594>에서 2020년 4월 2일
 인출

동아일보 (2019.12.14). 수출의존도 높은 한경제 숨통 트일 듯.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3/98798403/1>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모바일 한아시아닷컴. ‘한국·태국 청소년 어울림 마당’ 참석 신청 안내
 (11/14~11/23).
<http://www.hanasia.com/thai/mobile/view/271820/b>에서 2020년 10월
 20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활동(베트남)
<http://www.kocis.go.kr/kocc/list.do?langCode=lang001&ctrCode=CTR0005&searchType=menu0023&searchText=&page=1>에서 2020년 10월
 15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필 수교 70주년 기념 ‘한국인을 위한 필리핀

어 말하기대회' 개최

<http://www.kocis.go.kr/kocc/view.do?seq=1013510&page=2&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menu0023&searchText=&RN=&ctrCode=CTR0035>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70 YEARS & BEYOND, '2019 한-필 문화교류축제' 성료

<http://www.kocis.go.kr/kocc/view.do?seq=1033663&page=2&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menu0023&searchText=&RN=&ctrCode=CTR0035>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kocclntro.do>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성남시청소년재단. 국제교류 프로그램 내용

<https://www.snyouth.or.kr/lay1/S1T38C58/contents.do>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https://www.ksif.or.kr/intro.do>에서 2020년 11월 24일 인출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사업마당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스터디코리아 홈페이지.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home.MainAction?p_new=new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11.8).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34&board_id=4에서 2020년 1월 29일 인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4.24). 아시안 · 인도-경제 · 무역 · 투자 통계집.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96&board_id=4&
 에서 2020년 1월 29일 인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19.12.2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개최.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180&board_id=2
 &cpage=3](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180&board_id=2&cpage=3)에서 2020년 11월 13일 인출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https://www.korchamsg.org/?p=8385>에서 2020년 4월 21일 인출
 아세안문화원.
<https://www.ach.or.kr/user/main>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연합뉴스 (2019.3.8).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국내서 사단법인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43700371?input=1195m>
 에서 2020년 4월 21일 인출
 오피니언뉴스 (2020.1.29). [자카르타 통신] 특이점이 온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75>
 에서 2020년 4월 2일 인출
 외교부 (2017.8.10).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http://www.mofa.go.kr/www/brd/m_4075/view.do?seq=366226&src
 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
 &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http://www.mofa.go.kr/www/brd/m_4075/view.do?seq=3662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소개.
http://www.mofa.go.kr/www/wpge/m_20373/contents.do#twitter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외교부. 재외동포정책 방향.
http://www.mofa.go.kr/www/wpge/m_21512/contents.do에서 2020년

1월 23일 인출

월드코리안 (2019.3.9). 21세기는 아시아시대... 아총연 회장 이취임식 및 '신남방 정책' 심포지엄 성황.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75>에서
2020년 1월 3일 인출

위키백과. 재외동포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C%99%B8%ED%95%9C%EC%9D%B8>에서 2020년 1월 22일 인출

재외교육기관포털. 태국한국교육원

<https://okep.moe.go.kr/koacad/orgInfo/info/viewManage.do>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재외교육기관포털. 한국학교 검색

<https://okep.moe.go.kr/koschl/orgInfo/info/list.do>에서 2020년 4월 20일
인출

재외동포신문 (2018.10.22). '제13회 아시아지역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01>에서
2020년 4월 21일 인출

재외동포재단 (2018).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2018.

http://www.okf.or.kr/homepage/intro/management_notice.do에서
2020년 4월 14일 인출

재외동포재단 사업실명제. 2020-02 한글학교 교사 육성

http://www.okf.or.kr/homepage/info/real_name_business.do?mode=view&articleNo=4271744&article.offset=10&articleLimit=10에서
2020년 10월 8일 인출

재외동포재단 사업실명제. 2020-16 문화사업

http://www.okf.or.kr/homepage/info/real_name_business.do?mode=view&articleNo=4271758&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2020년 10월 12일 인출

정책위키 (2019.11.19). 신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에서 2019년 12월 27일 인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관소개

http://overseas.mofa.go.kr/id-ko/wpge/m_2850/contents.do에서 2020년 4월 2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안내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intrlExchgActIntroForm.yt?curMenuSn=395>에서 2020년 10월 12일 인출

코리아넷. 재외동포단체 지역으로 찾기

http://www.korean.net/portal/global/pg_group_area.do에서 2020년 3월 31일 인출

필리핀 한국문화원. 공지사항. 2020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 모집 안내

<http://phil.korean-culture.org/ko/671/board/25/read/104592>에서 2020년 10월 16일 인출

한국경제신문 (2017.5.22). “스타트업 5000개 육성” 베트남, 동남아 ‘창업 메카’로 뜬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7052154781>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말레이시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7815>에서 2020년 4월 2일 인출

한국수출입은행. 2020년 EDCF 청년인턴 공고 안내문

<https://koreaexim.bzpp.co.kr/recruit/view>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한국외교협회. 재외공무원자녀기숙사

http://www.kcfr.or.kr/bbs/board.php?bo_table=601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한국전통문화전당. 2018사업(전통문화연구개발(R&D) 및 콘텐츠 개발.

http://www.ktcc.or.kr/2020/inner.php?sMenu=2018_2320에서 2020년
11월 23일 인출

호치민시한국교육원. <http://www.klech.org/index.php>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Centre for International(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w
<https://cil.nus.edu.sg/databasecil/2016-2020-plan-of-action-to-implement-the-joint-declaration-on-asean-china-strategic-partnership-for-peace-and-prosperity/>에서 2019년 12월 31일 인출

Cottrell, A. B. (2006). Third culture kids: Challenge to traditional acculturation paradigm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tckresearcher.net/APA%20Cottrell.pdf>에서 2020년 4월 6일 인출
EDCF 공식 블로그. “걸어서 EDCF 속으로, 해외사무소 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dcfkorea&logNo=221444264332&parentCategoryNo=&categoryNo=63&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Globally Grounded. Cross-cultural Kids.

<https://globallygrounded.com/third-culture-kids/>에서 2020년 3월 19일 인출

Google 지도. 말레이시아, <https://goo.gl/maps/DrkT1WzVGFFBS4w5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베트남, <https://goo.gl/maps/43qvbLmg2ckSrAAq6>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싱가포르, 출처: <https://goo.gl/maps/13pgcAEbhpCAKeMSA>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인도네시아, <https://goo.gl/maps/j6K9Fp7MSXZbmbyV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쿠알라룸푸르, <https://goo.gl/maps/yH4pzLwByJCWpRtC6>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태국, <https://goo.gl/maps/tspewEXmDcsSsgGX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필리핀, <https://goo.gl/maps/6erbnYttuppPcTRY8>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Google 지도. 호치민, <https://goo.gl/maps/9hxDf1ndPUTT1ME7A>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Van Reken, R. E. (2019). Third culture kids: Prototypes for
understanding other cross-cultural kids.

<https://www.crossculturalkid.org/who-are-cross-cultural-kids/>에서
2020년 3월 25일 인출

World Family Education.

<https://worldfamilyeducation.com/cross-cultural-kids-third-culture-kids-global-nomads-what-are-they/>에서 2020년 3월 11일 인출

○ — 부 록

- 1. 설문조사지
- 2. 면담조사지
- 3.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부 록

1. 설문조사지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중요한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문 1 태어난 해는 언제인가요?

					년
--	--	--	--	--	---

문 2 성별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문 3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초등학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 4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표시(✓) 해 주세요.

- ① (거주국)현지학교 ② 국제학교
③ 한국국제학교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 5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를 모두 고르세요.

- ① 출생 ② 유학
③ 부모님 직업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 6 거주국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문 7 지금까지 살아본 나라는 총 몇 개국인가요?

() 개국

문 8 처음 외국으로 출국했을 때 년도는?

					년
--	--	--	--	--	---

문 9 현재 국적(신분)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거주국
② 이중국적(거주국+대한민국)
③ 대한민국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0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가요?

- ① 아버지만 ② 어머니만
③ 두 분 다 ④ 두 분 다 아님

문 11 부모님의 직업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보기

- ① 한국에서 보낸 공무원 ② 대기업 직원
③ 중소기업 직원 ④ 사업가
⑤ 자영업자(식당, 상점 등) ⑥ 종교인(선교사, 목사)
⑦ 가정주부 ⑧ 일용직 근로자
⑨ 전문직(교수, 변호사 등) ⑩ 직업 없음
⑪ 기타()

문 12 부모님은 거주국 언어를 잘 하나요?

구분	전혀 못 한다	못 한다	보통이다	잘 한다	매우 잘 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다음은 학생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문 13 현재 다니는 학교 이외에 한글학교 등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기관에 다녀본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문제14]로 이동

문 13-1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기관에 다닌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문 14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문4 ①~② 응답자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1	2	3	4	5
3)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1	2	3	4	5
5)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1	2	3	4	5
6) 한국어를 쓸 수 있다	1	2	3	4	5

문 15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 ① 한국인
- ② 한국계 거주국인(Korean 거주국인)
- ③ 거주국인
- ④ 잘 모르겠음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6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주국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거주국언어를 배우고 싶다	1	2	3	4	5
3) 거주국언어를 잘 한다	1	2	3	4	5
4) 거주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5) 거주국 문화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1	2	3	4	5

문 17 해외로 나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나요?

(문5 ②~④ 응답자만)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 ② 부정적으로 변한 편이다
- ③ 변화가 없다
- ④ 긍정적으로 변한 편이다
-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문 18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4)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느낀다	1	2	3	4	5

문 19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1	2	3	4	5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1	2	3	4	5

문 20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으로서는 살기를 원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00)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1	2	3	4	5
5)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내가 거주국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	1	2	3	4	5

문 21 | 고등학교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나요?

- ① 한국대학 진학
- ② 거주국대학 진학
- ③ 해외(한국, 거주국 제외) 대학 진학
- ④ 취업 또는 사업
- ⑤ 아직 결정 못 함
- ⑥ 기타

문 22 | 학교 졸업 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나요?

- ① 한국
- ② 거주국
- ③ 미주(미국, 캐나다)
- ④ 유럽
- ⑤ 호주, 뉴질랜드
- ⑥ 기타(적을 것: ____)

문 23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1	2	3	4	5
2)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	1	2	3	4	5
3) 친인척들 간에 모임을 자주 한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1	2	3	4	5
5) 부모님은 학교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내 친구를 잘 안다	1	2	3	4	5

문 24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1) '한국의 날'과 같은 한인회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거주국에서 열리는 한인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 25 |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수업이 있나요?

(문4 ①~② 응답자만)

① 예 ② 아니오 → 문 26)으로 이동

문 25-1 | 한국어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 26 |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거주국 언어 수업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문 27)로 이동

문 26-1 | 거주국 언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 27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이곳에 유행되고 있다	1	2	3	4	5
2) 한인교포사회는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3) 거주국 사회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1	2	3	4	5
4)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에게 긍정적이다	1	2	3	4	5

문 28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과거에 한국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 29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1	2	3	4	5
2)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1	2	3	4	5
3) 한국에서 공부 하고 싶다	1	2	3	4	5
4)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1	2	3	4	5

문 30 |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이나 거주국 어느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어느 나라에 가든 새로운 친구와 사귄다	1	2	3	4	5
6) 나는 친구들과 깊게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7)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3	4	5
8) 나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 31 내가 미래에 한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주국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1	2	3	4	5
2) 거주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1	2	3	4	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문 32 미래에 한국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과 한인사회에 대해서 부모님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②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거주국 한인사회가 차세대(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④ 거주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한국 방문 또는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3 거주국에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큰 어려움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초등학교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중요한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문 1 태어난 해는 언제인가요?

				년
--	--	--	--	---

문 2 성별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문 3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 4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표시(✓) 해 주세요.

- ① 거주국 현지학교 ② 국제학교
③ 한국국제학교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 5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를 모두 고르세요.

- ① 출생 ② 유학
③ 부모님 직업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 6 거주국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문 7 지금까지 살아본 나라의 총 몇 개국인가요?

() 개국

문 8 처음 외국으로 출국한 년도는?

				년
--	--	--	--	---

문 9 현재 국적(신분)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거주국
② 이중국적(거주국+대한민국)
③ 대한민국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 10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가요?

- ① 아버지만 ② 어머니만
③ 두 분 다 ④ 두 분 다 아님

문 11 부모님의 직업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보기

- ① 한국에서 보낸 공무원 ② 대기업 직원
③ 중소기업 직원 ④ 사업가
⑤ 자영업자(식당, 상점 등) ⑥ 종교인(선교사, 목사)
⑦ 가정주부 ⑧ 일용직 근로자
⑨ 전문직(교수, 변호사 등) ⑩ 직업 없음
⑪ 기타()

문 12 부모님은 거주국 언어를 잘 하나요?

구분	전혀 못 한다	못 한다	보통이다	잘 한다	매우 잘 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다음은 학생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문 13 현재 다니는 학교 이외에 한글학교 등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기관에 다녀본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문제14)로 이동

문 13-1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기관에 다닌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문 14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문4 ①~② 응답자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1	2	3	4	5
3)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1	2	3	4	5
5)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1	2	3	4	5
6) 한국어를 쓸 수 있다	1	2	3	4	5

문 15 |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 ① 한국인
- ② 한국계 거주국인(Korean 000)
- ③ 거주국인
- ④ 잘 모르겠음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6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거주국 언어를 배우고 싶다	1	2	3	4	5
3) 거주국 언어를 잘 한다	1	2	3	4	5
4) 거주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5) 거주국 문화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1	2	3	4	5

문 17 | 해외로 나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나요? (문5 ②~④ 응답자만)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 ② 부정적으로 변한 편이다
- ③ 변화가 없다
- ④ 긍정적으로 변한 편이다
-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문 18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4)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느낀다	1	2	3	4	5

문 19 |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1	2	3	4	5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1	2	3	4	5

문 20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1	2	3	4	5
2)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	1	2	3	4	5
3) 한인척들 간에 모임을 자주 한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1	2	3	4	5
5) 부모님은 학교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내 친구를 잘 안다	1	2	3	4	5

문 21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1) '한국의 날'과 같은 한인회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거주국에서 열리는 한인청소년 캠프나 연수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 22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수업이 있나요?

(문4 ①~② 응답자만)

① 예 ② 아니오 → 문 23)으로 이동

문 22-1 한국어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 23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거주국언어 수업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문 24)로 이동

문 23-1 거주국 언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 24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1	2	3	4	5
2)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1	2	3	4	5
3)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1	2	3	4	5
4)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1	2	3	4	5

문 25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이나 거주국 어느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어느 나라에 가든 새로운 친구와 사귄다	1	2	3	4	5
6) 나는 친구들과 깊게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7)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3	4	5
8) 나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1	2	3	4	5

문 26 내가 미래에 한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주국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1	2	3	4	5
2) 거주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4) 국제사회에서 나라역할을 통해서 남북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문 27 거주국에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면담조사지

1) 청소년용 면담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청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이나 개인적인 배경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면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안 관련 의견, 개인의 과거 동남아 체류 경험 관련 내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명, 연령, 이메일, 가족구성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월일

성명 : (서명)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출생년도		성별	
처음 해외로 출국했던 년도	() 년	거주국에서 거주기간	() 년		
현재 거주 자격	일시체류자 () 영주권자 () 시민권자 ()				
현재 학교급 및 학교유형	중학교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한국국제학교()	
		국제학교 ()		국제학교 ()	
		현지학교 ()		현지학교 ()	
		기타()		기타()	
가정구분	한-한 가정		한-거주국 가정		기타
당시	인원	() 명			
거주국에서의 동거 가족	가족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남자 형제 () 여자 형제 () 기타()			
e-mail					

부 록 | 425

■ 자기소개 및 (거주국) 이주

- 1-1. 동남아(거주국)로 언제, 어떻게 해서 이주하게 되었나요?
- 1-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있고 어떻게 연락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친구관계, 지역사회활동 및 학교생활

- 2-1. 친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한인 친구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
 - 한국에 있는 친구와도 연락하나요?
 - 현지인 친구는 어느 정도이고 친구관계는 어떠하나요?
- 2-2. 지역사회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학교(한글학교 포함), 지역사회 등에서 공부 이외에 특별히 하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지역에서 친구 또는 현지 주민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 한인회나 지역 한인단체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나요?
- 2-3.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한국학교, 국제학교, 로컬학교 등
 - 현재 다니는 학교의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학교에서의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 혹시 이곳에서 중간에 학교를 옮긴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4. 한국어나 현지어를 배운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요?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현지어를 할 줄 아나요? 어디에서 배웠나요? 현지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 한국어나 현지어는 향후 진로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2-5. 향후 졸업 후 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 부모님이 희망하는 자신의 진로는 무엇인가요?
- 본인은 부모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진로를 위해 현재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과정(배우는 점, 어려운 점 등)은 어떤가요?

■ 한국에 대한 인식과 경험

3-1. 한국 방문 경험

- 이주한 이후 다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나요?
- 한국 방문하고 싶나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2. 한국에 대한 인식

- 동남아(거주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과거(이주 이전)에 비해서 한국과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3. 동남아(거주국)에서 거주 경험의 영향

- 거주국에 살면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거주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변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긍정적, 부정적 등)?

3-4. 동남아(거주국)사람들은 한국, 한국어,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 동남아 거주 한인청소년에 대한 지원

- 4-1. 현재 혹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정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4-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대 청년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청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10대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경험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이나 개인적인 배경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명, 연령, 이메일, 가족구성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연령(만)			성별					
거주 당시 자격	일시체류자 () 영주권자 () 시민권자 ()										
거주 당시 해당국에서 이수한 학교급 및 학교유형	초등 학교	한국국제학교()		중학교	한국국제학교()		고등 학교	한국국제학교()			
		국제학교 ()			국제학교 ()			국제학교 ()			
		현지학교 ()			현지학교 ()			현지학교 ()			
		기타()			기타()			기타()			
가정구분	한-한 가정				한-거주국 가정				기타		
당시 거주국에서의 동거 가족	인원	() 명									
	가족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남자 형제 () 여자 형제 () 기타()									
e-mail											

430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거주국으로의 이주

- 동남아 국가로 언제, 어떤 이유로 이주했나요?
- 이주 당시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작성해 주세요.

■ 거주국에서의 생활

1) 거주국 이후 생활 전반

- 거주국으로 이주 후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장점, 단점, 어려운 점, 쉬웠던 점 등) 만약 중간에 학교를 옮긴 경험이 있다면 왜 옮기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2) 학교생활

-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특히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본인의 한국어 수준은 어떠했고 그것이 향후 한국대학 입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학교에서 현지 언어를 배웠습니까?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어나 현지어는 향후 진로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교류 관계

- 가족관계는 어떠했나요?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구체적인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친하게 지냈던 이웃, 친구, 한인 커뮤니티 등이 있나요? 주로 어떻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류하며 지냈나요?
- 가정, 학교(한글학교 포함), 지역사회 등에서 하는 활동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 한인 친구 또는 현지 주민들과 교류는 얼마나 활발했나요? 그 외 동아리, 종교, 교외 활동 등에 참여했던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4)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5) 당시 진로

- 당시 부모님이 희망했던 자신의 진로는 무엇인가요?
- 본인은 부모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부모님은 본인의 청소년기에 어떤 것을 강조하셨나요? (부모님의 교육관, 자녀교육 태도 등)

■ 거주국 사회와 한국에 대한 인식

- 거주국 사회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데 무엇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주국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 거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구체적인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거주국에서의 경험 중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거주국으로의 이주는 본인에게 큰 변화이자 도전이었을 텐데, 어떻게 적응 하였나요? 적응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 거주국에 살면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거주국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변화한 점(긍정적, 부정적 등)이 있나요?

■ 현재의 나와 거주국 사회의 경험

- 거주국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떠했나요?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후회되는 점 등)
-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지원받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나요?
- 본인의 진로나 꿈,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거주국 체류 경험과 관련성이 있나요?
- 자신과 유사하게 현재 동남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에게 정부가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성인용 면담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청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부모, 한국(한글)학교 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이나 개인적인 배경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면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안 관련 의견, 개인의 과거 동남아 체류 경험 관련 내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명, 연령, 이메일, 가족구성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출생년도		성별	
현재 하시는 일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	() 년		
거주 자격	일시체류자 () 영주권자 () 시민권자 ()				
거주 가족	총 인원	() 명	자녀수	() 명	

■ 거주국 내 한인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 1-1. 한인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 한인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와서 살게 되나요?

• 한인청소년들은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동남아 이주로 인해서 한인청소년들은 한국에 있는 청소년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한인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한인청소년들은 졸업 후에 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나요?(한국, 미주나 유럽, 거주국)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로선택의 경향이 과거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1-2. 한인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한국인, 거주국인, 한국계 거주국인 등)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3. 동남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모들의 자녀교육관

- 2-1. 한인 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2-2. 부모들이 한국국제학교, 국제학교, 현지학교 등 교육기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3. 자녀들 또는 부모 스스로 거주국의 언어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 2-4. 거주국의 가치관과 규범은 한국과 차이가 있나요? 그러한 차이는 자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사회문화적 환경과 한국에 대한 인식

- 3-1. 한국국제학교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 학생 수, 시설, 교육 내용(외국어 또는 거주국어 학습 여부 등), 운영상의 어려움 등

3-2. 한글학교는 얼마나 있고 그 실태는 어떠한가요?

- 학생 수, 교육내용, 운영상의 어려움 등

3-3. 한국국제학교나 한글학교 이외에 한인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있나요?
있다면 그 기관은 어떠한 기관이고 어떠한 활동을 하나요?

3-4. 한인회 등 한인사회는 한인들을 위해서 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거주국에서 바라보는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3-5. 거주국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 한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6. 한국기업은 어느 정도 있고 한인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다른
국가와 차이점은?

■ 동남아 동포청소년 지원 방향 및 지원 욕구

4-1.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거주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한인 또는 한인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4-3. 한인청소년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 한인사회, 한국 정부 등)

-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성장 지원 방안’ 검토 양식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 서면 자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 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중요한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거주 동포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정책과제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식에 간단히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수당 지급 관련	주소(주민등록상)			
	주민번호			
	계좌번호	(은행)		

※ 각 정책과제별로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기능성의 해당하는 란에 √를 해 주십시오.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대응성					정책기여 기능성				
				5	4	3	2	1	5	4	3	2	1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과제영역1 정책성 형성과 한국문화 이해 지원	교차문화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국제학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거주국 사회 내 한국기관들 간 협력 을 통한 한국문화 지원 확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지자체 및 NGO 단체별 한국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회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거주국 사회에서의 문화 적응을 위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한인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등 상담 관련 기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제영역2 거주국 문화 이해 지원	거주국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 육 및 프로그램 실시	한인회, 대사관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아세안-한인동포 청소년 문화이해 프 로그램 운영 확대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대응성					정책기여 가능성				
				5	4	3	2	1	5	4	3	2	1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과제영역3 한글학교 운영 환경 개선 및 사업 확대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한글학교 한글학교협의회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문화체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한국문화원 예술단체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글학교 교사의 모국연수 기회 확대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한글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 사업 발굴운영 지원	한글학교협의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 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한국국제학교 대사관	교육부 외교부										
과제영역4 한국국제학교의 진로 지원 및 역할 강화	진로 진학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등의 지원	한국국제학교	교육부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기관으로서의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	한국국제학교 한인회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한국국제학교	교육부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대응성					정책기여 가능성				
				5	4	3	2	1	5	4	3	2	1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과제영역5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동포 청소년지원	현지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한 국어수업 확대	한국교육원 대사관	교육부 외교부										
	가정 학습용 한글교육 보조교재 정보 제공	한국교육원 한인회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한인회, 대사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과제영역6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렘 확대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자체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지원	한글학교 한국국제학교 한인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계 청소년 캠프 개최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청소년단체를 활용한 세계 및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여성가족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정책영역	정책과제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현안대응성					정책기여 가능성				
				5	4	3	2	1	5	4	3	2	1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과제영역7 동남아 동포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방학 중 한국 방문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진로체험지원 센터	교육부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제공	한인회 한인상공인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주거시설	주재원 기업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교육부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거주국 내 예비학교 운영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협의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남아 지역 진로정보 제공	한인회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동남아 인재 활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	현지 기업	고용노동부										
	동남아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교육부										
과제영역8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문화 개선	한국 및 동남아국가 간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한 교류기회 제공	국내외 초·중·고	교육부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한국국제학교 한-아세안센터	교육부 외교부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지원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Growth and Support Plan for Overseas Korean Youth as a National Future Human Resource III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discovering policy tasks to help overseas Korean youth grow into future talents or human resource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 Korean communities, and ultimately, the global community. Since 2015,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nnually by major continents and countries; in particular, by six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Singapore, Vietnam, Indonesia, Thailand,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which, among the 10 ASEAN countries, are major targets of the New Southern Policy in 2020. A study on the growth support plan for Korean youth in Korea was conducted.

First of all,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th in Southeast Asia and the influence of their environment,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and the third culture kid or cross-cultural kid theory were applied as a framework for the study. Surveys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July 2020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students residing in six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iland, the Philippines, Vietnam, Singapore, Malaysia, and Indonesia. Specifically, an online survey was administered to 150 youths in each country, with a total of 900 respondent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growth environment of Korean youths in Southeast Asia, as well as their identity and awareness of the Korean community were investigated. Additionally, for the qualitative survey, a total of 50 people from three groups were surveyed: 9 to 18-year-old overseas Korean youth living in the six Southeast Asian countries, expert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and a youth group in their 20s who had experienced adolescence in the six Southeast Asian countries.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ice with each person (in parallel with written surveys) and their conte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qualitative study, the researchers discovered policy tasks, and had professional advice from overseas Korean experts and professors of related fields in Southeast Asia, former Southeast Asian Korean international school principals, diplomatic missions abroad, and local Korean language schoolteachers about them. This was followed by expert consultations. Finally, policy

objectives, policy directions, and 30 detailed policy tasks were developed and sugges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ach policy task's response to pending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policy contribution.

Keywords: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 youths, future talent, human resources, growth, Korean identity, ecology, theory of ecological systems, micro-system, medium system, external system, macro-system, time system, third culture kids, cross-cultural kids, Southeast Asia, overseas Korean youths residing in Southeast Asia, Thailand, the Philippines, Vietna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조화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층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 - 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시과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탁과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김병완 작가의 쿼터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 학기제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 협 력 진 ◆

- 안 희 성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관 연구관)
강 윤 모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장)
김 채 영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장)
신 민 철 (주필리핀대사관 영사)
유 완 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
- 김 동 엽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교수)
김 홍 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채 수 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홍 석 준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김 승 오 (前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교장)
김 원 균 (前 호치민한국국제학교 교장)
김 중 호 (前 필리핀한국국제학교 교장)
백 우 정 (前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장)
조 영 록 (前 방콕한국국제학교 교장)
- 조 성 일 (아시아한글학교 협의회 회장)
박 남 수 (필리핀한글학교협의회 회장)
김 경 아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교감)
류 승 완 (말레이시아 한글학교 교장)
신 선 호 (베트남 호치민한국국제학교 교장)
윤 경 남 (베트남 호치민토요한글학교 교장)
강 혜 영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교장)
이 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권 은 숙 (태국 방콕한인토요학교 교장)
정 도 연 (태국 치앙마이한글학교 교장)

◆ 감 수 · 윤 문 ◆

- 김 영 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천 정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인 쇄 2020년 12월 31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866-6384 대표 이호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72-8 93330